

1970년 8월 5일 인쇄

1970년 8월 10일 발행

공군

특집 : 민족 중흥기에 선 우리의 좌표

<제 117 호>



1970



제 11대 참모총장 김두만 대장 취임

제 11대 공군 참모총장 이·취임식이 8월 1일 공군본부 광장에서 정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과 한·미고위장성, 내·외귀빈 그리고 공군 전 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제11대 공군 참모총장 김두만 장군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대장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고 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김두만 공군참모총장이 김성룡 장군으로부터 공군기를 이양받고 있다.
<오른쪽이 김두만 신임 참모총장 왼쪽이 이임하는 김성룡 장군>



훈시하는 정 국방부장관



김 총장이 취임식사를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정확한 임전태세를 갖추고 백전백승의 강한 정신력을 지닌 정병강군이 될 것을 다짐했다.>

「공군」제117호

<권두언> 정훈감 신 찬 (2)

취 임 사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김두만 (4)
이 임 사 공군대장 김성룡 (6)

용화의 덕 숭실대 철학교수 안병욱 (8)
(기) (행) 남들은 잘도 사는데 서울사대 교수 김정진 (19)
— 미국 · 서독 · 일본 —
<수 필> 어느 날 갑자기 여류작가 김자림 (28)

특집: 민족 중흥기에 선 우리의 좌표

우리의 생활자세 작가 김팔봉 (32)
약진하는 한국의 국민정신 문박 · 성대 대학원장 유홍렬 (39)
민족중흥과 민족정신의 방향 철학박사 김재준 (49)
우리의 현실과 생활혁신 고대교수 송기철 (56)
우리의 갈 길 외대교수 이태리어과장 임명방 (64)

미국의 「감」 개입과 「인지」 사태 서울신문논설위원 임동수 (70)
70년대를 맞는 우주개발 전망 김홍식 (78)
미국의 핵(核) 전략이론 서희석<역> (94)
군사적으로 번져가는 미 · 소 우주경쟁 김홍선<역> (111)
예상되는 미 · 소의 주공방어무기 한국일보 과학부장 심승택 (123)

표지화.....> 진 광 선
차례화.....>
사진화보 : 표지 2-3면 차례뒤

미사일의 역사 문정식 (263)
핵 확산 방지조약 후의 세계 김현철 (273)
미 기동타격 사령부 이준구 (132)
—미국이 자랑하는 막강한 기동 군사력—
낙하산 구조사의 길 김종익 (284)
의거조작을 해부한다 한국일보 논설위원 윤중현 (140)
—민간기 YS-11호의 납북과 복귀의 계략—
능률이란 무엇인가? 중령 손용기 (147)
집단생활 부적응자의 지도방법 고대 교육대학원장 왕학수 (151)
태권도의 올바른 인식 6단 김병운 (162)
애국자의 참 모습 서울 신대교수 허경삼 (171)
우리나라의 무역관리 제도 동국대 교수 전창원 (176)
(시) 바닷가 소묘 배영수 (282)

★군중 코너★ -

애국심과 신앙심 신부 신윤후 (186)
상담업무 소고 군목 최원진 (190)
길의 의미와 진리 군목 송종철 (195)
승리의 팔 군목 백승진 (197)

전쟁 속의 사상 유성준 (199)

(단) (편) 인간세련 김근호 (210)
의 후 박용구 (218)
밝혀진 등불 이종덕 (227)
지구 최후의 날 김성환 (241)

공군

<제 117호 : 1970년 제 3호>

<비매품: 무단 전재 금>
발행처: 공군본부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 공군대령 신 찬
인쇄처: 공군교재창
인쇄인: 공군중령 김병로
편집실: TEL 206-3251, 69-3511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공군」지에는 군보안 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의 적 공산계열에서는 이와 같은 책자들도 저들의 전략정보자료로서 이용코자 혈안이 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온갖 수단으로써 간첩들의 손에 의하여 공산진영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간행물의 독자 제위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부지중에 적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 훈 감 실

<권두언>

공군의 체통

정훈감 공군대령 신 찬

북괴는 우리의 평화통일방안마저 거부했다. 그들이 이제까지 떠들어 온 평화통일론이 무력침략을 가장한 한낱 기만선전이었음이 다시금 명백해졌다.

물론 이러한 공산침략자들의 교활한 술책을 예기치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새로운 결의로서 즉각 발진할 수 있는 임전태세를 굳혀야 한다.

우리 공군력은 지난 수년간 현저하게 증강되어 왔다. 하지만 전력증강이란 항공기의 증가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 장병의 정신무장이 강화되는 것도 전력증강이요, 전력 발휘를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공군력을 증강하는 것이다.

우리 공군은 기술군이다.

다시 말해서 공군은 과학의 최첨단인 하늘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막대한 화력으로 적의 중추부분을 파괴하는 전투력의 주체이다.



또 이와 같은 공군의 사명은 현대전의 성격으로 개전 초에 더욱 중요시된다. 즉 공군과 총 역량은 언제나 국방의 핵심목표로 집중 발휘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총 역량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도「전원일치」의 단결과「전향적()」노력이 없어서는 안 된다.

즉, 전자는 대아(大我)에 살려는 자아 희생심과 상경하에하고 동고동락하는 전우정신을 바탕으로 엄정한 지휘통솔과 군기 아래 자발적으로 복종, 협력, 참여하려는 데서 결실된다.

그리고 후자는 장병 모두가 국방의 목표와 사명감, 책임감에 투철해지고 자기 직책에 최선을 다하려는 데서 솟아나는 지혜로운 정력과 활동을 바탕으로 강인한 방위의지와 전기연마에 전력하는 한편, 우리 역량 발휘에 저해가 되는 일체의 요소를 과감하게 제거하는 데서 이룩된다.

이 대단합(大團合)과 전향전진(前向前進)의 기치야말로 우리 성년공군의 영광스런 체통이 될 것이다.

취 임 사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김 두 만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 국방위원장님, 역대참모총장님, 「마이켈리스」장군, 내외 귀빈, 그리고 친애하는 공군장병 여러분! 아직 부덕한 점이 적지 않은 본인이 이제 공군의 지휘권을 물려받게 된 것은 위로는 최고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각하의 은덕과, 결으로는 평소 본인을 지도 편달해 주신 여러분의 도움이라 생각하며 그 지없는 영광으로 여기는 동시에, 한편, 긴장과 격동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70년도 초기에 이 중책을 맡게 된 본인은 그에 따른 사명과 임무가

온 국민 앞에 비상한 것임을 가슴깊이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5~6년간에 이룩한 괄목할 만한 우리의 근대화 작업을 방해하며 무력 적화통일을 꿈꾸는 북괴의 도발과 침투공작은 날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대한 위협 요소는 날로 증가하고 언제 폭발할지도 모를 긴장상태에 놓여 있음을 생각할 때 이는 곧 우리공군이 출격 직전에 놓여 있는 사태나 다름없다고 하겠습니까.

이런 계제에 공군창설과 더불어 누구에게도 못지않은 역전의 용장이요, 덕성 높은 공로자의 한 분이시며, 재임중「팬텀」공군시대를 기록하신 김성룡 장군과 작별의 인사를 나누게 된 것은 못내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김성룡 장군은 공군을 떠나실지라도 계속 우리를 지도 편달해 주실 것으로 믿으며 김장군과 그 가정의 앞날에 많은 영광과 행복이 있기를 전장병과 더불어 기원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장병 여러분!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공군의 사명과 역할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되새겨 볼 것을 제의합니다. 공군은 명백히 현대 전력의 핵심체입니다. 공군력이 전쟁의 승패를 지배하고 국운을 좌우했던 것은 2차대전 이래「영국전투」를 비롯하여 한국 동란,

그리고 중동 6일 전쟁에서와 같이 오늘날의 전사가 역력히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시 이 모든 전사의 교훈을 거울삼아 공군의 일원으로서 공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정병강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병강군의 요체는 무엇보다도 강한 정신력에 있습니다. 즉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군 전력에서 빠질 수 없는 구성원임을 명심하고 강인한 의지와 인내로서 전기연마에 진력해야 할 것은 물론 현재 과학문명의 최첨단을 걷는 공군의 장비를 십이분 구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량을 몸에 익힘으로써 전투의 주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종사를 비롯한 전 장병이 백전백승의 신념을 갖고 노력 정진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전력요소는 없으며, 이것이 또한 우리 자주 국방력의 주축임을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공군의 정신이 건재하는 한 우리의 모든 임무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이며, 우리의 전력은 일대 비약을 기하게 될 것을 본인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병 여러분!

지금 우리는 수적으로 우세한 공군력을 배경으로 한 북괴의 침략위협과 간담없는 남침기도에 직면하여 촌각의 여유나 방심도 허용치 않는 입전태세를 갖출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적이 노리는 제1의 공격 목표이며, 유사시나 평시를 막론하고 제일먼저 최첨단에서 적과 대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하한 제한과 여건 하에서도 창의와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신속 정확한 비상태세, 발전태세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각적인 출동 태세는 공군력이 지닌 특성 중에서도 핵 이 되는 요소이며, 평소의 모든 훈련과 준비 그리고 피땀 어린 노력과 군 운용이 이 점에 집약되고 발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인은 전공군의 마음의 자세와 역량이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초점적 과제, 즉 「정병강군」을 이룩하고 「입전비상태세」를 확립하는데 결집해야 할 것을 강조해 둡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군의 총역량을 국방의 핵심목표로 집중 발휘케 하자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 순간부터 장병 여러분과 더불어 이상 말씀드린 소신과 지침을 구현코자 열과 성을 다하여 계속 매진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항상 공군을 성원 격려해 주시는 여러 선배와 상사님 그리고 육·해군 및 해병대 여러 전우들의 협조와 미 공군의 우의에 넘친 지원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취임 인사를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70년 8월 1일



국방부장관님, 국방분과위원장님, 「마이켈리스」장군, 육·해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역대참모총장, 내외귀빈, 그리고 친애하는 공군장병 여러분!

오늘 본인은 반평생의 조종사 생활과 공군참모총장의 소임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공군력증강」과 「전투태세의 완비」를 목표로 공군참모총장의 중책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음은 오로지 대통령각하를 비롯한 상사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육·해군 해병대와 유엔군 및 미 공군

의 적극적인 협력의 덕분으로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회고하면 6·25동란 당시 무장없는 소수의 경비행기로서 공산침략에 대항하던 우리 공군이 오늘날 마하2「팬텀」공군으로 자라나는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 푸른 제복의 생애를 마치게 되었음을 생각할 때 갖가지 추억과 더불어 새삼 감개무량함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 2년간은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영명하신 대통령각하의 지도하에 온 겨레가 민족중흥의 역사적 성업달성에 총망라한 중요한 시기였으며 우리 공군으로서도 여러 가지 새롭고도 어려운 과제들을 수행해온 실로 보람찬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오랜 숙원이던 「팬텀」신예기의 도입을 비롯하여 기지의 확장 및 요새화와 각종 사태발전에 대비할 수 있는 전술전기를 꾸준히 연마 하여 왔으며, 일찍이 겪지 못했던 수많은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여 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장병 여러분의 정성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이룩되었음을 생각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전우애로 굳게 뭉쳐 온갖 고난을 이기며, 밤낮의 구별 없이 선전분투하여 온 각급지휘관, 참모 그리고 조종사, 관제사, 정비사를 비롯한 전 장병 여러분!

우리 선배, 동지들의 희생과 노력이 공군 건설에 참되고 슬기로운 초석이 됐듯이 그동안 본인과 더불어 신고간난을 헤치면서 모든 정성을 바쳐온 제관들의 헌신적인 노력 역시 공군의 역사 속에 길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강병 여러분!

하나의 발전은 보다 큰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내일의 영광을 위한 분발의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까지 이룩한 전과에 만족하기에 앞서 지속적인 증강을 위하여 부단히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더욱이「공군력증강」이 시급한 이 때에 제관들에게는 더욱 벅차고 중대한 임무가 부과될 것이나 지금까지 보여준 여러분의 정성과 노력으로 능히 이를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와 같이 중대한 시기에 영공방어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음을 섭섭하게 생각하는 바이나 한편 공군 초창기부터 언제나 생사고락을 함께 나눈 전우이며, 평소 존경하던 김두만 장군에게 공군의 지휘권을 인계하게 된 것을 더 없는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남아 있는 제관들은 앞으로 신입총장의 풍부한 경험과 원만한 인품, 그리고 탁월한 지휘통솔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면 성공적인 임무의 완수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인은 수많은 추억을 간직한 채 오랜 동안 정들여 사랑하던 공군과 마음의 고향을 떠나 여러분과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미더운「팬텀」기에 몸을 싣고 태극표지도 영롱하게 조국 하늘을 날오는 젊은 보라매의 용자를 눈에 그리면서, 몸은 비록 군문을 떠날지라도 일찍이 푸른 하늘을 누비던 그 기백과 정신으로 조국 근대화의 대열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바지할 각오입니다.

담담하게 자라나는 공군, 자주국방을 위한 온 국민의 희망과 기대에 호응하여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는 미더운 앞날의 공군의 모습을 대할 때 그곳에서 젊음을 바쳤던 여생의 보람을 찾고자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장병 여러분!

20여년의 군 생활을 마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책임과 충성과 명예를 존중하던 군인의 길, 그것은 진정으로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택할 수 있는 가장 떳떳하고 보람 있는 길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장병 여러분의 건투와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는 동시에 공군의 영원한 발전을 비는 바입니다.

끝으로 영공방어를 위하여 애석하게 산화하신 전우들의 명복과 그 유가족들의 앞날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고별의 인사로 대하는 바입니다.

1970년 8월 1일



안 병 욱
〈숭실대·철학교수〉

영화는 사회의 기름

생각과 성격과 환경이 각각 다른 여러 개인이 모여서 사회의 공동생활을 할 때에 그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원리의 하나는 영화의 덕이다. 영화는 곧 사회의 번영의 원리요 인간의 평화의 기본이다.

영화는 기름에 비할 수 있다. 기계가 부드럽게 돌고 잘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하다. 기름이 없으면 기계는 거칠게 마찰하여 불쾌한 소리를 내고 고장을 일으킨다.

쇠와 쇠가 마주 부딪치고 돌과 돌이 서로 마찰할 때 참으로 듣기 싫은 소리가 우리의 고막을 날카롭게 자극한다. 기름이 없는 기계는 기계의 성능과 구실을 다 하지 못할 뿐더러 기계를 파괴로 이끈다.

기계의 기름에 해당하는 것이 곧 사회의 영화다. 영화는 사회의 기름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조절하는 것이 영화의 원리다.

영화가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고, 영화가 없는 학교는 평화로운 학교가 아니요, 영화가 없는 군대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

영화가 없는 사회는 곧 기름이 없는 기계와 같다. 우리는 영화의 기름이 때마침 사회에서 평화와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영화의 덕을 잃어버린 대인 관계는 서로 대립과 불화를 일으키고 삶의 기쁨과 보람을 빼앗는다.

나의 존재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고 상대방의 존재가 나에게 기쁨이 될 때 우리는 인간다운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생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맹자란 책에

「천시(天時)는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하는 유명한 말은 생활에서 융화의 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사회적 대인관계를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융화의 원리는 어떠한 본질과 구조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융화의 구조

융화는 조화의 한 형태요, 조화는 곧 생명의 원리다.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개의 물건이 존재할 때 갑의 존재 때문에 을의 존재가 부정되거나 해를 입지 않고 또 그와 반대로 을의 존재 때문에 갑의 존재가 위협을 느끼거나 말살을 당하지 않고 갑의 존재와 을의 존재가 서로 아름답게 공존하면서 각각 상대방의 존재를 돕는 경우에 갑과 을의 조화의 원리 속에 있다고 우리는 말한다. 조화는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원리다. 나 때문에 네가 희생되고 너 때문에 내가 부정되는 관계는 조화의 관계가 아니다. 조화는 나와 네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면서 서로 공존 공명하는 관계다. 그러므로 조화는 생명과 번영의 원리다.

우리는 조화의 원리에서 독립성의 원리와 공존성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조화의 세계는 개성적인 세계인 동시에 공영적인 세계다.

나는 내 노래를 부르고 너는 네 노래를 부르라. 너는 네 소리를 지르고 나는 내 소리를 지르자. 그러나 내 노래가 네 노래를 방해하거나 네 소리가 내 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아름답게 어울릴 때 조화의 원리가 성립한다.

융화는 조화의 한 형태다. 인간과 인간과의 조화의 상태를 우리는 특히 융화라고 일컫는다. 융화는 조화된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나와 너 사이에 아름다운 조화가 이룩될 때 우리는 융화 속에 있다고 한다.



융화는 조화의 한 형태이므로 조화의 원리 즉, 공존성의 원리를 가져야 한다. 논어에「君子는 和而不同하고, 소인은 同而不和」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이 말은 융화의 원리를 잘 설명 한 말이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원리 위에 서 있다. 우리는 저마다 얼굴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듯이 각각 개성이 한결같지 않고 사고방식이 십인십색이요. 보고 느끼는 바가 천차만별이다.

꼭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도 감명이 서로 다르고 감명을 표현하는 말과 방식이 또한 다르다. 우리는 만사에 같을 수도 없고 또 같을 필요도 없다. 저마다 저다운 개성을 갖고 저다운 특색을 지닌다. 우리는 상대방의 개성과 특수성을 서로 인정하고 남과 평화롭게 융화 속에 살아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사고방식, 동일한 복장, 동일한 취미, 동일한 인생관, 동일한 철학과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독재사회의 방식이요, 전체주의의 태도다. 그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원리가 아니라, 민주주의는 확실성의 원리가 아니고 다양성의 원리 위에 선다.

우리는 저마다 화할 필요는 있어도 같이 할 필요는 없다. 저마다 제 개성대로 살아야 한다. 서로 부화뇌동만 일삼고 남과 융화할 줄 모르는 것은 소인의 태도요, 비민주적 방식이다. 그래서 논어에 말하기를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초인은 동이부화(同而不和)한다고 하였다.

화이부동은 그대로 민주주의의 철학이다. 표현은 비록 낯은 학문이지 만 그 표현 속에 담겨진 사상은 곧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를 드러내었다.

우리는 서로 화하되 같이할 필요는 없다. 융화는 서로 화하는 세계지 하나로 같이 하는 세계가 아니다. 융화의 전형적 원리를 우리는 심포니에서 볼 수 있다.

심포니에는 여러 악기가 저마다 제소리를 내되 그 소리가 각각 판소리를 부정하거나 해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어울리고 서로 도와서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의 체계를 이룬다.



바이올린은 흐느끼는 소리를 내고 나팔은 우렁찬 소리를 발하고 피아노는 은은한 음을 표현한다. 저마다 제소리를 내지만 전체가 한 소리처럼 조화의미를 발한다. 심포니에서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고 통일성 속에 다양성이 있다. 사회의 대인관계도 하나의 심포니를 이룰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겠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고 통일성 속에 다양성이 있는 사회다. 융화는 민주주의적 인간관계의 기본적 질서다. 융화의 음은 융해의 음으로서 물체가 녹는다는 뜻이다. 차가운 얼음이 따뜻한 햇볕에 녹아 버리듯이 나와 너 사이의 냉랭한 대립과 불쾌한 대립이 녹아버리고 서로 화목한 사이가 되는 것이 곧 융화다.

화목한 인간관계는 훈훈한 바람이 부는 사회다. 춘풍태탕한 인간적 질서다. 화목한 부부, 화목한 형제, 화목한 친구, 화목한 가정, 화목한 사회 그것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또 어디 있으랴. 행복이란 별 것이 아니다. 남과 화목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서로 아름답게 어울린 인간관계다.

우리는 융화 속에서 남과 화목하게 지날 때 서로 양보할 줄을 알고 서로 협동할 줄을 알고 서로 겸손할 줄을 알고 서로 인내할 줄을 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는 유명한 사랑의 장(章)이 나온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화목은 사랑의 한 형태요. 한 표현이다. 사랑이란 말은 화목 또는 융화란 말로 옮겨 놓아도 무방하다.

융화는 인간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덕의 하나다. 우리는 정의니, 지혜니, 용기니, 사랑이니, 경건이니 하는 여러 가지 덕의 체계를 크게 나누면 개인적 요소가 강한 덕과 사회적 요소가 강한 덕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개인적 덕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사회적 덕이라고 하겠다. 경건이니, 순결이니, 절제니 하는 덕은 비교적 개인적 요소가 강한 덕이요. 정의니, 융화니



하는 덕은 비교적 사회적 요소가 강한 덕에 속한다.

왜냐하면 경건이나 순결은 개인의 도덕 생활에서 보다 더 비중이 큰 덕이요. 정의나 융화는 사회적인 대인관계에서 보다 더 중요성을 갖는 덕이기 때문이다. 전자는 주로 인간의 개인생활을 규율해 나아가는 덕이요, 후자는 주로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해 나아가는 덕이다.

인간은 날 때부터 사회적 존재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사는 것이요. 사회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남과 사회적 대인관계를 갖는다는 뜻이다. 인간은 곧 관계다. 우리는 여러가지 사회적 관계가 교차되는 중심점에 서 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의 가족인으로서 누구의 부모 또는 누구의 자식으로 서 부자지간을 이룬다. 또 누구의 아내 또는 남편으로서 부부지간이라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누구의 스승 또는 제자로서 사제지간을 이루고 또 누구의 벗으로서 친구지간을 이루고 또 민족사회의 일원으로서 동포지간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을 인이라고 하지만 특히 인간이라고 하는 데는 깊은 의미가 있다. 간은 무엇과 무엇과의 사이 또는 관계로서 복수(複數)를 예상하고 사회를 의미한다.

인간의 간(間)은 부부지간의 간이요, 친구지간의 간이요, 동포지간의 간이다. 간을 떠나서 인간을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은 간적 존재(間的 存在)다. 누구와 부부지간도 아니요. 사제지간도 아니요. 친구지간도 아닌 그러한 인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그러한 인간이 있다면, 우리의 관념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추상적 인간이다.

구체적인 현실의 인간은 언제나 누구의 아들 또는 딸 또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로서 또 누구의 친구 혹은 동료로서 언제나 간적 존재다.

사람을 특히 인간이라고 한 데는 이렇듯 깊은 의미를 지닌다. 간은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인간은 간의 존재요, 간의 원리가 곧 융화다. 대인관계의 기본적 원리가 융화의 덕이다. 우리는 모두 융화 속에서 서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한다.



인간은 관계의 체계다. 인간관계는 세 개의 기본적 질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인간과 신과의 관계요, 둘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요, 셋째는 인간과 자연 또는 물건과의 관계다. 인간관계는 결국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의 세 원리로 요약된다.

인간과 신과의 관계는 한 마디로 말해서「위어로」의 관계다. 유한한 피조자(被造者)인 인간은 영원한 절대자인 신에 대해서 경건히 고개를 숙여야 한다. 신은 창조자요, 인간은 피조자다. 피조자는 피조자다운 차원(次元)과 자세와 위치가 있다. 대신 관계는 융화의 관계가 아니요, 경배(敬拜)와 신앙의 관계다. 절대자를 믿고 우러러 보는 것이 인간다운 자세다. 인간과 자연 또는 물건의 관계는 곧 밑으로의 관계다. 인간은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목적을 위해서 자연을 지배하고 물건을 이용한다. 자연과 물건은 인간의 생활을 위한 재료요 수단이요, 도구다. 인간은 자연이나 물건에 대해서 이용의 관계를 갖는다. 이것이 인간과 자연의 기본적 질서다.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옆으로의 관계다. 그것은 같은 인간끼리의 평등한 횡적 관계다. 정신적인 「위어로」의 관계하고도 다르고 대물적(對物的)인 「밑으로」의 관계와도 틀린다. 그것은 신처럼 믿고 우러러보는 관계도 아니요, 물건처럼 지배하고 이용하는 관계도 아니다. 대인관계는 나와 너와의 대등한 인격적 관계로서 융화의 원리가 지배하는 관계다.

독일의 유명한 사상가 마틴 부버는 나와 너(Ich und Du)라는 책에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 복합어는「나·너」(Mi und Du)라는 말과「나·그것」(Ich und ES)이라는 말이라고 하였다. 인간과 물건과의 관계는 「나·그것」이라는 근원어로 요약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나·너」라는 근원어로 표현된다.

우리는 물건을 가리킬 때 너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또는 그것이라



고 한다. 물건은 것의 세계다. 것은 인격이 아니고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만 너 또는 당신이라고 한다. 너 또는 당신이란 말은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인격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람은 물건의 차원에 속하지 않고 인격의 차원에 속한다.

융화는 나와 너와의 인격적 관계에서 성립한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사람을 언제나 인격으로서 목적으로서 다루지 절대로 수단으로서 물건처럼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인격주의의 윤리를 역설했다.

인격을 인격으로서 존중할 때 융화의 덕이 성립한다. 사람을 수단으로서 물건처럼 다루려고 할 때 융화의 원리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만인의 벗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저마다 존귀한 인격으로 대접할 수는 있다. 인간이 만 인간을 물건처럼 수단으로 다루려고 할 때「나·너」의 관계가「나·그것」의 관계로 전락한다.

융화의 질서가 이용의 질서로 타락한다. 그것은 인간의 커다란 비극이다. 우리는 현대의 이익사회에서 이러한 비극을 왕왕 경험한다.

융화는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덕의 하나다. 우리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융화의 질서를 세우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나 인간생활의 현실은 융화의 세계보다도 비 융화의 세계가 더 많다.

그러면 융화를 가로막는 요소는 무엇이며 융화를 이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융화의 기본 조건은 개성의 존중이다. 상대방의 의견과 인격을 응분(應分)하게 존중하는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개성적 존재다. 개성이란 그 사람의 고유한 독자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남과 대치할 수 없는 인격이라는 뜻이다.

천상천하에 하나 밖에 없는 독자적 생명을 우리는 개성이라고 일컫는다. 사람은 지위가 높건 낮건 재산이 많건 적건 저마다 저다운 인격의 향기와 빛깔과 보람을 지닌다.

민주주의는 개성의 세계요, 다양성의 사회다. 둥근 돌은 둥글어서 쓸모가



있고 모난 돌맹이는 모가 저서 쓸 자리가 있다. 사람은 저마다 취미나 사고 방식과 인생관이 다르다.

개성의 존중은 곧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느껴져도 그것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융화를 깨트리는 길이다.

내 철학, 내 신념, 내 사상, 내 의견을 남에게 강요하는 일처럼 인간의 융화를 방해하는 일은 없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론 신념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념을 갖는 것과 동시에 나의 신념에 혹시 잘못된 요소가 있거나 없는가 하는 겸손과 회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 신념의 정신과 회의의 정신이 서로 조화되어야 한다. 회의의 정신이 전혀 없고 신념의 정신만으로 전후일관 할 때 독단주의의 노예가 되기 쉽고 광신주의의 사도가 되기 마련이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다. 불완전한 인간의 불완전한 머리에서 나온 사상은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자기의 사상만이 옳고 남의 사상은 모두 틀렸다. 나의 신념만이 정당하고 타인의 신념은 그릇된 거다. 이러한 사고방식처럼 위험한 것은 없다. 세상에 무엇이 해롭고 무섭다고 해도 광신주의처럼 해롭고 무서운 것이 없다. 우리는 절대주의 철학을 배격해야 한다. 인간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것은 상대주의의 철학이다.

우리는 종교의 도구마다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에서 또 어떤 종류의 정치 철학에서 무서운 광신주의와 편협한 독단주의를 가끔 본다. 인간의 사고방식과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독단적 광신주의와 편협한 절대주의의 철학을 물리쳐야 한다. 그것은 융화의 가장 큰 적이다.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의 정신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회의의 철학자 몽테뉴의 정신도 중요하다. 얼핏 보기에서 서로 반대되는 것 같은 이 두 개의 정신이 서로 아름답게 조화될 필요가 있다. 철학자 러셀은 이렇게 말한 일이 있다.



『내 생각에 세상의 걱정거리의 하나는 어떤 것을 독단적으로 믿어버리는 습관이다. 또 이러한 모든 일은 썩 의심스러운 것이고 썩 이성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이 덮어놓고 옳다고 확신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견을 의심이라는 잣대로 재박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한 신념을 갖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의 의견을 회의라는 척도로 재어 보는 겸손이 또한 필요하다.

나의 의견을 남에게 강요하고 나의 생각만을 옳다고 고집하는 일처럼 인간의 융화를 좀먹는 것은 없다. 우리는 자기의 의견을 존중하는 만큼 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자기 생각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남의 생각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서로의 융화를 도모하는 길이다.

나의 의견과 남의 의견이 서로 상치할 때 우리는 남의 의견을 조용히 듣는 아량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아껴서는 아니 된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하는 일이다. 이해를 영어로 언더스탠드(Understand)라고 한다. 어의적(語義的)으로 언더스탠드라는 말은 인식하려는 대상 밑(Under) 선다(Stand)는 뜻이다. 이해란 사물에 밑에 서는 것이다. 사물의 밑에 설 때 이해가 생긴다.

진정한 이해는 진정한 융화와 기초다. 인식은 사랑을 낳고 사랑은 인식을 깊게 한다. 사랑이 없으면 이해가 불가능하고 이해가 부족하면 사랑이 적어진다. 서로의 입장과 주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인간적 융화를 낳는 길이다.

「비웃지 말고, 통탄하지 말고, 또 혐오(嫌惡)하지 말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철인(哲人) 스피노자의 말은 깊이 음미해 볼 만한 계명이다.

융화는 이해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간다. 민주주의는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상대주의의 세계관과 다양성의 원리 위에 선다. 다양 속에 통일이 있고 통일 속에 다양성이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개인의 사회이기 때문에 관용의 정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개성의 존중은 구체적으로 관용의 덕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서로 관용할 줄 알아야 한다. 관용이 융화의 기본이다. 관용 없는 곳에 융화가 있을 수 없다. 관용은 결코 무절조와 무원칙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널리 포용하는 태도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질수록 이해관계에 있어서 또 정치적 의견이나 종교적 신앙에 있어서 또 도덕의 원칙과 인생과 취미에 있어서 천차만별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대립적 관계 더 나아가서는 절대적 관계를 갖게 된다. 그러면 그럴수록 관용의 원리가 필요하다.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융화의 봄바람이 불고 화목의 꽃이 피려면 관용의 원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도덕으로서 요청된다.

논어에「備를 한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無求備於一人)는 유명한 말이 있다. 이것은 주공(周公)의 말이다.

한 사람의 인간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기를 바라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다. 사람은 자기의 불안전과 결점은 망각하고 남에게 대해선 완전무결을 요구하기 쉽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무결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하느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할 수는 없다. 우리는 융화를 이룩하려면 한 사람에게 완전무결을 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결점을 지니는 불완전한 존재다. 남의 결점을 보자면 끝이 없는 일이다. 완전의 척도에서 볼 때 사람은 모두 낙제다. 그러므로 남과 융화 속에 지내려면 될수록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타인의 결점에 대해서는 관용의 정신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

「군자는 성인지미요, 불성인지악」(君子成人之惡)이라는 공자의 말은 이것



을 두고 한 말이다. 군자는 남의 장점을 보고 키워주되 남의 단점은 들추어 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화(人和)를 위한 귀중한 계명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융화를 위한 조건으로서 개성의 존중과 상호 이해와 관용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역설하고 싶은 것은 저마다 어엿한 인격으로서 자기의 주체성이 확립되어 있어야만 남과 융화할 수 있고 또 융화의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때 남의 행복을 질투하고 남의 성공을 시기하기 쉽다. 남과 마주서기를 꺼리고 자기의 조그만 동굴 속에 들어 박혀서 비굴과 자학과 불평의 종이 되기 쉽다. 이러한 의식과 감정에 지배될 때 남과 융화할 수 없을뿐더러 융화하려는 의지마저 잃어버린다.

내 마음이 기뻐야 남에게 따뜻한 말을 던질 수 있고 내 마음이 행복해야 남에게 즐거운 미소를 지을 수 있다. 내가 내 생애 보람과 자신을 느낄 때 남의 성공을 축복하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거지는 남을 도울 수 없다. 스스로 강한 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

마음이 불평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기 어렵고 양보하기 어렵고 관용하기 어렵다. 이해와 양보와 관용이 없는 곳에 융화의 꽃은 피지 않는다. 우리는 남과 융화하기 위해서도 스스로 행복해야 하고 나 자신의 떳떳한 주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어엿한 인격으로서 견실한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남과 진정한 융화를 갖기 어렵다. 나와 너와의 성실한 인간적 사점에서 춘풍태당한 융화의 꽃이 필 수 있다.

× × ×

기행

남들은 잘도 사는데
-미국 · 서독 · 일본-

김정진
(서울사대교수 · 독어독문학)



<필자>

1. 항공기 여행

필자는 원래 세상에서 보기 드문 겁쟁이다. 작년 12월 15일 김포공항을 떠날 때는 마치 달나라를 탐험하러 가는 우주인처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장도에 올랐다.

사실 육상이나 해상의 교통사고에 비교하면 공중사고는 문제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적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자의 선입관념은 쇠덩어리가 하늘을 나는데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더군다나 떠나기 며칠 전에 강릉 · 서울 간 KAL여객기 납북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안감은 한층 심했던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노스웨스트」여객기에 몸을 실은 다음「인명은 재천」, 즉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귀절을 외우면서 정신을 통일했더니 이제까지의 불안과 공포감은 얼음이 녹듯이 사라지고 신비스러운 체험이 생기면서 죽음과 삶을 초월하게 되었다. 필자는 과거 태평양전쟁 때 학병으로 일본육군에 입대하여 만 2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지만 엄격한 군대생활을 통해서 귀중한 정신수양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바로 그 순간에 그 당시의 일본교관의 말이 번개처럼 머리 속에 떠올랐다. 싸움터에서 악착같이 살려고 애 쓰는 사람은 죽고 그 반면 목숨을 내걸고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은 기적으로 사는 법이라고. 아난게 아니라, 커다란 비관은 커다란 낙관에 통하는 모양이다. 필자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 다음 도쿄에서 서독의「루브트한자」여객기로 갈아 타고 알라스카의 안코라즈에서 잠시 머무른 다음 쾰른 일어붙은 북극의 상공을 가로질러서 어둠의 장막 속을 뚫고 덴마크의 코펜하겐을 거쳐서 서독의 함부르크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17일 새벽이었다.

2. 서독의 부흥

필자는 지금부터 15년 전에 서독정부 초청으로 만2년 동안 유서 깊은 하이델베르크에서 유학한 일이 있었다. 이번 두 번째로 역시 서독정부의 초청을 받고 다시 그리운 서독 땅을 밟게 되니 흘러간 왕년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오고가서 감개가 자못 무량하였다.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매년 각종 공장 고층건물 · 고속도로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하물며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한 서독의 발전상을 보고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작년 가을에 실시된 서독 총선거에서 사회민주당(SPD)이 승리하여 자유민주당(FDP)과 합작하여 연립 내각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브란트정부는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일반 대중의 복지를 위해서 의욕적으로 사회정책을 추진시킨 결과 아주 명량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더군다나 앞서 기독교민주당(CDU)이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근로자의 경영참가문제 같은 것은 획기적인 것이어서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브란트정부가 노소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물론 브란트정부가 과거의 그릇된 국수주의를 깨끗이 청산하고 국제주의를 내걸어 외교공세를 나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구미 각국을 방문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좋다. 그러나 브란트정부는 너무나 의욕이 넘쳐흐른 나머지 소련 또는 핀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구 위성국가들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사실은 아무래도 잘못된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논어에도 지나친 것은 아직 미치지 못하거나 마찬가지로 말쑥이 있지 않는가! 더군다나 동독과 자주 접촉을 거듭하고 동서독 수상회담을 열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우리나라의 6 · 25사변과 같은. 무자비한 공산주의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서독 국민들은 국토가 동서로 양단되었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 겪었던 미 · 소 공동위원회 남북협상 판문점회담의 실태가 어떤 것인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따라서 그들은 과거에 우리나라에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주었던 소위 동백림 공작단사건 같은 것에 대해서 실감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좌우간 브란트는 멋모르고 허울 좋은 이상주의의 꿈속에 완전히 도취되어 마치 서커스의 곡예사처럼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감행하고 있다. 동독에서는 국제법상의 국가승인을

<기행>

해달라고 서독을 조르고 있는데 거기에는 무서운 흉계와 음모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하루속히 브란트수상이 깨닫고 그릇된 꿈에서 깨어나 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서독이 얼마나 민주주의에 철저한가 그 두드러진 예를 하나 들어 보기로 하겠다. 전 서독국회(하원)의장 게르스텐 마이어씨—그 분은 몇 해 전에 우리나라 국회의장 이효상씨의 초청을 받고 한국에 다녀간 일이 있었다—가 의장 재직 시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탄 일이 있었다. 사실 게르스텐 마이어씨는 나치스 독일시대에 학위를 탈 예정이었는데 제2차대전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놓쳤던 것이다.

그러나 서독의 언론계나 일반여론은 게르스텐 마이어씨를 통렬하게 규탄하였다. 왜냐하면 만일에 그렇게 따진다면 서독국민은 누구나 전쟁동안에 놓쳤던 명예나 잃어버렸던 돈을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논리가 성립할 것이다. 그래서 게르스텐 마이어씨는 국회의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과오로 말미암아 의장직에서 물러났을 뿐더러 정치적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완전히 매장되고 말았다. 그 밖에도 서독은 나치시대에 유대사람들을 학대 또는 학살한 무서운 죄과를 반성, 속죄하는 의미에서 여러 부문의 중요한 자리에 유대사람을 등용하고 중동 분쟁에 있어 시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제 서독 국민들은 미국 다음가는 부강한 나라로서 유럽 공동시장(EEC)에서 전적으로 헤게모니를 잡고 있을뿐더러, 달러보유고도 세계 제2위를 마크하고 있다. 왕년에 해가 떨어지지 않는 나라를 자부했던 대영제국은 전승국인데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유럽공동시장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뿐더러 작년에 마르크의 대외가치가 100대 400에서 367로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100대 100으로 높이려는 각오로 서독은 분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면 서독은 그동안 얼마나 부흥했는가. 과거 15년 전에 필자가 유학하고 있었을 때는 털 오바를 입고 다니는 부녀자들이 그다지 흔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서독을 방문했더니 일반 서민 계급에 속하는 부녀자까지도 누구나 거의 예외없이 털오바를 걸치고 다니는 것만 보더라도 근들이 얼마나 부강해졌나 알 수 있다. 원래 서독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도시와 농촌의 차가 적은데 이번 가보니까 생활양식이나 문화시설에 있어서 더욱 그 차가 줄어든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필자가 식료품상점에 들어가서 고기통조림을 샀더니,

<기행>

여점원이 집에서 개를 기르냐고 묻기에 기르지 않는다고 대답했더니 그것은 개에게 먹이는 통조림이라고 해서 툭툭히 창피를 당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이제 아주 잘 살게 되었다. 그러나 그 반면 물자를 아끼는 좋은 습관은 사라지고 점점 사치가 늘어가고 있다. 서독의 젊은이들이 중세의 기사처럼 머리카락과 수염을 기다랗게 기르고 뽑내는가 하면, 아가씨들은 팬티 에 가까운 초「미니」를 입고 그 아름다운 각선미를 남김없이 자랑하고 다닌다.

그런데 서독에 있어서 젊은 세대의 성도덕은 말쑥이 아니고 밥을 먹는거나 누워서 자는거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스런 노릇이다. 그들은 마음이 동하는 대로 수시로 누워서 자도 아가씨 쪽에서 피이어(PILLE)라고 부르는 환약만 먹으면 아이를 배지 않는다고 한다. 서독의 학생들은 주 단위로 정부로부터 막대한 원조와 혜택을 받아서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상적인 도서관과 실험실의 완비된 시설 속에서도 부질없는 욕구불만으로 인하여 때때로 데모와 농성투쟁을 일삼고 있다. 예를 들면 기존학제에 대한 불만, 기성교수의 절대권에 대한 반항, 대학행정과 학교경영에 대한 반대를 내걸고 우리들이 볼 때에는 tv없는 반항을 거듭하고 있다. 또 그들은 미국의 월남전쟁반대 계급투쟁을 표방하는가 하면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구호나「호찌민」「마오」를 외치고 소련의 빨간 깃발을 내세우고 데모를 하는 광경을 보면 정말 미친놈들이다. 미쳐도 이만저만 미친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들에게 6.25사변의 맛을 보여주고 싶은 충동까지 느끼게 되는 것도 결코 무리가 아닐 것이다.

서독에서는 노동력이 모자라서 이탈리아, 스페인,希臘, 터키 등 많은 외국 노동자들이 파견되어 서독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서독의 중공업 생산은 이들 가스트·아르바이터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 밖에 서독에는 우리나라 간호원이 2,500명, 그리고 광부가 500명이나 파견되어 일하고 있는데, 다들 성실하게 일 잘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특히 간호원의 경우에는 인물 본위로 뽑아서 용모가 아주 이쁘테다가 친절하고 애교가 넘쳐 흐른다고해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그 인기도 대단하다. 동시에 한국 간호원이 기사도정신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서독의 젊은이와 사랑의 짝이 트는 경우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는 인력수출과 더불어 국제결혼의 건수도 날로 늘어가니,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하겠으며, 이제는 혈연관계까지 맺게 되었으니

한독친선을 위해서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3. 미국의 부유

서독에서 귀국하는 길에 아름다운 미국을 구경해 보려고 결심하고 서베를린의 템펠호프공항을 떠난 날이 하필이면 3월 13일 금요일이었다. 터무니없는 미신같지만 13일 금요일이라면 서양사람들은 무조건 꺼리는 숫자라서 저오기 마음에 걸렸다. 여러 가지 불길한 생각이 주마등처럼 머리 속을 오고 갔다.

혹시나 비행기사고가 나서 대서양의 물귀신이 되거나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쿠바의 카스트로파 좌익계 극렬분자에 의해서 여객기가 납치되거나 않을까? 그러나 천우신조로 루프트한자기가 무사히 뉴욕의 케네디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다만 필자의 영어회화실력이 신통치 못해서 의사소통하는데 썩 힘이 들었다. 지금부터 약 30년전 필자가 현재 서울 청량리에 있는 대학 예과에 다녔을 때에는 영어성적이 우수해서 일본사람 영어선생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런데 해방 후 영어공부를 게을리 한 결과 이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다. 서독에서는 그 유창한 회화솜씨로 거리를 누비며 설치고 돌아다니던 필자도 미국에 와서는 영어 회화가 딸려서 형편없는 병신노릇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필자가 미국 땅에 발을 딛고 난 후 느낀 것은 미국은 무엇이든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물자가 한없이 많고, 부유하다는 점이다. 서독은 아무리 부흥했다고 하더라도 유럽의 작은 나라에 지나지 않고 미국과 그 규모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리고 미국의 공기는 맑고 자유스러운 것처럼 느껴졌다. 서독은 유럽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바탕에는 그래도 상당히 봉건보수적인 요소가 남아있을뿐더러 날씨도 사철을 통해서 늘 구름이 끼는 날이 많고 수시로 비나 눈이 내려서 밝은 햇빛을 보기가 어렵다.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자유의 천지라는 사실을 뉴욕항구에 우뚝 솟아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 이것을 명백히 상징하고 있다. 우리들은 보통 흑인을 깡둥이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는데, 뉴욕의 거리에서 흑인들이 판을 치고 돌아다니는 광경은 정말 가관이다.

미국의 서울 워싱턴에는 백인만 살겠지하고 생각했더니, 그곳 인구의 7할이 흑인이어서 백인의 모습은 보기 드물고 흑인들만이 득실거렸다. 이쯤 되면 미국의 서울은 완전히 흑인들에 의해서 점령되고 있는 셈이고, 워싱턴의 밤거리에는 온갖 범죄로 상당히 불안하다고 한다.

하기야 흑인들은 피부빛깔이 검어서 약간 인상이 좋지 못하지만 훌륭한 미국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공헌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우선 제2차대전, 한국 동란, 월남전쟁, 올림픽대회 그리고 하늘까지 닿는 고층건물, 복잡무쌍할 고속도로 등 국토건설에 크게 이바지했으니 그들에게도 응분의 논공행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마치 일본에 사는 재일교포들이 일본에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아직도 남부지방에서 약간 차별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지위가 전보다 향상된 것만은 사실이다. 미국 공군의 장성에도 흑인출신이 있다고 하며, 뉴욕 공항에서 필자의 여권을 조사한 세관관리도 흑인이었다.

뉴욕에서는 102층의 마천루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을 위시하여 까마득하게 창공에 치솟은 수 10층의 고층건물을 보고 아찔해서 현기증까지 느꼈다. 서독에서는 어느 도시나 10층이 고작이고 20층 이상의 높은 건물은 거의 없다. 따라서 미국에 오면 누구나 사람이 물질의 힘에 눌려서 제대로 숨도 쉴 수 없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낀다. 인류의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 그 혜택을 입어 모든 생활이 편리하고 살기 좋아지는 반면에 사람은 물질의 노예나 도구처럼 전락하여 사람의 가치도 땅에 떨어지는 모양이다.

그래서 모름지기 현대인은 극도에 달한 메커니즘 속에서 고독·불안·공포·인생의 부조리를 느끼기 마련이다.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울창한 숲과 같은 고층건물에 가리워져 햇빛도 미치지 않는 그림자 속을 걸어다닌다. 뉴욕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템포도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다. 이것은 비단 뉴욕뿐만 아니라 서베를린이나 도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생존 경쟁이 치열한 탓일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대륙적으로 천천히 걸어다니는 예는 아주 드물다. 사람은 물질문명이 발달하면 과연 그것에 정비례해서 행복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연과 떨어져서 불행해지는 것인가? 20세기 현대 기계문명이 경이적으로 발달하더라도 인류를 구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여기에 인간의 고뇌와 종교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중요성을 띠고 나타난다. 아무리 인간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려고 인간힘을 다해도 신이 될 수는 없다. 최근에 아폴로 대호의 실패가 이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 이리하여 필자는 뉴욕에 머물러 있는 며칠 동안 그 무시무시한 마천루에 대해서는 올려다보는 것조차 두려워서 시선을 땅위에 떨구고 날씬한 뉴욕 아가씨들의 미니스커트를 감상하기로 작전을 바꿨다.

<기행>

따라서 뉴욕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는 미끈미끈한 아가씨들의 기막힌 각선미를 눈요기하고 돌아다녔다. 다행히 필자는 한국 사람으로서 표준형 키가 되어서 그런 일이 없었지만 키가 아주 적은 어느 명사는 미국에 가서 땅만 쳐다보고 다니다가 후리 후리한 미국아가씨의 스커트 속으로 잠복해 들어가고 말았다는 에피소드까지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필자는 원래 한국요리보다는 서양요리를 훨씬 좋아하고 더군다나 미국에 가서는 미국요리를 마음껏 즐겨 보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뉴욕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필자를 아리랑관, 삼복정 등 한국음식점으로 안내해서 한국요리만 대접해 주는 데는 딱 질색이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덕분에 식성에도 맞지 않는 곰탕, 장국밥, 비빔밥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먹고 돌아다녔더니, 나중에는 그곳이 미국인지 한국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필자는 「오헨리」라는 비프스테이크집을 찾아가서 손바닥만한 스테이크를 주문해서 실컷 먹어 보았다. 그곳은 과거에 미국의 저명한 작가 「오헨리」가 자주 드나들던 요리집이라고 하며 현재도 미국의 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 그곳의 보이들은 밀집으로 만든 딱딱한 납작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나 미국에 와서 이상스럽게 느낀 것은 그와 같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데도 거리에 거지와 구두닦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유럽에서도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 가보면 거지나 구두닦이 그리고 악기를 들고 요리집이나 술집을 돌아다니며 음악을 연주하고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독에서는 지금 사회 보장제도가 잘 되어서 그런 사람들은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서베를린이나 함부르크 같은 큰 도시 또는 광산을 끼고 있는 공업 도시에는 유곽도 있고 매춘부도 있다. 필자가 뉴욕의 유명한 「라디오 시티 뮤직홀」이라는 종합극장—영화·쇼, 무용 등을 한꺼번에 상영한다—앞에서 거지노파를 만났을 때에는 정말 깜짝 놀랐다. 뉴욕시민들은 웬만하면 대형 고급차를 몰고 다니는 반면에 주로 서민계급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서브웨이)은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다.

이것에 비교한다면, 서베를린의 지하철(운터그룬트반)은 훨씬 깨끗하고 질서도 잡혀 있다. 미국은 물론 세계에서 으뜸가는 부유한 나라지만 너무나 자유가 허용되기 때문에 필자가 2주일동안 뉴욕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도 우체국직원들과 공항직원들이 제각기 대우개선을

<기행>

부르짖고 스트라이크를 감행해서 통신과 교통이 마비되는 광경을 목격하였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물론 이상적인 제도라고 하겠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자유가 허용되면 도리어 질서가 문란해지고 시민생활에 불편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꼈다. 뉴욕의 구경을 끝마치고 다음에는 미국의 서울 워싱턴을 구경하려고 새벽같이 「그레이트아운드」라는 시외버스를 탔다. 이 시외버스는 쾌속을 자랑하는 장거리 관광버스이고, 마치 여객기처럼 화장실까지 완비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워싱턴에서는 백악관, 링컨기념관, 대학, 알링턴국립묘지, 유탕도 탈환 해병기념비 등을 보았다. 그 중에도 백악관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적었다. 그 앞을 지날 때—물론 들어가지는 못하고—멀리 그 속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 닉슨대통령에게 경의를 표했더니, 백악관 꼭대기에 걸려있는 성조기가 펄럭거리면서 필자에게 답례를 해주었다. 알링턴의 케네디 대통령의 무덤에는 마치 파리 개선문 앞에 무명용사의 무덤처럼 상시 불이 타고 있어서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

필자에게는 그의 「프론티어」정신이 영원히 불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워싱턴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필자는 일단 뉴욕으로 돌아온 다음 날 바로 하와이로 떠났다. 물론 뉴욕에는 JAL기 회사 지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JAL기를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여과기의 안전도로 보나 민족적 감정이 허용치 않아서 JAL기를 포기하고 PAA를 타기로 하였다. 필자가 언제나 한 번 구경해 보고 싶어했던 하와이였기에, PAA기에 탑승한 순간부터 필자의 가슴은 생전 처음으로 서울 구경 가는 낙도의 어린이들처럼 두근거렸던 것이다. 과연 하와이는 사철 여름기후이고 지상의 낙원이라는 이름에 손색이 없었다. 눈부신 태양, 맑은 공기, 그윽한 파인애플의 향기, 보기 좋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바나나 열매, 가는 곳마다 야자수가 우거진 이국정서는 말이나 붓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다. 특히 달밤에 「와이키키」해변에서 하와이 아가씨들의 「홀라」춤은 정말 천하일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 벽두 일본의 진주만공격의 참상에 대한 추억을 더듬게 하는 오클라호마호의 부서진 함상에 세워진 기념관은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이곳은 세계 인종 전람회를 연상시킬 만큼 세계 각국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특히 한국, 일본, 중국 사람들이 많아서 친밀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4. 일본의 약진

일본은 태평양전쟁의 패전국인데도 불구하고, 한국동란·월남전쟁 때문에 그 전쟁경기를 타고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여 오늘날에 와서는 여간 공업생산고가 세계 3제위를 마크하고 있다. 내년 1971년도에는 자동차 생산고가 서독을 능가한다고 하니 놀라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서독의「튀셀도르프」에는 일본상사가 굉장히 많이 와있고, 서독각지에 일본상 등 특히 카메라·트랜지스터라디오 등이 쇼윈도에 많이 진열되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물론 기계성능은 서독제에 떨어지지만 값이 월등하게 싸기 때문에 서독사람들 많이 구입한다. 뉴욕에는 JAL기 회사가 대대적으로 오사카 EXPO선전을 하고 있었다.

일본사람들은 1964년도에 세계올림픽 대회를 도쿄에서 열더니, 이번에는 EXPO를 가지고 세계방방곡곡에서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관광객을 모집 유치하고 있다. 필자가 있던 서베를린에서는 일본영화와 일본고유의 가부끼(노래와 춤을 동시에 하는 것)가 영화관과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었다. 워싱턴의 링컨기념관에서는 영어설명서와 더불어 일본말로 된 설명서를 끼어서 주었다. 하와이에서는「일본말로 서비스해 드립니다」라는 게시판이 서 있는 상점이 대부분이었다. 필자가 상점에 들어가서 카메라필름을 샀더니, 미국 여점원 아가씨가「아리гато」라고 일본말로 인사를 하는 소리를 듣고 어안이 병병하였다. 하와이에는 대내적으로 설계된 일본의 불교 대사원과 일본고유의 성곽이 서 있어서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또 하와이에서는 YMCA호텔에 들었는데 같은 호텔에 일본농촌의 관광객이 100명 이상이나 단체로 들어 있어서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는 농촌이 잘 살지 못하는 데 일본에서는 농촌이 부유해서 TV나 자가용차는 보통 가지고 있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세계 관광여행을 다니고 있다. 도쿄에서「루프트한자」기를 타고 도중 알라스카의「앙코라즈」에 중간 상륙했을 때 목격한 과실이지만, 그곳에도 일본상사가 진출하여 판을 치고 있었다. 이리하여 일본사람은 패전국민인데도 불구하고 유럽, 미국, 동남아 그 밖에 세계 어느 곳에서나 1등 국민으로서 의기양양하게 활개를 치며 으스스대며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하와이에서 도쿄까지의 항로는 세계 최신최대의 여객기「PAA747」을 타게 되었다. 이 여객기는 손님을 350명이나 태우고 조종실과 일등실, 오락실은 2층에 있고 2등실은 아래층에 마련되어 있다.

손님들이 비행도중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내 방송을 한다. 청음기를 귀에 대고 채널 10개를 돌리면 고전음악, 경음악, 재즈, 독어, 불어, 초급회화 등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귀로 즐길 뿐만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기내에 앞뒤로 스크린이 5개나 설치되어 있어서 영화를 감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 여객기에는 약 10명의 스튜어디스가 서비스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절반은 미국아가씨, 그리고 절반은 일본아가씨였다. 필자가 서독으로 갈 때 「루프트한자」기 에도 4명의 스튜어디스가 서비스하고 있었는데 서독과 일본아가씨가 각각 2명씩이었다. 기내 방송의 스피커에서도 영어 그리고 독어나 불어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가 흘러나오니, 정말 일본의 국력이 위대해졌다는 것을 실감으로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나라의 어느 회사 여객기를 타고 세계 어느 곳으로 가도 일본이 화제에 오르니 사람 환장할 지경이다. 언제나「PAA747」기나「루프트한자」기에 우리나라 스튜어디스가 타고 스피커에서 우리말이 흘러나오게 될 것인지 하루속히 우리나라도 서독이나 일본처럼 비약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수 필

어느 날 갑자기

김 자 림
<여류작가>

나이 40이 넘어 이제 50 고개에 들어 서게 된 이즘에 와서「세계 나라의 것」에 눈이 열려져 가고 있는 나다.

즉 한국적인 것이 얼마나 값 높은 것임을 나는 전혀 느끼지도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왔다고나 할까. 아니 도리어 어떤 혐오증마저 느껴왔는지도 모른다.

서구()것에 비하면 얼마나 따분하고 초라하게 느껴져 왔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스케일이 작고 주체성이 없었다고까지 생각해 온 나다.

그러던 내가 이즘에 와서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아닌가.

고궁()엘 가면 가슴이 뭉클해지며 언제까지라도 그 분위기 속에 파묻혀 있고 싶어진다.

탑이나 기와꼴의 그 우아한 선이며 그 높은 예지, 그 심오함이 나의 가슴을 흔들어 놓는다.

<기행>

그뿐인가, 탑이나 기와꼴의 교묘한 음향각을 보면 그 미학적(美學的) 감흥에 못건디어 탁본이라도 해오고 싶은 충동마저 금할 길이 없다.

언젠가 틈을 내어 떡과 한지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것을 탁본 해다가 내 서재의 흰 벽에 걸어 놓으리라. 그 정감에 젖어 조상의 얼과 대화를 나눴고 싶다.

저녁 한 때 라디오에서 국악이 흘러나올라 치면 나는 일손을 멈추고 나도 모르게 조용한 자세로 변한다.

우리 음악이 왜 또 이렇게 좋아지는 것일까? 못 견디게 좋다. 뿔속까지 스며드는 그 정취 거문고 줄 튕겨질 때마다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핏줄이 한껏 당겨지며 파르르 흔들려 옴을 느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한국인임을 재삼 느끼게 된다.

나의 그러한 한국 애호정신은 요즘에 와서는 점점 그 열을 골동예다 뺏치고 있다.

시간이 있으면 아니 어떻게 틈이나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내 발걸음은 어느새 인사동 골동거리를 배회하고 있으니 말이다.

반드시 사지 않아도 내 마음은 흐뭇한 게 랜스레 좋기만 하다.

이것 저것 만져보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다 호주머니 사정이 희박하면 한두점 사 꾸러가기도 와서는 물에 닦아 마른걸레로 훑치거나 목물(木物)종류는 때를 벗겨가지고는 잣기름을 먹이는 등 나는 밤 시간이 길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골동예다 온갖 애정을 쏟는다.

골동은 또 그렇게 자기 손이 가야 더 정이 간다더니 이제는 그것들이 모두 내 정의 분신(分身)같다.

그렇게 하여 모은 골동품이 그래야 몇 점 안 되지만은 반드시 종류가 너댓 점이고 연상이니 경대함, 사주함, 실함 등 그리고 이조백자 등의 향아리며 제기종류까지 합치면 열댓점이 훨씬 넘는다.

바쁜 손길을 멈추고 그것들을 만져보는 그 경지, 세상에 이런 귀한 것들이 어디 있구나 싶어 경건해 지기까지 한다.

그럴 때마다 세상의 그 잡속한 잡념은 없어지고 마음은 무한히 깊어지며 정화계 하는 나의 더 없는 벗들이기도 하다. 골동품을 줌 만지거나 알고 나서부터는 사물을 보는 가치관이 아주 달라져 감을 느낀다. 그 번즈레한 현대가구가 왜 그리 경박하고 심지어는 그 번들거림에 멀미마저 나는지 아주 보기 흉하기까지 한다. 나는 작년만해도 그 미적 가치를 몰라 요새 만든 그 빨간 자개상을 사다가 차 테이블로 사용했었던 거다. 요즘에 와서는 그 자개상은 푸대접을 받아 건너방 방구석에 쳐박아두고 있다.

<기행>

누가 볼까 창피한 생각마저 들어서.

우리의 차 테이블은 그야 말할 것도 없이 개다리상으로 바뀌었고 그래야 한결 차 맛이 더 나게 마련이니까.

나는 골동품을 수집해 온다 해도 생활의 이용도가 적은 것은 사들이지를 않기로 했다.

그러므로 우리집의 그 물건들은 먼지나 쓰고 있는 무용지물들이 아니라 모두 생활의 일역을 맡고 있는 반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이쯤에 와서 생활 속에 한국의 멋을 짜여보려고 이 작업과 성급한 노력을 어떤 이는 내가 늘어가는 징조라고 평하기도 하나 나는 되려 너무나 철늦은 지각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게 더 솔직한 고백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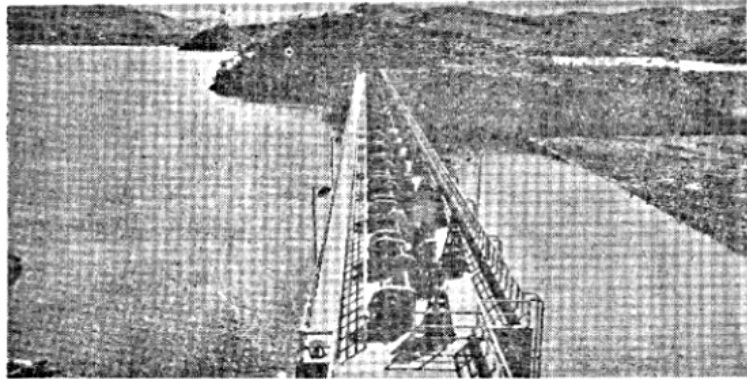
이 원고의 고료가 나오면 눈여겨 보아둔 동그스름한 어여쁜 연적을 사오리라. 돈만 있으면...

박대통령 문언록

◇ 큰 일만을 앞세우고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작은 일에 힘을 기울이고 생색이 나지 않은 일을 기꺼이 행하는 성실하고 진실된 노력이 있어야 한다.

◇ 노예나 가축처럼 학대와 착취 속에서 신음하는 피압박 민족을 공산주의의 질곡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대사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민족을 구출하는 우리의 지상 과업이며, 인류의 공동 과제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특 집 | 민족 중흥기에 선 우리의 좌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등에 업.....○
-고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조국근대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는.....○
-민족독립의 자세를 바로 세우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의 비전을 확고히 수립,.....○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여 국가민족의 영.....○
-원한 번영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활자세
나의 일은 나의 힘으로 해결하자!
 역사적 사명은 자각, 물질숭배, 황금만능, 이기주의.....
 등의 관념과 기풍을 깨끗이
 털어내 버리는 일이 당장 급한 일이다.

김 팔 봉
 <작 가>

◇ 우리의 목표는 자립경제 · 자주국방

우리나라는 5·16 이후「자립경제」「자주국방」을 달성기 위해서 조국 근대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터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 민족의 위치가 이렇게 나가야만 안정과 번영과 전진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방향이 이미 이같이 결정되었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 자세와 생활태도와 사회행동 등..... 모든 면에 있어서의 생각과 행동이 이 같은 역사적 방향에 들어맞아야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은 현재의 국가가 요청하는 방향에서 어긋남이 없다고 확신하는가.

경제개발은 우리 민족이 경제자립을 달성기 위해서 노력하는 막중한 과업이건만, 외국에서 자본을 꺾다가 공장을 건설한다는 사람이 차입한 외국 자본의 일부분을 빼돌려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방 공장에 설치할 기계는 낡아 빠진 고물을 비싸게 사들인 것처럼 당국을 기만하여 또 사복을 채우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국가의 큰 도둑이지 결코 조국에 봉사하는 국민이라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같은 사람이 더러 있는 모양이다. 이자(利)가 험한 외국자본을 차입해다가 국내 은행에다 정기예금을 해놓는다면 이자를 벗겨 먹는 이익만도 막대한 숫자라니 실로 놀라운 일미 아닌가.

만일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이라 친다면 이런 사람을 도와주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도 돕고 싶은 생각을 버리고 손을 끊을 것이다. 정부 당국에서도 이런 사실을 인정해서인지는 알 수 없으며 오늘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앞으로 「현금차관」은 강력히 억제하고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 한다.

더 말할 것 없이, 우리들이 풍족한 사회를 이룩해가지고 잘 살아보고 싶다면 먼저 각자가 마음을 고쳐먹고서 단단히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안된다. 자기 한 사람만의 이익을 탐하지 말고 자기의 힘을 다해서 자립(自立) 자조(自助) 자주(自主) 개척(開拓) 협동(協同) 헌신봉사(獻身奉仕)하겠다는 결심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결심이 먼저 정해짐과 동시에 노력이 뒤따라서 진행되어야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얻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해서 엄동설한 추운 날 따뜻한 온돌방에서 폭 쉬고 싶은 욕망이라면 먼저 자기 손으로 아궁이에다 불을 집어넣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서 즉시 행동을 개시하여 구들장이 따뜻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아궁이에 불을 피울 결심은 안하고서 불은 다른 사람이 피워주기를 바라고 아랫목에만 앉으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아무한테서도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건만 이 말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옛날부터 크게 성공한 위대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독립정신이 강해서 자기가 할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남한테 의뢰하지 않고 자기힘으로 수행하고 정당하고 의로운 일에 용감하고 바르고 옳은 일이라고 믿으면 그 신념을 끈끈하게 관철했으며, 전진하는 과정에 무수한 장애물이 가로막힐지라도 실망하지 않고서 인내와 용기로써 난관을 극복해가며 급기야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이었다. 신념과 용기와 인내의 노력으로 「자주」 「자조」 「자립」의 정신을 개화결실(開花結實)시킨 사람들이 바로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인 것을 알아야 한다.

◇ 이기주의의 일소, 역사적 사명을 느껴야……

지금 우리들은 국민교육헌장이 그 첫머리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역사적 사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빈곤과 무지를 극복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사회 경제를 개발하여 국민전체의 생활향상을 이룩함으로써 조국 통일의 숙원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 일부는 이 같은 역사적 사명에 대한 각오와 노력이 부족하다. 최근에 고위층으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호화판 개인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몇 달 안으로 그 집을 처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되었다는 보도가 신문과 라디오로 전파되었을 때 국민들은 통쾌하다고 기뻐하는 모양이었다.

일반 국민이 승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치스럽고 교만스럽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별개의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처럼 거드럭거리고 생활한다는 것은 전체 국민에게 이질감(異質感) 증오감(憎惡感)을 불러일으켜 민족 단결에 큰 장애를 가져오게 하는 까닭으로 이 같은 원인을 해소시키는 일은 필요한 일이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은 세계가 인정하다시피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국민들의 정신자세는 도의(道義)로부터 자꾸만 멀어져 가고 있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나만 이익을 보고 남이야 곤궁하게 살 거나 말거나 나만은 풍족하고 안락하게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정신자세가 사회를 휩쓸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사람에게 독을 끼치는 유해식품·유해약품까지 판매되고 건본과는 판이한 제품을 외국으로 보냈다가 도로 쫓겨 오는 창피를 당하기도 예사로 하게 되었다.

증산(增産) 수출(輸出) 건설(建設)의 국가방침을 좀 먹는 이 같은 반국가적(反國家的) 비도덕적(非道德的) 행위는 금전만능—『돈이 제일이다』라는 사상과 이기주의(利己主義)가 국민 각계각층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까닭이라고 풀이할 수 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 아래서 국가의 「자립경제」 「자주국방」이 성취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서는 당면한 목표를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 그런 까닭으로 우리 국민이 정신자세를 바로 잡아 가지고 현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고서 물질숭배, 황금만능, 이기주의의... 이따위 관념과 기풍을 깨끗이 털어 내버리는 일이 당장 급한 일이다. 그리고서 창의(創意)와 정열(情熱)을 기울여 내 고장의 지역사회 개발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행동을 개시해야겠다.

◇ 자기생활과 지휘는 스스로가 향상시켜야.....

몇 달 전에「이스라엘」나라에 갔다 온 친구는 자기가 찾아간「기브스」마을에서 멀리「덴마크」나라로부터 처녀가 한 사람 와서 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 그 처녀보고『어떻게 이같이 먼 곳까지 와서 일을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처녀 대답하기를『이스라엘 국민의 왕성한 개척정신과 그 부지런한 생활을 보고서 이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어 왔노라』고 말하더라는 이야기를 나한테 들려주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감동을 받았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기름진 땅을 만들고 사막을 푸른 들판으로 만들면서 알뜰하게 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민족에게는 이같이 외국 소녀의 자진 협조로 이루어지는 터이니, 이것이『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증명하는 사실이 아니겠는가. 지간 날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운데 일부 인사들은 남의 나라로부터 원조를 받아다가 우리가 자립해서 나가는데 필요한 건설을 게을리 하였다. 휴전성립 후 약 10년동안 이 같은 자립 자조 자주정신의 결핍으로 인하여 우리는 얼마나 큰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입었는지 모른다. 5·16 후 경제개발 계획이 줄기차게 실천됨에 따라서 국민 소득이 놀라울 만큼 불어나니까 국제적으로 우리의 경제성장을 돕는 나라가 많이 생긴 것은 모두들 아는 사실이다. 한국국민이 스스로 부강한 나라를 이룩해 보려고 노력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의 생활과 지위를 새롭게 건설하고 또 향상시키겠다는

꾸뚝한 마음가짐이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자기의 전도를 개척하고 건설하고 향상시켜야 할 우리 국민들의 생활하는 자세를 불라치면 대개가 예전에 하던 대로 구태의연하게 남들을 모방해 가면서 그러저러해 나가는 것 같다. 우선 가까운 예를 들면, 각계 각 층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회의에서 정해진 다음에 정부에서 그것을 채택하여 제정 공포된「가정의례준칙」도 시행 된지 1년이 지나건만 아직까지 일반 국민 생활에 뿌리 깊게 박히지 못하고서 여전히 시장바닥 같은 예식장에서 거창하게 손님들을 초청해 놓고 축의금을 받고 답례품을 나눠 주고 하는 결혼예식이 행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초청장을 발행하지 않기로 한 가정행사가 여전히 사회화(社會化)되고 있다는 말이다. 그 전보다는 약간 간소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구태의연」하다고 말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생활자세를 고치기란 이렇게도 어려운 일일까. 꼭 실천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안 될 일이 아닌데도 일반이 못하는 까닭은 결국 그들의 마음이 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긴요한 일은 자기의 마음을 굳세고 단단한 결정체가 되도록 단련시키는 일이다. 운동선수가 육체를 단련시키는 것처럼 정신도 단련시키지 않으면 질기고 튼튼하게 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팔과 다리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처럼 정신의 기억력(記憶力)과 사고력(思考力)과 결단력(決斷力)과 인내력(忍耐力)도 항상 훈련을 반복해 가며 육성시키는 일이 필요한 일이다. 생활자세를 올바르게 갖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구태의연한 풍습과 허영심과 여기서 오는 유혹을 끊어버리고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자기 내심에서 솟아나는 허영심과 외부로부터 밀어닥치는 유혹에 단연코 이겨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결혼예식을 도심지 중앙에 있는 유명한 식당에서 거행하자고 상대방에게서 말을 해 오거든 잠깐 생각해 보고서 결정하자고 대답해 두고서 며칠 후에『그럴 것 없이 가정행사를 사회화 시킬 것 없으니 집에서 간단하게 예식을 치루고 구청에서 결혼신고나 해버리면 그것으로 일은 끝나는 거란 말이오. 일가들과 친한 친구들은 나중에 집으로 몇 차례 나눠서 청해다가 국수나 대접합시다』

이렇게 설득해 버리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예식장, 초청장, 자동차, 답례품... 이런 비용을 낭비하면서 은근히 축의금을 바라고 손님이 많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대단히 치사스럽고 낮간지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리니까 마음속으로부터 허영심 몽치만 쏙 뽑아 버리면 이 같은 허례(虛禮) 허식(虛飾)은 말끔하게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 책임, 개척, 협동이 있어야.....

우리가 경제 자립과 자주 국방을 달성하려면 마음부터 굳게 결심하고서 우리의 생활자세를 똑바로 세워야겠는데 그렇게 하자니까 먼저 급한 것이 허영심을 뽑아버리는 일이라 함은 위에 말한 바와 같거니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남한테 의뢰하고자 하는 마음—의타심(依他心)을 뽑아버리는 일이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몸이 피로해도 남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또 조금만 물질적으로 곤궁해도 남의 원조를 바라고 싶어 한다.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균색한 살림살이를 다시 재건하겠다는 의욕과 열정과 끈기를 가질 생각을 먼저 해야 하고 그리고서 창의(創意)와 노력을 기울여야만 가까운 이웃과 친척들도 그 사람한테 경의(敬意)와 동정 하는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 자발적으로 원조를 해오게 된다. 옆에서 보기에다 딱할만큼 곤란을 겪으면서도 남에게 균색한 말을 하지 않고 역경(逆境)과 싸워 나가면서 자기 생활을 재건하는 주민을 발견했을 때는 동네 주민들이 열이면 열사람이 모두 크게 감동해 가지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인정이라는 말이다. 이와 반대로 역경에 처했다고 해서 한숨이나 쉬고 자기는 아무 일도 안하면서 동네 사람들에 기대기나 하면 아마 모두들 살기가 어려운 판인데 무슨 여유가 있어야지.....하고서 외면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의타심을 갖고서 남에게 기대려는 마음은 올바른 생활자세에서 몰아내야 할 마음이란 말이다.

허영심과 의타심 다음으로 우리의 생활자세 중에서 그림자도 없이 뽑아내 버려야

할 자세가 있으니 그것은 무책임(無責任)한 마음가짐이다. 어째서 꼭 지켜야 할 약속 시간을 어기고서 30분이나 늦게 왔느냐고 꾸짖을 때 핑계를 대기를 밤사이에 폭설이 내려 길바닥이 엉망이 되어 그만 늦어졌다고 대답했다고 가정해 보자. 길바닥에 눈이 쌓여서 교통수단이 평상시와 같지 않았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전부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말을 무엇하러하는 건가. 약속을 지킬 생각이었다면 이런 날의 교통수단은 평상시보다 2배는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하고 그런 계산 밑에서 행동을 했어야 옳았을 게 아닌가. 자기가 계산을 안 했거나 잘못하고서 약속 어긴 책임을 폭설에 전가하려는 것이 나쁜 마음씨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 같은 마음씨가 우리들 모두에게 조금씩은 다 있다.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마누라 때문에.....부인은 또 말하기를 자식 때문에.....영감 때문에.....하고 서로 서로 핑계를 잘들 댈다. 자기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은 안 한다.『내가 잘못 했지.....』이렇게 말하지 결코『누구 때문에.....』라고는 안 한다는 말이다.

항상 자기를 반성하면서 민족의 장래에 희망을 갖고, 국가의 발전이 있고서 자기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신념아래 끈기 있게 노력하고 개척하고 협동하는 것만이 사랑하는 우리 공군들이 가져야 할 생활 자세라고 생각한다.

강화하자 임전태세
분쇄하자 복귀야욕



약진하는 한국에 있어서의 국민정신

민족적인 자각과 확고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조국애는 주체력을 가진 민족적 자립, 자주, 자
율의 정신을 세워주는 큰 요인이 된다.

유 흥 렬
<문학박사·성대대학원장>

1.

우리는 지금 새로운 변혁과 전환의 계기에 분명히 서 있다. 급격한 템포로 내닫는 20세기 문명의 진로는 인류 역사의 현재와 미래에 숏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현대문명의 산파역을 맡고 있다는 물질문명의 주 담당자인 과학의 방향은 바로 오늘과 내일의 인류역사의 기로에 중대한 전환의 분기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만능의 귀결이「원자력의 해방시대」,「우주개발의 시대」,「전자과학과 산업의 오토메이션 시대」,「생명의 신비의 탈이 벗겨져 가는 시대」이 외에도 이루어 헤아리기 어렵게 술한 과학의 파노라마를 우리의 주변에 감싸 들게 하고 있다. 「만일 인간이 살아남는다면 인류는 지난 백만 년 동안보다 앞으로 닥쳐올 백년 동안에 그 자신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예측된다. 인류는 질병과 고통, 증오와 파괴의 원인 그리고 이들을 개선하는 방법까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는 또한 그의 생물학적 잠재능력을 정확히 깨달을 것이며 그 자신을 변화시킬 수단도 알아낼 것이다. 상상컨대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몇 백 년 후에는 생명과학과 사회과학이 인류를 그들 자신의 숙원대로 결정짓는 운명에 도달할 것이다. 만일 인류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기 전에 그 자신을 자제하는 방법을 안다면 이 세상은 분명히 삶을 영위하는데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평은 미국의 저명한 각 분야의 과학자들이 인류의 장래에 대한 좌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일 세기 후의 과학발전과 인류문화의 방향을 결론 지우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존와인 박사가 밝힌 대표 보고문의 한 구절이다.

이토록 급변하는 역사의 분기로에서 지난 60년대의 세계사적 위치는 진실로 팔목할 만한 성과를 펼쳐 놓은 것이다.

우리들 인류의 이성(理性)은 달을 탐험함으로써 우주로 뻗는 내일의 기틀을 마련했다. 생산력의 근간인 에너지의 일대 혁신을 자초하는 원자력의 확산, 개발은 산업 구조전반에 혁혁한 전환의 매듭을 지어주고 있다.

제2차 산업혁명을 지양하는 제3차 산업혁명에의 길목에서 세계사의 선진적인 추세는 분명히 새로운 사회체계(體系)를 제시하여 주고 있음에 틀림없다. 정보사회(情報社會)의 추구하고 같은 경향이 그의 한 예이다.

이제 70년대가 되면 선진국에서는 제법 기세를 세워 정보산업(情報産業)의 추세를 여울치게 할 것이다. 요즈음 갑자기 향간에 활발히 떠돌고 있는 컴퓨터의 이야기는 이 같은 산업구조 변혁에의 한 중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컴퓨터가 사회구조 내부 변혁을 위하여 그 활용의 도를 높이게 되는 날 생산분야에서나 사무, 행정, 기업경영, 기술 등 제반분야의 편리와 신속성은 놀랄만큼 위력을 뻗치게 되는 것이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JB 와이즈너 박사도 컴퓨터는「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을 백만 배로 높일 가능성을 가지고, 현대의 모든 기술적 발전 속에서도 가장 광범한 사회적 영향을 갖는 것이 틀림없다. 컴퓨터가 간직하고 있는 잠재능력 또는 그의 잘못 쓰여지는 데에서 이루어지는 위험 등이야말로 우리들의 상상력을 초월하고 있다.…… 우리들은 분명히 지금 새로운 발전적인 역사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는 급격한 변화가 지배적인 성격으로 되고 있다」고 말하였던 것이다.

인간이 육체와 정신노동에서 해방되려는 시도는 70년대가 컴퓨터의 성장 기임에 따라 점차 꿈만이 아닌 실현의 버금길로 다가서고 있음을 감득할 수

가 있게끔 되어 가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되는 제2차 산업 혁명의 시대를 지양하고 제3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려는 기로에서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인류사회에 큰 변환의 맥박이 뛰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현실적 위치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 것일까?

이 민족에게도 지난 60년대 벽두부터 중대한 역사적인 변환의 계기가 마련 되어 갈 기미는 있었다. 8·15해방 이후 민족중흥의 대명을 수임 받은 자유당 정권은 격변하는 세계사 위에 좌표하려는 한국 민족의 시대적 진로를 망각한 채 정치적으로는 전 근대적 독재정치, 경제적으로는 의타타율적(依他他律的)인 외세 의존과 무계획한 경제정책을 수행하고 문화적으로는 사대·모방주의(事大模倣主義)로 국민정신의 퇴폐와 방종을 초래하여 현대 민족사의 진로에 낙후되는 풍토를 만들었다. 그러나 민족적인 양심은 감연히 소생하여 역사적인 변혁의 길을 트이려던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1960년의 4월 혁명은 현대 민족 지성의 새로운 시대정신의 발로이요, 새로운 국민정신의 발현의 약속이었다. 자립·자주·자율(自立·自主·自律)의 국민정신을 표명하며, 민족전환의 시대적 기맥을 움터 오르케 한 조국의 발전을 약속 하던 약진의 징조였다.

우리는 6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근대화작업을 본격적으로 표방하였다. 약진하는 조국건설을 시대적 과업으로 삼아, 민족의 숙원을 성취하려는 길목에서 격변하는 세계사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기를 바랬던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신생후진국이 구습을 떨고 일어서서 질적으로 비약할 새 역사의 터전을 구현시킬 것인가?

2.

우리는 생활, 언어, 풍습, 지리적 환경, 역사적 전통이 서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우리와 같은 처지를 견주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가 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있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도 있다. 잘 사는 나라는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게 되었으며, 못 사는 나라는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가? 이를 산 경험으로 터득하여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흔히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가 못 사는 것이 지리적 조건이 나빠서다, 지하자원이 적어서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라는 등 그 구실이야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보다도 지하자원이 적은 나라로서 지리적 조건이 아주 절망적인 나라로서도, 잘 사는 나라의 예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 진 외적 여건이 우리를 못 살게 하였던가? 라는 물음을 갖게 된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까지 풍족한 생활을 지탱하지 못한 이유를 우리들 자신의 국민정신의 미흡에서 찾아야 하지 않는가라는 반성과 각오를 재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지난 60년대 초에 이스라엘의 어떤 토지개발 기술자를 초청하여 농업 산업 육성 방안을 자문한 일이 있다. 그는 전국을 순회 답사한 후 결론지어 말하기를「본인은 한국에서 도와드려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 하였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다.

「토질은 비옥하고, 이용할 땅은 넓고, 기후는 농사에 얼마나 적합합니까. 여름의 한발 말입니까? 폭양이 내려 쬐여도 유유히 흐르고 있는 강물 아니 왜 그걸 그대로 방치하여 둥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사막과 불모지를 비옥한 땅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무려 땅 속으로 300m를 파고 들어가야 겨우 물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보통 10m-25m, 아주 조건이 나빠도 50m 이내면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도울 것이 있겠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사략의 말이다. 모든 악조건과 좋지 않은 환경을 극복하고 이를 개발하려는 국민의 의지 바로, 국민정신의 기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이다. 필자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어제와 오늘의 변모를 그려보면서 왜 그들의 번영은 가능하였던가를 오늘의 우리와 견주어 보고자 한다. 이스라엘은 불과 2만 7백Km²의 국토로서 전라남북도의 면적정도이다.

<특 집> 민족 중흥기에 선 우리의 좌표

그리고 그 인구는 2백 64만여 명으로서 전라북도의 인구밖에 안 된다.

그 국토라고 하는 것도 절반은 네게브사막의 모래땅이고, 그 절반은 수천 년 동안 버려둔 불모의 땅이다. 지하자원이라고는 겨우 약간의 구리가 생산될 뿐 아무것도 나지 못하는 나라이고, 넷물조차 귀하여서 수력발전소 하나 건설할 수 없는 지구 위의 버림받은 땅이다. 구약성서에서 젓과 꿀이 흐르는 복지(福地)라던 바보 그 팔레스타인의 땅이던 곳이 지금은 일 년 내내 비 한 방울 없는 사막으로, 겨우 갈릴리지방에서 겨울철의 작은 비가 있을 뿐인 황막한 흉지(凶地)로 방치된 이스라엘의 터전에는 겨우 20여년 전(1948년 5월 15일 독립)에 신생국가가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메마른 땅은 벌써 예언자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의 복지로 탈바꿈하였다. 모진 굴욕의 역사와 고난의 삶을 겪고 세계에서 버림받은 인종으로 낙락되었던 유대인은 또한 세계에서 버려둔 흉지를 찾아서, 그들 스스로의 민족적 궁지를 세우기에 발분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사막을 낙토로 꾸민 기적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된 창조일 것이냐?

아름다운 꽃이 사막에서 피어나고 꿀벌이 잉잉거리고 나르며 오렌지 짙은 향기가 감도는 곳 사막에는 거미줄처럼 얽혀진 포장된 긴 수도 파이프에서 솟아나는 물로 온갖 새와 작물이 무럭무럭 생명을 뿜게 하고 있다. 국민들의 개인당 연간 국민 소득이 1,200달러를 훨씬 넘고 경제 성장률 또한 연평균 10%를 상회하는 곳으로 바뀌어진 유대인의 나라다. 바로 그 곳에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유대민족 문학자 S.Y. 아그논과 위대한 종교철학자 마틴·부버가 나오고 과학 기술면에서도 현재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의 국방력은 1948년의 독립전쟁, 1956년의 시나이전쟁 그리고 1967년의 대아랍전쟁의 전격적인 승리 등 두루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로 된 그 근본 된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

겨우 20년도 채 못되어 세계를 경악시킨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과 변화의 언저리에는 분명히 그들의 굳건한 국민정신의 발로가 있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의 사회체제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특 집> 민족 중흥기에 선 우리의 좌표

오히려 그들의 킵스이건 롬니집단체계이건 또 모샤브이건 그 체계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한갓 우리의 관심은 이스라엘과 같은 특이한 풍토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악조건을 극복 개발하여 이른바 오늘의 번영을 가져오게 하였는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 이면에 담겨진 그들의 조국번영에의 확고한 국민정신의 창조가 있었다 함을 알고자함에 있다.

1895년에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테오도르·헬슬은 그의「유태국가론(Judenstaat)」에서 시온운동을 제창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민정신 창조의 길을 열었다. 그는 종래의 분파와 이기주의와「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동화되는 것만이 유대인을 구원하는 첩경」이라던 고질적인 동화주의(同化主義)의 성벽을 박차고「유대인에 의한 유대인의 국가」를 건설하는 길만이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의「해방이라는 민족주의를 고취함으로써 민족적 자각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하여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집단 우리 사회와 국가가 곧 나라의 관념에 집결시킴에 따라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의 아픔이나 즐거움이 곧 나의 것이라는 단합의 민족의지를 불러 일으키고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정신을 그들의 사명감으로 가득차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토록 황막한 불모의 터전 위에 응결된 단결력을 낳게 하고「노동력에 의한 팔레스타인 정벌」(크부짜의 이념)이라는 민족적인 자립·자존·자율의 국민의지를 일으켜 세웠다. 이른바 그 창조정신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협동과 노동과 애국심이라는 새로운 국민적 가치관을 확립하고 그들 각자에게 새로운 세계의 일익임을 자부시키려던 창조적 개척정신의 발로를 향한 그들의 노력은 가드나(Gadna) 운동과 나할(Nahal) 조직 등으로 진전되어 갔다. 청소년 대대라는 허부리말의 복합어인 가드나는 14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남녀에게 애국애족의 정신, 국방의식, 국토 개척정신, 특수 기술체득, 건전한 시민이 되기 위한 사회정의(社會正義)의 실현, 건전한 신체의 육성 등 교육과 훈련을 시킴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12개조의 신조를 지니게 하였는데 그것은 애국심, 규율과 복종심, 명예, 시간엄수, 공유물애호,

<특 집> 민족 중흥기에 선 우리의 좌표

신뢰심과 기밀엄수, 단결 및 관용, 근면, 기술체득, 진실, 자제력 그리고 완전 무결하기 위한 노력 등이다.

오늘날에 와서 가드나의 목표는 이스라엘 청소년들로 하여금「사막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얻게하며, 애국심과 개척정신을 기르게 하며, 단결력과 사회 연대 의식을 훈련시키는데 있다. 그리하여 인간성의 본질적인 개조와 재형성을 모색한 새로운 국민정신의 창조능력은 더욱 개발 발전되기 마련이었다.

나할이란 히브리말로 개척하며 전투하는 청년(Pioneering Fighting Youth) 이란 뜻이다. 가드나 청소년 운동의 뒤를 이어 18세가 되면 그들은 국방과 국토개발을 동시에 수행하는 나할집 단에 들어간다. 그리하여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미 국가의 간성으로 터잡고 그곳에서 익히고 체험한 국민정신을 드디어는 키브츠나 모사브로 뻗치게 하는 국민 정신교육의 의무적인 수행이야말로 분명히 오늘의 이스라엘의 기적을 가져오게 한 근간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1948년 나할이 창설된 이후 그들에 의하여 11개의 새로운 정착지가 개척되어 민간인에게 인계되었고, 5개의 정착지가 개척되어 가고 있고, 16개가 나할 출신 예비역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8개의 미완의 정착지가 또한 나할에 의하여 완전 자립되었으며, 150개의 기존 민간 정착지가 나할 부대의 지원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하니 우리는 이스라엘의 번영과 약진의 원동력이 바로 창조적 국민정신의 확립에 있다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 땅 위로 눈을 돌리기를 바라게 된다. 경제와 기술과 과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일으키라는 소망이 국민정신의 개발 위에 세워 지길 바라게 된다.

3.

지난 날 민족사의 숭한 격변의 외중에서도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여 왔던 우리들은 역사의 질적 비약 과정에 성실한 참여를 위하여 왔다. 이제 70년대라는 격변의 구획점에 서서 이 땅 위에서도 많은 역사적 과업이 성취되어

<특 집> 민족 중흥기에 선 우리의 좌표

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급격히 성취하려는 과잉의 욕구가 가져올 불합리와 부조리라는 부작용과 후유증은 냉철한 지성과 의지의 고비로 이를 조정하는 심중한 고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파멸 없는 조화·질서·평화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현실개혁과 확고한 국민이념의 구현이야말로 70년대를 담당하는 젊은 지성의 방향이어야 하며 각오이어야만 한다.

이제 격동하는 세계사 속에서 이 땅의 시대적 기류가 70년대에 들어서면 전반적으로 기술문명의 급템포로 메카니즘에 의한 인간의 소외와 불안이 야기되어지는 한편 저돌할만큼 발전일로로 독주하는 과학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인간 존재가치 위협과 불안의 와중으로 몰고 갈 수도 있을 것이며, 격증되어 가는 부조리한 사회의 현상들은 우리의 심각한 고뇌를 움트게도 할 것이다. 게다가 제너레이숀간의 불협화음과 시대적식의 급격한 변혁은 역사전반의 활발한 격동을 자극할 것이다.

여기에 금세기의 역사적인 전망은 우리 민족에게 크나큰 시련과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오직 민족적 비극인 이데올로기의 양극화에 따른 공산주의자들의 끈질긴 국가안보의 교란을 이겨내고 새로운 민족의 자립, 자주, 자율의 창조적 정치와 경제를 기조로 하는 민족 통일국가의 수립이 목표로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보다 광활함 세계정신으로 뻗어나갈 미래역사의 구현을 향한 문화조국의 창조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미 60년대 벽두에 경제 제1주의를 표방하면서 조국근대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민족중흥의 계기를 약속하였던 우리들은 지난 10년 동안 지대한 성과를 거둔 바가 있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70년대의 번영을 지향하여 줄달음질 칠 것을 다짐하면서 약진하는 조국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왔다.

그러나 한 나라의 건실한 발전지향이 한갓 산업주의와 사회 체계의 정책적인 합리화에만 국한될 수는 없음을 우리는 절실히 체득 하였다.

이른바 근대화란 한마디로 말하여 국민생활의 합리화·민주화·공업화(今理化·民主化·工業化)를 뜻하며 이것들을 조화적으로 발전시킬 때 비로써의

<특 집> 민족 중흥기에 선 우리의 좌표

그 의미는 충분히 발현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근대화 작업이 주로 공업화 분야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정신에 입각한 확고한 민족적인 자각과 단결과 각오가 도외시된 채 정신적인 불모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마저 갖게 하였다.

주로 산업주의 물질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공업화의 일변도적인 경제 체제의 추세는 거액의 외국차관을 바탕으로 하여 시급한 물량공조의 건설 붐을 조성함으로써 각종 공장의 건설, 고층 건물의 건축, 고속도로의 개통 등과 같은 눈에 보이는 일들이 속속 이룩되곤 하였다. 그러나 그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생활의 합리화와 국민의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민주화의 추구 등은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듯한 현상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은 요즈음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를 비롯하여 사재간의 폭력사건, 부자간의 살해사건, 10대 학생들의 칼부림사건, 가짜상품, 가짜 학위의 매매 사건, 거액의 도박사건, 민족 문화제의 해의 밀수출 사건, 택시 운전사 살해사건, 정여인 살해사건, 와우아파트의 붕괴사건 등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사회윤리, 사회정의의 타락과 잔멸위기의 징조들에서 찾을 수 있다.

약진을 기약할 이 땅 위에 불의의 꽃이 만개하려 하고 있다. 영국의 사학자 에드워드·가본의 말인「저 유명한 로마 대제국의 멸망원인이 도덕의 타락과 국민의 이기주의에 있었다」는 경구는 바로 우리들을 각성케하는 구절이 되고 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물질적인 공업화가 이루어져 가는 반면에 정신적인 윤리도덕은 날로 타락되어가고 있다는 이울배반의 풍조는 조속히 배제되어야 하겠다.

이토록 우리들에게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정신적인 근대화의 측면들인 것이다. 약진하는 건설의 욕구에 수반되어야만 할 강력한 국민정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는 합리적인 국민의식의 발현을 전제로 하여야만 된다.

세계적인 격변의 징조들이 근대화의 물결을 쫓아 휘몰아칠 때 우리는 우리의

<특 집> 민족 중흥기에 선 우리의 좌표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합리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합리화된 근대화의 작업으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외래의 영향을 적절히 수용하여야 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하여야 할 과제는 우리의 전통 속에 잠겨진 우리들의 민족적 고유풍토의 개발과 정립의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민족적인 자각과 확고한 애국심을 바탕으로 한 조국애는 주체력을 가진 민족적 자립·자주·자율의 정신을 세워 주는 크나큰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신적인 근대화의 한 측면으로 요구되는 것은 민주화의 양양책이다. 국민 모두가 다 같이 국가발전에 임하려는 참여의 정신이란, 다름 아닌 민주화된 생활의식의 발로이다. 국민 모두가 다 같이 그들의 맡은 바 일에 성실하고 그들의 작은 일 큰 일이 모두 국가발전에 이바지 되고 있음을 자각하는 민주 국민정신이야말로 발전하는 국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예에서 이 같은 실증을 보았다.

우리는 조속한 민족중흥의 과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안으로는 민족독립의 자세를 바로 세우고, 밖으로는 세 계정 신을 호흡하는 개방된 국민정신을 확립함을 촉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창조적 힘과 개혁의 의지를 국민정신으로 함양하며, 공익과 질서 속에서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배양하고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합리주의 정신을 국민정신으로 발굴하여 갖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각자가 나라 속의 나 임을 자각하는 애국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자유와 권리에 입각한 책임과 의무를 구현시켜 주는 민주정신이 국민정신으로 부각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70년대의 지상 과제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의 비전을 확고히 수립 하고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수명의 잔흔을 완전히 개척하는데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우리들의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육성이 요구되며, 약진하는 한국의 정신적 지표가 있어야 한다. 우리 모든 국민들은 70년대의 번영과 약진을 위하여 정말 마음을 모아 착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살며 서로 형제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나를 사랑함은 죽음의 길이요 남을 사랑함은 삶의 길이라는 교훈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민족 중흥과 민족정신의 방향

「내 일은 내가 한다」는 결심으로 악착같이
근로하는 사람에게는 조금만 도와도 그것이
낭비되지 않고, 큰 성과를 거두게 된다.

김 재 준
<신학박사>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으로 국민을 형성했는지 만큼 민족중흥은 그대로 국가 중흥과 일치한다.

어느 민족이든지 그 민족사에 있어서 흥망성쇠의 기복(起伏)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바빌로니아라든지 이집트 같은 나라는 그 문명이 기원전 6000년에 소급할 만큼 고대에 속하고 그 당시의 천하를 석권하던 강대국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민족이 아주 인멸되었거나 형편없이 낙후되어 역사의 변두리에 몰려나 맴돌고 있는 형편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지만 「아놀드 토인비」가 보는 대로, 닥쳐오는 환경의 도전(挑戰)에 대한 「응전」(Response)의 태세가 졸렬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강대국으로 천하를 지배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런대로 외부로서의 도전에 대하여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는 응전해 온 셈이다. 원래 만주는 우리 땅이었지만 고구려의 쇠망과 함께 상실되었고 반도에서도 고려와 이조 때에 가서야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한 국토가 확정되었다. 중국의 압력과 일본의 침략 그리고 만주의 몽고족의 침입 등등으로 편한 날이 없었지만 그러면서도 독자적인 역사를 잃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를 전승시켜 왔다. 이제는 한국 민족이 하나의 민족적 단위로서 세계무대에 나설 발판만은 확립되었다고 믿는다. 말하자면 중흥의 도약대가 놓여졌다는 말이다.

사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압정에서 해방된 순간 우리 민족에게는 중흥의 정기가 폭발했었다. 마치 화산맥이 땅 속에서 꿈틀거리다가 분출구를 찾아 치솟는 것과 같았다. 그 때에 바르고 거대한 지도자만 있었다면 지금쯤은 놀라운 민주 한국이 건설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다 그 솟구치는 민족정기를 분산시키고 악용 또는 오용해서 정신적 낭비와 정기의 오염을 가져왔던 것이다.

미국에서와 같이 초대 대통령이 올바른 나라의 초석을 놓아 진정한 자유·민주의 전통을 보다 잘 세워 주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결국은 국민 자신들이 바른 마음과 풍부한 지식과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간들이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임에는 틀림없다. 국민이 똑똑만 하면 지도자에게 의지하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민족중흥을 위한 몇 가지 없어서 안 될 국민적 요청들을 적어 보기로 한다.

① 지도자의 양성이다. 좀스럽지 않고, 올바르고, 사심이 없고, 인간을 진정 인간으로 대접할 줄 알고, 자유·민주의 나라바르게, 잘 사는 나라, 자유하면서 잘 살고 교양 있게 사는 나라를 만들려는 열의에 불타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정력을 쏟아야 하겠다. 큰 인물을 양성하려면 우선 자유 분위기를 보장해 줘야 한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권위주의로 어린이들을 대하여 명령과 복종 태세만을 강조하면 그 어린이는 기를 못 펴고, 창의성이 없어지고 「스케일」이 좁아진다. 간혹 부모에게 불평하면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잔소리냐」하고 호령을 한다. 그렇게 자란 사람은 민주국가의 지도자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자유인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이 국가 중흥의 기본 작업이다. 길가에 가로수처럼 어떤 제한된 인간형을 미리부터 제 약하는 고장에서는 노리갯감이나 고용인 형의 인물밖에 산출되지 않는다. 자유하면서 봉사하는 정열적인 지도자를 배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② 생산적인 국민이어야 한다. 생산적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행동이다. 무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든지 많이 있어야 할 것이 조금 밖에 없든지 한 경우에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있게 하는 창조행동을 의미한다. 생산적이 되려면 부지런해야 한다. 「놀이 먹는 상팔자」식의 인간으로서는 기대될 것이 없다. 의욕이 상실된 절망자의 군상은 생산이 아니다. 「퇴폐」를 가져온다. 「산다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하는 서양의 속담은 지금 세계를 상대로 생산하는 국민을 만들었다.

일해서 얼마나 이득이 있느냐? 가 아니라 일하는 그 자체가 인생의 의미라는 생각이 하나의 철학으로 되어 있는 국민은 저절로 생산력이 된다. 일한다는 것은 반드시 육체노동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노동 인력(人力)에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고역은 도리어 생각을 위축시킨다. 그래서 기계를 만들어 그것으로 인력을 대행시킨다. 오늘의 기술학적 문명은 이런 기계에 의한 생산 능력을 과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기계화에 의한 생산증대는 농어촌에까지 보급되어 간다. 」

생산적이란 것은 물질적인 면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가 서로 미워하고 갈라지고 피차 물고 먹으면 그것은 정신면에서 심한 비생산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한 때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을 속이면 그의 생산성은 그것으로 끝이 난다. 다음은「자식 없는 늙은이」같이 대가 끊어질 것이니 생산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사회 심리학에서 말하는 비생산적 인간형에는 수동형(受動型) 착취형, 자기 방위형, 시장형(市場型) 등등이 열거되어 있다.

우리 민족의 현상으로 본다면 수동형이 일반화하여 있는 것 같다. 의타, 굴종, 보수(保守), 강색(梗塞) 등등이다. 그런 형의 소산이다. 착취, 자기 방위, 시장형 등등은 수동형보다도 능동적인 면일 것이다. 그것이 온전히 자기민족 본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역시 비생산적인데 속한다.

③ 그러므로 우리는 생산적이면서 봉사적인 방향을 걸어야 한다. 자유인을 이해하는 자유인인 지도자와, 생산적인 국민이 서로 어울리면

아마도 못할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기술」의 문제가 개입된다. 지금은 기술학의 서대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도 아무리 생산적인 열의를 가진 국민이라도 그들이 현대기술학적인 기술자로서의 인간이 아닌 한, 그는 뜻이 있어도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무기술자」에게는 거의 생존권이 없다시피 한 시대가 지금의 세대가 때문이다.

서민층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 구제품 주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구제책이다. 노예해방 직후에 해방된 흑인들에게 스스로 살 길을 열어 준 부커 T. 워싱턴은 더스케기에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한 주일만에 졸업하는 구두닦기, 소제하는 법 등에서부터 이발, 자동차, 운전, 요리법 그리고 기계 다루는 법에서 부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생활의 길을 가르쳤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단기 작업학교는 흑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살 길을 제공한 것이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흑인들의 마음가짐을 바로 잡아 주었다. 원한과 복수 같은 심정을 깨끗이 지양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백인들을 대하고 같은 자유인으로서의 인간적인 긍지를 잃지 않으면서 오직 직업부분만 달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집주인이나 그 집 요리사나 소제부나 자유인이라는 점에서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맡은 직업이 다른 것 뿐인데, 직업에는 귀천이 없으니까 자학(自虐)이나 열등감을 가지지 말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서의 윤리적으로 비열하고 파렴치적인 심사나 행동을 갖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임을 또한 역설해서 정직, 근면, 검소, 봉사 등의 도의를 실천하는 민족이 되게 한 것이었다.

우리는 지금 정신적인 교만과 직업적인 무능을 함께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직공이나 기계 다루는 사람보다도 흰 칼라에 말쑥한 양복을 입고 사무 보는 인간을 더 높이 보고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나 근대화를 위하여는 기술에 종사하는 자가 더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사회생활도 기술적이어야 한다. 사회생활이란 나와 너의 인간관계에서 운영 되는 것인데 내가 남을 속인다든지 깔본다든지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파렴치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하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파탄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그것은 서로 엮고 돌아가는 기계의 어느 한 톱니바퀴를 깨뜨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것은 사회생활의 기술을 무시한 것이어서「도의」나「윤리」문제기 전에 하나의「기술부족」이라고 하겠다. 요새는 심리학이 급템포로 발달되어서 그것을「인간 과학」이라고까지 부르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사회심리학은 급속한 발달 단계에 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기술이라 하겠다. 기계에는 각기 전체로서의 구조된 형(型)이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의 고장은 수리할 수 있어도 전체로서의 구조를 온전히 달리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이 인간도 그 성격이 어렸을 때에 이미 그 테두리가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이 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개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인간 성격을 바르게 구축해야 한다. 우리 옛날 가정에서 아이 다루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아이들이 속는 것이 재미있다고 빈 주먹을 내밀면서 그 속에 돈이 있으니까 풀면 준다고 한다. 아이는 애써 풀려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애가 실망하는 표정을 보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철저한 권위주의여서 아이들은 어른들 축에 끼어들지 못한다. 아이들 의견은 전연 무시 된다. 억울하다고 불평하면「무슨 잔 소리냐」고 호령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무얼 물어도 얼른 물어도 못하고「예」「아니오」도 똑똑히 못한다. 어 려서부터 큰 비전을 보여주고 자유롭게 자라도록 격려하지 않고서 후일에 갑자기 위대해 지 라고 해도 잘되지 않을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린이 기르는 것도 기술을 요하는 것이며 그 기술은 평생을 통하여 언제나 필요한 것이다. 특히 인간건축에 있어서는 어린 시절이 가장 중요하다.

④ 우리가 자조, 자주, 자립 등등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 선에서 민족중흥의 행진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민족의 주체성을 세우고 주체성을 가진 민족으로서의 활동을 추진시키려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 민족은 수 천 년 동안 강대국들 사이에서 너무 시달려 왔기 때문에 얼른 보면 주체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소위 사대주의니 의타적이니 강자에게 가까이하고 약자를 멸시하느니 하는 등등의 스스로의 주체성 박약의 표시라고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주체성이 없어서라기보다도 하나에 생존 방편으로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므로 주체 보호색에 불과하다는 설명도 있다.

하여튼 우리가 자조, 자주, 자립이란 방향을 확립시켜야 한다는데는 아무 의의가 없다. 우리가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생산적이며 봉사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제 노릇을제가 한다는 것과는 서로 긴장관계를 갖고 있다. 봉사는 남을 도와주고 남의 일을 내 일 같이 봐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일은 내가 한다」는 결심으로 악착같이 근로하는 사람에게는 조금만 도와도 그것이 낭비되지 않고 큰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자주의 정신에는 민주적인데서만 기대할 수 있다.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는 윗 사람에게 아부하고 아랫사람에게는 각박하고 일반민중은 굴종하는 경향을 벗어날 수 없다. 사회기풍이 그렇게 마련인 까닭이다. 국민 스스로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때에만 자주정신이 확립되는 것이다.

자립은 자존심과 자신(自信)을 소유한 국민인 경우에 가능하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문제에있어서 나는 어느 서독학자에게 소견을 물어 본 일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우리는 통일을 원한다. 그러나 결코 전쟁수단에 호소하지 않을 것이며 어떤 나라의 힘을 빌지도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 힘을 의지해가지고 통일을 할 생각은 없다는데 그 민족의 자립성이 엄숙할 정도로 드러난다. 나는 숙연(肅然)하여졌다. 이것은 서독국민 전체의 공통신념이다. 이런 태도는 결코 고립과 혼동될 수 없다. 배타도 아니다. 자존심과 자신과 자기 위신을 가진「어른으로서의 자세」일 것 뿐이다.

⑤ 이 모든 것은 나라 사랑이란 동기에서 움직여진다. 나라 없던 일제 강점기를 생각해보라. 농토는 해마다 일인 손에 겸병(兼併)되고 우리 농민은 만주와 시베리아에 유랑하고 장사는 하다못해 콩알사탕까지도 일인이 팔아먹고 공장 이랄 것도 없지만 모든 생산기관은 일인이 독차지하고 우리 민족

은 기술은 못 배우고 고등교육은 거의 거부당하고 중학교 입학도「하늘에 별 따기」였고, 우리 역사, 우리 말, 우리 성명까지도 온전히 박탈당하고 남은 것 이란 중으로서의 알몸 밖에 없을 지경이었다. 다만 일인에게 아부하는 극소 수의 무리가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주어 먹은 것 뿐이다. 그러다가「하느님이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나라가 주어진 지가 25년 그동안에 비록 반도의 절반일망정 얼마나 치솟고 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구김새 없이 활동하고 있는가? 태극기를 맘대로 날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벽찬 감격인가? 우리가 국토를 사랑한다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라도 허투로 다룰 수 없을 것이다. 생각 없이 나무 베는 국민, 거리를 더럽히는 시민은 나라 귀한 줄 모르는 인간들일 것이다.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고 나라를 몰라보기 때문에 부정부패니 강탈 협잡인이 잡초처럼 무성하는 것이다.

우리 군인들은 자유와 십자군으로 월남에 가서 나라의 명예를 드높였다. 그러나 해외무역에서「샘플」과는 다른 나쁜 상품을 선적하여 밤낮「클레임」만 늘게 하는 악덕 무역 상인들은 하나의 매국자로 규탄 받아야 한다.

농민은 가장 손해 보는 국민이다. 그러나 나라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농업과 공업이 함께 잘 되어야 한다. 농업은 국토 개발과 직결되어 국민이 먹을 것을 제공한다. 그리고 국토의 아름다움을 맡은 국민이 또한 농민인 것이다. 국토는 농민의 손에서 미화된다. 노역에 비하여 수익이 적은 농업이면서도 내 나라 강산을 아름답게 기름지게 만든다는 애국 정열이 있으면 그것으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 나라 언덕이 나무로 덮이고 황무지가 옥토로 변하고 계곡에 물이 마르지 않고 길가에 꽃향기 감도는 때 그들의 노고는 환희와 보람으로 바뀌어 질 것이다. 그래서 민족은 다시 흥한다.

우리의 현실과 생활혁신

국민 모두가「외화내허」의 생활을 지양하고 하루하루의 생활을 착실하고 실속있는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송 기 철
<고대교수>



1.

우리들은 지난날 우리들 조상들의 잘못의 탓도 있고 또 우리가 놓여있는 여러 자연적 조건의 탓도 있어서 잘 사는 나라와 비교해 볼 때엔 너무나도 못 살고 있었으며 또 현재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나 이러한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도 남들과 같이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남보다 못나서 이러한「후진국」이란 달갑지도 명예스럽지도 않은 말을 들어야 할는지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빨리 이 가난한 상태를 벗어나서 하루 빨리 번영의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번영의 길은 그리 쉬운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나 말로써만 번영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국민들의 안일하고 사치스러우며 게으른 생활자세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악순환의 쇠사를 끊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전과는 다른 정신자세와 생활행동을 진실로 실천할 때에만 비로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말할 필요도 없이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크게 보아서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번영, 즉 국민경제의 번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 집> 민족 중흥기에 선 우리의 좌표

이 국민경제는 아주 수효가 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경영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을 보면

- ① 가장 큰 것으로는 정부,
- ② 전매사업, 통신사업, 철도사업과 같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순수 행정 공기업,
- ③ 서울특별시와 하고 있는 수도사업, 운수사업 등과 같은 순수 행정지방공기업,
- ④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과 같이 수는 그리 많지는 않으나 경제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공경영,
- ⑤ 삼성물산, 신진자동차 등과 같이 개인이 경영하는 사경영,
- ⑥ 가정을 다루는 가계경영,
- ⑦ 협동조합,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 군대와 같은 특수경영 등으로 성립되어 있다.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세포로서의 이들 대소 무수의 각종 경영이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합리적이며 과학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합리적인 것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필요한 인적, 물적 그리고 금전적 요소, 최소로 투입해서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령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고 합시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데에는 우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비행기, 자동차, 자전거, 마라톤 또는 걸어 갈 수도 있겠지요. 또 서울에서 부산에 갈 때엔 대전과 대구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또 목포를 지나서, 강릉을 거쳐서, 또는 일본의 오사카를 지나 부산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수단 방법 중에서 가장 목적을 싸게, 빠르게, 정확하고 편하게 이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또 과학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과학적이 되기 위해선 우선 계획을

<특 집> 민족 중흥기에 선 우리의 좌표

세우고 그에 따라 일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성해서 다음번에는 보다 나은 계획, 보다 나은 집행, 보다 나은 반성을 하여서 보다 나은 성과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계획이나, 집행 또는 반성은 모두 뚜렷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계수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합리화, 과학화와 아울러 또 우리의 행동은 자주화,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주화란 우리의 목표가 자주경제에 있음과 같이 자조, 자립, 자주적 생활기조 위에서 우리들의 모든 활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동안 식민지 생활이나 전쟁 등으로 자립 자초하는 정신보다도 의타적 정신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많은 무상원조는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현재에도 20여 억불의 외국차관을 얻어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는 생계에 있어서 적자생활을 하면서도 분에 넘치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은 이젠 자립화하는 방향에서 내뱉는 생활자세로 옮겨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의 사고방식은 또 민주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해에 바탕을 두고 그들의 자발적인 협력하는 생활의욕으로 끌여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의욕은 어느 윗사람이나 사람의 강제에 의해서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해에 근거를 두고 자발적이며 협동적이며 . 평화적으로, 우리들의 생활을 이끌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3.

우리들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종류의 경영의 일원으로 또는 그들 경영의 둘 이상과 직접 관계를 가지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합리화, 과학화, 민주화, 자주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들의 모든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우리들의 머리를 개혁하는 사고방식에 있어서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생활혁신을 해야 하는가의

<특 집> 민족 중흥기에 선 우리의 좌표

기본자세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의 바탕이 되는 것이 합리화, 과학화, 자주화, 민주화가 근거가 된다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합리화하고, 과학화하고, 민주화하며, 자주화하느냐를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하고 있는 경영(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금전적 요소가 결합되어 조직된 결합체를 뜻합니다)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것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고 다루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 사람들은 무엇인가 일을 하여 그 경영에 쓸모 있게 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지니는 기술과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 작업하는 일이나 지휘 감독하는 일들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릅시다만 모두가 그 조직체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합리화, 과학화, 자주화, 민주화의 원칙에 입각해서 그들의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까? 냉철하게 우리의 현실을 살펴 볼 때에 유감이지만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측면에서의 비합리적인 것들은 모두 과감하게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빈들빈들 거닐면서 일도 하지 않고 강요에 따라선 일을 방해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숨겨진 남는 사람들을 구석 구석에서 찾아내서 이들도 그 조직체 내에서 한 사람으로서의 한 몫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 자신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한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 모두가 놀고먹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또 하고 있더라도 저렴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

<특 집> 민족 중흥기에 선 우리의 좌표

고 편하게 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고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화로 할 수 있는 일을 일일이 찾아 다녀서 처리한다든가, 비행장에서의 환송과 같은 것이 라든가, 불필요한 회의를 한다든가 또 회의선상에서 쓸데없는 일들로 쑥덕공론을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바쁜 친지의 직장에 가서 필요도 없이 노닥거리고 자기 아닌 남에게도 많은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올바른 생활태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없애버리자는 폐지의 원칙, 2개를 하나로 합치는 복합의 원칙, 그리고 하는 일의 정도를 줄이는 감소의 원칙 등에 의해서 불필요한 일을 제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이상 더 무엇인가 좀 더 일을 하고자 하는 직무를 확대하는 자세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의 일은 항상 성과주의의 입장에서 투입되는 인적 물적 호라고 금전적 요소에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원가절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르기 위해서 강력한 모험심을 가지고 현재의 생활주변에서 비합리적인 것을 찾아내고 종전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창조적인 파괴를 해야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자주적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4.

다음으론 톤의 활용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돈은 우리들의 생활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자 돈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은 너무나도 뚜렷한 사실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서 어떤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가 하면 돈을 또 지나치게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이 희생과 노력 없이 마련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그리고 각급의 대소 무수의 경영자들은 각각 혼자 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혼자생활에 의해서 마련된 자금이 경제개발의 자금으로 투입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은 말할 필요도 없고 각급의 대소 무수의 경영이 모두 경영을 소홀히 하여서 적자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소비는 미덕」이라는 말을 그릇 이해하고 이런 말을 함부로 남용하는가 하면 이를 오해해서 덮어놓고 돈은 써야만 하고 분에 넘쳐도 좋으나 사치를 하고 낭비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그릇된 생활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라인강변의 기적으로 부르는 독일의 부흥이나 옛 나라 일본의 경제적 번영도 그들의 허리띠를 졸라맨 저축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에 우리도 사실은 어느 정도 노력이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기 수입의 얼마만큼 만 쓰고 그 이상은 절대로 쓰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국민의 자세가 아쉬운 것입니다.

셋째로는 물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돈을 비교적 아껴 쓰고 남용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물자에 비해서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자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그의 활용에 있어서 비교적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대낮에도 서울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전기가 가로등에 켜져 있다든지, 수도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그 일례라 할 수 있습니다.

물자는 우리의 노동과 돈 그리고 자연적인 소재가 결합되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 물자의 선용에 의해서 우리들의 생활은 풍부해지고 경제는 번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막대한 양의 식량과 물자를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당량은 모두 외국에서 외상으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쌀 한 알, 종이 한 장이라도, 국민 모두가 절약한다면 막대한 외화가 절약이 되고 80년대에 가야 겨우 국제수지가 균형 된다는 전망이 빨라져서 70년대에서도 국제수지는 균형을 얻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물자의 절약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물자를 다른 싸고 얻기 쉬운 물자로 대체한다든가 하여 물자에 있어서 절감하는 방도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중전에 모조지를 쓴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급수가 하나 낮은 종이를 쓴다든지 함으로써 물자 절약의 실효를 얻는 생활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라과 특히 영국에 갈 것, 같으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그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 양복의 떨어지기 쉬운 곳은 가죽을 대서 입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 그들은 썬 술을 마시고 고급 위스키는 모두 수출한다는 그들의 생활태도는 수출 제1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물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이 땅에서 매년 1억불 이상의 원유를 들여다가 길 폭이 좁다고 커다란 차를 몰고 다니니 이 땅의 물자에 대한 낭비상은 반성되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5.

사람, 돈, 물건 이외에 우리는 또 공간 즉 장소에 대한 생활태도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좁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잡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최대한으로 확대시키는 사고방식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토가 좁고 경작지가 적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그러나 서서와 같은 좁은 나라에 있어서는 산간벽지까지도 손질이 되고 활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아직도 우리 국토는 더욱 더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현재 땅 한 마지기에 벼가 1섬 수확이 된다면 그것을 2섬으로 늘린다면 실질적으로 국토는 2배로 늘어난 셈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아파트를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한다면 그 토지 면적에 비해서는 국토가 12배로 확대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이러한 생활을 습득하고 이에 적응하는 생활태도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간이 좁다고만 할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좁은 공간을 무한히 확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의 머리를 쓰는데 따라선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시간의 활용을 생각하여야 합니다.「시간은 돈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생활이 바빠져서 이에 잘 적응하기 위해선 시간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회합이 있으면 으레 몇 10분은 늦어지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이 사이에 그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 돈, 물자, 공간 그리고 시간을 결부시켜서 어떤 목적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하며 사람을 배치하고 집행을 하며- 조정을 하고 반성을 하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도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목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목표는 건전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긴 안목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반성해서 보다 나은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 이러한 관리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생활, 한 시간 마다의 생활이 착실하고 실속이 있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는「외화내허」즉 갈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텅텅 빈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는 이 70년대를 맞은 이때에 이런 생활태도는 청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도 이러한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만 있는 것, 말로만 하는 적으로는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좋으니 하나씩 차분히 실천해 나가야만 성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국내외의 여러 정세로 보아 우리들 국민의 말 없는 실천만이 우리들 자신은 물론이요 나라를 살피는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길길

우리는 우리민족의「주인공」이며 우리역사의 창조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민족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임 명 방
<외대교수·이태리어과 과장>



인간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일견간단(一見簡單)한 것 같으면서 인간의 그림자 모양 따라다니는 이 질문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순간으로부터 문제화되었을 것이며, 이 문제가 표면화한 것은 인간이 이성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시기서 부터이다. 인간 이성의 여명기인 희랍 철인시대로부터 또한 동양에서는 공자, 석가부터 그 후 많은 사상가, 학자들이 제 나름대로 이 문제를 제시하였고, 각자 자기 멋대로 해답을 남겨놓은 것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아직까지 모든 인간에게 납득이 갈만한 객관적인 진리 즉, 정확한 답은 아무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기에 20세기 인간들도 아직도「인간은 무엇이나?」라는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공자나 소크라테스부터 거의 삼천 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그간 또 여러 사람들이 인간의 참다운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심지어는 생명을 바친 영웅적인인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간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 한 것을 보니 아마도 이 질문의 답은 인간이 답할 수 있는 또는 인간이 답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인간이 편의상 만들어 낸 언어논리를 가지고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창조하지 않는 인간을 구명하려는 그 자체가 방법론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모르겠다. 인간의 최고지성이 아직껏 해결 못한 것을 지금 우리가 다시 문제화하다 하여 당장 만족할만한 해답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으며, 이러한 논리적인데서 보다 도리어 인간이 살아온 발자취, 즉,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사실을 통하여

인간의 육각을 잡을 수는 있는 것이다. 즉, 추상적인「말」의 나열에서가 아니고, 인간의 행위의 구체성에서 인간이 적어도 다른 생명체, 예를 들어 인간에게 가장 가깝다는「침팬지」보다는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지 않나 하고 살펴봄으로써 인간이란 불가사의한 존재를 파악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관하여는 그간 많은 논란이 계속되었으며, 여기서 거기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기한 바와 같이 오늘날까지의 역사의 구체성 속에서의 사실을 분석해 볼 뿐이다.

당장 내일부터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 순간까지 인간은 다른 생명체가 이룩하지 못한 것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인간의지가 자연과의 접촉에 있어서 인간에게 편리한 것, 더욱 좋은 생활을 위한 것을 하나하나 창작해 나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불을 만들고, 옷을 입게 되고, 집을 지어 편히 살 수 있는 창작은 거듭하여 소위 문화라는 것을 갖게 되었다. 문화란 인간만이 창작하며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전통이고 유산이며, 이 전통은 그것을 만든 본인이 죽더라도, 또 그 문화권을 형성한 국가 또는 지역사회가 정치적 또는 군사적으로 패망하더라도 그대로 강력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희랍이 멸망하였어도 희랍의 그 찬란한 문화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선명한 생명력을 주고 있으며, 로마제국이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고 나서도, 나전문화는 아직도 서구문화의 근간이 되어 있는 것만 봐도 문화의 위대한 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화인데, 그러기에 이 문화에는 그것을 형성한 인간의 또는 그 민족의 가치관념, 이념, 인간성이 표현되었으며, 다시 말하면 바로 그 민족의 철학 또는 얼이 내포되어 있다. 1

즉, 인간은 어느 가치 관념에 입각한 이념을 추구하는 정신적인 태도를,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존재이며, 바로 이 정신상황이 한 인간의 또는 한 민족의 좌표이며, 존재의 분기점에서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즉, 인간을 인간답게 이룩한 것은 바로 인간정신이며, 이 정신의 사회적

표현이 문화인 것이다.

근래에 와서 지식인들 간에 비전의 상실, 정신세계의 공백 상태이니 하는, 여러 표현으로 오늘날의 우리의 정신상황을 비판적으로 비판하는 소리가 넓어져 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상기한 바와 같이 한 민족의 정신적 나태는 그 민족문화의 위기이며, 가볍게 넘겨버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볼 수 있다. 먼저 우리들의 생명의 지속과 직결되는 먹는 문제서부터 정신적인 혼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다. 그러나 식량문제는 역사상 전례를 볼 때 그 민족의 창조적인 노력으로 해결되어 온 것이 상예이므로 우리라고 이 문제를 극복 못 할 리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신세계의 불건전인데, 이것의 해결은 타국의, 타인의 원조로써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당사자의 의지와 능력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도의의 타락, 가치 관념의 무질서, 물질지상주의, 부정적이며 극단인 이기주의는 극히 삼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민족은 이 위기를 극복할만한 정의감도, 슬기도 없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 위기와 민족의 시련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극복해야 되며, 그러기에는 먼저 문제의 유래와 성격을 파악해야만 될 것이다.

인간을 인간으로 개재하게 하는 것이 정신이라면, 바로 이 정신이 그 구심점, 초점을 상실할 때 거기에 정신의 위기가, 또한 그 민족정신의 위기가 내도하는 것이다. 소위「서양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즉, 19세기 말까지의 한 민족을 지탱해 나온 구심점은 바로 한국문화이며, 한국의 얼이다. 이 문화의 전통과「한국적인 것」을 상실 또는 포기한데 오늘날의 위기의 제일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흔히 한국문화 전통의 가치를 무시하며,「한국적인 것」이라면 있느냐도 의문하는 이도 많지만 이것은 언어도단이며, 민족문화에 대한 배신이다.

우리에게는 다른 민족이 도저히 가질 수 없었던 고유의 특이하고 훌륭한

<특 집> 민족 중흥기에 선 우리의 좌표

술과 언어 그리고 민속 문화가 있었던 것이며 이것들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다. 여기서 각 문화의 우열의 비교를 가리라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한 민족의 개성과 독립, 자주성의 지표라 할 수 있는 문화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우리민족의 정신적 위기는 이 전통적 유산을 저버리는데 시작되었으며, 더욱이 이것을 대체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아직 갖지 못하면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는 재래의 전통대신으로 서구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문제는 자주성 없는 풍조에다가 과나마 서구문화도「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있다.

동서 문화의 교류에 따라 전 세계가 우세한 서구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은 20세기 역사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그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겠지만 여기서 명백히 구별할 것은 서구문화를 맹목적으로 모방, 추종하는 것과 자주성, 토착 성을 간직하면서 전통문화를 토대로 하여 서구 문화를 그 체질에 따라 받아들이며 소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자기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인간이 역사의 교훈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문화라는 정신적 전통은 소속 국민의 정치적, 군사적인 흥망과는 별도의 운명을 걷는다는 것이며, 예를 들어, 희랍이 국가적으로 각광을 상실한 것이 오래 전이지만, 아직도 희랍문화의 상징인 희랍 철학과 그「휴머니즘」을 아직도 우리에게 선명한 생명력을 주고 있으며, 로마 제국이 멸망하였어도 나전문화는 아직도, 아마 영원히 유럽문화의 모체로 남아 있는 사실을 고찰할 때 문화의 저력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민족의 문화는 정치, 군사력보다 더욱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문화전통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며, 만일 포기할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바와 같은 정신적 위기에 봉착하는 것이다. 이 현상을 흔히「자주성이 없다」「민족의식이 결여되었다」는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과연 우리 민족은 자주의식이 나라를 일제에 팔아넘길 때에도, 조직적인 반항을 시도해 보지도 못할 만큼, 약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 집> 민족 중흥기에 선 우리의 좌표

자주성이 강하지 못한데다, 더욱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서구 문화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다만, 그 외형적인 것만을 모방하는데 급급하여,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완전한 허공에 떠 있는 상태인 것이다.

우리가 유럽문화를 본격적으로 맞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 부터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식민지정책이라는 왜곡된 색안경을 통한 유럽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며, 해방 후에도 유럽문화와는 성격이 다른 물질주의의 색채가 농후한 미국문화만을 오늘날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물론 미국문화도 유럽문화의 그 근원을 두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특유의 역사성, 사회성의 지배 아래 형성된 것으로, 유럽문화의 근간인 휴머니즘과 합리주의의 정신적인 준비가 없었던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극적이며, 비약적이어서, 단시일 내에 용이하게 소화시킬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기에 현재 우리는 세계사의 불가피한 흐름인 동서 문화교류와 동화작용의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의 초점을 상실하고 있는 동시에 여기에 대체할 아무 대안도 없는 궁지에 몰려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현 정신상황은 한국적인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서구적인 것도 아닌 혼동된 상태에 놓여 있는 바로「무철학」의 시기이다.

이 역사적인 공백기를 극복하기에는 먼저 우리의 주체적인 사고방식의 확립과 우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시일 내에 이룩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우리 민족의「주인공」이며 우리 역사의 창조자라는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가지고, 민족문화전통을 모체로 서구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우리의 정신적 태도와 민족문화를 형성해 나가야만 된다는 목표의식과, 거기로 지향하는 능동적인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야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자립경제, 자주국방, 자립국가라는 민족의 대과업이 눈앞에 놓여 있지만, 이러한 위대한 과업의 성취는 바로, 「내 힘으로 살아가자」라는 자주성, 독립성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우리 주변에

서 흔히 볼 수 있는 패배주의, 불의부정, 안이주의 같은 독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다시는 우리 역사에 과거 우리 조상들이 저지른 불행이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또한 해야 될 최대임무이며, 또한 이것만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생존의 길이라는 것을 재삼 각성해야 될 것이다. 과거의 우리의 불행이 사대주의적인 타자의 의뢰심 때문에 있었던 일이고 보면, 우리는「소크라테스」적인「인간은 무엇이나」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우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의 불행을 막을 수 있나」를 자문해야 되며, 이 답은 바로「내 힘으로 나와 우리가 잘 살아보자」에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 문언록

- ◇ 월남에 대한 우리 지원은 결코 전쟁을 위한 공격적 참여가 아니라 평화를 위한 방어적 참여인 것이며, 우리가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은 전쟁의 계속이 아니라 평화의 조속한 회복인 것이다.
- ◇ 우리의 통일은 한낱「말만의 애국」이나 실현성 없는 공론으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민주 역량의 증대와 자립경제의 건설에 있다.
- ◇ 어떠한 당의 공약사업도 그 당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미국의 「캄보디아」 개입과 인도차이나 사태

임 동 수
 <서울신문 외신부장>

- 4월29일은 월남 정부군이 5월 1일엔 ○
- 주월미군이「캄보디아」영내의 월맹 및「베 ○
- 트콩」세력을 분쇄하기 위해 대규모 공격○
- 작전을 벌임으로써 월남전쟁은 새로운 양○
- 상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 「닉슨」대통령은 이와 때를 같이하여 월맹○
- 안의「미사일」기지 등을 폭격하도록 중단○
- 된 북폭을 재개, 강경한 월남정책을 표○
- 방하고 나섰다. ○

미국이 월 평균 1만2천명의 단계적 철수를 공약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도중 갑자기 등장한 강경정책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라오스」에서의 공산군 공세로 번지기 시작한「인도차이나」전역의 전화확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세계는 비상한 관심으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미 군사 전략가들은 오랫동안「캄보디아」성역분쇄문제를 검토해 왔으나「캄보디아」가 형식상 중립 국가라는 점에서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었다.「닉슨」에게 단기결전의 결단을 촉구한 1차적인 계기는「라오스」의「자르」평원에서 벌어진 공산군의 준동이었지만 최종적이며 직접적인 계기는「캄보디아」사태의 위급성 이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산군이 월남을 소강상태로 놔두고「라오스」에 공격을 개시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라오스」를 통과하는 호지명「루트」를 확보하여 미군철수 이후에 대공세를 감행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점이 크게 지적되고 있다.「자르」평원은 작년 6월에도 월맹군과「파테트라오」군이 대공세를 위해 「무웅수이」,「시에쿠앙」등을 일선 확보했으나 그 후「라오스」정부군에 의해 격퇴되었었다. 뿐만 아니라「라오스」 정부군의 주력을 이루고 있는「반·파오」장군의「매오족」유격대는 3만 6천의 정예군으로 호지명「루트」의 안전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월맹은 월남사태 못지않게「라오스」사태가 위급했으며 수도「브양트」과 왕도「루앙프라방」을 양단 시키는

◇ 미국의「캄보디아」개입과「인도차이나」사태 ◇

데까지 반격 공세를 가했던 것이다.

그러나「캄보디아」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다음 아년「시아누크」의 실각이었다. 지난 3월 18일「모스크바」에 외유 중이던「시아누크」는 우파군부에 권력을 빼앗긴 후 북평에서 망명정부를 수립한 채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론·놀」장군이 이끈「캄보디아」의군부 쿠데타는 주월 미군이 지금까지 손을 쓰지 못했던「캄보디아」영내의「베트콩」기지를 약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을 뿐 반드시 친미적이라거나 친「사이공」적인 성격을 처음부터 분명히 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론·놀」정권은 그 자체가 우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이 틀림없지만 아직도「시아누크」의 잔영이 깊이 박혀 있는「캄보디아」를 완전 장악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도「아시아」의 방위는「아시아」인에게 맡긴다는「닉슨독트린」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면「캄보디아」자신이「베트콩」성역을 분쇄하기를 기대했을 뿐「론·놀」에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는 모험을 피하는 눈치였다. 그러나「론·놀」은 뜻밖에도 약세였다. 친「시아누크」의 농민반란이 도처에서 일어났으며 군부는 사실상 고립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닉슨」대통령은 어떤 방법으로건「론·놀」을 도와야 할 긴박한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나「론·놀」정권을 직접 돕는다는 것은「닉슨독트린」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3정부를 통한 간접지원의 방법으로 월남 전쟁에서 노획한 AK47 소총 수천 정을 지원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캄보디아」정부군이 무기지원을 받아들일 체계가 형성되지 않는 점이었다. 더구나「론·놀」정권의 지위는 날로 위협해져 갔다. 이래서 지난 4월 29일 월남군이「캄보디아」영내의「베트콩」소탕전에 직접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월남인과 사이가 좋지 않는 월남군의 진격은「론·놀」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월남인이 싫어「베트콩」추방을 부르짖던「캄보디아」인에게 있어 또 다른 월남군은 설상가상이었다. 5월 1일을 기해「닉슨」대통령은 미군의 직접적인「캄보디아」참전을 명령했다. 뿐만 아니라 미정철기보호라는 이유로 대규모 북폭을 감행, 월맹인의「미사일」및 포대 기지들을 강타하여 월맹에게 전격적인, 군사적인 압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닉슨」대통령의 대공세가 단기결전을 하루 빨리 협상을 성취하려는데 있음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다. 왜냐하면「라오스」,「캄보디아」,「월남」으로 번진 이른바「게릴라」전쟁을 완만하게 다룰 경우 미국은 월남 이상의 고역을 겪게 될

◇ 미국의「캄보디아」개입과「인도차이나」사태 ◇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5월 1일 주월 미군의「캄보디아」명령을 밝힌「닉슨」대통령의 연설은 상당히 격앙된 어조였으며 내용은「자신의 정치적 생명의 희생도 각오한다」는 비장한 표현이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닉슨」대통령은「캄보디아」분쟁이 내분이 아니라「외부세력의 침략」이라고 규정, 사실상「닉슨독트린」을 도외시함으로써「캄보디아」진격이 종래에 논의해 오던 추격전 같은 소규모 일시 작전이 아니라 하나의 전면개입임을 암시했다.

미국은「캄보디아」자체의 안전보다 월남의 안전을 위협하는「캄보디아」내부에 개입한다는 표현을 내세워「닉슨독트린」을 완전 폐기하지는 않았다.「닉슨」대통령은 미국의「캄보디아」개입을 어떤 국가단위에서 생각지 않고 적성지역이라는 군사적 측면에 역점을 두고 있다. 말하자면「베트콩」이 후방기지로 이용하는 이른바 성역지구는 사실상「캄보디아」영토로 간주할 수 없다는 논리라 하겠다.

미·월 연합군은 제1차 공세에 이어「성역」지구 전반에 제2 제3의 전선을 펴고 소탕전을 벌여 적의 완전섬멸을 꾀하고 있지만 적은 본격적인 접전을 피하고 있는 눈치다.「게릴라」전의 성격으로 봐 월맹과「베트콩」이 접전을 피할 것이라는 예상은 애초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캄보디아」의 성역만 없다면 월남 전쟁은 1년 안에 끝날 것이라는 주장이 미국의 고위 전략가들 사이에 논의 되었던 만큼 접전 없는 성역이 갖는 의미는 중대한 것이라 보겠다. 우선 미군은 철수해 버린 공산군을 찾아 더 깊숙이 진격하거나 아니면「캄보디아」성역에서 장기 주둔을 해야 하는 양자택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략 월남과의 접경지역 30「킬로」내외를 성역으로 간주해 왔는데 그 이상의 진격이나 장기 주둔은 전장을 넓히고 갖가지 부작용을 배려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우선「캄보디아」인과 월남인 사이의 민족적 감정의 대립이다. 지난번「시아누크」실각을 몰아온 군부 쿠데타의 명분도「시아누크」가「베트콩」의 활동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그들의 시달림을 받게 했다는「캄보디아」의 민족적 적대 감정에 호소할 것이었다.

「캄보디아」의 전쟁은 단순히 월남전쟁의 확대라는 표현으로 처리될 성질이 아니다. 월남전과 분쟁의「월남화」의 직접적인 결과임에는 틀림없지만 그것이 모든 이유는 아니다.「캄보디아」전쟁은 그 시발부터 월남,「라오스」의 전쟁이상으로 잔인, 위험, 전면적인 싸움이며「민족해방」전쟁이나「이데올로기」분쟁 이상의 인종전쟁이다. 만일 계속된다면 살륙전쟁이

◇ 미국의「캄보디아」개입과「인도차이나」사태 ◇

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것은 역사 속에 쓰여져 있으며, 백 년 이상이나 전부터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난 전쟁이었다.

동남「아시아」의 미작(米作) 지대에서는 전통적으로 미작평야의 점령이 승리를 뜻한다. 승리자는 쌀이 나오는 평야부에 자리 잡고, 패자는 평지로부터 쫓겨「모이」(미개인의 의미가 월남어)가 된다. 다만 논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쟁을 할 필요는 없다.

경제력이나 친족관계를 통해서도 손에 넣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

12세기말엽. 전체「인도차이나」(양「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 태국의 대부분)는「크메르」(캄보디아)제국(帝國)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나머지 부분,「다낭」에서「판라」에 이르는 해안은「찬파」왕국을 형성, 북부에서는 후에「통킹」이라 불리는 홍하(紅河)「델타」가 월남인들의 나라였다.「크메르인」은「자바」계 민족으로 농업, 어업을 업으로 삼은 온순한 민족이었다. 동시에 그들은 예술가이며 불교도이며,「메콩」이라는 훌륭한 하천의 혜택을 받은 평야의 주인이었다.「크메르」인은「찬파」족도 정복, 그 제국은 바다에까지 뻗었다.「앙코르와트」의 유적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 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북방에서 중국계의 2개의 민족이 몽고의 압력으로 남하를 시작했다. 바다를 따라온 것이 월남인이며, 대하의 계곡을 따라 온 것이 태국인이다. 월남인은「통킹」의 기지에서 출발, 17세기엔「사이공」에 달했다. 18세기엔「메콩델타」에 자리 잡고, 그 후 그들은「메콩」의 지류를 거슬러 올라「크메르」제국의 요람이었던 평원도 차츰 월남화하여 그다지 쾌적하지 못한 지역에「캄보디아」인을 추방했다.

「캄보디아」제국의 불행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무렵 중국남부에서 출발한 또 하나의 민족이 행동을 개시하고 있었다. 그것이 태국인이며 몽고에 밀려 먼저 사천(四川), 이어 운남(雲南)의 산악부로 이동하여 계곡을 따라 남하를 계속했다. 그들은 강한 민족, 가령 홍하「델타」의 월남인 등에 부딪치면 평야에 진출하지 못하고, 산지(山地)에 머물렀다. 반면 약한 민족은 산 쪽으로 쫓아버렸다. 이리하여 조금씩 그들은 대「크메르」제국을 잠식하면서 남하했다.

이들 두 민족의 이동결과, 지금으로부터 백여 년 전에「프랑스」식민세력이「인도차이나」반도에 정착했을 때는 토착으로 주권을 가진「크메르」제국의 주민으로는「크메르」인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 미국의「캄보디아」개입과「인도차이나」사태 ◇

그나마 가난한 주권민족이며 동으로는 월남인에, 북과 서로는 태국인의 위협을 받는 피압박국가의 표본이었다.「프랑스」는 식민지정책의 전형적인 수법을 그대로 동원,「가톨릭」계통의 월남인을 대량으로 이주시켜 관리와 경영인으로 군림케 했으며,「캄보디아」인의 월남인에 대한 감정은 극도에 이르렀다. 월남인은「프놈펜」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질시의 대상이 되었지만 60년 월남 전쟁이 본격화하면서부터는 이른바 민족해방전선에 동조, 월남 전쟁에 간접 참여함으로써「캄보디아」인의 불만을 계속 자극해 왔다. 지난번 대량 학살결과 함께「메콩」강에 떠밀려온 집단시체는「캄보디아」인과 월남인의 적대 감정이 어떤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실증한 것이었다.「캄보디아」인이 월남인을 증오하는 것이 반드시 그들이「베트콩」동조였다는 것뿐 아니기 때문에 월남 정부군의 진입은 사실상 착잡한 심정으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다.「캄보디아」안엔 지금까지의 중립국의 성격이 설명하는 것처럼 3만 5천의 정규군과 7만의 예비군이 무장화하여 반공전선에 나설 경우의 우파세력 외에도「시아누크」에 대결해온 산악「코메르」족 중심의「캄보디아」민족해방전선이 있다. 이들의 간부는 대개 월맹출신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시아누크」의 줄타기 외교에 걸려 별다른 활동을 못해왔으나 이제 망명중인「시아누크」세력의 중추세력으로 점차 정체를 드러내고 있다.

월맹은 언젠가 월남 전쟁이 매듭지어질 경우 이들「크메르」민족해방전선을 발판으로「캄보디아」를 공산화할 전략을 세우고 장비와 교육 및 훈련을 시켜 왔다. 이들의 숫자는 약 2,3만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산악족 특유의 용맹과 적개심 때문에 기동성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캄푸치아」민족전선이 4-5만의 월맹 및「베트콩」세력과 완전 제휴할 경우「론·놀」장군은「사이공」의「티우」정부 못지않은 시련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캄보디아」는 정규군 3만5천에 민병(예비병)이 약 7만정도의 보잘 것 없는 군사력 밖에 없어 사실상의 창군기간이라 할 수 밖에 없어 이들을 새로 무장시키고 훈련시켜야 하는 엄청난 과제가 가로 놓여 있다.「론·놀」장군은 약 40만을 무장시킬 계획을 세우고 미국에 장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월남군의 성장처럼 성공하느냐의 여부가「캄보디아」의 내일을 판가름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캄보디아」정세는 극히 착잡하여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이다. 적어도「캄보디아」의 민족적 일체감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 미국의「캄보디아」개입과「인도차이나」사태 ◇

반월남 감정뿐인데 월맹군과 월남군이 함께 말려들고 있어「캄보디아」좌우 어느 쪽도 주도권을 장악하기가 힘들고 결국은 미국의 보다 깊은 개입으로 다시 중립을 확보하는 길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캄보디아」인이 미국을 제2의「프랑스」로 인식하고 반발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전쟁을 벗어나는 방법은 남북월남인을 추방하는 수단으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에의 미·월 연합군 진격이「단기 결전을 위한「성역」분쇄」라는 목표를 단시일 내에 달성하지 못할 경우「닉슨」대통령의 시련은「존슨」대통령 못지않게 격동적일 것 같다. 이미 미국의회가 이른바「확전」전략엔 반기를 들었고 미국의 전국 대학가가 수명의 사상자를 내는 반전 폭동을 일으켜 제1차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캄보디아」인이 월남 정부군과의 협조를 거부할 경우「닉슨」대통령은 국내에서 계속적인 저항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원래 강경한 반공전사로 불리어온「닉슨」대통령은「존슨」대통령이 겪은 국내의 반전 여론을 배려하여 스스로「뉴닉슨」을 표방,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비교적 온건한 노선을 추구해 왔다.

그는 비 미국화를 단계적으로 실천하면서 은연중 반전세력을 견제해오다가 최근엔「침묵의 다수」를 강조하여 미국의 중산층을 정치표면에 부각시키는데 진력해 왔다. 이런「닉슨」의 우파동원 전략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어 반전 세력은 별다른 구실을 찾지 못한 채 잠복해가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와 같은 미국의 보수적「무드」가「캄보디아」개입을 계기로 다시 역류현상을 지속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일이나 11월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닉슨」대통령으로선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과연「닉슨」대통령이「캄보디아」개입으로 인한 월남전쟁의 「인도차이나」전쟁 화를 유리하게 이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캄보디아」자체의 내부적 세력균형은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어긋비슷하다. 「베트콩」성역을 분쇄하여 월남에의 보급원을 봉쇄한다면 월남 전쟁에는 결정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개입 이후의 전황이나 사태발전은 결코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닉슨」대통령은「캄보디아」개입을 선언하면서 이른바「성역」지구엔 월맹군, 「베트콩」의 본거지, 훈련소, 보급기지, 무기탄약 공장 활주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작전 목표를 설명했는데 5만 병력이 투입된 작전 10일까지 산발적인 저항에 부딪혔을 뿐 이렇다 할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지 지휘관들은 이

◇ 미국의「캄보디아」개입과「인도차이나」사태 ◇

들이 이미 시설이나 병력을「라오스」나 접경지구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하면 「성역」이 가공적이었으며, 과장 평가된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캄보디아」개입이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함정이 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론·놀」정권이 무너질 경우 미·월 군의 장기 주둔이 불가피하며 미군 철수나 비 미국화 전략은 크게 빛나갈지도 모른다. 「캄보디아」작전이 공전할 때의 위험은 즉각「사이공」에 반영될 것이다. 연합군의 정예가「캄보디아」에 동원됨으로써 이미「사이공」의 방위체제가 약화되었다고 보겠는데 이런 점을 배려해서인지「캄보디아」의 월남군은 차츰 미군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한편 공산측은 이미「인도차이나」전체를 전쟁지역단위로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월맹과「베트콩」, 「파테트라오」, 「캄푸치아」해방 전선을 한데 묶는 고위전략회담이 중공 영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도차이나」인민수뇌회의라는 명칭으로 모인 이 회담엔 중공의 주은래 수상과「시아누크」도 참석, 강력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망명 정부의 수립을 선언한「시아누크」는「캄푸치아」해방전선을 주축으로 하여 해방 혁명군의 조직을 짜고 있는데 중공과 「시아누크」가「인도차이나」분쟁에 주역으로 가담하는 새로운 사태는 크게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의 월남 전쟁이 소련과 중공의 대등한 영향력 아래 진행되어 왔던 만큼 사태는 크게 달라질지도 모른다. 소련이 북쪽 중지와「파리」협상을 주선하는데 앞장섰을 때 중공은 철저항전을 주장했었다. 「론·놀」정권과 단교하는데 앞장선 것은 중공이었다. 지금도 중공은 장기적인 철저항전을 주장하고 있다. 「코쉬긴」소련수상이 미군의「캄보디아」진격을 맹렬히 비난했지만 그 후에 열린 전략핵무기 제한회담(SALT)은 별다른 영향력을 받지 않고 진행 되고 있다.

일부 관측통에 의하면「닉슨」대통령은 월맹이 이미 장기전을 각오하고 미군 철수만을 기다리는 지구전으로 전략을 확정시킨 데서 「파리」협상대표를 공식적으로 놔두고 이번에 강경정책을 들고 나와 협상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장기전으로 인해 쇠퇴해진 소련과 영향력을「롤백」시키려는 계산이라는 것.

그러나「캄보디아」진격만은 오히려 중공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어 미국의 보다 강경한「에스칼레이트」조치가 튀어나올 공산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칫하면 미국의 확전이 소·중공의 재결합을 가져올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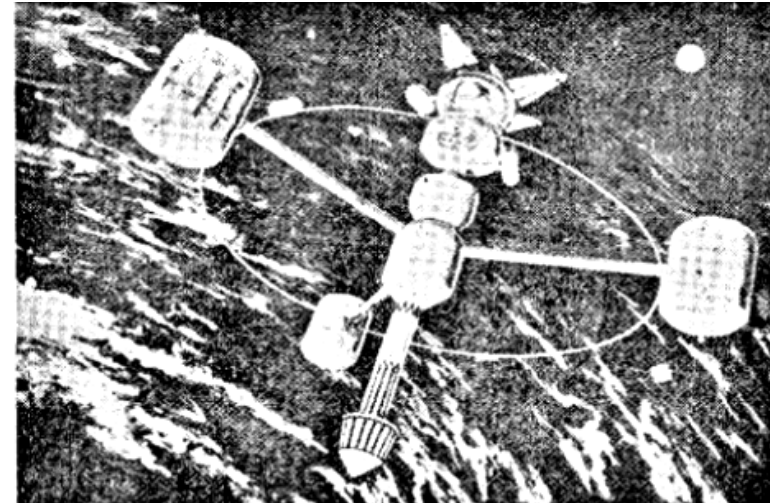
◇ 미국의「캄보디아」개입과「인도차이나」사태 ◇

모를 위협성이다. 치열한 북쪽과「베트남」의「사이공」위협이라는 두 가지 극한 상황이 「파리」협상을 추진시킨 원동력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닉슨」대통령은 철권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중공의 본격적인 대결이 성숙해지고 있다. 중공과 월맹이 이른바 「인연전쟁」의 국제화를 위해 강력히 제휴할 경우 「라오스」, 「캄보디아」, 월남은 물론 「타일렌 드」와 「말레이시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된다. 사태는 1954년 「저네브」회담 소집 직전이 재판되고 있어 「저네브」회담의 재소집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며 「우탄트」사무총장은 이를 정식으로 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태의 표면적인 양상이 54년과 비슷 할 뿐 내부 상황은 그 당시와 상당히 다르다. 우선 그때 중공이 건국초창기로 국제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지위를 높이기 위해 「베트남」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오늘의 중공은 인공위성과 핵 무장을 진행시키고 있어 훨씬 저돌적인 체질을 갖고 있다. 또한 월맹이나 「베트남」 「파테트라오」, 「캄푸치아」해방 전선 등은 하나의 독자적인 조직으로 성장해 있어 강대국의 무리한 압력을 받아들일 눈치가 아니다. 지난번 「말리크」유엔 주재소련 대사가 「저네브」회담의 재소집을 암시하여 미국의 민감한 반응을 자극했으나 얼마 후 자신의 발언을 완강히 부인해 버리고 말았다. 「저네브」회담이 무서운 비극의 씨를 남긴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주의 세력은 절대로 국제회의에 자신들의 문제를 내맡기려 하지 않는 점을 간과한 때문인지도 모른다.

월남전쟁의 「비미국화」를 추진하기 위한 「닉슨」대통령의 강경정책이 「아이러니 칼」하게도 「인도차이나」의 미국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이 번지는 불을 끄기 위한 맞불로써 어떤 성과를 성취한다면 「닉슨」의 「캄보디아」개입은 하나의 영단이 될 것이 확실하다.

「닉슨」대통령은 아직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정치적 개입을 하고 있지는 않으며 어디까지나 월남전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목표가 달성되던 어느 때고 철수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적절한 시기에 미군이 철수한다면 미국은 성역분쇄라는 중대한 성과를 얻고 월남의 비미국화는 보다 확실한 전망 아래서 진행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군의 「캄보디아」개입이 공산측에 정치적으로 역이용 당하지 않는다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며 종래부터 거론되어 온 「추적권」의 실권정도의 의미에서 그칠 가능성도 있다.



<50~100인이 탈 수 있는 대형 우주스테이션 1980년대 건설 예정>

1970년대를 맞는 — 우주개발 전망

김 홍 식

1960년대 말에 미국은 달 착륙의 소원을 달성하였고, 또한 소련은 우주 정거장을 만들겠다는 것을 공표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70년대에 들어선 이 마당에 달의 탐험은 더욱 진전할 것이며, 우주 정거장도 건설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화성(火星)착륙의 준비도 구체적으로 행동화될 것으로 보인다.

1. 달 탐험의 전망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아폴로 계획에 의한 달 착륙은 목하 19호까지 예정되고 있다.

아폴로 12호는 서베이어 3호의 부근에 착륙, 탐험하였으나 아폴로 13호는

<1970년대를 맞는 우주개발 전망>

보다 정확한 착륙자세로 아폴로 12호가 착륙한 지점에서 남동쪽으로 160km에 있는 홀라마토 그레트에 착륙(가장 높은 고지)할 예정이었으나 불행하게도 4월 13일 발사 후 달착륙을 앞두고 배터리 고장으로 실패, 모든 달 착륙 계획을 포기하고 온갖 난관을 극복 지구귀환에 성공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원래 13호는 사정 1.5km의 소곡사포를 월면에 설치, 탄환을 집어넣고 인공진동을 일으켜서 월표면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또한 망원경으로서 별을 관측할 예정이었다.

계속하여 아폴로 14호는 70년 10월 중순에 발사되어 켈소리누스·크레타에 착륙하게 돼 있다.

1971년에는 아폴로 우주선이 2회 발사되어 71년 4월의 15호는「리틀·크레타」에 착륙하여, 11월로 예정된 16호는 월면의 남극에 가까운「치코·크레타」에 착륙할 것이고, 11호와 12호는 평원에, 13호부터 16호까지는 모두 산지에 내리나, 17호부터는 다음 단계로 이행될 계획이다.

●유인(有人)「문·칸」(달탐험차:月探險車)

아폴로 17호로서 처음으로 달 탐험차가 나타나게 된다. 이 예정계획에 의하면 달을 탐험하는 차는 2인승이며 동력에는 「엘렉트릭·모터」(은 아연전지: 銀亞鉛電池)가 사용된다.

질량은 180kg으로서 우주비행사 2인과 과학 관측기계와 달의 암석 등 총계 500kg을 적재할 수 있다. 시속 16km로 120km를 주파한다.

그러나 안전성을 고려하여 착륙 지점에서 4km 이상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

달 탐험차는 월착륙선의 하강부분에 접어서 집어넣게 되며 달 면에 착륙한 후 비행사가 줄을 잡아당기면 스프링식으로 되어 있어 앞바퀴가 튀어나오고 계속하여 뒷바퀴가 나온다. 이 달 탐험차는 1971년도에 나올 예정이다.

아폴로 17호는 말리우스 언덕에, 그리고 18호는 슬레트라고 하는 계곡에, 19호는 히기누스<갈라진 부분>에 내릴 계획이다. 이 3회의 달 착륙은 72년의 우주 스테이션 계획 후가 되므로 74년까지 걸리게 된다.

2. 3개월의 탐험

아폴로 계획에 따른 달 탐험은 1974년에 종료하지만 70년대 중반과 70년대에 달 탐험이 다시금 진행된다.

아폴로 계획에 이어 달 탐험 계획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1970년대를 맞는 우주개발 전망>

●2인2주간 여행계획

1969년 백악관에서 발표된 장래계획에 의하면「아폴로 계획이 끝난 후 74-75년에 탐험자의 달 체류를 일보 더 진행 시킨다」고 한다.

70년대의 달 탐험에 관해서 최종계획은 아직 돼있지 않으나 다음 NASA의 과학자가 발표한 것은 한 번에 2~발의 세탄 5를 사용하는 달 탐험에 관하여 살펴본다.

한 번에 2발의 세탄 5를 사용하였을 경우, 하나는「리모트·콘트롤」에 의하여 달 표면의 예정 지점에 수 톤의 물자를 보낸다.

또 하나는 2인의 탐험자를 태우고 동 지점에 도달한다.

두 사람은 달 표면에 14일간 체재하고 그동안 달 탐험차로써 수 100km를 주파하여 여러가지 조사를 행한다. 그리고 중요지형의 연구를 하고 수 10m의 구멍을 파서 달 내부를 조사한다. 중요지형의 탐험은 아폴로 계획보다 훨씬 앞선다. 왜냐하면 흥미 있는 지형의 수는 착륙 지점에서부터 반경이 늘어감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나 아폴로 계획에서는 달 탐험차의 행동반경이 4마일 이내로 제한되어 2인 2주간 여행계획에서는 행동반경이 훨씬 늘어가기 때문이다.

●3인3개월달 여행 계획

다음에 3인의 탐험자가 달면에 3개월간 체재할 계획이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70년대 후반기에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1회의 탐험에서 3개의 세탄 5를 사용하나 하나는「리모·콘」으로 달 표면의 예정지점에 물자를 보낸다.

하나는 3인의 탐험자를 같은 지점에 운반한다. 이 중에 귀환용 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원이 한 사람 늘어난다.

그리고 3인의 탐험자가 3개월의 체재와 조사임무를 수행한 후 다른 하나의 세탄 5를 이용하여 세 사람의 탐험자를 지구에 귀환시킨다.

보내지는 물자는 약 10톤이며, 센타(임시 하우스), 달 탐험차, 3개월의 생활필수품, 가지가지의 기계가 포함돼 있다.

착륙하면 우선 셀타가 조립된다.

90일 동안에 3인의 탐험자와 두 사람씩 월 탐험차에 타고(한 사람은 셀타에 남아 있게 됨) 달 표면상을 조사한다.

3개월간의 주파거리는 합계 2,500km에 걸칠 예정이다.

●달궤도 스테이션

탐험자가 달 표면을 탐험 조사하는 외에 달을 도는 유인월선이 장기간에 걸쳐

<1970년대를 맞는 우주개발 전망>

월면을 관측한다.

이는 지리의 연구와 자원의 조사에 특히 유익하다.

승원은 3인이며, 30일간 달의 주변을 돈다.

고도는 25-150km. 촬영 이외에 레이더, 적외선, 마이크로웨이브 등을 사용한다.

NASA의 과학자는「포스트·아폴로」계획이라고 해서, 70년대 전반에 달궤도 스테이션 계획을 실현시키고 싶었으나 현재의 예정으로는 1980년 정도가 될 것이다.

3. 달기지의 건설을 목표로

70년대의 약 10년간의 달 탐험을 끝내고 겨우 달기지의 건설이 시작된다.

●상시 달에 주재하도록

1969년 9월 17일의 백악관 발표에서는「1983년에 달기지의 건설을 시작하여 점차 달기지를 확장해간다」고 하였다.

현재로서는 미국의 달기지의 건설은 78년대로 돼 있으나 60년대 말에 최초의 달 착륙이 성공한 것처럼, 70년대 말에 최초의 달기지가 될지도 모른다.

최초의 달기지의 실현의 시간은 금후의 미·소 경쟁과 미·소의 경제성장 등에 의하여 결정되나 그 어느 것이나 70년대 말에는 달기지 건설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3개월의 달 체제가 수행된 후에 드디어 달기지의 설립이 과제가 된다.

초기의 기지 주재자는 약 10인이며, 3개월마다 그 반수(약 5명)가 교대되며 항상 기지에 인간이 주재한다.

수 인 이상의 인원과 필요한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한 번에 3발 이상의 세탄 5를 사용, 그리고 원자력 로켓도 사용된다.

●기지의 확대를 위해

달에 기지가 만들어진 때부터 1-2년 후에 기지 주재자가 24인으로 늘고 또다시 2년 후에 50명으로 늘어난다.

이때부터 달면의 다른 지점에도 별도로 기지가 설치된다.

다음 단계는 천문대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연구소를 만드는 것이다.

천문학자나 지질학자들이 달에 이주한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장이나 채원(菜園)의 둠을 설립, 달 호텔이나 오락장의 설치가 문제가 된다.

물론 이와 같은 80년대, 또는 그 이후의 과제이다.

달의 주변에 반영구적인 월궤도 스테이션을 만들고 우주 스테이션과 달 스테

<1970년대를 맞는 우주개발 전망>

이선 간에 원자력 로켓의 정기편이 운항되며 달에서 여행자가 증가하는 것은 이 때 부터이다.

우주 스테이션의 건조(建造)

1. 상시주재의 스테이션

70년대의 우주개발은 우주 스테이션, 달 탐험, 화성에의 진격을 주축으로 하여 전개되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주 스테이션이다.

이 방법에서는 미국이 우선 세탄 5를 사용하여 단번에 100톤여의 스테이션을 쏘아 올리려는데 대해 소련은 토킹에 의한 스테이션의 조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미국의 제1차계획

미국은 1972년에 세탄 5로 약 120톤의 우주 스테이션(일종의 대형위성)을 쏘아 올린다.

이것은 2단식 로켓으로 되어, 아폴로 우주선을 쏘아올린 3단식 세탄 5의 제3단의 추진제 탱크가 접하는 용적 283m³이 우주에서의 작업실로 바뀐다.

이 작업실은 아폴로, 텔레스코우프, 마운트(ATM)라고 불리우며, 고도 400km의 지구를 도는 궤도에 탄다.

발사시기는 1972년 7월이다.

ATM가 궤도에 태워짐으로부터 1일후에 세탄 1B로서 3인승의 위성선()을 쏘아올려 ATM와「랑데뷰·토킹」시켜, 3인이 ATM에 갈아탄다.

이 3인은 28일간 체재하고서 지구에 귀환한다.

그 후에 따로 3인을 태운 위성선이 쏘아올린 ATM와 도킹하여 체재시간을 2개월로 연장한다.

또 다시 73년 3월에 다른 한 조가 ATM를 타고 8주간을 체재하게 되어 있다.

●소련의 용접결합

소련은 1969년 10월에 소유즈 6, 7, 8호를 연속하여 쏘아 올려 소유즈 6호는 우주용접의 실험을 하여 금후의 소련의 우주개발의 방향을 명시하였다.

소련은 수척의 위성선을 조립하여 우주 스테이션을 만들지만 단순한 도킹에 의하여 연결방식(경결합방식:硬結合方式)이 아니고「용접결합」에 의하여 우주 스테이션을 건조한다.

(※용접결합이란 말은 여기서 처음으로 사용한 것임)

1969년 10월 19일의 소련 방송에의

<1970년대를 맞는 우주개발 전망>

하면「소련은 2~3년 내에 궤도 우주스테이션을 건조한다」고 한다.

100톤 여의 우주 스테이션이 조립될 것이나 본격적인 우주 스테이션은 질량 17톤의 소유즈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형의 위성선을 사용한다(69년 8월 19일의 페트로후박사와 발표).

●상시 주재할 수 있도록

위성선이 정기적으로 우주 스테이션에 출입하며 인원의 교대에 의해서 항상 인간이 주재하는 우주 스테이션이 완료되면 우주개발은 일단락을 짓게 된다.

이와 같이 항상 인간이 우주 스테이션에 체재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은 언제가 될 것인가?

소련은 현재 우주 스테이션에 최대의 역량을 기울이고 있으며, 1973~74년에 상시 주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미국은 1972년에 ATM의 발사를 처음으로 상시 주재는 1976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인의 우주 스테이션

미국 최초의 상시 주재 우주스테이션은 1975년에 쏘아 올리며 스테이션은 직경 10m, 길이 14m의 원통형에다 5단계로 되어 있다. 고도는 400km이며, 12사람이 살 수 있다. 더욱이 우주선을 위한 경비는 20억불 이상이다.

2. 토나스형 스테이션

일상 인간이 체재하는 우주 스테이션이 설치된 후의 목표는 토나스형의 만능 스테이션의 건설이다.

토나스형은 제언할 필요 없이, 회전에 의하여 인공중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스테이션이 70년대 말에 될는지 단언할 수 없으나 늦어도 80년대 전반에는 건조될 것 이다.

●토나스형

토나스형 스테이션은 토킹에 의하여 건조되는 것이 보통의 견해이지만 60년대의 중반에 NASA의 과학자는 한 발의 세탄 5로서 토나스형 스테이션을 쏘아 올릴 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 안이 채용될지도 의문이라 모르겠으나 우선 이것부터 논해 보기로 한다. 이 우주 스테이션은 6개의 스포쿠(원통:圓筒)와 중추부와 그것을 연결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다.

발사할 때는 6개의 스포쿠가 같이 줄지어 그 위에 중추부를 의지한 로케트의 머리 부분에 놓여 있다.

<1970년대를 맞는 우주개발 전망>

그리고 궤도에 타고서 마치 우산이 펼쳐지는 것과 같이 6각형의 토나스형 스테이션이 된다.

스포크는 발사 전에는 공기를 넣지 않으나 궤도에 탄 후 중추부로부터의 압축공기로서 자동적으로 늘어난다.

6개의 스포쿠가 6개의 실(室)로 되며 토나스형의 직경은 약 45m이다.

●대형 우주 스테이션의 내부

그러나 본격적인 토나스형 스테이션은 수백 톤 이상에 달하는 다수의 실을 보유한다.

이 스테이션을 대형 우주스테이션이라고 하며, 여러 가지의 책자 등에서 그 사진으로 볼 수 있으나 내부에는 물리, 화학연구실, 기계실, 통신실, 공간, 천문대, 식당, 오락실, 침실, 창고 등이 있으며 또한 혹성실(惑星室) 건조소와 지구관광실도 있다.

●스페이스 공업

우주 스테이션의 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다.



<1975년 쏘아올릴 화성 탐사체「바이킹」>

<1970년대를 맞는 우주개발 전망>

예를 들면 지구상에서는 불가능한 물리의 실험이나 화학의 실험이 가능한 것, 천문학에 비약적인 발전을 주는 것, 통신, 기상예측, 지구자원의 탐사 등 여러 가지의 실용 위성의 일을 더 한층 발전시키는 것 등이다.

여기서는 특히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해 두기로 한다.

첫째는(80년대 이후) 유인 혹성선은 모든 우주 스테이션에서 건조될 것.

둘째는 1980년 경부터 관광객을 위한 지구 관광실이 설치될 것 등이다.

셋째로「스페이스공업」이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정해놓고 이 말을 설명한다.

즉, 지상에서는 불가능한 여러 가지 공작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주 스테이션에서 처음 실현할 수 있는 기술로서는 이미 노보시스 통신사가「궤도공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장래는 궤도공학에 기초하여 스페이스공업이 발전할 것이다.

3. 우주 버스의 전망

우주 스테이션의 건조는 70년대의 우주개발의 중심과제가 되는 것으로 보여 지나 한편 우주 스테이션과 지상의 우주 기지를 정기적으로 싣 코스트로서 운항하는 우주 버스도 계획되고 있어, 70년대 말에 실현될 예정이다.

우주 버스(궤리기機)가 우주 기지에서 상승할 때는 보조 부스타를 사용한다.

또한 지구 궤도에서 지상으로 돌아올 때는 우선 로케트로써 속력을 떨어뜨리고 그 후에 양력을 이용하여 활공하면서 강하한다.

● 미국의 계획

미국 정부와 민간기업의 대변인은 1969년 10월 말에 지구와 우주 스테이션을 연결하는 28인승의 우주 버스의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 개발에는 적어도 100억불 이상의 비용이 들며 70년대 말에 완성될 예정이다. 「노스 아메리호·록펠로사의 대표는「우주 버스는 높이 88m, 중량 1,500-2,000톤으로 고정익에다 길이는 55m라고 하며 궤도를 도는 부분에 사람이 탑승한다」고 한다. 이 거인기는 12인의 인원과 9톤의 기재를 운송할 수가 있으며 사람만을 실으면 28인이 들어갈 수 있고 재사용이 가능하다. 단, 상세한 계획은 70년대 전기에 될 예정이다.

● 일반인용 우주 버스

1980년에 이미 한 척의 우주 버스로서 28인을 운반할 수가 있다. 이때의 우주 스테이션에는 100인 이상이 살게 되나

<1970년대를 맞는 우주개발 전망>

그 후 10년 즉 1990년대에는 한 번에 200명의 관광객을 태운 우주 버스가 하루에도 수 차에 걸쳐 대형 우주 스테이션에 출입하게 된다.

화성에의 계획

1. 화성착륙에의 준비

달 다음의 목표는 화성이다. 전술한 1969년 9월 17일 발표한 미국의 장래계획으로서는 화성에 관해 드디어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있다.

「70년대 전반에 예정한 것과 같이 화성 연착계획을 진행시킨다. 화성에의 착륙은 80년대 말 전후에 실현하는 것으로서 70년대 후반에 가서 이 계획이 착수된다.」

NASA의 과학자는 80년대 초기에도 화성착륙을 바라고 있으나 미국의 화성착륙은 80년대 후반에 될 것 같다.

소련은 이미 화성 착륙계획에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여하튼 미·소 양국 중80년대 중에는 화성에 착륙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화성에 착륙하기에는 다음 세 가지의 전제사항이 필요하다.

첫째로 화성 탐사체(火星探査體)에 의한 화성표면의 조사.

둘째는 1년 이상의 우주 공간 폐쇄 시스템의 생활에 극복해 나갈 것.

셋째는 몇 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울 수 있는 200톤 이상의 화성선을 건조하는 것 등이다.

2. 화성 탐사체

70년대 전반에 일련의 화성 탐사체가 발사되어 화성표면의 관측이 행하여진다.

70년대 전반에 예정되어 있는 화성 탐사체는 말스오피타와 연착륙 탐사체의 2종이다.

● 「말스오피타」

1969년 여름에 미국의 마리나 6호가 화성의 적도부근을, 마리나 7호가 적도에서 남극에 이르는 구역을 촬영하였으나 이 양자를 합해보아도, 촬영한 면적은 화성표면의 수분의 1도 안된다.

또한 사진의 정도(精度)도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1971년에 미·소가 화성의 위성이 될「말스오피타」를 쏘아 올려 이에 의한 화성표면의 촬영에 의하여 화성표면에 관한 인식(특히 화성의 지리)이 제법 잘 진전될 것이다.

<1970년대를 맞는 우주개발 전망>

「말스오비다」는 수 개월간 비행한 후 화성에 접근하고 화성을 도는 화성의 위성(衛星)에 들어갈 수 있다.

그 후 3개월에 걸쳐 화성표면을 촬영한다.

●연착륙 계획(軟着陸計劃)

「말스오비다」에 이어 미국은 바이킹계획에 의거, 1975년에 화성에 연착(軟着陸)할 탐사체를 쏘아 올린다.

소련은 아직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1971년에서 75년에 걸쳐 똑같은 탐사체를 보낼 것이다.

추측하건대 화성에의 연착륙은 71년, 73년, 75년의 3회에 걸쳐 행하여질 것 같다.

공표된 미국의 연착륙 계획(바이킹계획)에서는 탐사체가 화성에 접근하여 화성의 위성궤도에 들어간 후(일종의 말스오피다), 탐사용 캡슐을 발사하여 화성표면에 연착륙한다.

연착륙을 위해 우선 역분사 로켓을 사용하나 화성대기가(비교적으로) 짙은 곳에서 파라슈트를 이용한다.

화성표면에 도착해서부터, 표면의 기온, 기압, 공기의 성분, 방사능 등을 측정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 화성표면에 생물이 존재하는가를 조사한다.

생물 조사장치는「가리바」,「올후트랩」,「말치베타」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가리바」는「가이」계수관(計數管)으로 방사성탄소의 양을 재며, 이보다 호흡으로 CO₂를 내뿜는 생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올후트랩」은 토양 샘플을 흡입하고, 쇠고기 스프와 같은 양분을 주어 미생물이 있으면 산성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말치베타는 고성능의 텔레비 현미경이나, 분광계(分光計)를 조합하여 형광염료(螢光染料)를 분해하는 생물산소의 유무를 점검한다.

3. 장기생활의 훈련

화성여행에서는 도중에서 화성선을 가속해도, 왕복에 약 1년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도중에서 가속하지 않으면 2년 이상 걸린다).

따라서 화성여행을 위해 약 1년간의 폐쇄된 우주선 내부에서 생활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 다음에 폐쇄된 시스템 내에서의 생활에 대해 알아본다.

●폐쇄 시스템 내의 생활

화성여행에서는 장시간에 걸쳐, 에너지를, 물, 산소, 식량을 제한된 선 내에(폐쇄 시스템)에서 공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소련은 이미 화성여행 준비계획에 따라

<1970년대를 맞는 우주개발 전망>

이와 같은 폐쇄 시스템을 개발, 1968년에 3인의 과학자가 1년간 폐쇄 시스템 내에서의 생활에 성공하였다.

이 시험은 1967년 11월 5일부터 68년 11월 5일에 이르는 1년간이었다.

이 3인의 과학자는 마노헛프(의사), 보슈코(생물학자) 및 우리부이 세후(기사)이었다.

그들은 음료수를 획득하기 위해 세 사람이 배출한 소변과 호흡이 땀으로 방산되는 수분을 응결해서 사용하였다.

호흡용의 산소는 물의 전기분해(H₂O에서 산소와 수소)와 탄산가스의 폐물이용의 2개의 블록에서 공급되었다.

식사를 위해 특별히 연구한 식물이 준비되었고 메뉴는 5일분이 반복되어만 들어졌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보급을 위해서 온실재배의 청과물이 이용되었으나 온실위 안에서는 태양 스펙트럼을 모방한 고도로 집약한 광선을 이용하고 있다.

토양의 대용으로서의 자양이 있는 물질을 집어넣어 만든 특별한 수지(樹脂)가 사용되었다.

또한 1년의 실험기간 중에 세 사람은 상호간 연결된 조그마한 온실로 된 기밀실에서 생활하였다.

1년의 실험생활 후 세 사람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 결과는 아직 뚜렷하지는 않으나 가장 중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우주공간에 있어서의 장기생활

물론 화성여행을 위해서는 지상의 폐쇄 시스템에 의한 실험만으로는 부족하며 1년간의 우주공간에 있어서의 생활에도 익숙하지 않으면 안된다.

70년대의 중간기에는 항상 스테이션(우주공간)에 인간이 살게 되나 이때 한 사람의 우주공간 생활기록이 수 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성과로 보아 70년대 말에는 우주 스테이션 내의 폐쇄 시스템에서 1년간 생활하는 실험이 행하여질 것이다.

4. 화성선의 구조

이와 같이 해서 70년대 전반에 화성의 조사가 진행되고 70년대 후반에 우주공간 내의 폐쇄 시스템에 있어서 1년간의 생활도 수행된다.

또한 70년대 후반에 원자 로켓이 우주개발의 제1선에 등장한다.

최후의 과제는 화성선을 만드는 것이다.

●화성선의 개요

화성선은 화성 비행체, 화성 탐험선,

<1970년대를 맞는 우주개발 전망>

귀환선의 3개로 되어 있다.

화성 비행체는 1년간의 여행 중에 5~7인의 우주 비행사가 생활하는 거주부(居住部) 연료탱크(로켓트·엔진)와 기계부로 되어 있다.

화성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화성 탐험선은 약 세 명의 탐험자를 태우고 모션에서 떨어져 화성 표면에 착륙한다. 약 1개월간의 탐험을 끝마치고서 화성에서 이륙하여 모션으로 돌아온다.

귀환선은 최후에 전원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우주 스테이션으로 또는 직접 지구로 귀환하는데 사용한다.

● 화성선의 설계

화성선에 대해서는 몇 개의 안이 제출되고 있으나 다음에 그 중의 하나를 논하기로 한다.

(NASA의 과학자 안) 화성 비행체는 3각형으로 돼 있으며 그 선단에 귀환선이 접속돼 있으며 3각형의 밑변 가까운 곳에 화성 탐험선이 있다.

화성 비행체의 3각형의 길이는 21m, 밑변은 15m, 두께는 최고 3m이며, 거주부는 사령실, 연구실, 거주실, 욕실, 요리실 등으로 나누어진다.

화성선이 시동하면 본체의 후부에서 길이 24m의 기둥이 늘어나 그 머리의 작은 로켓트의 분사에 의하여 화성선이 회전하며, 지구상의 중력의 40%의 인공중력이 생긴다.

화성선이 화성의 위성궤도에 들어가서 적당한 시간 후에 화성 탐험선이 떨어져 나가면서 화성에 착륙한다.

탐험선은 소 로켓트선, 연구실, 거주실로 돼 있고 질량은 27.2톤으로 3~4인의 착륙반이 된다.

화성탐험의 기간은 약 1개월간으로 탐험을 끝나고서는 소 로켓트선에 탑승하고 화성을 박차고 모션과 랑데부, 도킹한다.

5. 화성에의 전망

화성에의 진격은 현실적으로 보아 여하히 진행 전개될 것인가?

● 경제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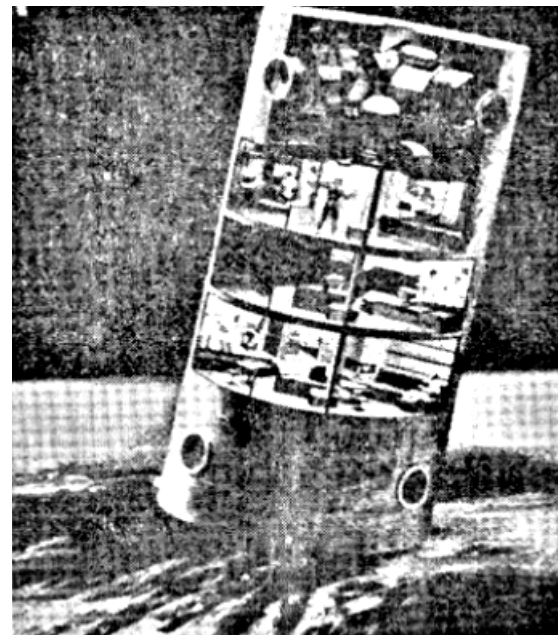
다음에 경제적 입장에서 전망해 본다.

화성 착륙계획을 위해 약 600여불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00억으로 한다면 1년에 40억불을 지출한다 해도 15년이 걸린다.

그러나 상세한 계산은 아직 돼 있지 않으므로 어찌면 400억불이 되지 않을 까하는 일부의견도 있으나 여하튼 그렇다하더라도 1년에 30~40억불을 지출해서 10년 이상을 요한다.

<1970년대를 맞는 우주개발 전망>



<12인용의 우주스테이션>

금후 우주개발에서 우주스테이션, 우주버스, 월 탐험, 원자력 로켓트, 방송위성 등 많은 분야에서 비용을 요하므로 화성계획을 위해 1년 30~40억불 이상의 지출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우주계획의 투자는 사실상 월남 전쟁으로 인해 다소 경제적 자극은 있다고 보이며 우주계획에의 지나친 투자는 미국경제에 지나친 짐이 된다. 1969년 9월 17일의 백악관 발표에서는 「화성계획이 발족하는 70년대 후반에 우주개발비(70년대 초두의 1년 40억불에서)를 1년 80억불까지 증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의 화성 착륙계획은 아직 발족하지 않고 있다. 착수한다 하더라도 30~40억불 이상의 지출은 무리하므로 미국의 화성착륙은 80년대 후반에 가능성 있을 것 같다.

한편 지금까지 입수된 소련의 화성 착륙계획을

<1970년대를 맞는 우주개발 전망>

살펴보면 전술한 바도 있거니와 소련은 1년간의 폐쇄 시스템내의 실험생활 등에서 소련이 화성착륙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왜냐하면 소련은 다른 분야에서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국민생활에서는 오늘날의 소련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상당히 뒤지고 있다.

또한 현재의 소련의 국민총생산은 미국의 3분의 2이며 70년대의 소련의 경제 성장률은 불과 연율 5-6% 라고 발표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간주한다면 화성착륙은 결국 80년대 후반에 낙착될 것이다.

「월·브라운」등이 기대하는 것과 같이 80년대 전반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기타의 개발

70년대(또는 80년대)의 우주개발의 주축에 대하여 논하였으며, 다음은 기타분야에 주목되는 것을 살펴기로 한다.

1. 원자력 로켓

70년대에 종래의 화학 연료 로켓에 대신하여 원자력 로켓이 우주개발의 제1선에 등장한다.

원자력 로켓의 특징은 분사속도가 큰 것이다.

동일 온도에 있어서의 가스의 분사속도는 가스의 분자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나 보통의 화학연료의 최종 생성물(生成物)은 분자량이 18-44인데 대하여 원자력 로켓에서는 18이하이다.

원자력 로켓의 작용유체(作用流體)로서는 물이나 수소를 이용하면 그 분자량은 18 및 1.02이다(양자의 액체 연료의 비중의 비는 1대 0.07). 또한 원자력 로켓에서는 분사가스가 보다 고열이 되어 분사속도가 커진다.

● 원자력 로켓의 실험

현재 미국에서는 NERVA(추력 37.5톤)라고 불리우는 원자력 로켓의 설계와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NERVA의 원형이 되는 실험용 원자력「로켓·엔진」XE가, 1968년 3월에서 69년 8월에 걸쳐 시험되어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다(XE의 최대추력은 24톤이었다).

70년대 초부터 실용 원자력 로켓이나 바의 개발이 시작된다. 이 엔진은 원자력에 의하여 고온에 가열된 수소를 분사한다. 종래의 화학 연료 로켓에서는 비추력(比推力)이 약 400초 이하이나 나바에서는 비추력이 750초 이상에 달한다.

<1970년대를 맞는 우주개발 전망>

● 70년대의 원자력 로켓

나바는 70년대 중반에 완성되어 늦어도 70년대 말에 실용화된다.

나바는 우주 스테이션과 우주기지의 사이를 왕복하는 운송 로켓 그리고 달이나 화성으로 향하는 로켓(세탄 5)의 제3단에 사용된다.

나바에 이어 웨바스가 계획돼 있으며 열출력(熱出力) 500KW의 원자로를 이용하여 추력 150톤을 낸다.

웨바스는 70년대 말에 완성되어 70년대 말 내지 80년대 경부터 사용된다.

웨바스는 주로 달여행, 화성선, 원화성탐험체(遠惑星探險體)의 발사에 이용되거나 기타의 방면에서도 활약하게 될 것이다.

2. 방송위성

제2로서는 통신위성에서 방송위성의 발전을 살펴기로 한다.

● 방송위성의 출력

현재의 통신위성의 출력은 수백 KW 이하이며 통신위성에서 나오는 전파는 우선 국제중계의 전파 망원경으로 수신하여 그 후에 가정의 텔레비에 중계된다.

그러나 위성의 파워를 높이면 전파 망원경을 지나지 않고 직접 가정의 수신기로 수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위성을 방송위성이라고 한다. 라디오 직접 중계방송을 위해서는 적어도 수 KW, 텔레비 직접 중계방송을 위해서는 적어도 수십 KW가 요구된다.

이 때문에 동력으로서 원자력 전지가 필요하다. 태양전지면 1m²당 1.4KW의 태양 에너지를 밖에 쬐이지 않으며, 이 중 약 20%만이 유효하다.

● 70년대의 방송위성

NASA는 현재 3KW의 전력을 갖는 3.2톤의 위성을 개발 중이며, 70년대의 전반에 발사된다.

이에 의하여 위성에 의한 라디오 직접 중계가 가능하게 된다.

여기 따른 것이 스냅 8이라고 하는 원자력 전지를 비치한 위성에서 출력은 35KW, 위성의 질량은 4.5톤으로써 1977년경에 발사된다. 이에 의하여 텔레비 직접중계가 된다.

3. 원화성 탐사체(遠惑星 探査體)

최후에 원화성에의 탐사체를 논하기로 한다.

<1970년대를 맞는 우주개발 전망>

원혹성은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가리킨다. 금성 탐사체는 1962년에 성공하여, 화성 탐사체는 1965년에 성공하였으나, 목성 탐사체는 아직 발사되지 않았다.

●70년대 후반의 기회

금성이 지구에 접근하는 것은 1년 7개월에 한 번, 화성이 지구에 접근하는 것은 2년 2개월에 한 번이며, 탐사체는 이 시기를 택해서 발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혹성에 탐사체를 쏘아올리는데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러나 70년대 후반에는 5개의 원혹성이 지구에 접근하여 더욱 혹성의 상대적 위치로 보아 하나의 탐사체로서 두 개 이상의 혹성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목성에 접근하였을 때 목성의 인력을 이용하여 탐사체의 궤도를 바꾸어 토성에 접근, 그 다음에 토성의 인력으로서 또 다시 궤도를 바꾸어 보다 외부에 타는 혹성으로 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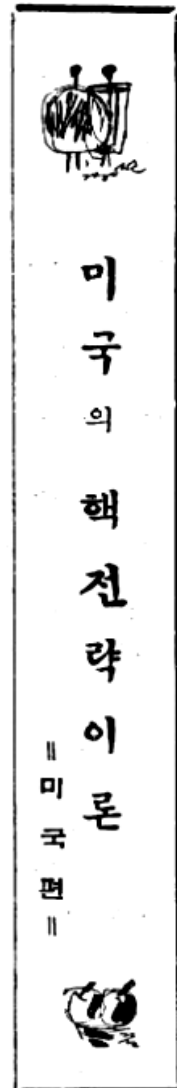
●그랜드스피어 계획

1969년 8월 3일에 미 과학 아카데미의 우주 과학 위원회는 70년대 후반 전후에 5개의 원혹성에의 탐사체를 발사하기 위해 곧 국가계획으로서 취급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 권고는「반-아렌」박사, 맥도넬 박사 등 23인의 특별연구반이 종합한 것으로서 계획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목성 통과비행 : 1976년에 발사하여 목성 대기 중에 관측기기를 투하하여 인공 혹성으로 한다.
2. 목성 주회비행(木星周回飛行) : 1976년에 발사한 목성의 인공 위성으로 한다.
3. 목성, 토성, 명왕성(冥王星)비행 : 1977년에 발사하여 토, 목, 명(冥)에 접근하여 토성에 라디오 비이컨을 투하한다.
4. 목성, 천왕성, 해왕성비행 : 1979년에 발사한다.
5. 목성, 천왕성에의 접근 통과비행 : 80년대 초기에 발사하여 천왕성의 대기 중에 관측장치를 투하한다.

× × ×



「핵병기는 사용할 수 없는 병기이다」
고 위대한 핵개발의 정황이 있다.

서
희
석
〈역〉

사실상「핵병기가 사용할 수 없는 병기이다」이 말이 절대의 진리라면 핵무장은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핵에 의한 협박도 전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현실에서 핵병기는 중, 횡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핵 협박에 대한 핵 보장이 문제가 된다.

그것은 핵병기는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데서 그 유용성을 발휘하는 병기라고 하는 점에 가치가 있다. 원래 핵병기는 사용할 수 없는 병기로서 또는 사용하지 않는 병기로서 발달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사용할 수 있는 병기로서, 아니 그것보다도 제2차 대전 중 독일이 개발하고 있으므로 연합국 측이 서둘지 않으면 위태롭게 생각된 끝에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미국은 맨해튼 계획에 착수하였던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더욱이 사용목적은 도시(都市)에서 대량파괴 공격이었다.

지금이야말로 예를 들면, 미사일 기지만을 노리는 대병력 공격론 등이 대두하고 있으나 1940년대에 있어서는 어디나 도시에 대하여 할 수 있다, 결과로서는 무차별 공격병기로써 개발되어 45년에는 그 2말이 현실로— 독일항복에 따라 애초의 목표를 달리하여 선택되었다.— 일본에 투하되었다.

당시에 미국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대량 파괴 전략 폭격의 한 수단이며, 다시 말해 신형의 대형폭탄에 불과하였다.

어디까지나 실전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사용할 수 없다』 하는 등의 병기는 아니었다.

특히 실제에 사용된 결과가 비용 효과 대비면에서 불 때 소이탄이나 TNT 폭탄보다 유리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전략적으로도 원폭 부하의 시점은 이미 효과적 계속 능력을 잃고 있었던 일본은 항복하기 직전이었으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아니더라도 45년 가을에는 통상적인 공격만으로도 전략적 수습 단계에 들어갔을 런지도 모른다. 대공방위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해상봉쇄를 당하고 있는 당시의 일본은 본토의 방위도 오래 계속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여하튼간에 원폭은 사용되었으며 그 나름대로의 효과를 거두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핵병기는 시험과 확산을 계속하면서 수차례의 분쟁에서 드디어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4분의 1세기를 경과하였다. 25년간의 경험 이 사용할 수 없는 병기라는 인상을 일반의 사람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병기라는 사고방식을 전문가들도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둘의 해석은 현실을 반영하고는 있으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 병기라는 이론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25년간의 역사는 핵보유국이 사실상 핵을 사용하고 싶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을 것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한국 전쟁시에도 순 군사적으로 보아서는 핵병기 사용의 기회는 있었을 것으로 보나 미국은 구라파에서 만일 분쟁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경우 핵 보급이 계속되기 어려운 형편임을 염려하여 핵 병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지난 50년대 초기의 핵 저장량은 초량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동시에 한국에 있어서의 핵 불사용이 결코 단순히 원폭을 세 번 찍이나 아시아에 투하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억제하는 결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하튼 1950년대 초기에는 미국으로 보아서는 핵은 사용하고 싶었으나 사용할 수 없는 병기였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간단히 군사적 선택의 문제이며 병기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드디어 판문점에서 휴전 조인이 체결

되었으나 그로부터 12일 후(53년 8월 8일) 소련의 마렌코프 수상이 소련은 수폭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한국 전쟁중의 51년 10월 5일, 스탈린이 원폭실험을 공식으로 확인한 후부터 1년 10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트르먼 미국대통령이 소련의 원자폭발 탐지를 발표하지 4년째 되는 해였다)

계속하여 54년 3월 16일 미국원자력 위원회도 수폭보유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원·수폭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수폭을 사용하는 병기, 즉 사용할 수 있는 병기로 보았는지 아닌지는 확실치 않으나 적어도 4월에 휴전 조인이 행하여진 인도지나 분쟁 중에 특히 5월의 디엔비엔프의 비극을 당했을 때 원폭사용이 일시 고려되었으나 처칠 영국수상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만류되었던 것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어 적어도 원폭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수 폭을 처음부터 사용할 수 없는 병기로서 개발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 유용성을 발견한 것은 이 수폭시대가 시작된 54년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거기까지는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선택을 해 왔던 핵병기 체계가 수폭의 완성과 더불어—적어도 미국에 있어서는—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게 되었다. 수폭보유 발표의 2개월전, 54년 1월 12일, 워싱턴의 내쇼널·프레스 구락부에서 행한 델레스 미 국무장관의 대량보복정책은 미국의 『선택하는 시간과 장소, 선택방법으로』 대량보복을 가한다고 하는 선언이었으나 내용은 어디까지나 위협이었다. 이것은 상대(소련)의 핵 사용 뿐 아니라 한국전쟁 억제라는 것보다도 단순한 위협으로서 끝났다.

특히 호지명을 상대로 한 대량 보복의 위협은 사실상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의문이며 또한 호지명이 1월 12일의 델레스 장관 연설에 직접 언급하여 대량 보복의 신빙성을 부정하였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5월의 디엔비엔프가 함락되기까지 호지명이 델레스 장관 정책을 부정했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으며, 프랑스가 미국의 원조를 기대하는 가능성에 눈치 채지 않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엔비엔프 대공격을 결의한 이면에는 대량 핵 공격의 실행의 가능성에 『불신』 또는 『회의심』이 있진 않았는지.

이 의문자체는—비록 확인이 없어도—중요하다.

즉 보복이라고 하는 위협에 의한 어제의 심리적 효과(신빙성)의 한계를 명확

히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억제가 효과를 누리기 위해,

(가) 보복력의 존재 (나) 그 힘을 현실적으로 사용한다는 의지(정책결정)와, (다) 그 의지가 상대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세 개의 요소가 합치될 필요가 있다.

힘과 의지가 있어도 그것이 상대에게 정확하게(?) 즉 그와 같이 신용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다.

신용되지 않는, 무시되는 상대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신빙성이 없으면 힘과 의지에 관계없어도 억제할 수는 없다.

이 신빙성의 결여는 힘 또는 의지에의 의문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1) 즉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비록 그것이 틀렸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커뮤니케이션이 결여되고 만다.

(2) 또는 커뮤니케이션 자체의 결여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3) 힘과 의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미국의 보복력 그 자체는 그만큼 평가하면서도 보복을 받았을 경우의 피해를 미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커다랗게 평가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결국 억제 효과는 흐트러지고 미는 것이다.

호지명의 디엔비엔프 공략 결정이 어느 경우에 들어맞는지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당시에 있어서 대량보복의 위협이 효과가 없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없다.

결과론으로서도 이 교훈은 미국의 핵 억지 이론에 정당한 지위를 부여해야 했었다. 그러나 54년 10월까지의 그 증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딜레스씨식인 단순 보복 이론이 발전하여 10월 30일 미국의 핵 전략 이론사상 처음으로 억제론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162호의 2에 등장, 정식적인 정책으로서 채용하게 됨 되었다. 이 때 육군과 해군은 NSC 사무국국의 원안 중에 있던 대량 보복은 억제력(The detertrent)으로서 유효하다는 어구 수정을 요구하고『유일한』이란 어감을 의미하는“the”라고 하는 정관사를 몇 개 중의 하나라고 하는 의미의 부정관사“a”로 바꾸어지게끔 주장하고 결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정으로『주요한 억제력』(The major detertrent)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억제력으로서의 핵 병기가 중시되었다.

또한 핵 전면 전쟁과 핵 한정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하의 전략, 전술 양 핵 병기가 증강되어 핵 억제론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것이 즉 뉴·루크 정책의 기본이며, 익 55년 1월 16일 라이프지에서 딜레스

장관이 발표한 정책의 토대이었다.

그러나 억제론 등장의 주역을 맡은 딜레스씨 자신은「전략 핵 병기는 협박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때문이었으며「여하한 대규모 전쟁도 반드시 핵병기를 끌어 들일 수 있는 일반의 생각 때문에 금제기는 전쟁이 올·오어·너싱의 시대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다」고 R·가스릴 씨는「미사일 방어와 전략이론」에 서 지적하였다. 즉 전쟁이 있다고 하면 전면전쟁이 적어도 핵이 사용되는 (미국측으로 보아) 한정 전쟁(말려 들어간 당사국에는 전면전쟁)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쟁은 없다—적어도 대규모 비핵전쟁은 없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핵이 사용되므로, 라고 하는 생각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여기서 한 번 억제론이 대두되면서—또한 이미 디엔비엔프의 경우가 있으며 사용하지 않는 병기라고 말하면서—비 핵전도 대규모이면 반드시 핵전쟁이 된다. 즉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가 혼동을 이루고 있다.

이 혼동은 실로 전략 핵 병기는 웬만해서는 사용할 수 없으나 전술 핵 병기는 소련 등의 대규모의 재래 병력과 미국이나 NATO 간의 차이에서 대규모 재래 전쟁에 돌입, 이런 때 사용할 수 있는 생각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전술핵은 사용가능하게 되면 전략 핵병기 사용예와 에스칼레이션이 문제가 되어 H. A. 깃신자의 고전「핵병기와 외교정책」이 발표된 1957년에 이 에스칼레이션은 자동적으로 제약될 수 있는나 중요한 연구과제로 되어 있으며, 핵 억제론 자체는 마치 핵 사용론 이면에 숨어 있는 인상을 준다. 그리고 전략 이론의 주류는 핵사용의 가능, 불 가능론에서 상대가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 병력만으로 대하는 편이 좋다는 의론으로 발전하였다. (맥나마라 씨의 반응 전략은 이 당시에 생각하는 방향으로 타이틀을 붙인데 불 과하다.) 이와 같이 해서 핵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견해에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많은 NATO의 구라파 제국에 이 의견이 나오기 시작해서 미국의 통상군 비강화론에도 발전을 가져왔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이론이 50년대 말에서 60년대에 걸쳐 전략이론과 더불어 똑같이 변화해 갔다. 즉 구라파를 주전장(主戰場)으로 한 룬에서—57년의 소련 ICBM등장에 따른 미사일 경쟁의 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미국사상 처음으로 진실하게 미·소

◁ 미국의 핵 전략이론 ▷

대결은『미·소 대륙간 전쟁론으로 옮겨져 사용할 수 있으나』『구별해서』사용한다는 이론으로 귀착된다. 즉 대량보복의 자동 발동이라고 하는 위협의 신빙성을% 일신한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대량 보복정책이 어디까지나, (가) 미국의 핵 우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동시에,(나) 미국 본토 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던 시대의 산물이었던 때문이다.

그것이 일단 미국 본토에서 먼저 당할 가능성이 생길 때 보복자체의 의미가 흐려져 즉 힘의 존재에 의문이—적어도 소련 측에서—나올지 모르는 생각 때문에 핵 억제의 신빙성이 일방적으로 잃게 되었다.

여기서 주장된 것이 전략 핵 병기를 대량(특히 무차별)으로 상대국에 퍼붓는다. 또는 목표를 구별해서 사용하자, 사용해야 할 것이다—그와 같은 것을 상대에게 커뮤니케이트와 함께 있어서 상대의 대량 무차별 기습공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하는 의론이었다. 즉 대륙간 전쟁(또는 구라파에서 일어난 전쟁이 에스카레이트하여 보복발동이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제1단계로서 상대의 병력(대미공격력)을 때리는 대병력 공격과 그래서도 상대가 휴전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2단계로서 대도시(對都市)공격으로 나온다.

또한 그 각 단계에서도 단번에 병력전부나, 도시전부를 때리지 않고. 그 일부를 위력과시적으로 공격하여 전쟁계속을 중지시키는 억제론 등도 출현하였다. 즉 사용하기는 하나(대량 무차별이 아니며) 구별하여 사용할 것을 커뮤니케이트하여 억제하며 필요이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적 사용론도 의론되고 있다.

또한 60년대의 핵 전략론의 특징으로서 57년 이후의 미사일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여 소련의 제1격(기습)을 받아도 미국의 보복력이 상당부분 살아남아야 할 필요성, 즉 비취약 보복력의 필요가 강조되어 ICBM의 고체연료화, 지하 사이로화(地下사이로化), 분산, 전략 핵 폭격기의 공중, 지상대기, 플라리스-미사일 잠수함시스템의 개발 등이 그 결과로서 중요시되게 되었다.

이것이 즉 제2격론(第2擊論)의 발생이다. 상대에게 먼저 당했다 해도 남은 보복력으로 상대에 응분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상대는 처음부터 공격을 단념할 것이라고 하는 심리적 요인을 중시한(제2격적) 억제론이 나왔다.

여기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제2격적 억제론은 대병력·대(對)도시

◁ 미국의 핵 전략이론 ▷

구별론에 소련도 협력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다.

소련도 대미 제1격에서 먼저 도시를 때리지 않는다. 그것은 도시를 때려서 병력을 무상(無傷)으로 남겨 두면 그것이 역습으로 소련의 도시를 때림으로 상호 자살적 행위로 끝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먼저 미국의 병력을 때리면 잘하면 병력을 때려 성공하면, 미국의 보복은 없으며 있다하더라도 견디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피해를 그칠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서 도시 공격은 나중에 서서히 폭격기 등으로 때려도 충분하다고 소련은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미국적 논리 구조다.

물론 소련의 전략가들이 그와 같은 『협력』을 한다는 보장은 없었다.

그러나 60년대에 발달한 군비 컨트롤적인 발상(發想)으로 나간다면, 커뮤니케이션만이라도 충분하게—의회의 증언공표, 정책결정자의 공식견해발표, 학술 논문 등에 의하여—소련에 전해져 미국의 생각을 안다면 소련은 (미국이 생각하는) 소련 자신의 이익 판단에 따라 행동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미국에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생각에는 소련이 과연 그와 같은 이해와 협력을 할 것이냐 아니냐와의 문제와는 별로 기본적 전제조건으로서,

(가) 제1격으로 병력과 도시의 쌍방을 때릴 수 있을 정도의 미사일 수를 소련이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딘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나) 그 선택에서는 도시를 때려서 자기의 도시도 보복당하는 상호 자살행위도 하지 않는다.

(다) 대병력(對兵力)공격이면 ICBM의 수도 다수 살아 있게 될 것이고, 플라리스잠수함은 건재할 것이다.

(라) 소련의 도시는 완전히 미국의 보복력의『인질(人質)』로 되고 있다.

때문에 억제는 유효하다고 하는 생각이 배경으로 되었다.

그러나 만약 이 전제조건이 틀려지면 이 제2격 억제론은 무너질 우려도 있다. 동시에 가령 대소 억제에 대해서는 이 전제조건이 만족할 만한 것이며 억제론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대중공 억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핵병기가 단지 사용할 수 없는 병기는 아니고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병기임을 중공의 지도자에게 커뮤니케이트하여 억제의 효과를 거둘 뿐 아니라 소련에 대한 경우와 달라서 어떤 장해가 존재하는 때문이다.

즉 (가) 미국의 보복 제2격 이론 그 자체는 중공의 능력, (나) 미국이 때릴

중공의 목표의 성격과 또한 (다) 중공의 피해 허용도의 문제이다.

(가) 미국이 선제공격 또는 선수 공격론에 전향한다는 것은 현재는 물론 가까운 장래도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제2격론에 그치는 한 미국에 제1격을 가하지 않는 상대에게 핵 공격의 보복을 행한다는 것은 미국 측으로서는 이론적으로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중공으로서는 자기 측에서 먼저 하지 않는 이상 미국 측에서의 보복의 위협은 없을 것으로 안다.

단지 미국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여러 우방국에 중공이 침략을 한다면 이것을 구실로 미국 측으로부터 당할 이론적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것도 미국의 우방국에 대하여 핵 공격이나 전면 재래 공격이 아닌 행동을 취하였을 경우 과연 미국이 중공에 전면적 재래—또는 핵—보복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능력은 별도로 하고 정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

특히 그와 같은 행동이 폭력 레벨의 얇은 차원으로 방해 공작적으로 행하여진 경우 억제력은 전연 등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중공이 대 주변제국 핵 공격력이 대미직접 공격력을 갖지 않는 한 특히 중공이 핵병기의 실전 전개를 하지 않을 때에는 핵 억제력은 중공에 대하여 신빙성을 가질 수 없다.

(나) 가령 주변 제국에 재래공격 이하의 침략을 중공이 했을 경우에 있어서 미국이 우방국 방위를 위하여 보복을 한다 해도 그 스케일은 한정된 것이 되고 만다. —에스카레이트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보이지 않는 한에 있어서, 그 한정적 보복의 목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대병력 공격이나, 대도시나? 전자의 핵 제조 시설을 포함하였을 경우—그 위협(우방국에 대하여 침략을 하면 핵 공장을 때린다고 하는 위협)—

(가)의 경우와는 다른 신빙성을 중공에 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일부의 비공식적인 의론은 별도로 하고 공식으로 미국의 위정자가 대(對) 핵 공장 보복론을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중공의 반응은 명확하지 않다.

그 이외의 보통의 군사시설의 경우 항공기지를 얻어맞고 연료시설을 어느 정도 파괴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중공은 억제되어 미 우방국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논하기 전에 과연 중공을 억제한다. 즉 중공이 견디어 낼 수 없다(계산이 맞지 않음)고 느낄 정도의 병력(군사)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있다 하더라도 미국을 때릴 보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도발을

중공이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가령 중공이 했다 할 때,

(다) 대(對)도시공격은 대 소련의 경우와 달라서 미국 측에서는 약간의 ICBM으로 충분한 억제력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왔다.

67년 3월 2일의 하원 군사 위원회에서 맥나마라 장관 설명에서도 『중공도시 50개소의 상공에서 비교적 소형의 탄두를 폭발시키면 도시인구의 약 반, 5천만이상과 공업능력의 50% 이상을 파괴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그와 같은 공격은 정부, 기사, 관리층의 주요 인물의 대부분과 숙련노동자의 대부분을 상실케 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이 증언이 미국의 대중공 억제력의 신빙성의 입증을 목표로한 것이라면 그 전체에 다소의 의문이 있다.

첫째, 50개소의 도시공격에서 지도층의 거의와 숙련 노동자의 대부분이 없어진다고 하나 이것은 소련에 대해서도 미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중공만의 특이한 피해 상황으로는—적어도 중공의 지도자는—생각하지 않는다.

단 지식층의『거의』가 죽은 후, 회복, 부흥에 필요한 인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말하자면 반드시 중공만이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군대조직이 방면군단위(方面軍單位)로서 분산되었으며, 긴급 시에는 남아있는 지역의 통합, 부흥에 필요한 인재의 보급은 적어도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꼭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 인구의 사망률만 하더라도 50개의 도시(큰 것부터 순서적으로)의 파괴이며 중공의 5천만 사망이라고 하는 숫자는 총 인구(약 8억)의 약 6.5%에 해당한다.

소련에서 똑같은 50개의 도시가 얻어맞을 때 20%와 미국의 경우는 42%라고 하는 다수의 사망자를 낸다.

(지식층 상실에 있어서는 미·소·중공이 거의 차가 없다).

『피재』(被災, 被爆) 후의 국민의 심리적 원상 복귀(피해에 대한 감각의 촉감)는 문명이 앞선 선진국이 오히려 충격이 크며 부흥도 늦을 가능성이 있다.

요컨대 피해의 허용도에서는 중공의 편이 적어도 미국보다 내뽐성이 강할 지도 모른다.

따라서 똑같은 보복의 위협도 대(對) 소련보다 대 중공의 편이 신빙성이 적다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상대에 대하여 맥나마라 장관대로의 생각인, 손해한정, 확실파괴 등의 개념은 그다지 통하지 않는다—

통한다 하더라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지만 그와 같은 움직임은 케네디-존슨시대에는 볼 수 없었다.

있었다는 것은 대 소련 억제이론이 그대로 대중공에 외용된다는 것 보다 대중공의 억제의 편이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 평가였다.

특히 케네디-존슨 양 대통령 밑에 종사했던 맥나마라씨의 대 소련 전략에 있어서도 당시에 미국 내부에서 비판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이 비판은 제 2차 중부부터 격론이 있었다. 비판의 제일은 이론 면에 있어서이다. 수차에 걸친 의회 각 위원회에서의 국방에 관한 설명에서 장관이 언급한 것과 같이 현대의 전쟁에서는, 미·소전면전이 된다면「승자는 있을 수 없다」그리고 서로 대전 후 비틀거리면서 억지로 먼저 일어난 자가 상대보다 앞서서(프리베일)정도로서 끝난다.

더욱 그 결과 황폐로 돌아간 상대국에서는 토지나 배상금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잘못하면 살아남은 상대국가의 구제를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자국의 자원을 바칠 이유까지 생기게 된다.

프리베일한 곳에서 얻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핵전면전쟁의 결과이며, 따라서 그런 결과를 (가) 상대와 같이 상호간 이해하며, (나) 그와 같은 결과가 오지 않게끔 분쟁을 미 연에 처리하며, (다) 만일 분쟁이 있다하더라도 그 규모를 누르고 조기해결을 도모한다. 즉 분쟁(위기)처리를 계획적으로 행하는 것이 현대군비의 기본 목적이었으며, 이 트롤 사상에 관한한 맥나마라씨는 확실했다.

이 생각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의회 측에서나 학계에서도 또한 미 군부에서도 의론은 적었다. 그러나 일부에는 이 기본적인 맥나마라 이론을, 노·윈(전쟁부정)론이라고 해서 비난하는 측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미·소전에 관한 맥나마라 이론이 정당하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 상대의 공격의 후에 살아남은 전략병기로써 제2격(보복) 공격을 가하여, (나) 상대에 대하여 미국이 받은 이상의 타격을 주어, 참어나갈 수 없을 정도로(특히 전면파괴, 즉 일제 도 시공격에 미치지 못한다) 반격파괴를 가하여 남은 상대의 병력을 때릴 수가 있다고 하는 때문이다.

(가)가 즉 손해 한정론 (나)가 확실 파괴론이라고 하여 이를 충칭하여 유연보복(柔軟報復; 제2격)전략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맥나마라 전략은 이 대 소련정책에서도 불안정하게 보였다.

왜냐하면 그 유엔 보복전략의 전제이었던

상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힘과 (나) 대(對)병력 공격(적방위들과)력에 의문이 있었던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연 소련의 제일격을 받아서, 살아남을 병력이 얼마만큼 있을까가 문제가 되어 맥나마라 장관의 대 소련전략이론이 동요했다.

한편 재래(비핵; 非核) 국지전쟁에 대해서는 (가) 상대국과의 상호이해도 결핍되고, (나) 분쟁의 미연처리의 방법이 유연(柔軟)「보복」의 위협——게릴라의 남하 침입에 대하여, 또는 테로에 대항해서, 한정 보복의 위협과 실시 뿐——으로서 저지되지 않았다.

또한 사실 위협은 보복개시 이전에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은 때문에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특히 보복계속의 유효성도「한정」원칙에 따라 있는 이상, 효과가 적은 것은 맥나마라 장관 자신도 시인하였다.

유연한 정적 위협 전략이 그다지 효과가 없는 상대에게는 철저하게 파괴를 하든가 또는 다른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전라도, 월맹을 완전 분쇄하기까지는 미·소공존과 미·중공충돌회피의 기본정 책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이상 이 2개의 원칙에 묶여 있는 한, 오히려 한정유연 공격에 그치며 상대의 굴복에 도달하느냐는 맥나마라 장관도 인정하듯이 의문이었다.

그러나 기타의 수단으로 한다면 대 베트남 정책, 대월남 정부 관계 등, 순 군사면과는 다른 분야에서, 평정작전에 이르는 장기의 더욱 막대한 경비를 내는 월남 작전이 필요하게 된다.

거기 문제가 되는 것이 그와 같은 비핵(非核)으로, 특히「통상전쟁이하」의 분쟁처리 이론의 결여이었다.

또 하나는 이론이 맞아도 그것을 실시하는 경우의 재래병기 체계문제이다.

특히 여기서 맥나마라 장관의 이론이 비판을 받는 것은 재래전과 그 이하의 분쟁에 대처 하는 병기나「준병기」의 개발결정의 지연이다.

헬리콥터, 항공모함, 해상함선 등의 재래전에 있어서의 효과를 61년 이후 어떻게 보아 왔는지?——재래전부대의 중강을 역설하면서 현실로는 헬리콥터를 줄이고 항공모함의 동력에 대해서도 장기작전에 유리한 핵 동력을 부정한 국방수뇌의 병기체계면 에서와 정책결정에 비난이 집중하였다.

미국은 월남과 같은 정세에 대처하는 전략이론을 결여한 채 개입하였다.

반대로 말하면 대 소련 핵전략(그것도 주로 구라파를 가상전장으로 한 전략)에 역점을 두어온 맥나마라 전략과, 비용

효과대비 등—숫자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각하여 숫자에 나타
나지 않은 요인에 좌우되기 쉬운 분쟁에는 정책결정면에서 유용성에 한계가
있는 전자 계산기적 판단을 전통과 경험에 너무나도 앞세웠다—근대과 전략
이 핵을 떠난 대 게릴라전에서 취약성을 보인
것 같다. 반대로 핵전략 중심주의가 월남의 실패의 간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도 할 수 있다.

또한 대소전략은 중동 분쟁과 같은 미·소간의 상호이해의 결과, 분쟁의 국한
화에 성공한 적도 있다.

따라서 대소전략은 미·소대결 회피 이외에 무효라고 보는 것은 전부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정리(定理)가 성공하기에는 분쟁당사국의 분쟁국한능
력—외교력, 군사력이 상당한 규모의 것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아랍분쟁에 있어서의 미국의「성공」은 그 대 소련분쟁 처리가 당사
국(이스라엘)과 군비와 더불어 효과 발휘한 좋은 예이다.

그러나 만일 분쟁 확대 저지에 성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과연 한정화
에 어느 정도 성공하였는지는 많은 의문의 문제를 미국의 연구자간에 남겨
두고 있다.

또한 이 문제점은 한정적 개입에 유효한 비행병기체계개발의 문제나, 베트남
이외에 제 2, 제3의 유사한 분쟁의 동시적인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한 해외「공약」의 과잉의 문제로서 나누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역시 맥나마라 이론에 비판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대(對)소련 핵전략중심주의가 미국의 전략전체에 끼친 영향으로서 미국
의 병기체계 개발을 둘러싼 정책결정에 직접영향을 준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TFX 결정 이후 ABM 전개 연기결정에서 한정적 전개 결정에 관련하여
비판이 강해졌다.

맥나마라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1) 코스트라 효율계산을 기초로 한 과학적
인 병참 시스템과 그에 따른 전략개념을 펜타곤에 도입하여 (2) 동사에「핵 알
마게돈과 항복」양자택일적, 대략보복, 즉시 반응 전략을 버리고, 제2격 유연반
응 전략에 따른 억지정책을 취하여 그에 맞추어 ICBM의 지하호화(地下壕化)나
폴라리스 잠수함대의 증강을 도모, (3) 재래형 이하의 분쟁에 대처할 특수부대,
게릴라전 요원이나 장비에 힘을 기울여 우방국이 핵을 갖는다는 것은 미국의
대 소련 핵전략 콘트롤을 제약한다고 생각하여 우방국에의 핵 확산을 거부
하면서 NATO 제국에 재래병력의 증강을 꾀하였다.

이중 (1)과 (2)에 대해서는 성공하였다. 특히 B 70계획의 파기나 스카이 볼트
미사일 계획의 중지 등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비판의 소리는 오늘날 자
취를 감췄다.

한편 육군이 1960년부터 착수하고 있었던 헬리콥터의 화력증강계획을 코스트·
효율대비 계산에서 매년 각하해 왔다. 결국 66년에는 월남 미군의 강력한 요구
를 받아들여 2.7인치 로켓 장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 육군의 일부는, 65년 초에 실전배치를 하였더라면 할 정도로 위력을 발휘
하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

또한 헬리콥터 자체도 수년전 장관결재에서 대폭증강배치는 불요하다고 하
면서 예산을 잘라 헬리콥터의 실전효용이 커지던 66년에는 월남의 1,600기의
헬리콥터는 자유제국, 소련, 중공의 보유수보다도 많다고 강조하였으나—그
대부분은「타의 전투 부대에서 빼돌렸다」는 것을 비치지 않았다(에비에이슨 위
크지, 1966년 5월 2일자. 로버트 호스기자)고 한다.

또한 66년에 상원에서 증언하였을 때 월남에서의 폭탄 부족에 대하여「미군
이 1964년에 750파운드 폭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핵 폭격기인 B52가
통상 폭탄을 적재할 것을 예상하지 않았던 때문이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재는
SAC(전략공군)에 있어서 1958년에서 61년까지 또한 64년 이 후도 B47이나 B52
의 통상폭탄 투하 연습은 행해졌다고 한다.

(전술한 에비에이슨 위크지).

핵폭격기가 통상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맥나마라 이론을 가지고 말한다면 확
실히 코스트와 폭격 효과의 비율을 볼 때 헛수고에 가깝다.— 단, 그것은 전
략적(대소련)보복공격에 있어서에 한한 것이다.

X병기체계의 X용도이외에 있는 여건 하에서는, 심 분「타산이 맞는다」. Y 용
도가 실전의 전훈(戰訓)으로서 나타난다.

즉 「타산계산으로서는 나올 수 없다」

변수(變數)자료를 얻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일보 나아가면 X용도(대 소련 핵 공격)가 당분간 실시되지 않는다—즉
미·소공존—이라고 하는 전제에서 베트남 개입과 에스카레이트를 하는 이상
이미 X용도에는, 해마다 구식화하려고 하는 B52를 북폭, 기타의 (Y)용도에 따
른 가능성과 필요성은 OR상에서도 나타났다.

B52는 핵 공격용이라고 하는 고정관념부터 우선 타파해야 된다.

반대로 프로펠러기 특히 저속기(低速機)의 새로운 활용일 것이다.

제트기 시대에 있어서 소외되기 쉬웠던 프로펠러기에 의한 폭격이 월맹의 레이더의 사각도이용(死角度利用)이나, SAM(지대공 마사일)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저공폭격에 효과를 발휘한 사실. 이것은 SAM의 유효사정외(위에서)에서 하는 B52의 고공폭격과 더불어—전연 상반하는 이유에서— 핵폭격용과 구식박물관 형이라는 통속적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병기체제와 개발에 동등한 효율을 거두었다.

또한 그 외 당시 이용 가능한 수단에 비하여 코스트도 높지 않다는 뜻에서 「목적·기능별」의 코스트 효율 대비에 따른 병기체제 개발 정책에 일침이 되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심도가 깊다.

첫째, 평시에 있어서의 병참보급이나 전략이론은 경비절약이라는 뜻에서 무조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분쟁의 양상이 계산기에 인프트 될 데이터에 수량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요인을 표시하면 시스템 분석자들이 새로운 요인을 분석하여 병기체제의 새로운 대응책을 강구하기 까지에는 귀중한 리이드 타임을 잃는다.

그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분쟁해결의 시기조차 잃어버린다. 이것이 월남에서 명백해 졌다.

둘째는, 전략이론에 있어서의 전술한 바와 같은 대소편중(대 구라과 편중)의 수정이 병기 체계 개발정책에 이르기까지에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것이다.

이미 62년에 금후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은 재래전 이하의 분쟁으로서 현실에는 병기체제의 정비는 핵전략 억제력 특히 확실 파괴 전력의 정비만큼 앞서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베트남에서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M-16(오린·마체 손사가 개발한 니틀셀로스 와 트로구리세링의 고속(高速)볼 추진제) WC 846의 이용으로서 초속 3,300 피트, 1분간 1,000발의 발사속도를 갖는 장글전(및 시가전)등에 있어서의 근접전 신병기로서 현재 가장 우수한 소화기라고 한다.

이것이(M-16) 실전 배비(配備)되어, 그 자동장치의 고장이 종종 입에 오르내렸다.

이 소문이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한 56년 여름이래 펜타곤 당국은 이 고장의 기계적 원인을 부정하고 57년 봄에는 해병대 참모총장 자신이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16의 우수성을 언급하고 고장은 손질(手入) 불충분이 그 원인의 대부분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설명은 당시 많은 의문을 남겼다. 왜냐하면 (가) 이 종류의 병기는 최악의 조건하에서 도,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 것

(나) 늪지대에서 장시간 연속발사하며, 특히 수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다) 고장이 나도 제1선에서 전투 중 간단하게 병사들이 수리 또는 부품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라) 따라서 이와 같은 실전상의 요구를 지상명령으로 생사의 가름판에서 총알이 안 나가는 것 보다는 좋다—라고 하는(시스템·아나리스트들의 계산 상식을 초월한) 성능요구상의 「양보」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계산지상주의에 입각한다면 본토에 있어서의 「실질적」 테스트의 결과, 예를 들면 1,000발에 1발정도 차밍을 일으키는 것은, 「허용오차」이고, 「확률」상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시스템·아나리스트이었다.

그 대부분 스스로 전투경험 없이 그 상상력을 초월한 악 조건하에서 전투에 종사하는 병사가—해야 할 것을 알고 있어도— 「손질」을 할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상황에 있는 것은 계산 자료에도 들어가지 않았나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M-16을 수개월에 걸쳐 「다시 테스트」한 결과 섭섭하게도 WC 846이 고성능인 때문에 자동장치를 오염하는 것과 같은 「가스」가 탄창 안에 남아 있는 것을 알았다.

결국 그 대책으로서 매분 1,000발의 발사속도를 650-850발로 낮추어, 차밍 횟수를 4,000발에 1회의 「오차」로 내리게 하였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 있는 약 13만 5천의 M-16전부에 저속화 반화—를 붙이게 했다(타입지, 67년 9월 8일자)

여기서 배울 것은, (가) 발사속도나 자동장치 등의 「효율」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장비」라고 하는 중요한 병기체계상의 요인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위험, (나) 여하한 실전적 테스트도 실전에서의 전훈을 모두(여하한 계산기를 이용해 서라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실전에는 가급적 빨리 투입하여 전훈(戰勳)을 살리고 필요한 변경을 빨리 행할 것이 필요하다.

(라) 그 때문에 분쟁발생 이전에 연구개발 뿐 아니라 수적으로 한정된 것이라도 실전 대비하는 한정상재군비(限定常在軍備)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M-16의 교훈은 신·고성능 병기를 보다 저성능화 함으로써, 효율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병기체계 개발상의 귀중한 데이터가 되었다.

× × ×

핵 억제전략 중심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핵 편중정책(核偏重政策)이 「가장 일어나기 쉬운 분쟁」을 억제하기는 커녕 개입에 있어서 필요한 병기체계개발과 그

◁ 미국의 핵 전략이론 ▷

유효한 사용에 필요한 이론 체계의 발전을 같이 저해하는 결과에—물론 고의는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소련이 미국에(주로 보복병력을 노리고) 가할 공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한정할 수 없으면 보복의 신빙성은 감소되고 만다.

그 손해한정에는 하나의 방어면과 공격면이 있다.

전자는 BMD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ICBM) 보복력을 살려둘 것이며, 세후가드:ABM전개는 그에 해당한다. 그러나 맥나마라 장관은 손해한정을 부르짖으며, ICBM기지방어 중심이 아니고 가벼운 도시방어를 위해서「가벼운 ABM」센치넬 전개를 1937년 가을에 결정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이 결정까지—그 후도 계속—맥나마라 장관은 공격면, 즉 상대의 공격력을 반격하는 효율을 높힘으로써, 미국의 피해를 한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의 구라과에서 일어난 소련에 의한 전면적 공격에 대하여서 여하히 대처하느냐, 미국본토나 구라과가 핵 공격을 받은「후(後)에」와 같이 제2격론을 엄밀히 해석한 것으로서는 폴라리스 부대를 대폭적으로 증강하지 않는 한 대 소련 신빙성이 저하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라리스 부대는 41척에 한정되어 있는— 마치 소련의 대잠공격 능력이 향상하지 않는 것처럼 미국의 정책당사자는 아직까지 핵의 제1(선수)사용을 말한 적이 없으나,「먼저는 사용하지 않는다」고도 공개한 적은 없다. 그러나 현실 문제로서는 대량공격에 대하여 혹종의 경고 후에 먼저(가능하면 전술핵으로) 사용한 준비가 없으면 핵 억제제의 신빙성도 없고, 손해 한정에도 필요치 않다.

NATO 핵계획위원회의 관심도 거기 집중되어 있다.

관심의 도는—우방국 측에서는 공식으로는 적으나 이론적으로는 아시아에 있어서 대중공 억제력의 문제로서 대두되어도 별달리 생각될 것도 없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이 핵병기를 어떤 상황하에서 사용하느냐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핵전쟁 이외의 분쟁에 가볍게 대처할 것—반대로 말하면 최후의 수단일 때에 한해서 사용하라—는 것을 명백히 한다면 그만큼 핵사용을 단행할 찬스가 멀어지며 보복의 신빙성은 저하하여 베트남 나름의 분쟁에 미국이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짙다.

◁ 미국의 핵 전략이론 ▷

이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닉슨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1969년 11월 3일의 TV 방송)우방국은 비핵(非核)전쟁에는 자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은 핵보장 이외 될 수 있는 한 관여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핵국—즉 소련이나 중공—이 우방국을 위협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할 때 미국의 선택은 한정된 것이다.

심리적으로 따라서 간접적인 위협만으로서 핵보복 활동을 정당화할 찬스를 만들 것이냐가 과연 의문이다.

이와 같은 보장은 과연「올·오어 너싱」의 정책에 가깝다고 위협하는 당사국에서 볼지 모른다.

일단「너싱」으로 보아 처리한다면 신빙성은 저하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 사용 즉 선제(先制)사용의 역습적인 협박밖에 없으나 이를 협박실현하지 않을 경우 신빙성은 더욱 저하하고 만다.

또는 보복적 전략공격이 아니고 전술핵의 데몬스트레이션 적 사용, 가상공격의 시나리오 등을 전문가도 있으나, 어느 것이나 전략핵 사용에의 에스카레이션의 리스크를 피할 수는 없다.

특히 우방국에의 핵 보장도 이와 같은 형태로서 발동하는 자체, (가) 핵억제 그의 실패를 의미하며 (나) 미 본토에의「보복(제2격)」공격의 가능성도 있다.

여기서 그와 같은 공격을 BMD로 존재 한정하여,「제3 보복력」을 남긴다. 그 보복력의 적방어 돌파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MIRV(각개 유도탄두;各個誘導彈頭)와, 잠수함이나 해저 미사일 시스템 개발 등의 기술적 경쟁이 에스카레이트 해가는 경향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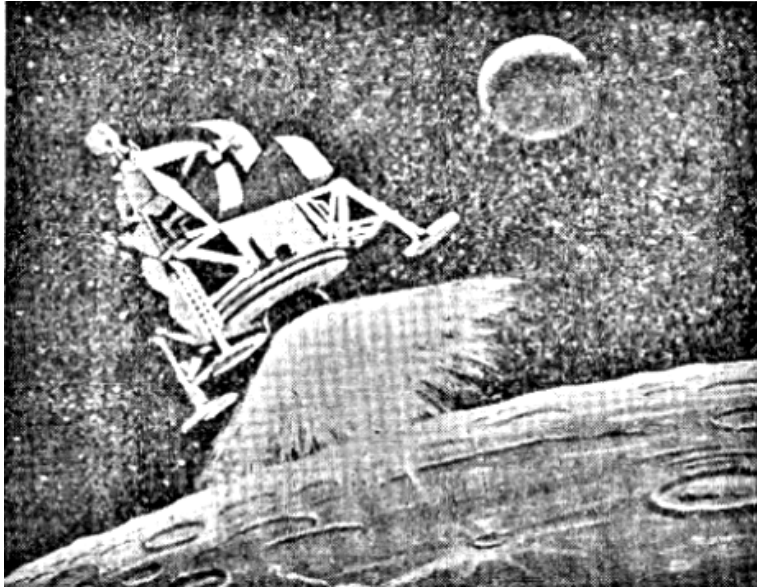
이 자체는 현재의 대소핵 억지론의 불안정상을 말하고 있다.

ABM 전개나, 동결이나, MIRV 금지, 해저군사 이용금지의 여러 안도를 살펴보면 70년대에 드디어 불안정화할지도 모를 핵억제의 약점을 군비 콘트롤 조치에서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의 일단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는 대미 제1격력(힘)이 없는 중공에의 핵 보복위협 신빙성이 없으나 75년 이후에는 현재의 대소 억제수준에 가까운 불안정에 근접하거나 불연이면 새로운 대중공 억제론이 출현하든가 보다 근본적으로 70년대에 있어서 핵은 사용할 수 없는 병기로 될 것인가. 사용하지 않는 유용성을 새로이 발견할 수 있든가, 그와 같은 가능성을 탐지하기 위해 이하 수회에 걸쳐 50년대 이후 많은 이론적 변화를 경험한 미국의 핵 억제론에 관하여 상세한 분석을 가하여서 핵 억제제의 효과와 한계를 검토해야할 것이다.

군사적으로 번져가는

미·소 우주경쟁



김홍선

1. 경쟁 장소는 달에서부터 지구근처에

1950년대의 후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경쟁과 병행하여 시작된 미·소의 우주개발경쟁은, 소련이 당초부터 압도적으로 리드한 형편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60년대 말기에 있어서는 미국이 소련을 앞질러 이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아폴로 11호 우주기에 의한 인간의 달에 착륙과 그의 모양의 리얼타임이 텔레비전 중계의 실황은 그러한 인상을 확고하게 하였고 수 10년간의 미·소 우주경쟁에「승부가 났다」는 것을 전세계에 확신시켰다. 이 점에서 아폴로 11호는

★ 군사적으로 번져가는 미·소 우주경쟁 ★

하나의 대국간(大國間) 경쟁에 매듭을 지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명백한 매듭 점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많은 유식층(有識層)은 우주를 둘러싼 미·소의 경쟁은 끝난 것처럼 생각되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단순하게 끝날 것이 못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매듭 점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쟁의 출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잠깐 우주개발경쟁이 시작된 때를 생각하면 미·소는 ICBM과 IRBM(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개발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다. 오늘날 미·소는 전략군비규제교섭(SALT)이 상정하는 것처럼 ABM(탄도 미사일 요격 미사일)과 MIRV(다핵탄두)의 개발, 전개를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다.

미국이 초기의 우주경쟁에서 소련에 리드를 빼앗긴 것은 ICBM의 개발에 너무나 많은 노력을 쏟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며 미사일 개발과 전개경쟁에서는 소련을 누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우주개발에서 아폴로에 의하여 소련을 눌렀으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각종 신형군용비상체(軍用飛翔體)체계의 개발은 소련이 약간 리드한 느낌을 준다.

현 단계에서 미국에는 소련이 실용단계 직전에 있는 FOBS(준궤도폭격체계)에 해당되는 병기(兵器)는 없다. 또한, ABM도 69년 말에 겨우「세이프카드」계획이 굳어져서 실전화(實戰化)에로의 첫 출발이 시작되었으며 MIRV나 SALT의 성과가 판명될 때까지의 실험을 억제하고 있는 형편이다.

「세이프카드」계획은 69년 3월 14일에 공격용 ICBM의 발사기지의 방위에 한정된 형태로 겨우 닉슨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것이며 존슨 대통령시대의 주요 대도시 방위구상은 완전히 변경되었다.

그리고 지난 10월 2일에 하원(下院), 또 11월 6일에 상원(上院)을 통과한「세이프카드」계획 예산이 7억 5천 9백 10만불이며 몬태나주 부근에 있는 미니트먼 ICBM 지하기지의 방위배치를 제1기 계획으로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10개소, 합계 12개소의 ICBM 기지에 ABM망의 배치를 1975년에 끝마칠 예정이다.

MIRV와 대해서는 미·소 다 같이 어느 정도의 기술적 단계에 도달한 것 같으며, 연속적인 지하핵실험의 진행과 함께 실험단계는 벌써 지난 것 같다. 이미 미국은 미니트먼 3형 ICBM과 포세이돈 FBM(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으로 MIRV 실험을 하고 있으며 소련은 SS-9 및 그의 신형 SS-11 ICBM을 장비중인 것을 미 국방총성은 알고 있다.

미국측의 견해로는 SS-9에 장비될 탄두는

★ 군사적으로 번져가는 미·소 우주경쟁 ★

위력 5메가톤 짜리면 3개, 1-2메가톤 짜리면 6개이며 이와 같은 탄두들은 미국의 MIRV와 같은 별개의 목표물을 향하여 유도가 되지 않는 것이다. 또 페네트레이션(침투력)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와 같은 점에서 미국이 개발한 MIRV는 복수(復數)탄두를 별개의 목표물에 침투능력을 가지고 날아가게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ABM에 의한 요격 돌파에 중점을 둔 설계이다.

소련의 ICBM과 FOBS는 질적 성능의 향상뿐만이 아니라 양적 세력의 확대를 계속하고 있다. 69년 10월 미국정부 정보통에서 전해진 바에 의하면 소련의 ICBM의 실전회수(實戰化數)는 1,350발은 될 것이며 미국은 1,054발이다.

또 정보에 의하면 소련은 이 밖에도 IRBM 또는 MRBM은 700발 이상이며 무서울 정도로 그 증강률을 보이고 있다. 아폴로 11호와 12호의 달 착륙은 이와 같은 긴장 속에서 실행된 것이지만 이것으로써 우주경쟁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속단일 것이다. 아폴로 이후의 소련이 지향할 우주계획과 이에 대응할 미국의 우주계획은 지구에 가까운 궤도상의 경쟁일 것이며 더욱이 군사적 색채를 표면화시킬 것이고 경쟁의 양상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다.

2. 발사 호스트 저하에 대한 노력

미·소 우주 경쟁이 지구에 가까운 궤도상으로 돌아왔다고 말하였지만 이것은 어떠한 것일까?

지금의 우주공학 기술로는 지구상을 기지로써 우주공간에 물체를 보낼 때에는 대량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거기에 비례하여서 쏘아 올리기 비용은 막대한 것이다. 지금 미국은 아폴로우주기 발사 때 사용한 세턴5형 로케트는 초대형이기 때문에 재래의 것에 비하여 발사 비용은 단위중량 당 값싸게 되어 있다. 그래도 궤도에 띄울 중량 1킬로그램당 800만원정도이다(화폐는 일화).

미국 우주공학의 1970년대의 목표는 발사 호스트를 세턴5형의 가치의 백분의 일에서 이백분의 일 정도까지 저하시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폭 발사비용 저감(低減)을 꾀하는 목적은 말할 것 없이 우주개발비용을 계획의 거대화(巨大化)에 따라 증대될 가능성과 이에 대한 세론의 비판을 완화하기 때문이다.

궤도예의 베이루우트 발사 코스트를 대폭 저감시킬 몇 개의 방법이 생각된다. 그 첫째는 발사용 로케트·부스터를 지금과 같이 사용 후 버리지 말고 회수하여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 군사적으로 번져가는 미·소 우주경쟁 ★

지금까지 시험하여 온 로케트·부스터의 회수방법은 탄도비행의 최종기에 일정한 고도에서 파라슈트 또는 파라윙크라고 하는 접는 석의 연과 같은 날개를 펴서 해상에 연착수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부스터를 해상에 파손됨이 없이 착수시켰더라도 실제로 그의 존재를 탐지하여 회수 작업을 파견하는 사이에 바다에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고 착수지역의 기후라도 나쁘면 작업대는 착수 장소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회수작업은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다년간에 걸쳐 부스터의 회수에 관한 기초실험 결과로 이상과 같은 단점을 알게 되어 최근에는 자연낙하에 의한 회수는 중지한 것 같다. 이에 대하여 제창하고 있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하여야 될 것이다.

지금부터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스트래프-온」방식이라고 하는 모체가 될 비행체의 측면에 로케트·부스터를 달고 우선 이 부스터의 추력(推力)으로 지상을 이륙하여 가속(加速)한다. 비행체나 초속 2,500m까지 가속될 때 이 부스터는 비행체에서 떨어져 비행체는 저장한 로케트·엔진을 사용하여 궤도를 향한다.

떨어져 나간 부스터는 동력을 정지시켜 있음으로 잠깐 동안 강하(降下)하지만 어느 정도 고도에 도달하면 감춰진 날개가 펴지며 미리 장치되어 있는 터보후양-엔진의 동력을 사용하여 비행기처럼 대기중을 비행하면 다시 발사한 지점에 돌아온다. 부스터에는 강착(降着)장치가 있어서 비행장의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다. 비행체에는 사람이 탑승하나 이 회수 부스터부분에도 사람이 탑승하여 회수비행조종을 할 것을 제창하는 회사도 있다. 세턴5형 로케트의 경우 그 발사중량의 약 80%는 제1단 부스터이며 이것을 사용하여 상승하는 고도는 약 60km 뿐이다.

이미 조종사가 탄 비행기로서는 미국의 X-15 실험기가 1965년에 고도 108km 정도까지 도달되어 귀환하였으며 속도도 초속 2km 좀 넘는 기록을 1965년 가을에 세웠다. 이와 같은 실적으로 볼 때 초속 2.5km, 고도 60km에 도달한 부스터를 인간이 조종하여 회수지점까지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모체의 비행체도 궤도까지 가속, 상승하려면 부스터를 떨어뜨린 뒤에는 그다지 많은 에너지를 필요치 않는다. 비행체의 총중량을 2백톤이라고 하면 그 중 70%에 해당되는 140톤이 연료라고 하며 왕복분의 동력에 충분하다는

시험계산이 노스어메리칸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 비행체는 궤도에서 돌아올 적에 비치해 둔 로케트는 마하 10의 스피드까지 동력 감속하고 날개와 미익을 기체에서 꺼내어 약 60도의 큰 영각(迎角)을 취하여 강하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고도 12km에 달하면 기체의 자세를 수평에 가까운 상태로 하여 제트엔진을 이용하여 착륙비행태세에 들어간다. 귀환 예정공항에 가까워지면 비행체는 140노트란 제트여객기보다 조금 빠른 정도의 속도로 착륙한다.

3. 비행체 회수, 재사용의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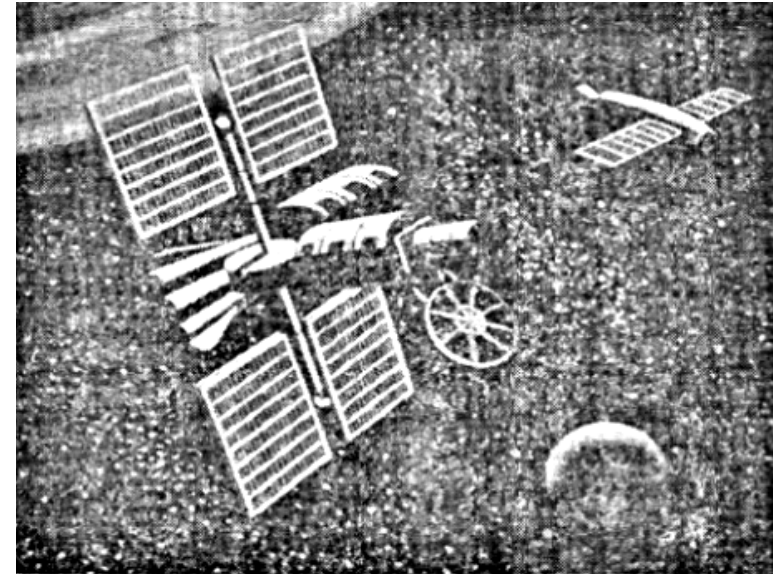
이와 같은 방법을 강구하면 우주비행체는 부스터와 같이 모두 회수하게 되며 소비되는 것은 연료뿐이다. 액체산소는 미국에서는 1kg에 약 33원 전후, 케모신계 연료도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 1,500톤의 연료를 소비한다면 하더라도 연료비는 5천만원 정도이다.

미국의 기술자들의 시험계산으로는 적어도 백회궤도와 지상의 왕복비행에 별 영향이 없도록하고 1kg당 수 만원대로 되어야 될 것이다. 먼저 말한 바와 같이 X-15시험기는 8대 제작되어 모두 합하여 약 50회의 비행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어서 수십 회의 반복비행은 충분히 가능하며 백회의 목표달성도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비행체와 부스터를 이륙할 때의 중량가운데 궤도에 오를 베이루우트가 어느 정도의 무게가 될 것인가, 탑재효율과 경제성 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의 항공우주산업과 NASA가 착안하는 것은 총중량의 15%의 탑재량이다. 2천톤으로 출발할 적에 30톤의 탑재력을 줄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적게 보이지만은 1970년대의 후반에 실용화될 예정의 초음속여객기(SST)의 경우에도 이륙 총중량에 대한 베이루우트는 6%정도이므로 15%를 궤도에 보내고 또 지상에 무사히 돌아오게 하는 것은 역시 곤란하다. 적어도 초기에는 1% 적재하면 성공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지금 사탄-5형을 발사한 아폴로 우주기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면은 더욱 더 확실 할 런지 모르겠다. 아폴로 11호의 경우 지상을 이륙할 때의 중량은 2,092톤이 조금 더 많았지만 달을 도는 궤도에 돌입한 것은 약 43.5톤으로 출발시의 15%이며 태평양에 착수하였을 때에는 출발시의 0.2%에 해당하는 약 5톤반이 되어 있다.

비행체의 설계는 이 베이루우트 탑재



비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비행기처럼 공기역학적 양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기 중에서의 양력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체는 리프팅구보데이라고 불리는 방법을 사용하여 날개뿐이 아니고 동체도 양력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동체의 저부(低部)가 평평하게 돼 있어 날개와 같은 효과가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형의 비행체는 기수를 위로 향하게 해 주면 전체적으로 대단히 큰 저항이 생겨 궤도 속도에서 활공 중에 감속시키는데도 매우 편리한 까닭이다. 충분히 감속되면 그대로 실속(失速)해서 추락하기 때문에 기체 내에서 제트엔진을 밖으로 끌어내어 대기를 이용하는 보통 제트기처럼 순항(巡航)비행을 하는 까닭이다.

4. 개발을 서두르는 우주 샷틀기 계획

지금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구상의 우주비상체 시스템을「우주셔틀기」계획

★ 군사적으로 번져가는 미·소 우주경쟁 ★

으로서 급속하게 개발할 계획이 우주셔틀기의 당초의 사용목적은 1970년대의 후기에 실현할 대형우주궤도 스테이션에 대한 지상에서의 인원과 물자의 보급 때문이지만 우주공간 빠트로우루 사찰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생각하였다.

이 빠트로우루 용도는 더 말할 필요 없이 군사용이지만 우주공간의 예정궤도로부터 좌우 각각 2,400-3,200km의 폭으로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비상체의 개발은 미 공군의 제창이었다.

NASA의 계상으로서 이 우주 셔틀기 계획의 총비용은 약 백억불에 달할 것이며 그 제1호로서 급년에는 개발계약의 단계가 되므로 미 대수항공우주산업(美大手航空宇宙産業)은 그루우프로 이에 응할 태세이다. 벌써 로키투사는 보잉사의 공동으로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로」사는 비상체, 「보」사는 발사회수 부스터를 각각 담당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제네럴·다이나믹스와 마아칭 마리에타사와의 팀과 노스·어메리칸·록과우엘사와 맥터널·다그라스사의 팀도 경합한다. 1월의 기본설계 경쟁 입찰결과 2-3사가 선정되어 9개월간의 연구가 위탁되었다.

이 결과를 중심으로 1971년 봄에는 상세한 설계와 초기적 개발단계에 들어가기의 데이 터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검토결과 1972년 여름에는 본격적인 개발 계약을 1개사와 체결하게 될 것이다.

지금 말한 각 회사에서 제출한 우주셔틀기의 설계안에 의하면 지상에서 발사될 때는 무게가 1,500-2,000톤으로 어느 것이든 2-4기의 부스터를 측면에 매어 달거나 또는 본체(本體)에 얹이는 형으로 전체의 길이가 60-70m이다.

또 베이루우트는 어느 것이나 115톤이지만 우주비행사는 2명이 있으면 되고 그 외에는 과학자와 기술자가 수 10명 탑승할 수 있다.

부스터의 회수요원은 제네럴·다이나믹스와 같이 각각 한 사람씩 좌측 부스터에만 타고 양쪽을 컨트롤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각 회사는 부우스터를 본체와 떨어지게 하는 것은 초속 약 2.8km(마하 10)로 되어 있고 당초 공기역학적 초속을 쓴다. 그 때에 부스터가 받는 최 대 가열은 섭씨 1,000도를 조금 넘을 정도이다.

실용의 시기는 각 회사들은 처음 발사를 1975년에 하고 1978년에는 실용단계에 들어갈 것이며 또 1980년대의 전반에는 이 우주 셔틀기에 의하여 특수한 임무를 띤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용하여 비행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 회사도 있다.

과거의 비행기 역사를 돌이켜 생각하면

★ 군사적으로 번져가는 미·소 우주경쟁 ★

라이드 형제의 최초 비행으로부터 20년 후에는 일반 사람들의 항공기를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제트기도 약 20년이면 상용시기(商容時期)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소련의 가가린이 인류 최초의 궤도비행을 한 것이 1961년의 일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20년 후인 1980년 초에는 일반인의 궤도비행이 실현되어도 이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다. 1kg당의 궤도송달경비가 1만 7천원 정도라면 체중 60킬로그램에 수하물(手荷物) 40킬로그램이란 현재의 민간항공여객수송을 표준으로 한다면 1인당의 여비는 약 170만원 정도의 계산이다.

현재 동경과 런던간의 이코노미 클래스의 왕복 항공운임은 16만원이기 때문에 우주공간 궤도비행의 여비는 수백만원이라고 해도 그다지 엄청난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 여장(旅裝)에 있어서도 이미 소련의 소유즈 위성에서 우주비행사는 대부분의 평복(平服)으로 탑승한 것을 보아도, 특히 우주복착용이 필요가 없을 것이다.

5. 소유즈 6호 용접실험 성공

우주 셔틀기 계획과 표리일체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형궤도 스테이션이다. 1969년 6월에 미공군의 MOL계획이 캔슬되어 미국에서는 NASA의 아폴로 응용계획에 의한 스테이션 한 가지로 되어 있다.

우주스테이션 계획에서는 소련도 앞에서의 소유즈 6-7-8호 연속발사로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소련은 인간 달 착륙 계획에 대하여 많은 정열을 집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념하고 궤도 스테이션 건설을 당면 목표로 설정한 것은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다. 10월 22일에 소련의 수뇌자로서는 드문 브레즈네프 당 서기장이 궤도스테이션계획에 노력하고 있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고 소련은 이 계획에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유즈 6호로 실험한 우주공간에서의 용접은 기술적인 면에서 중요하다. 지금까지 미·소가 시험한 우주비행사에 의한 우주기 내외에서의 작업은 예상 이상으로 시간이 걸리고 볼트와 너트로 연결할 수 있는 지상에서는 간단한 작업일망정 대단히 곤란하며 몸을 피로하게 한다.

이와 같은 사실로 우주스테이션은 궤도상 조립에 있어서 많은 난관이 있음을 말해 주며 미국에서는 랑데부와 도킹방식에 의하여 도킹한 부분만을 특수한 화스라로 연결하자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의 애당초 스테이션의 부분을 발사 로켓 상단에 만들어

★ 군사적으로 번져가는 미·소 우주경쟁 ★

달고 사람은 탄 우주기로 이와 도킹시킨다는 방법이며 이미 제창되어 온 재료를 궤도상에서 조립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유즈 6호는 그파소프기사가 이미 실험한 것처럼 기사는 거주구 내의 적합한 환경 속에 있으며 리모콘식 용접작업을 하는 것이 실용화되면 그 조건은 이상하게 된다. 소유즈 6호로서는 ① 저 프라즈마 압축 아-그 용접법 ② 감모전극(減耗電極) 용접법 ③ 전자 빔 용접법의 3가지 방식은 알루미늄, 티타늄 및 스틸의 3가지의 재료에 대하여 진행되어 있는 ③의 전자빔 용접법이 더욱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소련은 이미 우수한 용접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의 기술개발의 '틈'인 기에프에 있는 빠돈연구소의 B빠돈소장이 스스로 소유즈 6호의 용접실험을 지휘한 것이 명백하여졌다.

당초 타스 통신들은「냉간압접」(冷間壓接)이라는 진공 중에는 산화막(酸化膜) 등이 생장하지 않기에 물질의 표면과 표면을 근소한 힘으로 수백만 분의 일 밀리의 거리까지 점접시킬 수 있고 그 결과 금속의 원자핵 둘레에 있는 전자파 궤도가 공통이 되어 결합하는 현상을 이용한다고 한다. 실제로 제미니 4호 우주기는 핫치의 부분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 개발에 난관을 초래케 하였다.

그러나 프라우다 지는 빠돈 소장이 명백하게 한 것은 소유즈 6호에서의 용접실험에는 용융식(溶融式)이라는 접합하는 금속의 용접부분을 가열 용융시켜 접합하는 방식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3가지 방법은 이 용융식으로 할 때 가열용융한 부분의 금속이 무중력상태로 아이스크림 등의 압력을 확산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에 대하여 빠돈 소장은 각종의 실험연구로서 이와 같은 상태가 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하며 더욱 특수한 아이스크림 발생 장치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

여러 가지 보도를 종합하여 용접에 있어서 재료의 가열은 특수한 반사경(反射鏡)을 이용하여 태양광선을 저장하여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소유즈 우주기는 거대한 태양전지 판넬 두 장을 갖고 있고 이것으로부터의 전력을 이용한 것도 확실하다. 소련의 유인위성이 태양전지 패널을 장치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이며 미국도 아폴로 응용계획중의「궤도공장」계획에서는 태양전지 판넬을 부착하게 되었다.

소유즈 6호가 용접 실험할 무렵 미국의 한쯔빌(엘라베마주)에 있는 NASA의 마샬우주비행 센터에서는 우주공간에서의 프로세스와 생산에 관한 기술자회의가

★ 군사적으로 번져가는 미·소 우주경쟁 ★

열렸으나 용접실험의 뉴스는 출석자에 큰 쇼크를 주었다고 한다. 특히 이와 같은 용접기술이 실용화되면 우주 스테이션의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응용이 무한하게 확대된다. 예컨대 부속품의 형을 발사하여 궤도상에서 용접조립하여 거대한 직경 안테나를 만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고장이 잘나는 전자장치의 덩어리 같은 통신위성은 필요 없게 된다. 큰 안테나가 공간에 나타나면 지상국은 이것에 직접 전파를 보내면 된다. 세계의 통신위성조직이 일변할 가능성도 있다(주…… 소련 과학자는 직경 수천미터나 되는 대안테나를 제작할 것을 제창하고 있다).

또 탄 응용으로 지금까지 미·소가 발사한 인공위성 약 1,000개 가운데, 전원(電源)이 끝난 것이나, 소부분의 고장으로 활동을 정지한 인공위성의 수리가 가능하게 된다. 용단법(溶斷法)을 사용하여 고장부분만 제거하고 교환부품만 용접하여 주면 된다. 또 많은 발사 로켓 연소 조각이 궤도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재료를 이용하여 탄 스테이션을 건설하는 것도 생각된다.

이와 같이 소유즈 6호의 용접실험은 금후의 우주개발에 새로운 수평선(水平線)을 보여준 감이 있다.

6. 군사적 가치가 큰 스테이션 경쟁

소련의 궤도 스테이션 건설에 관한 의지는 대단한 것이며 미국도 아폴로 달착륙으로 숨들릴 시간도 없이 스테이션경쟁을 하게 되었다. 궤도 스테이션은 미 공군이 MOL계획으로서 힘을 경주한 점으로 비추어 보아 군사적 가치가 크다

지금 상태로 NASA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① 1976년까지는 12명 거주실용 궤도 스테이션을 건설하여 우주 셔틀기 정기 왕복편을 개설한다.

② 1980년까지에 ①의 스테이션을 기초로 하여 추가 거주, 작업구를 증축하고 최고 50명까지의 거주를 가능하게 한다.

③ 1985년까지는 지구와 달 또는 화성과의 중간의 항구적인 우주기지를 발전하여 백명의 거주와 작업을 하게끔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궤도 스테이션은 고도 약 3백킬로미터에 건설하여 거주요원은 초기에는 28일간, 정비된 후에는 50일간 정도 스테이션에서 근무하나 교대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하여 소련의 궤도 스테이션의 구상은 아직 명확하지는 않으나 용접기술을 건설에 이용하게 된다면 큰 일거리

★ 군사적으로 번져가는 미·소 우주경쟁 ★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유즈 인간위성이 작년 10월에 연속적으로 3대를 상사(相似)궤도에 발사한 것은 미국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소련이 소유즈 6·7·8호의 시리즈에서 시험한 방식을 이용하면 그다지 큰 발사 로케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궤도 스테이션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영국으로부터 지난 11월 중순에 전하여진 바와 같이 소련의 바이코누우르기지에서 세턴 5형 크라스의 대형 로케트의 폭발사고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더 큰 대형의 궤도 스테이션 발사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거대한 부스터의 존재는 이미 1967년에 당시의 웨프 NASA 장관이 증언하였으며, 그 다음해 무라 NASA 차관과 론·브라운박사도 이 정보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하였다. 또 영국이 지상에서 레이더에 의한 측정으로는 이미 1957년에는 중량 약 30톤, 크기로서는 직경 약 5미터, 길이 약 27.5미터의 거대한 물체가 궤도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소련이 공표하고 있는 최대의 궤도비행체는 1968년 11월에 발사된 프로톤 4호의 무게, 약 16.8톤이지만 영국 정보당국이 측정하는 것은 그 2배에 해당한다. 미국의 세턴 5형은 고도 180km 궤도에 125톤의 중량물을 보낼 능력이 있으므로 30톤이라면 그의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소유즈식은 연속 발사 능력이 있으므로 그 정도의 크기의 스테이션 건설능력에 는 크나큰 힘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궤도 스테이션의 군사적 이용 범위는 공중에서의 스파이활동을 시작으로 복수 미사일핵 탄두 공격 목표의 설정 및 지령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매우 크다. 보통의 ICBM 비상방식 이라면 약 1만킬로미터, 사정의 경우 탄두의 도달 고도는 최고 1천 1백킬로미터 정도에 달 한다.

복수탄두는 고도 백 내지 150킬로 미터정도에서 분해되어 제각기의 목표를 지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하의 고도까지 강하하여 분해하는 것은 고층대기의 존재로 돌입방향이 확산될 가능성 있는 외에 낙하속도도 높아져서 기술적으로 구조상의 곤란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돌입체의 비상방식에 의하여 생각하고 그의 최종과정을 궤도 스테이션에서 컨트롤하는 것은 목표공격정도(目標攻擊精度)를 크게 높일 효과가 있다. 궤도 스테이션은 이보다 앞서 궤도상에서 정찰하여 얻은 목표에 관한 데이터가 충분히 저장되어 있기에 가지가지의 지상기지로부터의 지령중계라는 간접적

★ 군사적으로 번져가는 미·소 우주경쟁 ★

방법을 취하지 않고 독립된 미사일을 컨트롤할 수 있다.

7. 맺는 말

이상과 같이 1970년대의 우주계획은 60년대와는 판이하게 틀리며 미·소 경쟁 터는 달에서 지구에 가까운 궤도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용접작업과 도킹기술 등 우주공간에서 미·소가 지금까지 실험하여 온 유인작업에 의하여 발사될 물체의 대형화가 진행되는 것도 확실하고 여기 병행하여 통신위성이나 항해위성과 같은 소형 실용위성은 지금까지의 방식은 진부화(陳腐化)될 가능성이 급진적으로 높았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회수 재사용기술이 개발되면 우주계획 코스트는 대폭 저감될 뿐만 아니라 자그만한 관측장치와 실험장치는 일일이 지상에서 로케트로 발사하지 않아도 우주 셔틀기에 의탁하여 임의의 고도에「놓고 올 수」있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주셔틀기의 능력은 이 운반 작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것은 이미 꿈은 아니고 현실인 것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미·소 다 같이 인공위성 수백개 발사의 실적을 결집(結集)하여 1970년대에는 서로 경쟁하게 되기 때문에 1970년대의 후반에는 항시 끊이지 않고 미국인과 소련인은 궤도상에 있는 이 같은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세계의 정세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다.

고도 640킬로미터로 궤도비행 중의 제미니위성 위에서 촬영된 컬러사진이 있지만 이것은 지상의 화재가 똑똑하게 찍혀 있다. 또 이 제미니위성에서 사람은 2명이었지만 이후 6년이 되면 그 6배의 12명이 항상 스테이션에 있게 된다. 10년이면 50명이 되고 15년후에는 백명이 된다. 제미니의 50배가 된다.

월면상(月面上)에서 아폴로우주비행사 12명이 실시한 작업은 지금까지에 미·소가 보낸 수십 대의 무인 로보트기의 그것보다 더 멀리 상회(上廻)한 실적을 올린 것은 다 아는 바이다. 1970년대야 말로 우주에서 인간의 역할이란 것이 크게 입증될 시기가 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동시에 핼렛크·폭크스의 한계가 빠르게 우주계획에 나타났다는 것이라고도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공방어 무기

심 승택
〈한국일보 과학부장〉

미·소는 지난 4월 16일부터 평행선만을 긋고 치닫고 있는 군비경쟁에 중지를 부를 꾀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2차 미·소 전략무기제한회담(SALT)을 「비인」에서 가진 바 있다.

지난 해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주간 동안「헬싱키」에서 가졌던 제1차 미·소 전략무기제한회담에 이어 가진 이번 2차 회담도 어떤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날 것이라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소가 전략 무기의 제한을 위해 자리를 나란히 하면서도 미·소는 좀처럼 핵 군비의 증강을 위해 손을 늦추려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탄도탄 요격 미사일(ABM)망의 확대와 다핵탄두 미사일(MIRV)의 배치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면 소련은 소련대로 초대형의 대륙간 탄도탄(ICBM) SS9의 대량대치 및 금년중 MIRV를 갖추기 위해 몹시 서두는 기세다.

ABM과 MIRV의 출현은 핵군비 경쟁에 새로운「에스컬레이션」의 시대를 맞게 하고 있다.

SALT가 노리는 것도 바로 이 새로운 핵군비 경쟁의「에스컬레이션」에 있다.

세계를 파멸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1945년 핵폭개발 이후 45년.

핵으로부터의 파멸을 면하기 위해 핵 개발하고 그의 운반체를 발전해 가는 모순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다.「레이드」미 국방장관은 지난 1월 3일「소련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SS9의 실전 배치를 이룩하고 있다」고 지적, 미국도 ABM망을 확대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같은 달 7일에는「증대되는 소련의 핵 위협에 대항해서 미국은 공격용 전략 핵무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후 3월 10일「시덴스」미 공군장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비밀회의에서 MIRV의 첫 배치가 오는 6월에는 실현될 것이라 증언했다.

소련의 핵전력은 극비에 부쳐져 있어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미국의 발표와

▲ 예상되는 미·소 주 공방어 무기 ▲

영국 전략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ICBM은 미국의「미니트맨」의 10배의 운반 능력 갖는 SS 9 2백 80기와「미니트맨」에 해당되는 SS 11 8백기 등 도합 1천 3백 50기. 「폴라리스」잠수함에 견줄 Y급 잠수함은 13척. 핵적대 능력을 갖는 전략 폭격기 1백 50기. 핵탄두 수는 도합 2천 1백 55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미국이 가장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은 SS 9.

「레이드」장관은「소련은 74년까지 SS 9 4백 20기를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SS 9만 가지고는 미국 안의 ICBM의 95퍼센트를 일격으로 파괴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소련은 69년 11월, SS 9 일부로 기습공격용의 부분 궤도 폭격체계(FOBS)를 마련한 바 있으며 그 후 SS 9에 의한 MIRV의 실험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레이드」장관은 소련이 SS 9를 이용한 MIRV를 금년 안에 완성할 것이라 전망(3월 19일)한 바 있다.

Y급 잠수함은 75년까지엔 35-50척으로 늘어날 것이며 잠수함 발사「미사일」의 MIRV도 개발이 서둘러지고 있다.

그 결과 소련의 핵탄두 수는 1967년까지는 현재 수준의 약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련은 또한「모스크바」주변 8개소에 ABM을 건설 중에 있으며 75년까지는 지역 방어용과 대규모적인 ABM 체계가 갖추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국의 ICBM은「미니트맨」1천기,「타이탄」54기, 합계 1천 50기.「폴라리스」형 잠수함은 41척으로서 잠수함 발사「미사일」은 도합 6백 56기. 전략 폭격기는 6백 50기. 핵 탄두 수는 합계 4천 2백발.

미국은 금년 6월부터 3발의 핵탄두를 갖는 MIRV「미니트맨」3형의 배치를 시작해서 75년까지「미니트맨」1형 5백기 전부를「미니트맨」3형으로 바꿀 계획으로 있다.

또한 오는 가을 각각 10발의 핵탄두를 한꺼번에 운반해 줄 MIRV,「포세이든」16기를 적재한 잠수함 제1호가 위용을 드러낸다.

75년까지 미국은「폴라리스」형 잠수함 41척 가운데 31척을「포세이든」을 장비한 것으로 개조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MIRV화에 의해 미국의 핵탄두 수는 75년까지 현재 수준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 예측된다.

미국은 69년 3월 ABM「세프가드」의 설치를 결정, 제1단계로「미니트맨」기지

▲ 예상되는 미·소 주 공방어 무기 ▲

2개소의 주변에 최초의 ABM 망을 건설 중에 있다.

금년부터 제2단계로 이밖에 6개소에 또 다른 ABM망을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75년까지는 미국 안에 12개소에 ABM 망을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소 양국이 함께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어 SALT를 통해 전략무기의 제한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회담자체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핵군비경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ABM이나 MIRV는 개발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있다.

ABM과 MIRV의 일방적인 개발증지는 곧 핵전력의 격차를 심하게 만들어 당장 국방에 위협을 받게 된다.

미·소는 서로 핵탄두 개발 배치상태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공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군축을 위한 회담은 전쟁에 호소하지 않고 상대방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일종의「전쟁」으로 생각할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은 서로 핵군비를 증강, SALT에서의 입장을 강화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소 두 나라가 모두 ABM, MIRV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결코 상대방으로부터의 핵위협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략가들의 주장이다.

ABM은 한정된 핵 공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갖고 있지만 대양의 공격「미사일」에 대항할 수는 없었다.

또한 MIRV로서 공격한다면 미·소 쌍방의 ICBM 육상기지는 제1격으로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해서 앞으로는 바다 속에서 발사하는 장거리「미사일·시스템」 등 새로운 공격용 전략무기의 개발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예측은 미「닉슨」대통령이 핵전력의「해양전략」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핵전력의「해양전략」은 고정된 지상기지의「미사일」과 폭격기의 주력을 이동하는 수중의 원자력 잠수함과 해상의 함정으로 옮겨 기습공격에도 피해를 입지 않고 활동함으로써「보복공격」이란 억제력을 갖게 한다는 점이 크게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사상은 이미「폴라리스」원자력 잠수함에서 엿볼 수 있겠으나「해양전략」으로서 보다 확대 강화하자는 것이다.

▲ 예상되는 미·소 주 공방어 무기 ▲

「해양전략」을 짜내게끔 된 이면은 소련의 강력한 SS 9「미사일」의 배치, 미국 방비 감축의 필요, 미국 시민의 ABM망 설치 반대란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만일 전략전환이 이루어진다면 MIRV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을 방어하는 ABM의 배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70년대의 전략 병기체계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은 얽히고 얽혀 있다.

얼마 전「닉슨」대통령은 제7대 통합 참모본부 의장에 12년만에 해군출신의「무라」작전본부장을 기용하고 새로운 작전본부장엔 선배와 동료 36명을 물리치고 49세의 수재「오슈필트」중장을 기용함으로써「해양전략」의 가능성을 시사 주목을 끌었다.

소련의 거대한「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하는데 대한 자극, 미국의 핵전략을 육지로부터 바다로 옮기는 대전환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전략사상의 변화는 원자폭탄이 개발된 이후 근본적으로 미 국방체제를 재검토하게 한 최초의 일이다.

지금 당장 생각하고 있는 주요 골자는 핵「미사일」과 폭격기를 미 본토로부터 거의 소개한다.

폭격기는 항공모함에, 핵 미사일은 해상의 함정과 바다 속의 핵 잠수함에 끌고루 분산시켜 지구의 4분의 3을 뒤덮고 있는 바다를 누비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양전략을 지지하는 전략가들의 주장은—

① 미국 안의「미사일」과 폭격기는 자동적으로 미국 본토를 파멸적인 기습의 목표물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두 가지의 병기체제는 좋은 목표물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련의 새로운 병기의 기습 공격에 무력하다.

② 좁은 땅에서 넓은 바다로 확대된 해양전력은 조기탐지 제거될 수 없어 기습공격에 강력한 보복력을 가짐으로써 그 자신 공격억제의 가능성이 크다.

③ 해양 핵 억제전력은 안정하면서도 불과 얼마 안 되는 수의「미사일」로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유지비가 적게 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해양전략」이 정부 최고수뇌로부터 비록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새로운 전략전환으로 인해서 전략전력(戰略戰力)이 삭감되는 공군과 육군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있다.

해양전략이 채택되면 현재 41척의「폴라리스」형 잠수함에 적재되어 있는 6백 56기의「미사일」 말고도 3백·5백기의 ICBM이 해상함정에 적재된다.

해군 전문가에 의하면 상당규모의 해상「미사일」전력은 5년 이내에 설치될 수 있다고 한다.

▲ 예상되는 미·소 주 공방어 무기 ▲

결국 그렇게 되면 공군의 지상기지「미사일」1천 54기, 장거리 폭격기 4백 50기는 대폭 축소되어 남은 병기로서 미국 본토의 자체방위 능력 밖에 갖지 못하게 된다.

또한 육군의 ABM「세프가드」망도 지원적 역할 밖에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미 정부의 새로운 전략검토의 핵심은 지상에 배치된「미사일」과 폭격기가 어느 땐가는 기습공격에「브레이크」를 거는 억제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전략가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미 정부 수뇌의 일부는 현재와 같은 형태의 방위체제는 미국의 생존까지 위협하게 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해양전략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기울어지고 있다.

① 소련의「미사일」에 미국 안의 고정「미사일」과 폭격기 기지는 좋은 목표물이 되고 있다.

미리 목표를 정확히 조준만 한다면 기습공격으로 한꺼번에 미국 안의 모든 전략무기를 파괴시킬 수 있다.

② 해상의 함정에 분산된「미사일」전력의 상당부분을 소련이 탐지 식별 공격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만한 시간은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 잠수함을 탐지 파괴한다는 것은 단시간 안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③ 지상기지의「미사일」과 폭격기를 줄이면 그만큼 이들 기지를 보호할 ABM망의 설치 부담이 줄어든다.

④ 해양기지 방식은 많은「미사일」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미국은 소련에 대한 억제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군축을 단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⑤ 해양 전략에 의해서 육상의「미사일」전력을 발사까지 15분간 대기해야 하는 대기체제(待機體制)가 필요 없게 된다. 나아가서 국제적인 긴장상태 하에서 우발적인 발사의 위험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새로운 해양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중요한 요인을 갖고 있다.

① 소련이 초대형 SS 9「미사일」4백 20기를 75년까지 실전에 배치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SS 9은 5톤급의 핵탄두 3개를 장비하고

▲ 예상되는 미·소 주 공방어 무기 ▲

각각 다른 목표지점에 도달케 함으로써 목표지점에서 약간 빗나가더라도 목표했던 기지와 시설, 인명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② 더욱이 75년까지에는 소련이「미사일」을 갖춘 잠수함을 대폭 증강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들은 기습공격으로 지상의 미군 폭격기를 모두 파괴시킬 능력을 갖게 된다. 앞서 기술했지만「레어드」미 국방장관은 의회증언을 통해서 소련은 75년쯤엔 기습공격으로 미국의 육상기지의「미사일」전력을 95「퍼센트」까지 파괴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NSC에 제출된 전략관계 서류에서 해양 전략 제창자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첫째, 기습공격으로 불과 50기정도 밖에 살아남지 않을 75년 이후의 핵전력을 위해 1천기를 확보, 계속 유지한다는 점은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효율면에서 너무나 가치 없는 일이다.

둘째, 육상의 억제전력은 신뢰성이 적다. 왜냐하면 육상에 기지를 둔「미사일」과 폭격기는 소련영토에 들어가기 위해서 잘 알려진「좁은 회랑」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회랑은 소련에 의해 강력히 방어진이 쳐있다.

소련을 향해서 발사되는 육상기지의「미사일」지구의 상공을 최대한 32도의 호(弧)를 그리며 날아간다.

이와 같은 각도의 범위는 소련영토에 대해 9「퍼센트」에 불과하다.

이 부분은 소련의 ABM망이 집중해 있다.

육상에 기지를 둔 폭격기에 대해서도 미 정보당국은 소련이 저공을 날으는 비행기를 탐지 격추할 수 있는 공중경보「미사일」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레어드」미 국방장관은 지난 2월 20일의 성명에서「최신의 전략전력 효율분석에 의하면 현재 계획 중인 전력으로서 가까운 장래까지는 충분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현 전력으로서 충분하다는 확실성은 없다. 소련이 고전력(高戰力), 고기술(高技術)방식을 앞으로 몇 년 계속 밀고 나간다면 미국의 도시에 커다란 위협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육상기지의「미사일」폭격기에도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레어드」장관은 이와 같은 이유로부터 수중발사 장거리「미사일」개발을 위해 71년 회계연도에 4천 4백만「달러」의 지출을 요구했지만 의회는 69년에는 겨우 1천만「달러」를 인정했을 뿐이라 지적했다.

▲ 예상되는 미·소 주 공방어 무기 ▲

미 국방성 방위기술국장「존포스터」박사는 지난 2월 26일 상 하 양원 합동 군사위원회에서『육상에 배치된「미사일」은 기습공격에 대해 앞으로 계속 보충할 수 없다. 소련의 위협이 현재와 같이 계속 발전해 간다면 전략전력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략전력의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증언했다. 공격용「미사일」뿐만 아니라 방어용 ABM 전략사상 전반에까지 재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해양 전략의 지지파는 ABM의 해양배치는 이치에 맞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 ① 전면(前面)에 배치한 해양기지의 ABM 망은 미 본토로부터 떨어진 여러 곳에서 다탄두「미사일」발사 전에 적의「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한다.
- ② 해상 기동성을 갖는 ABM 망은 쉽게 적의 공격목표가 될 수 없으며 그만큼 적의 공격에 강하다.
- ③ 육상기지의 ABM 망은 역할에 있어서 물론 썩 유익한 것이지만 육상기지의 ABM 망은 주로 해양 ABM 망을 뚫고 들어온 적의 탄두로부터 도시를 방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중공의 핵 개발과 핵 운반체 개발의 급격한 발전은 미·소 전략무기 체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공이 지난 4월 24일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지금까지 중공관계 전문가들이 내다보았던 중공의 핵전력 능력이 과소평가되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레이드」미 국방장관은 4월 20일 의회에 보낸 연례 국방보고서에서 중공은 금년 안에 20킬로톤의 파괴력을 갖는 핵탄두를 달고 일본을 때릴 수 있는 중거리「미사일」배치를 시작할 것이라 했다.

중공은 사정거리 1천 6백 킬로미터의「미사일」을 금년부터 70년대 중반까지는 배치를 끝낼 것이며 현재 실용단계에 놓여 있는 중거리「미사일」은 80-1백기로 내다보았다.

또한 중공은 비행거리 2천 4백 킬로미터의 장거리 폭격기의 개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공의 인공위성 발사성공은 중공의 ICBM의 개발이 상당한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듯 미·소는 공격 두기와 방어무기의 개발을 위해 상대적인 개발을 서둘러 가열된 경쟁은 좀처럼 멈출 기세가 엿보이질 않는다.

▲ 예상되는 미·소 주 공방어 무기 ▲

미·소 미사일

◇미국 <방어용>

△ 스파르탄 = 「센티널」이라고 불리는 전체요격「미사일」체제 중에서 장거리용「미사일」.

대부분의 ABM기지에 장비되어 있는 미사일의 임무는 목표물로부터 수백마일 떨어져 있는 대기권 밖에서 공격용 탄두를 요격하는 것. 지역방위에 쓰는 것이 특색.

△ 스프린트 = 「스파르탄」의 보조용 단거리용「미사일」. 그 임무는「스파르탄」이 맞지 못한 적의 탄두를 공격하는 것으로「레이더」장비나 공격용「미사일」체제 등 특수지역을 보호하는「거점 방어용」「미사일」.

△ PAR(변경탐색레이더) = 적의「미사일」을 포착 추적하는 고도로 정밀한 장거리용「미사일」.

△ MSR=PAR 보다는 좀 약하지만 목표물을 정밀하게 정찰하는「미사일」로「스파르탄」과「스프린트」의 발사를 유도한다.

△ SABMIS(해상기지 ABM 스파르탄) = 초기의 연구단계에 있는「미사일」로 지상의 방어용「미사일」이 적의 탄두에 도달되기 전에 그것을 재빨리 요격할 수 있는 함상 방어용「미사일」. 적의「미사일」이 많은 분리용 탄두로 분산되기 전에 파괴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ABMIS = SABMIS와 같이 연구단계에 있는 공수「미사일」로 대형 순찰기에서 발사, 적위「미사일」을 요격하는 중거리용. 대잠수함 발사용「미사일」을 방위하는 것이 주 임무.

△ AEGIS = 70년대 중반기 유도탄 함정을 위해 개발 중인 새로운 대공「미사일」.

<요격용>

△ MRV = 하나의 운반체로 여러 개의 핵탄두를 각각 다른 목표지점에 명중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미사일」. 지상기지를 갖는 MRV는 탄두 3개, 해군용은 10개의 탄두를 각각 운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운반체를 늘이지 않고 서도 여러 배의 핵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것이 장점.「미니트맨」형과「포세이돈」「미사일」을 이용하고 있다. 6월부터 실전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다.

△ 미니트맨 = 지상에 기지를 둔 미국의 기본 ICBM.

▲ 예상되는 미·소 주 공방어 무기 ▲

핵 공격이 있을 때의 피해에 대비, 모든 시설은 지하에 대피되어 있다.

발사명령이 내리면 32초 안에 고체연료로 발사될 수 있다.

그 수는 현재 배치되어 있는 1천 54기의 ICBM 중 1천기가「미니트맨」으로 되어 있다.

△ 폴라리스 = 잠수함용 공격「미사일」 「미니트맨」보다 사정거리가 짧지만 항해 중에 적의 탐지를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이동발사를 갖는다는 것이 특징. 70년대 초에 현재의 6백 56기 가운데에서 4백 92기를 MIRV의 성능을 내는「포세이돈」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 WS120 = 「미니트맨」보다 나중에 나온「미사일」로 사정거리가 길고 정확성이 높은 지상 공격용.

△ SRAM = 공군 폭격기를 핵미사일 발사대로 전환시킬 수 있는 단거리 공격용「미사일」.

△ 소련

<방어용>

△ GALOSH = 「나토」가 명명한 소련의 방위용「미사일」. 일부는 이미「모스크바」주위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능은 미국에서 사용하기 부적당하다고 하는「나이크제 우스」와 비슷.

<공격용>

△ SCRAP(또는 SS11) = 사정거리는 8천 8백 킬로미터로 비교적 짧지만 5메가톤 대형 탄두를 장비하고 있다. 액체 연료로 추진되기 때문에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국의 ICBM보다 기동력이 약하다. 약 1천개에 달하는 소련의 ICBM 가운데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 SAVGE(또는 SS13) = 소련의 대륙간 탄도탄으로서는 최신형으로 고체연료를 이용한 최초의「미사일」. 성능은 미국의「미니트맨」형과 맞먹는다.

△ SS9 = 가장 최신의 초강력 ICBM. MIRV용으로 개발된 것이다. 현재 소련은 2백 80기의 SS 9를 활용 또는 건조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FOBS = 지구의 일부 궤도를 비행하는 운반체로부터 탄두를 발사하는「미사일」.

ICBM이 정상비행을 하기 때문에「레이더」에 포착되기 쉬운 반면 이것은 1백 60킬로미터 이하의 저공탄두로 재래식「레이더」탐지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은 FOBS를 개발초기 단계의 부정확한「미사일」체제로 보고 있으나 소련은 계속 개발 중이다.



△ 신축하고 대규모적인 기동력을 과시하는 미 기동타격군

— 미국이 자랑하는 막강한 기동군사력

미 기동타격사령부

이준구

1. 사령부 창설 및 임무

미 기동타격 사령부(U.S. STRIKE COMMAND)는 미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 직속으로 운영되는 통합 사령부로서 전 세계적인 미국의 군사적 책임을 결합시키고 단일망으로 통제하는 8개의 국방성 통할 및 특수사령부 중의 하나이다.

이 사령부는 고「케네디」대통령 명에 의거 1961년 10월 9일 통합사령부로서는 가장 최근에 창설되었으며 미 본토 육군 사령부 및 전술 공군사령부에 배속된 모든 전투대기 지상군 및 공군을 작전 통제한다. 이로써 미국의 모든 전략, 보복 및 일반 목적 전투부대들이 국방성통합 또는 특수사령관의 전면 관장 하에 들어가는 체제가 완성되었다.

<미 기동타격 사령부>

미 기동타격 사령부는 단일 지시 하에 배속된 육군전투부대 및 공군전술비행대대를 기동성 있고 융통성 있는 타격대기 합동군으로 통합하는데 책임이 있고 동시에 미 국가정책지원에 필요한 대응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여하한 규모의 진화부대(鎭火部隊)인 합동기동부대를 여하한 장소에도 전개시킬 능력을 갖고 있다.

사전준비가 완료된 합동군은 여하한 전투범위 또는 형태를 가진 적대행위라도 이를 성공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 것으로서 이 합동부대 개념은 2가지 주요한 관점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즉 첫째로 융통자재한 공중기동 작전부대가 존재함으로써 전투유발을 저지시키며 둘째로 분쟁지구에 충분한 규모의 합동군을 신속히 전개시킴으로써 이미 진행 중인 전투를 제한하여 적대상태의 확대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미 기동타격 사령부의 임무는

- ① 타 통합사령부를 증강시키기 위해서 예하 전투대기부대의 일반 예비 병력을 제공한다.
- ② 합동참모본부의 지시에 의거 우발 작전을 계획, 수행한다.
- ③ 중동, 남아시아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평시 군활동을 계획, 수행 한다 등으로서 중동, 남아시아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기동타격 사령관을 중동, 남아시아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미군사령관(U.S. Commander-In- Chief MEAFSA)이라는 길 다란 명칭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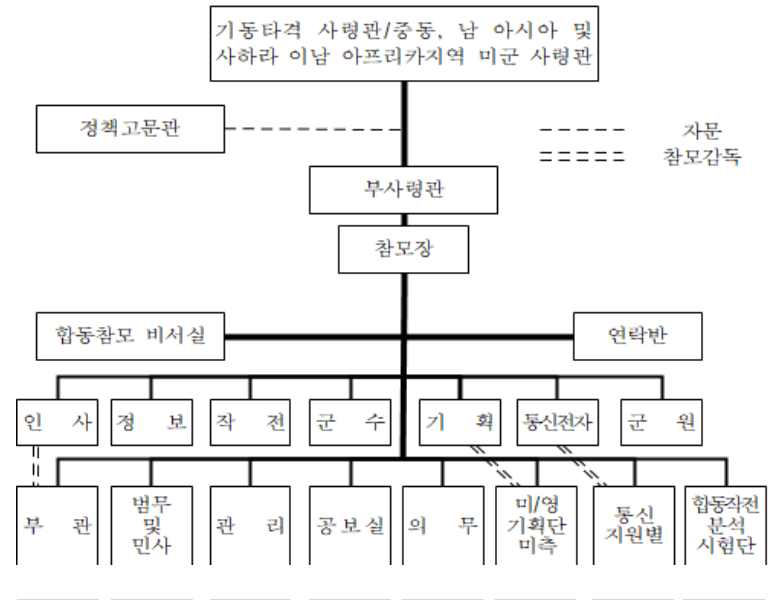
사령관은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속된 부대의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최고 수준의 전투 효율성, 즉 신속한 타격능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배속된 군대의 합동운용에 관한 교리 및 기술에 관해 합동참모본부에 건의할 사항을 연구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다.

2. 사령부 본부 편성

미 기동타격 사령부 본부는 플로리다주 맥딜 공군기지에 위치해 있으며 각국 및 특별참모실 모두가 완전 통합된 각군 참모들로 편성 된다. 이들 장교 및 사병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부터 차출되는데 각국의 부국장은 국장과 소속군이 다른 장성으로 임명한다. 예를들면 작전 국장이 육군소장이면 작전부국장은 공군 준장이거나 공군소장이 기획국장이면 기획부국장은 해병준장이다. 또한 사령부 본부에는 미국무성으로부터 고위 해외담당관이 배속되어 사령관의 정책고문관으로서 대사의 지위 및 명칭을 갖고 있으며 과학 고문관도 본부참기동타격 사령관/중동, 남 아시아 및

<미 기동타격 사령부>

미 기동타격 사령부 본부



모로 근무하면서 본부의 특수참모기관인「합동작전 분석 및 시험단」에서 작전 분석, 합동전술개념의 시험, 평가 및 배속된 육군과 공군의 운용절차에 관한 참모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미 기동타격 사령부 편성의 또 다른 독특한 양상은「사령부 통신지원반」이다. 이 통신지원반은「맥딜」공군기지 내에 사령부 본부와 함께 위치하고 있는데 700명으로 구성된 육·공군 통신특기병 및 그 전장비는 완전 공중기동화되어 있으며 그 기능의 단적인 예로는 해외에 동시 전개된 2개의 기동타격 사령부 합동기동부대 본부가 그 작전 장소에서 기동타격사령관, 합동참모본부 및 육·공군 야전부대에까지 신속한 장거리통신을 가능토록 해주고 있는 것이다.

3. 배속 전투부대

미 기동타격 사령부의 지상군 = 미 육군 기동타격 사령부로 호칭 = 은 미 본토 육군 사령 부로 부터 차출된다. 이는 2개의 육군 군단본부 및 그들의 기갑, 기계화 및 공수사단, 전투지 원부대로 구성되는데 이들 2개의 미 육군 군단은 텍사스주「포트·후드」의 제3군단 및「노드 캐롤라이나」주「포트·브라크」의 제18공수군단이다.

<미 기동타격 사령부>

미 기동타격 사령부의 공군=미 공군 기동타격사령부로 호칭=은 미 전술공군 사령부(TAC)로부터 차출된다.

이는 8개의 항공군 본부, 즉「사우스 캐롤라이나」주「쇼」공군기지의 제9공군, 텍사스주「버그스트롬」공군기지의 제19 공군 및 그들의 전투대기 전술전투기, 정찰, 공격공수대대, 특수 작전부대 및 지원공군 부대로 구성된다.

중동, 남아시아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 미군 사령관은 홍해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작전 중인 2척의 구축함, 1대의 수송기 및 1척의 기함으로 구성된 해군 즉 미 중동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갖는다. 이 함대는 필요시 확장될 해군의 주축이 될 것이다.

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미 기동타격사령관 겸 중동 남아시아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미군 사령관에게 배속된 이들 육·해·공군은 타 통합사령부들을 증강키 위해 중동, 남아시아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을 포함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 또는 해외에서 지속적인 합동연습을 받는다.

수시간 내로 기동타격 사령관은 특정분쟁지점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무력시위로 부터 대규모의 정규전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정확한 규모의 구성을 가진 편성부대를 자기의 전투대기 육·해·공군부대로부터 차출해 낼 수 있다.

미 기동타격 사령부의 기획은 일반적으로 합동기동부대 편성 및 전개를 가진 「단계적 건축」개념인 것으로 소규모의

<미 기동타격 사령부>

기동타격대를 선봉부대로 삼으며 목표지역에서의 부대투입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공중 또는 해상수송을 통해 합동군 및 장비를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다.

4. 합동 기동부대

미 기동타격 사령부 작전의 핵심은「합동기동부대」(The Joint Task Force)개념이다. 동사령부에 의해 개척된 이 개념은 합동참모본부 지시에 의해 기동타격사령부 본부는 상시 미국에 주둔하고 기동타격 사령부 또는 합동참모본부 또는 타 통합사령부 직속으로 운영할 해당 소 본부를 단시간 내에 해외로 전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동타격 사령부 본부는 동 사령부의 지휘/참모부 내에 각기 73명으로 구성된 2개의 합동 기동부대 본부 즉 합동 기동부대-7 및 합동기동부대-11을 편성하였다.

각 합동기동부대 본부는 구조상 정상적인 합동참모 편성과 같으며 여기에 배치되는 요원은 기동타격 사령부 참모요원이며 합동기동부대 보직을 부차임무로 맡고 있다.

양 합동 기동부대 본부는 단시간 내에 부대편성을 하고 즉각 전개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부대 및 개인장비를 포함한 모든 장비는 사전 준비되며 즉각적인 항공기 적재를 위해「맥딜」공군기지에 저장되고 있다.

합동기동부대-7은 공군소장이 지휘하고 중동 및 남아시아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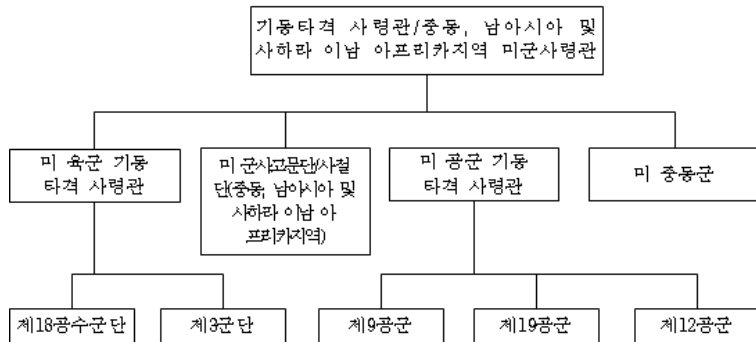
합동기동부대-11은 육군소장이 지휘하고 아프리카에서 작전토록 훈련되었다. 총 병력에 있어서 각 합동기동부대 본부는 전투 상황하에 2개 육군사단 및 2개 전술 항공군까지 지휘, 통제할 수 있도록 참모편성 및 조직이 되어 있다.

그러나 각 본부는 전투의 치열도 및 부대의 형태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 따라 축소 편성할 수 있다. 합동 기동부대 본부가 지휘하는 부대는 기동타격사령부의 육군 및 공군구성군(미 본토 기지에 위치한 전투대기 전술공군 및 지상군)으로부터 차출된다.

각 합동기동부대 본부는 목표지역으로 공중 이동될 수 있으며 합동 기동부대 본부 지휘 하에 들어가는 육·공군의 공격 군부대도 또한 본부와 함께 공중 이동된다. 계속되는 증강부대 역시 상황에 따라 공수 또는 해상수송이 될 수 있다.

또한 합동 기동부대 본부의 일부가 초기의 지휘/통제 작전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목표지역에 장비와 함께 먼저 공중 투하하고 잔여 부대는 후에 공수될 수도 있다.

미 기동타격 사령부 부대 편성



<미 기동타격 사령부>

모든 기동타격 사령부의 활동, 즉 합동 훈련 연습, 우발작전, 구제 임무 등은 합동기동부대 개념하에 수행된다.

5. 공수 및 지상통신 체제

기동타격 사령부가 갖고 있는 특수한 합동 공수통신 지휘망은「재크 포트」(JackPot)이라고 불리우는 공수 및 지상통신장비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 장비는 단거리 통신소간에 육성과 텔레타이프를 동시에 취급하며 5천마일 이상 떨어진 거리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다.

합동 참모본부가 기동타격 사령관에게 어떤 형태의 우발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해외 지역에 병력을 파견하도록 지시할 경우 합동 기동부대 본부 및 지원 부대는 전개 명령을 받는다. 이들 병력의 통제는 병력이 목표지역으로 공수되는 도중이나 그 지역에 도착한 후 절대로 필요한데 이는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이 합동 기동부대 사령관, 기동타격 사령관 및 합동 참모본부의 지속적인 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재크포트」임무는 효과적인 지휘 및 통제를 위하여 모든 부대 간에 필요한 통신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재크포트」와 이를 운용하는 10인조의 병력은 하루 24시간 비상대기 태세에 있으며 이들은 여하한 우발사태에도 기동타격 사령관에게 신속한 통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상태에 있는 것이다.

6. 책임 해외 지역

1963년 기동타격 사령관은 중동, 남아시아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미국 방어작전 책임을 부여 받았다.

이 지역에서의 군사책임에 관계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기동타격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중동, 남아시아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미군 사령관과 부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중동, 남아시아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란 다양성 있는 지역이다. 면적만도 방대하다. 즉「다카」에서 서아프리카, 버마 국경에 이르는 거리가 약 7,500마일. 케이프타운에서 남아프리카, 이란-소련국경에 이르는 거리가 약 5천마일, 이것은 면적 면에서 미국의 4배 이상이 된다. 또한 이 지역에는 전 세계 인구의 약 1/4이 살고 있으며 이 지역에 있는 64개의 국가 중 43개국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아프리카 국가 중 31개국은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새로 생긴 독립국가 들이다.

이 지역 내에는 세계로 통하는 육상, 해상, 항공로의 중심교차로가 위치해 있으므로 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중동은 전략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천연자원 면에서 볼 때도 이 지역의 잠재력은

<미 기동타격 사령부>

무궁무진한 것이다. 이곳은 원료의 미개척 저장고로서 자유세계 석유의 1/3,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대부분, 주석, 구리, 망간 및 우라늄의 상당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자유세계 금 및 코발트의 2/3을 생산해 내고 있다.

높은 산으로부터 열대정글 및 찌는 듯한 사막에까지 걸쳐 있는 이 지역은 지리상으로 볼 때 거리와 지형지세의 급격한 변화 및 수적 기상 요건 면에서 군사작전에 복잡한 장애를 주고 있다.

현대식 통신시설, 수송장비 및 이 지역 내의 기지시설은 제한을 받는다. 전 지역을 통한 정치, 경제, 사회적 차이 때문에 정부는 늘 교체되어 예측을 불허하는 사태를 나타내고 있다.

중동, 남아시아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 미군 사령관의 평시 중요방어 임무로서는 군원계획에 참가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에게 군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몇몇 국가에 미 군사고문단 또는 사절단이 파견되어 물자 및 훈련계획을 관장하며 기타 국가에서는 방어무관실 (The Defense Attache Office) 또는 방어대표실 (Office of the Defense Representative)에서 계획을 관장하고 있다.

페르시아만과 홍해 수역에서 운영되는 미 중동군을 제외하고는 기동타격 사령부는 중동, 남아시아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에 여하한 전투부대나 고정기지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이 지역 내에 제한된 지원시설만 가지고 있다.

그 개념은 이 지역에서의 미 정책 지원상 필요 되는 요소가 필요시 여하한 장소에도 즉각적으로 수송될 수 있다는 것이다.

7. 주요 훈련 및 작전

1. 합동 훈련

수년 동안에 걸쳐 모든 형태의 연습으로 지상, 항공 및 해상요원에게 지속적인 훈련을 시킴으로써 50만 이상의 육·공군 요원들에게 합동훈련 경험을 쌓게 했다. 이러한 전투대기군의 대다수가 동남아시아에 파견되어 그곳에서 그들의 훈련 경험을 토대로 전투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투입될 수 있었다.

● 미국에서의 대 합동 연습……「스위프트 스트라이크 2」, 「쿨리 크레스트」, 「디지털 스트라이크」, 「스위프트 스트라이크 3」 및 「골든 화이어 1」. 어떤 때는 각기 10만명의 지상군 및 공군요원과 1천대의 항공기까지 동원되었다.

● 미국에서의 소 합동 연습(1년에 10번)……

각각 150내지 1천명의 지상군 및 공군이 동원된다. 이 연습은 신속한 반응 및 기동훈련을 주로 한다.

● 다 통합 사령부의 증원을 받는 대회 외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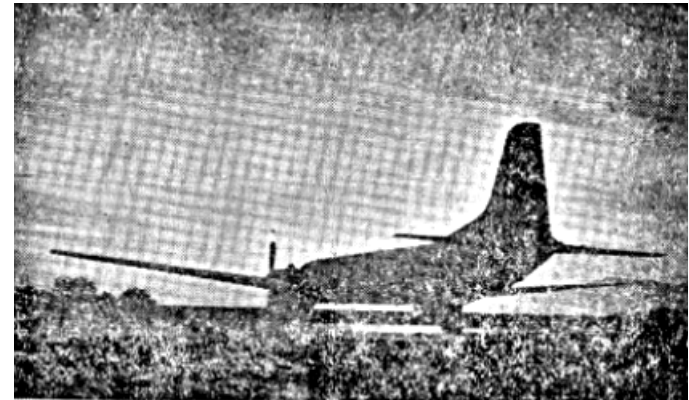
「비리프트」(1963년)=미국으로부터 1만5천명의 병력이 63시간 20분만에 혼합 기동타격부대의 전술항공기, 정찰항공기 및 공격수송기와 함께 공수되었다.
 「텔라위」(1964년)=미국으로부터 공수된 6천8백명의 병력과 133대의 항공기가 이란에서 이란군과 함께 합동으로 기동작전을 수행했다.
 「디프 휴로우」(1965년)=미국으로부터 공수된 4천명의 병력 및 140대의 항공기가 터키에서「나트」연습에 참가했다.
 「디프 휴로우」(1967년)=미국으로부터 공수된 2천2백명의 병력 및 87대의 항공기가 터키에서「나토」연습에 참가했다.

2. 분쟁지역 투입

1964년「콩고」의「스랜리빌」및「퍼리스」에서의 벨기에-미국 합동 구조작전을 위해 합동기동부대 지휘반 및 공수부대를 제공했다. 이 작전으로 인질로 잡혔던 2천명이「콩고」로부터 해방되어 안전한 피난처로 공수되었다.
 1965년 「도미니카」공화국 위기시에 대서양지구 사령관에게 82공수사단, 전술전투기대대, 정찰항공기 및 공격 공수 병력을 지원해 줬다. 당시 6일 15시간 내에 1만5천5백58명의 전투대기군 및 1만3천6백43톤의 화물이 목적지로 공수되었다.
 1967년에「콩고」민주공화국에 비전투 군수품 공수지원을 위해「콩고」에 합동 기동부대를 전개시켰다. 한편 동남아시아 작전을 위해 태평양지구 사령관에게 대규모 증원군을 제공했다.

3. 구호작전

1965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시 서파키스탄으로 부터 미국 민을 후송했다.
 1965년 영양실조 및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7천명 이상의「소말리아」인을 치료하기 위해 2만 파운드의 의료품과 함께 의료반을 아프리카의「소말리아」로 파견했다.
 1966년 중앙아프리카의「차드」공화국의 식량기근 지역으로 500톤 수수와 밀을 공수했다.
 1966년 멕시코에 태풍「이네즈」호가 지나간 후 30톤의 식량, 의료품 및 의류의 공수, 74명의「멕시코」인 후송, 1백 여명의 환자치료 등으로「멕시코」정부에 협조했다.
 1967년「콩고」에서 외인용병이 이끄는 반란이 일어났을 때 식량의 약품을 공수했고 많은 외국인을 후송시켰다.
 1967년 대홍수로 고립된「멕시코」의「퀘렐로」시민들에게 식량, 의약품, 의류를 공수했다.
 1968년「이디오피아」홍수지역에 17만 7천 파운드의 식량을 공수했다.



민간기 YS-11호의 납북과 복귀의 계략

윤종현
 <한국일보·논설위원>



58년 2월 18일 당시의 KNA(대한국민 항공사)소속 여객기 창랑호(滄浪號)에 이어 작년 12월 11일 두 번째로 북괴에 강탈 납치되었던 KAL(대한항공)의 YS 11호기 승객 중 일부 39명 (남자 33명, 여자 6명)이 66일 만인 지난 2월 14일 오후 4시 50분쯤, 판문점(板門店)의「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넘어 송환돼 왔다. 그들 외에도 동기에는「파일럿」2명을 비롯하여「스튜어디스」승객 등 도합 12명이 더 타고 있었으나 아직 북괴에 붙잡힌 채 풀려오지를 못하고 있다.

<민간기 YS-11호의 납북과 복귀의 계략>

민간기의 피납(被拉)사건은 그것이「하늘」에서 생긴 불상사라는 점에서 뿐 아니라 영공 방위문제와 결부시켜 왜 그런 사건을 저지 못했을까 하는 일반의 궁금증을 사기 쉽다는데서 우선 공군이 심리상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받게 된다. 그리고 특히 이번 사원에서는 조종사들이 공군 예비역 장교인데다 복귀가 동기의 의거입북(義學入北)을 날조 선전함으로써 일부 시비꾼이나 외국 사람은 반신반의하는 눈초리까지 돌릴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사건줄거리를 정리하며 그 안에 숨은 복귀의 계략과 술책을 속속들이 파헤쳐 안개 속의 의혹을 풀어 둘 필요성은 공군으로서 매우 절실하다 하겠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 먼저 승환자들이 그 간「매스컴」을 통하여 들려준 증언(證言)부터 다 들어 보기로 한다.

◇ 증언(證言) I 사건경위

① 사건당일 낮 12시 25분 강릉(江陵) 비행장을 이륙한 YS-11 호기는 정상「코스」대로 김포(金浦)공항을 향해 대관령(大關嶺)쪽으로 날던 중 맨 앞줄에 앉았던 승객 한 사람이 조종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② 그 뒷자리의 손님 김(金某)씨가 옆에 앉은 구(具某)씨에게 『혹시 스파이가 아닐까』고 물었으나 『설마 그럴리가』하는 구 씨의 대답을 듣고 김 씨는 피곤하여 그대로 깜박 잠이 들어 버렸다. ③ 얼마 후 눈을 뜬 김 씨는 창밖에서 이미 복귀 공군기 2대가 호위하듯 날고 있음을 알았다. ④ 다른 승객 중 일부는 해안선을 보고 북행(北行)중 노임을 짐작했으나 별도리가 없었고 한「스튜어디스」는 조종실로 통하는 문을 마구 두들겼지만 열리지 않았다. ⑤ 하오 1시 5분 그러니까 이륙 40분 후 비행기는 연포(漣浦)에 내렸는데 곧 복귀군이 총을 들어대며 몰려와 창가의 「커튼」을 치고 승객들은 수건으로 눈을 가리게 한 채 꼼짝 못하게 했다. ⑥ 그때 몇몇 승객은 슬그머니「커튼」틈으로 밖을 내다 봤는데 마침 흰「마스크」에 연한 회색「코트」를 입은 후리후리한 차. 즉, 앞서 조종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던 그 승객이 복귀군의 호위를 받으며 대기 중이던「세단」형 검은색 고급 승용차를 서둘러 타고 어디론지 사라졌다. ⑦ 그리곤 다시 그의 모습을 못 보으며 승환자들이 판문점(板門店)에 도착한 후 제시된 사진을 보고서 비로소 그가 납치범 조창희(趙昌熙=43)임을 알았다. ⑧ 조가 승용차를 타고 간 다음 어느「스튜어디스」는『이 승객들을 어떻게 하나』고 울먹이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신분증 같은 것을 찢어 처리하도록 권했다. ⑨ 승객들

<민간기 YS-11호의 납북과 복귀의 계략>

이 기내로부터 비행장대기실로 끌려 내린 후 한(韓某)씨 등 몇 사람은 소변을 참을 수 없어 화장실로 가는데 그때 조종사 유(유병하=37 기장), 최(최석만=37) 부기장 양씨 역시 눈을 가리우고 머리를 숙인 채 복도에 꿇어 앉혀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백지처럼 창백했으며 이런 모습으로 보아 그들은 공범이 아니었다는 심증을 즉각 느낄 수 있었다. ⑩ 저녁 7시경 전원이 함흥(咸興)으로 가는「버스」간에서 승객 최(崔某)씨는 뒤늦게 차에 오른 최 부기장과 함께 앉았었는데 그때 최 부기장은 앞만을 보면서 그에게『승객실에도 무장괴한이 있더냐』고 던지시 물었다. 최씨가『그런 일이 없었다』고 대답하자 부기장은 곧 『그럼 내가 속았구나』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⑪ 같은 차 내에서 유(柳)기장은 승객 주(朱某)씨에게『설악산(雪嶽山) 상공을 비행하다 당했다』고 사건 발생 지점을 알려 줬다.

◇ 증언(證言) II 억류생활

시내에서 버스를 내린 탑승자들은「함흥 여관」방에 1명씩 분리 투숙되었다가 14일 정오경 열차편으로 평양에 도착하여「대동강 여관」과「평양 여관」두 곳으로 갈려 수용되었다. 1명 또는 2명을 한 방에 넣고 세 사람에게 1명꼴로「안내원」이라는「감시원」이 붙었다. 「안내원」은 인사를 나눈 순간부터 승객들의 거주사항, 가족관계, 출신성분, 현 사회성분 등을 며칠간 계속 캐묻고 투숙자들을 1명씩 속아 내갔다. 조종사와 승무원 기타 미 귀환자는 언제 불러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영동(嶺東) 방송국원 2명 (기자와 프로듀서)는 구정(舊正)명일에 남녘 고향이 그리워「가고파」노래를 선창 전원이 함께 부르게 한 것과 억류자에게 실시한 학습회장(12월 20일부터 시작)에서 반대토론을 거세게 전개한 연후 호출돼 간 채 안 돌아왔다.

복귀는 또 일부 억류자에게 전기 및 약물고문(拷問)을 가했다. 청년 손(孫某=30)씨는 그 때문에 정신 이상 증에 걸리고 말았다. 「강릉」이 고향인 그는 서울 사는 만행을 만나러 가다 납치되었는데 원래 체격이 건장한데다 검색물들인「군용잠바」를 입었던 탈 때문에「한국군 특수부대요원」으로 지목되어 모진 취조를 받았다. 그는 정신분열, 기억 상실상태를 발작적으로 반복할 뿐더러 말을 제대로 못하는 반병어리로 변했다. 제정신이 잠만 들었을 때면 몹시 맞은 끝에 머리에서 전깃불이 번개처럼 번쩍 터지고 무슨 가루약을 강제로 먹인 후 쓰러 졌다는 고문현장을 토막토막 되살릴 뿐

<민간기 YS-11호의 납북과 복귀의 계약>

이다. 손(孫) 씨와 한 여관방에서 묵었던 현(玄某) 씨에 의하면『그는 처음엔 멀쩡하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에서 갑자기 없어졌다가 20일 뒤 돌아왔는데 얼굴이 이그러지고 말을 잘못하며 자다가 미친 사람처럼 나 좀 살려 달라면서 벌떡 일어나곤 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 이외의 사람들도 호된 구타와 협박 공갈정도는 모두 당하였고 매일같이 지긋지긋한 세뇌(洗腦)공작을 계속 받아야 하였다.

◇ 판단사항(判斷事項)

요점(要點)만 간추린 증언⑩에서 사건경위를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 ① 납치사건은 고정간첩「조」가 피뢰의 지령에 따라 계획 실행한 것이고 ② 그 실행에 있어「조」는 지면관계라도 이용하여 조종사실에 침입 안에서 통행문을 잠근 후 ③ 전날 그가 자기 집에서 실탄과 함께 손질해 갖고 나간 권총(수사 결과 확인)으로 즉시 정부조종사의 덜미를 겨누며 ④ 기수를 북으로 돌리도록 강요 불응할 땐 당장 처단하겠다고 달려들었다. ⑤ 그와 동시에 승객 중에도 자기일당 몇몇이 끼어 봉기하고 있으니 반항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위협을 가했고 ⑥ 사전에 복귀와 연락을 취하여 다른 탑승자의 억류조치 및 자신에 대한 호위영접준비 등을 갖추게 했다. ⑦ 착륙 후 여관에 투숙할 때까지 조종사와 기타 승무원이 납치에 가담했거나 납치된 것을 기쁘게 여긴 흔적은 하나도 없다. 증언⑩에서는 ① 주범「조」는 여관에 투숙한 사실이 없어 완전히「베일」속에 감춰버렸고 ② 승무원과 미 송환자 일부는 언제 빼내갔는지조차 알 수 없게 음성적인 분리 구분이 계속되었으며 ③ 그간 성분조사와 고문을 포함한 온갖 비인간적 가해공작이 진행되었다. ④ 그 과정에서「의거입북」을 완전 날조하기 위해 우선 조종사에게는 군복무당시의 복귀에 대한 소위 죄상(釋狀)을 들이대며 생사(生死)를 결판 지으라고 무서운 고문과 강박을 곁들였고 ⑤ 그에 따라 조종사들이 체념상태에 빠지자 20일에 어용기자회견을 마련하여「의거입북」을 조작 발표케 하는 한편 ⑥ 나머지 사람은 역시 그날부터 학습회의를 열어 체류 기간 중에「붉은 사상」을 급속히 주입시키는 방향으로 처리하였다. ⑦ 그「학습」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복귀는「의거조작」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심리전의 측면과 결부시키며 계속 취했고 그 때문에 일부 억류자를 추가적으로 끌어 내갔는데 그들 모두가 송환되지 않았다.

<민간기 YS-11호의 납북과 복귀의 계약>

◇ 상황증거(狀況證據)

아무리 어두운 장막 속에서 복귀가 몰래 조작한 일들이고 또한 역선전 나팔을 요란하게 불어대도 귀환자의 증언과 우리의 판단을 인정치 않을 수 없는 객관적 상황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첫째, 복귀가 의거 입북을 주장하는 가장 표면적 증거인 유(柳)·최(崔) 두 조종사의 기자회견이 사건발생일로부터 10일만에야 비로소 열렸던 사실이다. 본인들이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한「의거월북」이라면 좀 더 재빨리「메스컴」에「데뷔」하여 그 소신을 밝히는 것이 복귀를 더 위하는 길이고 복귀 또한 그것을 갈망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열흘씩이나 김을 뻘 연후에 그런 회견에 응했다는 것은 북(北)의 살인적 협박과 강제를 그동안 참고 견디다 못해 운명을 체념한 나머지 타의(他意)에 의한 회견을 한 표증임이 분명하다.

둘째, 복귀가 해외 선전용으로 돌린 회견 기자회견내용을 보면 조종사들이 14일 평양에 도착한지 불과 6일간 정도의 언어훈련으로써는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북한 사회만의 통용어(通用語)와 선전문구가 그득히 나열되어 있다는 소식이다. 근 40세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처럼 굉장히 많은 응답에 어떻게 한결같이 별로 듣지도 못했을 어휘를 썼을지, 이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동 회견기 인쇄물에 실린 두 조종사의 인물사진에선 예의상으로나마 기뻐해야 할 장면인데도 밝은 표정을 전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한다.

셋째, 그 두 사람이 정말로 의거월북을 하려던 계획이었다면 그들의 가장 사랑스런 처나 자녀들을 그 여객기에 함께 태우고 탈출했을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고 보겠다. 하물며 월수입 평균이 20만원 이상의 고급 셀러리맨인 그들로서 무엇이 부족하여 가정과 처자와 지위 경력 등을 다 버리고 갔겠는가.

넷째, 전기 KNA기 사건당시는 귀환 희망자의 송환이 불과 18일만에 실시되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66일 만에 부분 송환이 실현됐을 뿐이다. 이는 18일대 66일의 소요일수 차이만큼 복귀측이 사건처리에 더 곤란을 겪은 표시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무리한「의거주장」을 뒷받침 하려는 데서 장기 진통이 필요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송환자의 인원비율(미 송환자도)이 12년전 KNA기사건 때와 꼭 같은 것도 의거조작의 혐의를 짚게 하는 사실이다. KNA기의 탑승자 총수는 34명(어린애 2명 포함)이었는데 송환 26명, 미귀환 8명으로서 그 비율은 76.47% 대 23.53%였다.

<민간기 YS-11호의 납북과 복귀의 계략>

이번 역시 51명중에서 39명 귀환, 12명 미송환으로 역시 0.1%의 차이조차 없는 동률(同率)이다. 이것은 탑승자 처리에 있어서 전례와 같은 의거 입북희망 평균수치(平均數值)를 확보하여 말썽이 났을 때 변명구실로 내세우려는 인위적 배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여섯째, 미 송환자들의 성분과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처음부터 복귀가「의거 공로자」로 내세운 조종사의 성분이나 가족 상황으로도 그렇지만 그들을 일단 제외한 나머지 10명 중 9명은 모두 남한에서 훌륭한 직업을 갖고 활약하는 일꾼들이다. 그런데 대학교육을 받고 가장 꿈이 부푼 22~23세의 인테리 여성인 「스튜어디스」2명은 물론이러니와 동경적인 방송국의 기자와「프로듀서」, 복귀치하가 싫어서 월남했던 병원장이나 사회단체 지도자, 가장 수입이 좋은 실업계 중역과 간부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바랄게 있어 남으려고 자원했다는 것인지 아무리 어거지를 써도 전혀 써가 먹지 않는 말이다.

다만, 복귀가 강제로 조종사의 마음을「북에다 안정」시키기 위한「파트너」로서「스튜어디스」를 남겼고「납북주범」인 조창희(趙昶熙)의 정체를 잘 아는 사람—예컨대 병원장 채(蔡)씨와 영동 방송국원—, 그리고 남한에서 반공 투쟁이나 또는 경제적 사회활동에 정진한 이른바 그들의「반동층(反動層)」이라고 단정한 인사들을 계속 억류시킨 것 뿐이다.

◇ 북괴(北傀)의 표적(標的)

송환문제를 둘러싸고 북괴는 시종「남북간의 민간대표회의」를 열자는 철면피한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뿐 아니라 일부 승객을 송환하기 1시간 전에 그들은 소위「조선 중앙통신」을 통해 한국 사람끼리 이 문제를 협의했으면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괴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KNA기 때와는 달리 처음부터 굳이 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이나 제3자의 개입을 반대하며 송환을 질질 끌다가 국제여론 앞에서 점차 고립화하자 마지못해 일부 승객만을 일방적으로 돌려보내고 말았다. 사람이나 비행기가 그곳을 넘었으면 그 동기가 어떻든 또는 경로가 육지든 바다든 하늘이든 정전쟁방당국의 허가나 양해 없이 군사분계선(휴전선)을 횡단, 내왕, 출입한 행위가므로 분명히 휴전협정 제7.8.9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그 위반 성 때문에 KNA기 사건서는 각각 23차에 걸친 정전위 본회의와 비서장 회의의 토의를 거쳐 승객 송환을 실현시켰던 것이다.

이 선례(先例)를 외면하면서 남북 민간회담

<민간기 YS-11호의 납북과 복귀의 계략>

만을 들고 나선 데서부터 우리는 KAL기 납북사건이 예측한대로 어떠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더 잘 알 수 있었다. 즉, 납치한 사람과 물건을 저장물로 삼아「납북회담」을 강요하려는 인질외교를 꿈꾸었던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인정된 한국 측과 민간끼리나마 마주 앉음으로써「괴뢰」에 불과한 그들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확인시키려는 타산에서였다.

아울러 사건을 조종사에 의한「의거입북」인양 뒤집어 꾸미고 그 월북 이유가 마치「반미」나「반정부사상」때문인 것처럼 일대 선전공세를 펼 것과 더 나아가서 남한에는 이런「혁명정세」가 조성되어 있으니 북한청년이 주민은 서슴지 말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납침공작을 선동하려는 목적도 들어 있었다. 말하자면 대남 폭력혁명 축진의 한 방책으로 저지른 사건인 것이다.

가족과 친척 7명이 일당이 되어 복귀 지령하에 범행하였던 창랑호 사건에서는 당시 그들의 정치 선전「테머」이던「협상통일」에 찬동키 위해「의거월북」한 것처럼 전모를 분장하려 들었었다. 허니 북괴의 대남공작이「폭력혁명노선」으로 변경되고 그에 따라 무장 공비와 무장 간첩을 침투시켜 마치 남한 내에서「반미반정부기」가 발생한 것처럼 판국을 몰고가는 참인지라 같은 조작극을 꾸며도 이제 정치적 대사(臺詞)는 더욱 경화된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YS-11호기의 피납 사건과 그 사건을 끝내「의거월북」로 조작하고 나서는 적의 이런 표적에 우리는 교란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연중무휴 전투태세
빈틈없는 영공방위**



중령 손 용 기

- 능률=(목표의 명확성)·(동기부여)
- 목표의 명확성=목표관리
- 동기부여=의욕고취

1. 능률이란 무엇인가?

어느 조직체를 막론하고 감독자계층 이상에서는 적어도 이 능률(Efficiency)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러나 흔히 사용하고 있는 말일수록 그 진의(眞意)가 무엇인가? 함에는 선뜻 대답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말일수록 그와 유사한 용어나 동의어(同義語)가 많기 때문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능률(能率)이라는 용어와 흡사한 것을 추려보면 효과(Effect), 효율(Effectiveness), 성과(Out put), 기대성과(Desired result)……등이다.

그리고 이 능률이라는 용어에 대한 가치(Value)가 조직의 계층에 따라 다르다.

적어도 감독자 층(First line Supervisor)에서는 이「능률」이라는 말을 즐겨 쓰면서 업무 수행과정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지만 말단에서 일하는 사병들에게는 그렇게 마음에 드는 용어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은 조직 계층에 있어서 하위 직위로 내려 갈수록 능률이라는 말은 개인의 능력을 짜내려는(Squeeze up) 시도(試圖)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 능력을 충분한「인센티브」도 보장 없이 짜내려고 생각하기 쉬운가?

① 능률을 양적인 처리만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 능률이란 무엇인가 ◇

능률 추구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주로 하여 양적인 측정을 하려고만 하기 쉽다.

그러나 어떤 성취도(Achievement)는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기도 하며 인간의 가치 판단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

엄격한 의미에서 성취도의 측정은 효율(Effectiveness)인 것이다.

효율이란 최소의 노력이나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려는 것이다. 따라서 효율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최소노력과 최대성과는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② 조직의 목적이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분발(努力奮發)을 강요하기 쉽다. 노력분발의 강요가 적극적인 조직 내의 활동을 하나의 목표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이 노력분발의 강요에 앞서서 중요한 점은 왜 귀관은 이 일이 중요하며 이 일을 하여야만 되는가의 이해가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③ 능률추구는 신속성만을 강요하기 쉽다.

특히 양적인 처리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비중을 신속성에 두고 있지만 이 신속한 처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확성이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정확성과 신속성의 관계는 서로 반비례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정확성과 신속성에 대해서는 모두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④ 자발적인 욕구문제이다.

여기에 돌을 굴리는 두 사병이 있다고 하자.

두 사람 모두 같은 시간 내에 돌을 목적지까지 운반했지만 한 사람은 명령에 의하여 강제 적으로 운반했으며 다른 한 사람은 돌을 운반해야만 된다는 목적 의식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에 의한 작업이라면 여기서 돌 운반이라는 목적달성(결과위주)으로 동일시 할 수는 도저히 없다.

돌을 운반하기까지의 과정(과정위주)과 다음 작업과정을 위하여 후자의 경우를 높이 평가할 줄로 믿는다.

이상의 네 가지 예를 통해서 능률의 개념은 점점 명백해질 줄 믿는다.

즉 능률이란 두 가지 함수 관계에 있다.

능률=(목표의 명확성)·(동기부여)

능률은 양적인 측정이라고 하기 보다는 질적 평가이다.

능률은 무엇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하는 목표관리와 하고자 하는 의욕의 고취에 따라 결정된다.

2. 목표관리에 의한 능률

종래까지의 관리활동을 신분(身分)에 의한 관리(Management by Authority) 라면 최근의 각광을 받고 있는 관리기법은 목표에 의한 관리 (Management by objectives)이다.

이 목표관리는 능률추구를 위한 조직 활동 가운데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다.

이 목표관리의 기본 이념은

공동목표 = 개인목표

조직의 공동목표에 개인의 목표를 일치시키려는 노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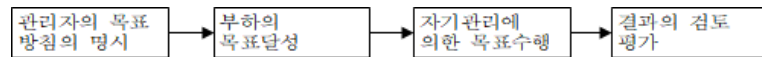
따라서 목표관리는

① 개인의 창의와 노력에 의한 자기 관리 본위이다.

② 관리자의 상담 적 역할로 인한 목표 달성이다.

③ 개인의 분담 책임의 명확화에 있다.

이러한 목표관리의 수행을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서



이러한 단계적 특징을 가져야 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상급관리자의 목표와 방침이 먼저 명시되어야 한다.

상급관리자의 목표 및 방침은 항해사의 나침판과 같으며 이 목표와 방침에 따라 개인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인의 목표 달성은 먼저 상관과의 상담 적 역할로서 먼저 설정하고 이 설정된 목표는 스스로 검토시켜서 달성 여부를 분석케 하는 것이다.

셋째, 결과의 검토와 평가는 스스로 검토하여 그 달성이 불충분한 경우 그 원인을 구명 하고 다음 목표 수립에 자료가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관리는 개인의 능률 추구로서 공동목표에 따라 무엇을 할 것인가? 「문제의 발견」그리고 그 결정에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구체화함으로써 자기 동기(Self-motivation)를 유발시키려는 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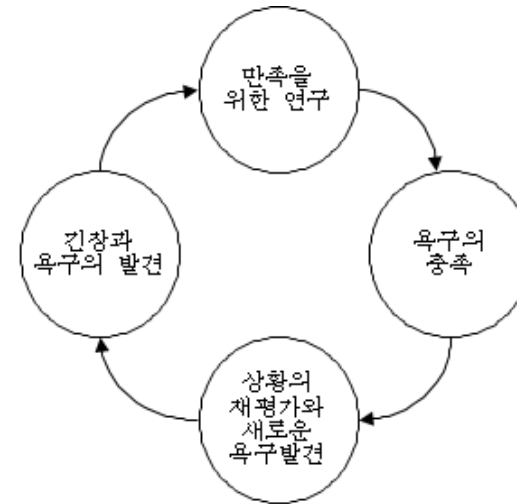
3. 동기부여

동기부여란 특정과업에 대한 접근태도이다. 이 접근태도는 우호(友好)적일 수도 있고, 도전적이거나 부정적 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 태도는 근본적으로 그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에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욕은 어디에서부터 연유하여 왔는가? 이다.

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긴장과



욕구의 발견이란 부하를 알고 이해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행동원리를 이해하여야 한다.

① 인간의 행동(B)는 인격(P)과 환경 (E)에 의하여 정해진다.

$B=f(P,E)$

② 인간의 행동에는 의미가 있다.

외적인 인간행동은 단순한 요인에 인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행동의 누적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난다.

③ 인간의 행동은 지각(Percept)에 따라 다르다.

④ 인간(人間)의 행동은 사물을「보는 측면」에 따라 다르다.

⑤ 인간(人間)의 행동은 욕구에 따라 변한다.

이러한 인간행동의 다섯 가지 원리의 이해가 동기부여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인 것이다. 다음은 만족의 탐구이다.

인간의 만족이란 천대만상이다.

어느 사람은 물질적 보수만으로 만족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정신적 보수로 만족하는 경우도 있다.

직업별로 직무만족의 정도를 예로 들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

① 단순노동에서 정신노동으로 갈수록 직무에 대한 적성으로 흥미도가 높다.

② 동료와 마음이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단순노동으로 갈수록 높다.

③ 직무를 꾸준히 계속하려는 지속성은 단순노동으로 갈수록 높다.

이러한 직무만족의 일반화는 부하의 만족 탐구에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으며 부하의 직무에 강한 집착력을 줄 수 있는 조건을 수립하는 지침이 되기도 한다.

끝으로 이러한 욕구의 충족은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욕구는 하나의 충족으로 더 고차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노력한다.

(失禮)가 되더라도 널리 너그럽게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 ☆ ☆

군대는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집단입니다. 군대는 국방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본인은 이러한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국방이라고 하면 군대만의 일이 아니고 전 국민의 일이고, 특히 현대의 국방은 전방과 후방이 없으며, 과학과 경제가 뒷받침해야 하고, 전 국민의 반공, 승공의 이념이 투철하여 적으로 하여금 발을 붙일 수 없게 하는 철통같은 국민방위가 요청되는 것입니다. 생산, 수출, 건설이 국방이요, 국민도의 양양이 국방이요, 근면 근검, 저축이 국방이요, 산림애호 건강증진이 궁극적인 뜻에서는 국방이 되는 것입니다. 국토에는 적과의 경계선이 있지만은 공간에는 제한선이 없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라디오에서 울려 나오는 적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불리한 전파내용 역시 국방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 안보라는 것을 생각하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한 가지 말 한 번의 몸짓, 한 줄의 글들이 모두 국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은 국방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군대는 전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 특수 집단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나라 군대이고 항상 전쟁을 전시로, 전쟁터를 예상하고 먹이고, 입히고, 잠재우고, 규율을 세우고, 훈련을 쌓고, 휴식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상재전장(常在戰場)이라는 것은 병가(兵家)의 보편된 진리입니다. 국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존경과 위안을 드리고 때로는 약간의 불미한 일이 있더라도 치더라도 군대라는 특수한 집단에는 너그러이 보아 주는 것입니다.

군대가 가져야 할 자세는 첫째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입니다. 충성은 군대의 정신자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에 바치는 충성심 있는 군대라야 목숨을 바쳐 싸우는 용기가 생기고 상관을 존경하여 그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예절이 생기고 일사불란한 단결이 생기는 법입니다.

지다생활 부적응자의 지도방법

왕학수

<고대·교육대학원장>

— ★ ● ★ —

머 리 말

공군본부 정훈감실 편집과로부터 위의 제목으로 글을 써 줄 것을 청탁받았습니다. 친절하게도 주를 붙여서 원고내용은 군대라는 특수 집단 생활 속의 구성원 각자는 어떤 정신자세와 요령을 지녀야 하고, 사고자(事故者)들의 개별 상담, 빼뚫어진 심리를 가진 부하를 상관은 어떤 방법으로 지도 개조해 나가야 하는가를 개념적인 논설이 아니라 실기문(實記文) 중심으로 재미있게 엮어주십시오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 구별해 보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군대라는 특수집단 생활 속의 구성원, 즉 장병들의 지녀야 할 자세와 요령이요.

둘째는 불행히도 어떠한 사고를 저지른 장병들에 대한 개별적인 상담의 기술 문제이요.

셋째는 빼뚫어진 즉 비정상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는 부하 사병을 상급자로서 어떻게 지도 개선시켜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념적인 딱딱한 논설문투로 하지 말고 재미있게 실기문투로 쓰라는 원고 청탁치고는 매우 조밀하고 친절 한 편집 실무자의 청탁에 감동하여 이하 몇 가지 군대 실례와 학생지도의 학문적 방법론을 토대로 기탄없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혹 실예(實例)가 실례



만약에 국가와 민족이 없는 곳에 군대가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영웅이나 호걸을 추앙하여 그를 위한 사설군사단체로서 이른바 사병(私兵)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 영웅이나 호걸이 없으면 그것으로 끝장을 보거나 아니면 새로운 영웅이나 호걸을 찾아 헤매는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행동과 목표는 어디까지나 사인(私人)의 일시적 이익이나 명예를 위함이 되기가 십중팔구이며 때로는 공익과 공도를 무너뜨리는 사회악이 됩니다. 나쁘게 말하여 도둑의 떼나 폭력단체의 아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군대가 아닌 다른 한 가지 예가 소위 용병(傭兵)으로 돈을 받고 전쟁이나 싸움을 청부하는 전투를 하는데 기술을 가진 단체입니다. 이것 역시 돈의 다과와 이념의 상통을 주로하지 정의와 진리와 조국 수호, 민족 보위를 위한 국가의 군대, 민족의 군대, 국제 연합의 십자군적 군대와는 성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군대의 자세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사로서의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는 군대는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전사를 대비한 군대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군대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용기 없는 군대란 상상만 해도 가련합니다. 싸움은 생명을 건 운동이기에 목숨을 바쳐 싸워 조국과 민족을 수호하는 운동에는 정말 비상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기는 국가와 민족을 수호한다는 높은 이상과 의무감, 명예감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그러한 곳에서만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헛되게 부리는 숙된 용기를 만용이라 합니다. 숭고하고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참된 용기를 군대의 용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도시 뒷골목에 약한 자를 골라서 치고 때리고 돈을 빼앗고 하는 비겁한 용기나 아니면 조그만 특권의식으로 차고에서나 술집에서 사소한 일에 때를 지어 편싸움 따위를 하는 무리의 만용은 군대가 전쟁터에서 조국과 민족을 수호하거나 인류평화를 회복 발전시키는 참되고 위대한 용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숭고한 용기는 항상 평상시에 교육과 훈련을 정밀 정확하게 받아 무사적 기본 훈련이 충분히



댈어진 실력 있는 군인만이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육과 훈련이 몸에 배이고 체득되고 숙달되어 여하한 난관도 여하한 역경도 돌파할 수 있는 정신적, 의지적, 기술적, 습관적 높은 수준의 실력이 없이는 전쟁의 화염 속에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최후의 일각까지 최종의 목표인 승리에 이르는 무섭고 어려운 죽음을 초월한 전진과 격투와 돌격의 참된 용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교육과 훈련은 용기를 기르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요 촉진제라 하였습니다. 힘 있는 군대만이 용감하며 용감한 군대라야 전투에 이기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필승의 신념은 평소에도 다져진 전투의 기술 즉 강철 같은 체력, 과학적 정확한 사술(射術), 불굴의 투지, 난관을 극복하는 인내력, 예리한 판단력, 그리고 굳은 단결의 힘이 양성되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대의 자세로서 예절이 중요합니다. 예절은 고대로 인간 사회의 가방 고귀한 질서관념과 애정관념에서 생겨났습니다. 질서는 상하의 관계요 선후의 관계입니다.윗사람과 아랫사람, 선임자와 후임자의 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순서와 계급과 계통이 있어야 사회는 비로소 조직체로서의 기능을 유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소위 오합지졸(烏合之卒)로서 무질서하고 무계통하고 무체계한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절은 이러한 엄한 사회적 규율형식을 지니는 반면에 애정을 내용으로 하는 따뜻한 인간애로서 아끼고 사랑하고 측은히 여기는 인간적 애정 내용을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 질서로서 엄한 규칙 규율과 인간적 질서로서의 따뜻한 애정, 애함이 서로 조화있게 무르익은 곳에 참다운 예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어서는 질서로서의 규율이 앞을 설 때가 많습니 다만은 그래도 인간애로서의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과 인간애로서의 상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속에서 자리 잡고 있어야 참다운 군기가 성립될 줄 믿습니다. 적진에 뛰어들 것을 명령하는 상사의 명령에는 그가 부하 사랑하는 평소의 따뜻한 인정의 한 구석이 있어야 할 것이요 죽어간



상관의 무덤을 파는 사병의 삽 끝에는 그가 평소의 상관을 존경하던 마음의 한 구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우애란 참으로 세상에서 고상무결한 것일 겁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충성심의 발로에 있어서 상관이 더하고 부하가 덜할 리는 없습니다. 오로지 맡은 바 직책과 선후의 차례가 있어서 하나는 상관으로서 명령하고 하나는 부하로서 그것에 복종할 따름입니다. 명령하는 자는 부하의 심정과 입장을 복종하는 자는 상관의 심정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평소에 영내에서 주고 받는 경례는 이것을 상징한 훈련입니다. 경례를 주고 받지 않는 군대는 전쟁에 약하다는 것이 병가의 지론입니다.

끝으로 군대의 기본자세로서 희생정신을 들겠습니다. 군대의 사명이 전쟁에서 조국과 민족을 수호하는 일일진대 그것은 생명을 건 가장 고귀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그의 생명입니다.

모든 인간은 고귀한 생명의 소유자요 그 생명을 유지 발전하고 더욱 행복할 것을 본능적으로 회구합니다. 생명은 하나요 둘이 없으며 한 번 있지 두 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생물체의 생명의 숙명입니다. 따라서 생물적 생명의 최대의 생명을 죽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되게 살려고 태어난 귀한 단 한 번의 생명을 죽음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가련한 일입니다.

그것도 꽃피워야 할 청춘의 계절에 아깝게도 어느 이름 없는 산골짜기에서 또는 어느 이름 모를 정글 속에서 또는 미워하는 적의 토치카 언저리에서, 또는 간이 야전병원의 딱딱한 침대에서 죽어간다는 것을 상상하면 무엇이라 표현해야 좋을지 거기에 알맞은 말과 글을 발견키 힘듭니다. 아아 참으로 위대한 그 무엇을 위한 높은 희생이 아니라면 비참한 한 인간의 운명이겠습니까.

여기에 그 무엇이라는 높은 가치를 찾아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발견합니다. 조국이라는 또는 민족이라는 사회의 번영과 안전을 위하는 한 구성원으로서의 그것을 위하는 일편단심에서 바쳐지는 거룩한



죽음의 희생이요 고투의 희생이요 고난의 희생입니다.

이러한 희생의 고귀한 점이 얼마나 인류를, 그리고 조국을 위하여 중요한 것인가는 바로 역사가 증명합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역사는 고사하고 우리나라만 지켜보아도 무수한 예를 역사에서 발견합니다. 수(隨)나라의 대군을 막아 국가와 민족을 보위한 고구려의 군대들, 임진왜란을 극복하여 국가 사직을 보호한 이순신 장군을 위시하여 허다한 희생의 군대들, 가깝게는 6.25 공산침략에서 조국을 건져낸 혁혁한 우리 국군의 희생, 현재에도 해외 지역관리에서 월남군을 돕고, 미군을 도와 자유의 십자군으로 씩씩하게 싸우고 있는 용맹무쌍한 파월공군 장병들의 거룩한 희생이 바로 산 증명이요 증거이겠습니까.

이러한 위대하고 숭고한 희생이 없다면 조국과 민족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슬픔니다.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군대의 근본자세이며 그것으로서 가장 큰 역사적 사명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생은 말로서 하면 쉽겠으나 실천하기는 힘듭니다. 죽음을, 죽음의 공포를, 죽음의 영광을 찾고 키우고 이룩하는 것은 어찌먼 저 위대한 종교에도 비길 수 있는 허다한 고난과 수도와 기도와 희생을 통한 해탈(解脫)이나 귀의(歸依)에도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조국, 나의 민족, 나의 형제, 나의 자손들의 번영과 발전과 행복을 위한다는 충성심, 정의심, 연원심의 발로요, 추구요, 순국(殉國)이라 하겠습니다. 순국(殉國)의 정열로서 모든 희생을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 군대라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 ☆ ☆

군대는 하나의 전투를 목적으로 하고 전투를 단위로 하는 특수한 조직사회이기때문에 여기에 적응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충성과 용기와 군기 예절과 협동 단결을 기초로하는 특수 단체생활이기때문에 허다한 난관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의 지원아닌 의무로서 소집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들의 체격 체력, 학력 학벌, 지방 직업, 빈부 귀천, 능력 소질, 성격 취미, 지능 적성, 감각 감정/경력 경험 등등이 이질적이지요 개인차가 심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병적으로 군대를 두려워 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의 구성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성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과도하게 과장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러할 것을 예상하고 최대한으로 예방하고 교육하고 선도하여 크게 사고가 되지 않도록 부단히 연구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자는 군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군대생활의 장점과 단점을 솔직 담백하게 설명하여 인생의 기나긴 생애의 가장 알찬 자기와 단체의 개성과 단체성의 개아(固我)와 전체의, 부하로서의 자아와 상관으로서 자아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이니 즐겨 수도(修道), 수련(修練)의 도장(道場), 무아(無我)의 경지(境地)로서와 그 무엇에 자기를 던져서 희생하고 고투하고 인내하는 것을 통하여 불굴의 투지(鬪志), 즉 감투정신(敢鬪精神)을, 그리고 여하한 일에도 건디어 내는 강철 같은 체력 즉 왕성한 체력을 가진 견고한 육체를 단련시키는 유일무이의 좋은 기회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되고 부자유하고 때로는 여울하고 아프더라도 항상 나(自己)이외의 다른 사람도 건디고 이겨내는 것을 생각하고 더욱 참기 어렵더라도 거기에 일정한 시간과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지극히 속된 이야기는 하나 고비가 있으며 종말이 있으니 참아 보면 좋은 결과가 꼭 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훈련이 치열해도 몇 시간, 몇 날, 몇 주일이요, 아픈 때도 몇 개, 몇 십 개, 몇 백 개이면 끝이 오며, 죽고 싶은 일이라도 3년이면 끝장을 보니 유기(有期)의 복무이니 때만 오면 끝이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조그만 고통, 불편, 억울함, 어려움에 성급하게 피할 길을 서두르지 말고 참고 건디어 고진감래의 희열을 거두어 보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 걸음 나아가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술선수행 말은 바 입무를 다하고 상사에게는 귀엽고 믿음직한 부하로



동료에게는 부러운 돌도 없는 전우로, 부하에게는 미덥고 자랑스러운 상사로서 군대생활을 즐겨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격과 교육정도와 성장환경이 다른 그리고 소질과 능력과 이상이 다른 가가호호의 젊은이들이 모인 특수한 사회인지라 탈선과 사고가 전혀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짐작합니다. 이러한 이외의 불행이나 불상사가 있을 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담의 방법과 기술을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1. 임상적 상담(臨床的 相談)

첫째, 분석(分析)—— 병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자료를 여러 가지 도구와 기술로서 모읍니다.

둘째, 종합(綜合)—— 분석에 의하여 얻어진 많은 자료를 체계 있게 정리하고 조직합니다. 즉 그 병사의 적응에 관한 여러 가지 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셋째, 진단(診斷)—— 그 병사가 말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의 성질과 원인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립니다.

넷째, 예진(豫診)—— 그 병사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예언(豫言)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상담(相談)—— 병사와 상담자가 그의 바람직한 적응을 위하여 취하는 서론의 면접, 담화, 의논입니다.

여섯째, 사후지도(事後指導)—— 상담을 받았던 병사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가, 또는 어떤 새로운 문제에 부딪치고 있는지는 앓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후지도는 상담자 자신에 있어서도 한 일에 대한 평가를 하여 앞으로 일을 계획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2. 상담의 기술(技術)

첫째, 분석과 종합의 기술—— 한 병사의 일을 상담하기 위하여



우선 상담에 앞서서 상담자는 그에 관한 전반적이고 믿음직한 정보를 모으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인에 관한 생활, 배경, 흥미, 동기, 건강, 정서 등등을 세심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학교교육에는 학생마다 각 학년 담임이 계속 기록해 놓은 누가기록(累加記錄)이 있습니다. 이 누가기록부를 조사하여 그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다음 면접(面接)에 들어갑니다. 그 전에 그 병사의 자서전이나 일기(日記)나 일화기록 특히 여 러가지 심리검사 신체검사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이것을 사례연구(事例研究: Case Study)라고 하는데 첫째로, 해결을 요하는 문제점을 설정하고 다음으로 가정상황, 문화상황, 신체상황, 발육의 역사, 교육을 받은 역사, 경제상황의 변화 변천 법률적 상황, 생활(흥미, 오락, 공상, 성문제, 사회적 적응) 제반을 조사하여 확인 예비하는 일입니다.

3. 진단의 기술

진단에는 단계가 있으니 (a)문제를 찾아내고 기록하는 단계 (b)원인을 찾아내는 단계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진단에는 종류가 있으니 a. 직업의 문제 즉 병과의 문제 b. 교육적 문제 즉 능력의 문제 c. 사회적 정서적 및 인성 문제 즉 군대생활에 대한 적응을 방해하는 인성, 열등감, 초기적인 정신병적 증세 d. 경제적 문제, 즉 용돈의 결핍 e. 가정적 문제 즉 부모의 부양의무, 형제의 질환 f. 신체 및 건강의 문제 즉 신체적, 장애 몸에 대한 지나친 근심 등등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4. 상담의 기술

상담의 기술도 다섯 가지로 생각하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 타협시키는 것, 즉 다소 강요성을 띠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 b. 환경을 바꾸는 것, 즉 현재의 환경에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c. 적당한 환경의 선택, 즉 군대의 환경 속에서 그의 인성에 가장 알맞은 환경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d.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 즉 어떠한 특수 기능에 곤란이 있는 자에게 특별한 훈련과 도움을 주어서 교정 보충교육을 베푸는 것입니다.

e. 태도를 고치게 하는 것, 즉 당사자의 태도를 고쳐 그의 욕구와 환경의 필요사이에 부드러운 조화를 이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상담자가 상담을 유효 적절하게 성공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친밀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고 비밀을 지켜주는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신뢰감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자는 당사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고 그것을 자기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해시켜야 합니다.

끝으로 상담자는 당사자에게 다음 행동계획을 명확 치밀하게 제안하고 이것을 실천에 옮기도록 결단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담의 결과로는 또한 다른 유능한 상담자나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유효한 것입니다.



☆ ☆ ☆

불행하게도 어떠한 생득적(生得的)이거나 후천적(後天的)인 습관에 의해서 이미 지니고 있는 비정상적인 성격이나 습성을 가진 자에 있어서는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 훈육의 방향이 있겠습니까만은 대체적으로 우선 그 증세의 강도와 원인을 깊이 조사 연구하여 각자의 개성에 알맞고 증세에 알맞은 방법을 고안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상관상사로서의 참을 수 있는 관용의 태도와 따뜻한 어버이로서의 애정의 표시라고 생각됩니다. 성급한 질책이나 꾸지람을 내리거나, 엄격한 의법처단(依法處斷)은 결코 현명한 태도가 되지 못합니다. 시일을 두고 서서히 접근하여 군대도 정이 오고 가는 따뜻한 인정의 사회요 눈물도 사정도 있는 가정적

☆ 집단생활 부적응자의 지도방법 ☆

가족적 분위기이며 매질과 기압과 영창과 형무소로 직결 되는 메마른

사회는 아니라는 것을 끈기 있게 자각하도록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이해시키고 세심하게 돌보아 주는 일입니다.

애정을 통한 이해, 생활을 통한 본보기, 점진적 훈련을 통한 개심 개정, 참을성 있는 변화에 대한 기대, 적당 적절한 포상(외출, 외박, 휴가, 상장), 감동을 주는 견책 등등의 방법을 두루 구사하여 미더운 상관, 존경하는 상사, 친화할 수 있는 군대로 인식을 바꾸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좀 우월한 방법이기도 하나 스스로 자각하는 길을 택하기 위하여 모범적인 인물의 전기나 일기 등을 읽히거나, 산 표본적 인물의 집에 기거를 하게 하여 감화를 받게 하는 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과 노력이, 성실과 인내가 얼마나 인생살이, 특히 군대살이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위인전이나 모범 용사의 가정생활을 통하여 깨닫게 하는 것은 그 한 병사의 군인으로서의 중요함은 물론이지만 한 걸음 나아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장차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얼마나 고귀하고 바람직한 일인가를 상사나 상관이 스스로 깨닫고 명심하여 한 군인, 한 병사를 올바르게 선도하는 것이 곧 크게는 한 국가, 한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건설한다는 보다 높고 거룩한 스승이요 지도자로서의 값있는 사명이라는 자각과 긍지를 잊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빼뿔어져 있으나 나의 동포요, 말썽꾸러기이긴 해도 나의 민족적 운명 공동체의 일원임을 깊이 깨달아 그들의 교도와 육성이 지도자의 거룩한 일대 사명임을 명심하고 참을성 있게 교정하고 개선시키는데 특별한 기쁨과 영광을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국민은 군대에 자녀를 보내어 안심하고 그들의 복무가 충실하기를 믿고 그들의 장래가 행복하리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젊어서 군의 복무가 자라서 사회의 값있는 양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상사 상관들의 무궁한 무운을 빌며 모든 사병들의 즐거운 군대생활, 알찬 군인생활을 기대하며 이 글을 맺는 것입니다.



태권도의 올바른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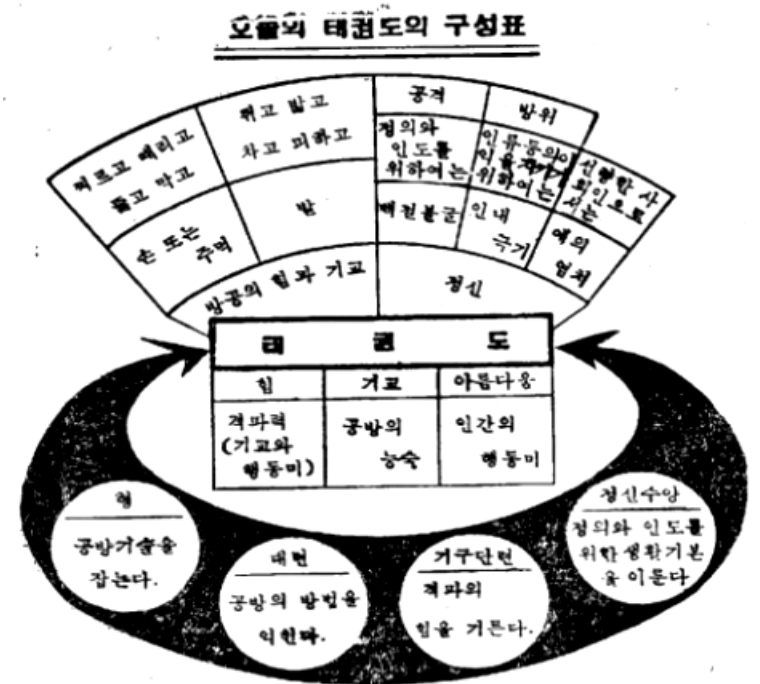
소령 김 병 운(6단)

1. 태권도의 사적고찰

독일의「리푸케」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적에 태권도에 의거 깨진 벽돌 조각을 들고 감탄에 젖었던 사실.....

「존슨」미국 대통령 한국 방문시「우리국군은 태권도 정신에서 강한 정병」이 되었을 거라고「월남전에서의 그 예가 그렇지 않느냐고」.....

박 대통령이 뉴질랜드를 방문시「오크랜드」시의



◀태권도의 올바른 인식▶

골프장에서「스윙」하시는 모습을 보고 태권도 유단자 박 대통령이라고 신문들은 극 칭찬을 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대수롭지 않은 예를 보더라도 태권도는 간단한 무도에서 뿐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면에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현 주월군에만도 연 100여 명의 교관이 6년간 파견되어 왔으며 자유중국 국군에도 한국 교관이 파견되어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멀지않은 장래에 CISM(국제 군인 체육대회)에도 채택될 것이, 논의 중에 있는 이때 우리 공군 장병은 올바른 태권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 필자는 태권도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계속 연구 발표하고자 하며 지면상 사적 고찰을 먼저 기술코자 한다.

태권은 어느 특정된 지역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원시인이 무기를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을 때 인간이 수족으로서 상대적이나 맹수와 싸우는데서 부터 원시적인 투기로서의 자기 방어 내지 공격법이 세계도처에서 발생되었으며 각종 다양한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발달한 것이다.

(1) 구라파

구라파에서는 현대의 권투와 레슬링을 혼합한 것 같은「뿡구라찌온」(角力)이라는 투기의 일종이 발생하여 서기 648년에 올림픽 경기의 일 종목으로 경기되었던 것이다.

(2) 미 국

일본에서 강도관이 창설되어 본부를 동경에 두고 동서양 각지에 그 지부가 설치되었을 때 미국의 대륙에는 도장이 설립되어 흥미를 가진 서양인에게 지도하였다. 그러나 방어 또는 호신에 필요한 묘기는 거의 교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미국인은 미국인의 성질과 필요성에 적 합한 자기 방어법 창안에 착수하여 미국식 도수방어(또는 맨손공격)법을 만들어 현재는 야전교범으로 군대서도 교수하고 있다.

(3) 동 양

혹지는 태권도가 중국 것이니 일본 것이니 하고 무지를 드러내는 것을 들을 적마다 필자는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동양에서는 역시 그들 나름대로 각각 특색 있는 태권(호칭은 여러가지)이 있었으니 그 유래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가) 인도—인도에서는 각 재후가 그 세력투쟁에서 권법적 무기를 많이 이용한 흔적이 보이며 상권상업이라 불리어 불교가 발생함에 중문의 수행자가

◀태권도의 올바른 인식▶

심신수련의 한 방법으로 하였으며 또 행각편력시 이종족 또는 맹수 등의 습격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널리 연구되었던 것이다. 인도에 있어서 당시의 권법적 투기가 성행한 사실로는 제종의 사천왕상을 보아서 잘 알 수가 있다. 즉 사찰산간의 좌우에 서 있는 인왕존의 상은 악혼을 구축하는 공방일체의 형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나) 중국—중국에서는 수박무희 또는 각저 등의 형칭으로 무예의 일종으로서 성행하였으며 전중국 단상서휘하(段祺瑞麾下)의 맹마량 장군이 중화민국 9년 직예파와의 쟁탈전에서 단상서일파가 패함에 이르러 그는 군벌(산둥독국)을 은퇴하고 무술도장을 개설하여 중국 국 쇄무술의 선창에 노력하였으며「재민선」이라는 국민정부의 위원이 이 국쇄무술의 장려를 도모하고자 정부에 건의하여 국술(國術)이라는 명칭을 붙였으며, 오늘날에



<태권도의 원형인 근세 중국의 유술>

대만에서 쥐권이라 부르고 있다.

(다) 일본—일본에서는 위술소구족체술(아와라)등의 명칭으로 되어 있었으며 오늘날의 일본 공수권법은 유구열도 중승(오끼나와)에서 침략자에 의하여 무기를 몰수당하고 무기지침이 금지되게 되므로 도수공권으로서의 방공법이 발달하여「오끼나와수」혹은「가라대」라는 명칭으로 수련되던 것을 일본 명치유신 이후 유구인이 일본본국에 전파하여 오늘의「가라대」가 된 것이다. 현재 일본의 가라대총재 Oyama(최영천) (동경 극진회 회장) 8단도 한국 제일교포임을 덧붙이고 싶다.

(라) 태국—오늘날 태국에서 시험의 일종으로 경기하고 있는 권투는 방구를 착용하여 손으로 또는 발로 치는 투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옛날에도 이와 유사한

◀태권도의 올바른 인식▶



<말레이의 (베루시라트)전문가들이 공방전을 실시하고 있는 장면>

공수권법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마) 마래—마래의 무술은 영국 식민통일 171년만에 독립국으로 탄생한 미래의 무술은 마래 고유의 호신술(베르시라트)로 옛날에는 마래 청년들이 이것을 배우기 전에는 완전한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았다 한다.

그 당시 청년들은(계랑강)이라 불리우는 도장에서「펜타카」라는 사범으로부터 50여명씩 교수를 받았다. 이 호신술의 기본은「시라트」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예식적인 것으로 오늘날 어떤 잔치나 결혼식 같은 장소에서 성행되고 있으며 이 훈련을 받는 동안 수련생들은 수족이나 몸 전체를 부드럽고 민활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상대방의 의도와 동작을 재빨리 알아낼 수 있도록 눈의 훈련도 받게 된다. 옛날의 무술이 전투에 사용되었을 무렵 사범「펜타카」는 그의 기술을 가르치는데 눈 하나로 죽고 산다는 특히 시력을 강조하였다 한다. 이러한 기초훈련이 끝나면 맨손으로 방어하고 공격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이때 우리나라의「택견」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상 2가지 기술을 채득한 연후에 무기 특히 단도와 장검을 사용하는 검술을 배우게 되며

◀태권도의 올바른 인식▶

이 단계가 끝나면 비로소「펜타카」의 자격을 얻게 된다. 이 무술은 의식에서 주로 볼 수 있으나 역시 미래에 가보면 깊은 밤에「징」소리가 들려온다 하는데 이것은「펜타카」의 제자들이「베루시라트」를 연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외지). (바) 우리나라의 택견—우리민족은 이미 신라, 고구려, 백제의 3국 시대부터 청년자제들로 하여금 자진하여 국토방위를 담당하도록 하되 일조유사 할 때 궁실도창 같은 무기를 잘 사용하도록 훈련시킴은 물론이요 그에 앞서서 청소년들이 항상 내 고장의 명산대천을 내 몸으로 밝아 넘고 헤엄쳐 건너게 하여 팔다리부터 역세고 날래게 단련하였다.



<경주 석굴암의 금강 역사상>

◀태권도의 올바른 인식▶

5월 단오절이나 8월 한가위 같은 경축 제전을 당하게 되면 씨름과 수박희와 줄다리기, 깨금질과 택견과 제기차기 등등의 사지육체를 사용하는 경기가 남녀 노유의 인기를 끄는 것이 상례이기도 하였다. 신라의 화랑이나 고구려의 무사 선비들이 평상시에 산하발섭을 즐기며 이러한 몸 쓰는 무예유술을 장려한 것은 다음과 같은 고증으로 매 일반이었다고 추측된다.

첫째, 신라왕조의 위대한 정책으로 이루어진 석굴암의 금강력사 각상을 살펴 보라(사진참조). 불끈 쥔 두 주먹과 억센 팔다리의 발모습이 오늘의 태권도가 나타내는 그 포즈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러한 사지육체의 훈련이 없이 저러한 포즈가 취해질 수 없다고 함은 누구나 일목에 요연할 것이다,

둘째, 뿐만 아니라 고구려 제10대 산상왕 당시에 만들어진 환도성 각저총의



<고구려 환도성 각저총의 벽화>

벽화가 보여주는 수박의 대련자세를 보아도 오늘의 태권도의 원형을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일본사람들은 옛날부터 주먹쓰는 법 즉 권법을 가리켜「당수」라 써 놓고「가라대」라고 읽는다.

삼국시대 이후의 우리나라를 가리켜「가라(加羅)」라고 그들이 부른 것은 사료에 얼마든지 나오니 일본의「가라대」와 유술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 실제상 건너간 것은 지정학적인 면과 아울러 짐작되고도 남는다. 더구나 일본고대의 무사도라고 하는 것이 신라의 화랑도와 유사한 점도 많으니 어찌할 것이나(김선근 박사 사학전집에서).

셋째, 단재 신채호의「조선상고사」를

◀태권도의 올바른 인식▶

보면 고구려 전성시대의 무사들이 연마하는 무예의 종목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후칼로 찌뚱뚱하며 후칼로 쏘며 후 깨금질도 하며 후「택견」도 하며 후 강물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 물싸움도 하며 후 가무를 연하여 그 미학을 보며 후 대수렵을 행하여 그 재호의 다과도 보아 여러 가지의 내기에 승리하는 자를 선비라 칭하고……」라 하였다.

이상으로 볼 때 무사의 훈련에 택견을 장려한 것은 어느 모로 보든지 이미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것이라 믿어진다.

그리고 단재는 다시 다음과 같이 논단하였다. 고려시대 송도의 수박이 곧 선배경기의 일부이니 수박이 중국에 들어가 권법이 되고 일본에 건너가 유도가 되었다. 고려시대는 과연 어떠했는가 다시 더듬어 보기로 하자.

안자산저「조선 무사영웅전」중의「무예고」에 나타난 유술항목을 보면 유술은 고려시대에 대흥 유행하였다. 이를「수박」혹은「권법」이라 칭하였다고 주장한 다음 나아가「소위 택견이라」하는 것이 그 종류라고도 내세웠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 수박희를 장려하는데「왕이 상춘정 또는 마암 등지에 항상 거동하여 수박희를 전문으로 개설하였다고」소개하였다. 나아가「이 기술로서 군인의 상예로 시행하였다」내세운 다음 고려 시대의 유명한 정중전 이운문 같은 무신들이 모두 이 기술의 가장 우수한 선수였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매년 5월에는 연중행사로 대시합을 거행하였다고 소개하기도 하였다.

그 기술연마에 25법이 있는데 신법, 수법, 각법 등을 주로하여 비등, 전기, 도삼, 피비, 횡거, 등으로 변화무궁한 바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 ① 탐마세 ② 요만주세 ③ 현각허사세 ④ 순만주세 ⑤ 칠성권세. ⑥ 고사평세
- ⑦ 도삼세 ⑧ 일운보세 ⑨ 요단편세 ⑩ 복호세 ⑪ 하삼세 ⑫ 당두포세 ⑬ 기고세
- ⑭ 중사평세 ⑮ 도기 용세 ⑯ 매복세 ⑰ 오화유신세 ⑱ 안혈측세 ⑲ 과호세
- ⑳ 구유세 ㉑ 금나세 ㉒ 포가세 ㉓ 침주세 ㉔ 문항 ㉕ 도척세

위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우리민족의 얼이 깃들어 있는「택견」과「수박기」는 근세왕조(이조)가 성립된 이후 현저해진 상문경무의 사상과 최근에 와서는 일제 총독정치의 탄압으로 발전할 기회를 빼앗기고 오로지 인간문화제인 송덕기씨와 그밖에 몇몇「택견」인들에 의해서 겨우 그 명맥만을 유지해 온 정도였다. 그러하다가 1945년 민족해방과 더불어

◀태권도의 올바른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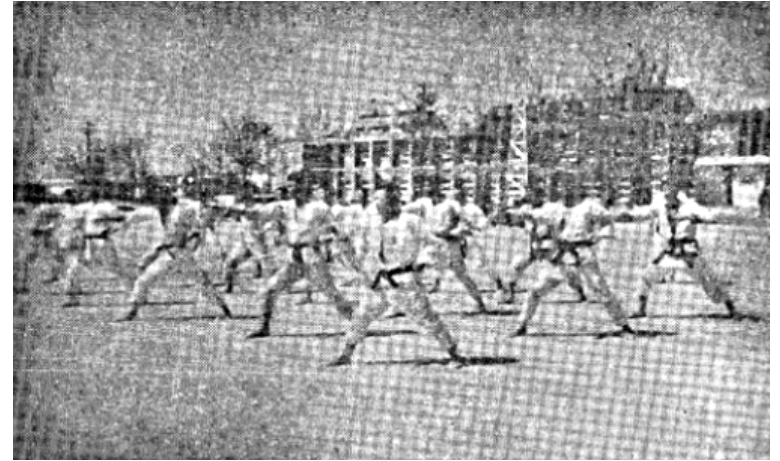
해외에서 배워온 사범진들에 의해서 택견, 태수, 「당수」 권법, 혹은 「공수」도 기타 가지가지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무덕관의 황기, 청도관의 이원국, 연무관의 전상섭, 권법도장에 윤병인, 송구관의 노병직 기타 여러가지 류의 관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 태권도에서 수련하는 형을 본다면 일본이나 중국에서 하는 형과 똑같은 것이다. 즉, 기본형으로부터 「밧사이」, 「노하이」, 「소 진」, 「사이 후아」, 「신파」, 「공산군」……

이것들을 중국이나 일본의 역사적 인물이나 배경의 이름들로 풀이될 때 결국 우리고유의 무술로 평가받을 수가 없다고 본다(필자의 주관적 견해). 다행히 우리 국군에서 이를 안타깝게 여겨오던 중 또한 강군육성의 일책으로 이 민족고유의 훌륭한 무술을 보급시키기로 결심하고 1946년 봄부터 힘써 가르치게 되었다.

나아가 1953년에 보병 제25사단을 그 스스로 창설하게 되자 이 계기 삼아 당시의 부사단장이던 하갑청 장군과 함께 힘을 모아서 전국 군을 교육시킬 수 있는 사범요원을 양성하는 동시에 보다 폭 넓은 기술의 연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론의 체계를 완성하여 오늘과 같은 현대적이며 과학적인 무도로서 발전을 가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최 장군은 그 당시에 당수나 공수 혹은 권법 등등의 각종 각색으로 불리어온 이 무도의 이름을 조정 귀일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전문가와 저명인사들로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중히 검토함 결과 마침내 태권도로 그 이름을 제정하고, 1955년 4월 11일 이를 중외에 선포함으로써 역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전통 무도임을 입증하게 되었다. 이 외에 최 장군은 택견의 특징인 발의 기술과 수박의 장점인 손의 기술을 토대로 삼고 이와 비슷한 다른 나라의 무도가 결코 추종할 수 없을 정도로 종횡무진한 족기의 대련과 변화무쌍한 수기의 묘미를 연구 체득하는 동시에 체중의 여하로 구애됨을 받지 않고 남녀노유 누구나가 다 연습하고 체득할 수 있는 창헌류의 태권도를 완성하여 전세계에 소개된 것이다. 현재 국군이 하고 있으며 월남, 대만을 위시하여 54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안류인 것이다.

창안류의 기본되는 형은 ① 천지형 ② 단군형 ③ 도산형 ④ 원효형 ⑤ 울곡형 ⑥ 중군형 ⑦ 퇴계형 ⑧ 화랑형 ⑨ 충무형 ⑩ 관계형 ⑪ 포은형 ⑫ 계백형 ⑬ 을지형 ⑭ 유신형 ⑮ 세종형 ⑯ 충장형 ⑰ 상일형 ⑱ 최영형 ⑲ 고당형 ⑳ 의협형 ㉑ 통일형 ㉒ 문무형 ㉓ 서산형

◀태권도의 올바른 인식▶



「택견」과 「수박」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창안류는 벌써 10여년 동안 널리 해외에 소개되어 오늘에 와서는 한국의 국기화로써 세계에 국위를 선양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이 빈약하든 않든 간에 (필자의 개인 소견) 한국적 전통으로 한국화 된 이 태권도가 탄생하였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극히 다행한 일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겨레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소개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태권도가 흔히 나타나기 쉬운 분과 작용의 난관을 치르기 전에 하루속히 그 원류를 정립시켜 우리나라의 국기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태권도는 우리 선조의 훌륭한 유산이었음을 다시 인식하여 우리장병 다 같이 올바른 태권도 인식을 하여야 할 줄 안다.

애국자의 참모습



허경삼
<서울 신학대학 교수>

애국이 무엇이며 애국심이란 무엇이나? 고 물어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참 애국이 무엇이며 진정한 애국심이란 어떤 것이며 참 애국자란 어떤 사람이라고 그 범주를 그어 놓을 필요는 있다고 본다. 나라를 사랑함이 애국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애국심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애국자라 함은 너무 막연하기 때문이다. 즉 나라를 사랑한다함은 무엇을 두고 말합인지를 명확히 하고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을 가진 자인지 사이비 애국자인지를 진단해 보아야 하리라고 믿는다. 어느 나라든지 애국의 사상을 고취 않는 나라가 없고 애국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참 애국하는 마음은 아쉬우리 만큼 찾기 어려우며 애국을 부르짖는 사람은 많아도 참 애국자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면 참 애국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로 자기희생의 사람

애국을 부르짖으면서도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애국자라 할 수 없다. 20세기 최대의 정치가로 알려진 영국의 수상 처칠이 1940년 5월 13일 위급한 세계 제2차 대전을 연합국의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행한 연설 가운데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이 있다. “나는 피와 수고와 눈물 그리고 땀 밖에는 바칠 것이 없다(I have nothing to offer but blood, toil, tears and sweat).” 과연 처칠수상은 자기 조국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바친 애국자였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애국을 부르짖으나 나라를 위하여 피는 고사하고, 땀 한 방울 흘리기를 원치 않으니 이려고도 참 애국자라 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백성의 피를 착취하고 백성들의 기쁨을 짜내어 자신을 살찌게 하고 자신을 배부르게 하는 사람들이

◇ 애국자의 참모습 ◇

애국자의 탈을 쓰고 애국을 부르짖지는 않는지? 스스로 살피고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저 프랑스의 불행을 견지고 군주제(君主制)의 헌법을 수정하는 일에 진력하다가 체포되어 처형을 당한 바르나브(Barnave)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만일 내가 국사에 관계 없는 인간이었다면 나는 망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국사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던 만큼 당신네들이 걱정하는 사형의 위협이 있다는 그것에서도 조국이 나를 이토록 불행한 조국을 떠나지 못 하도록 만류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조국을 위하여 몸바치는 자가 진정한 애국자이다. 바르나브 (Barnave)는 1792년 투옥된 후 구명 탄원(救命奠願)도 하지 않고 도망도 용이 했으나 그것을 거부하고 태연히 사형을 받았다 한다. 애국은 결코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역의 의무를 회피하려 함이라든가 백성의 행복과 이익은 아랑곳없이 사리사욕에만 혈안이 되는 일이라든지 민중을 지지하고 보호해야 할 민중의 공복이란 관념은 없이 다만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영달만을 일삼는 일이라든지 하는 따위의 인간들이 핏대를 높여 애국을 논한다해서 애국자가 될 수 있겠는가? 참된 애국자인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정치가인 펠리코(Pellico, Silvio)는 이렇게 말했다. “조국! 조국! 이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참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자아포기로서 충실히 맡은 바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조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그 참된 이익을 피하는 사람이라야 한다.”

둘째로 자기 나라를 빛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

참 애국하는 사람이란 나라의 위신이 곧 나의 위신이며 나라의 수치가 바로 나의 수치인 줄 알아 나라의 영예를 높이며 나라의 위신을 빛내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이다. A.F. 스티븐슨의 그의 저서 “True Patriotism”에서 “애국자란 미국(즉 다른 나라 사람이면 자기 나라)이 인류의 하나의 표본이 되기를 바랄 정도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다(The patriots are those who love America enough to wish to see her as a model to mankind.)”라고 하였다. 처칠이 1965년 1월 21일 서거하자 London의 신문은 다음과 같이 그의 애국됨을 칭찬하였다. “그는 영국을 불명예스럽게 하느니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했을 것이며 영국의 체면이 손상되느니 보다 차라리 패망함을 원했다.” 애국을 한다 하면서

◇ 애국자의 참모습 ◇

나라의 위신을 손상시키며 조국의 영예를 더럽히면서까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둡고 정권욕에 혈안이 된 자들은 삼가 저들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저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를 보자. 저는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公主)의 아들이라는 존귀한 자리에 앉아(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출생하였으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왕의 명령 때문에 자기 아들을 기를 수 없게 된 그의 어머니는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웠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강가에 나왔다가 그 아이를 발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아

들임을 알고 자기의 양자를 삼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모를 구했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뽑혀 궁중에 들어가 자기아들을 길렀던 것이다) 조금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왕좌에 올라갈 사람이지만 나이 사십이 되매 그 자리를 뛰쳐 나왔다. 모세는 애굽사람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함으로 자기 백성을 욕되게 하며 자기 나라를 망치기보다는 자기 민족의 구원을 성취하는 것을 소원으로 삼았던 것이다.

우리의 애국이 이러한 마음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셋째로 자기 백성과 더불어 고락을 함께 하는 자.

참 애국자는 자기 개인의 행복과 영달만을 꿈꾸는 자가 아니다. 자기의 백성이 피로워 할 때 함께 피로와 하며 자기의 백성이 즐거움을 가질 때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 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애국자이다. 나라가 망하게 될 때 그것이 곧 자기가 패망하는 것으로 살과 뼈속으로 느끼며 나라가 영광을 얻을 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감격과 기쁨이 솟아나올 그러한 마음가짐은 물론, 나라는 망하더라도 내가 살아날 기회가 있다손 치더라도 망하는 나라와 함께 나 도 망할 수 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운명을 나라의 운명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참 애국자라고 할 수 있다.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나라를 팔아먹는 자를 매국노(賣國奴)라고 부른다. 매국노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야 애국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참 애국자의 모습을 성서(聖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어 범죄한 자기백성을 위한 애국자 모세의 결사적인 기도가 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 애국자의 참모습 ◇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또한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겪게 하시니 그들 중에서 원망이 빗발치듯 했다.“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더니 40년 동안이나 헤매어 보아도 그림자도 없으니 배는 고프고 목은 마르고 아이들은 병이 나고 죽고 하니 거짓말이 아닌가? 애굽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 나?” 이렇게 60만명의 입에서 한 마디씩만 불평을 하여도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보시고 독사(毒蛇)를 보내어 이들을 물게 하였다. 독사에게 물린 사람들은 그 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민족은 다급해서 모세에게 와서“우리가 하나님과 당신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하고 애걸을 하였다. 그때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장대 꼭대기에 구리뱀(銅蛇)을 매달아 놓고 쳐다보게 하여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하였다. 자기를 원망하고 욕하고 죽이려 덤비는 무지한 백성들을 끝까지 포용하고 사랑하는 모세는 애굽의 왕좌를 마다하고 자기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 모세는 진실로 애국자였다. 죄를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는 사람이 애국자가 아니라 정말 백성과 더불어 고(苦)와 낙(樂)을 같이 하고 마지막에는 남을 살리고 자기는 죽는 그 사람이 참 애국자인 것이다.

넷째 자기의 맡은 일을 충실히 하는 자.

우리의 부모, 형제, 친구, 아버지의 집 그리고 우리들이 태어난 장소, 그 분위기, 그 산, 그 골짜기, 들, 시내 또는 그 역사,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조국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조국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나라에 특별한 감정, 애정을 주신 전이다. 사람은 어디를 가가 자기가 태어난 땅을 일 을 수가 없다. 그래서 언제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 바빌론이라는 나라로 포로가 되어가서 사는 동안 저들은 고국에 대한 그리워하는 마음을 풀 길이 없어 버드나무 가지에다 수금(거문고)을 매어 달아 놓고 망향가(望鄉歌)를 불렀던 것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애향심(愛鄉心)으로 연결되어 여러 국민이 이룩되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각각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나라는 정상을 유지하며 제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 된 우리 각 사람의 임무와의 관계를 우리 몸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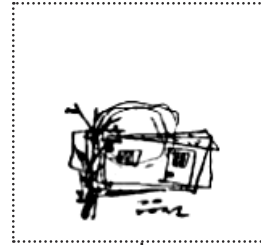
우리 몸 전체를 국가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붙어 있는 사지백체(四肢百體)와 오장육부(五臟六腑)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과된 임무라 할 수 있다. 모든 지체와 기관들이 제각기 제 책임을 하고 제 임무를 수행할 때 그 몸이 정상상을 유지하면서 사고(恩考)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말도 할 수 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일을 충실히 할 때 우리 국가는 제 구실을 할 수 있고 번영도 전진도 향상도 할 수 있다.

괴테는 말하기를“국민은 각각 자기의 천직에 따라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는 즉 국가에 봉사하는 길이다”라고 하였고 다시“태평세월에 있어서의 애국은 다만 사람 사람이 정원을소제하고 가업(家業)에 힘쓰며 세상일을 배워 일국의 번영을 기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칼라일은 “애국심은 국가영존(國家永存)의 명맥적(命脈的) 조건이다”라고 하였음은 음미해 볼만한 일이다.

70년대를 <전진의 해>로 정하였다. 전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기계의 각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 나 하나를 전제로 국가와 연관시키지 않는 사고를 가진 사람은 애국자일 수가 없다. 나 하나의 불성실이 국가 발전을 방해하며 나 하나의 무책임이 국가의 전체 에너지를 좀먹으며 나 하나의 소위 <적당주의>가 국가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체는 어찌 되던 간에 나 하나만 배부르고 잘 살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은 곧 나라를 좀 먹고 망치게 하는 생각이다. 우리 백성 하나 하나에서 철두철미 뽑아 버리지 않으면 안 될 못된 사상이 이 <나 하나쯤이야>라는 사상이다.“나 하나쯤 안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나 하나가 애를 쓴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나 하나쯤이야 괜치 않겠지?” 이러한 생각을 저마다의 머리에서 철두철미 뽑아 버리지 않는 한 나라의 번영은 요원하며 민족의 중흥은 이룩되기 어렵다. 저마다의 머리 속에“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는 때에 나라와 민족의 앞날은 약속된다.

결론

애국이 말로는 쉽다 하여도 참 애국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 먼저도 말하였거니와 <애국>은“말함”이 아니라“행함”이다. 즉 말로만 <애국함네>하고 애국의 철학이 없고 입술로만 애국을 외치면서 애국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애국자일 수가 없다. 애국하는 마음이 강한 백성은 영광될 것이며 애국하는 사람이 많은 국가는 강할 것이다. 참 애국자를 가진 나라는 수치와 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다. 참 애국하는 사람이 많이 가진 민족은 찬란한 역사를 가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

순경국대학교·경상대학교 교수
전창원

1. 머리말

우리나라의 무역관리는 무역거래법(법률 제 1878호, 1967년 1월 16일 공포),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수출입 기별공고, 상공부의 공고 고시에 의거할 뿐 만 아니라 수출 검사법, 외환관리법, 관세법 및 기타 관세법규에 의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거래법은 동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출을 진흥하며, 수입을 조정하여 대외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제 수지의 균형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무역 거래는 이 목적과 이념의 범위 내에서만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외국무역에 대한 호가의 공격 통제는 전적으로 수입 무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GATT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수입 무역을 대폭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1967년도 하반기 수출입 기별공고에서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정책적인 애로점 때문에 자유화의 폭은 확대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공국가이기 때문에 무역거래법 제2조와 규정에 의하여 공산지역으로부터의 수입과 공산지역으로의 수출과 공산지역에서 소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

신문보도에 의하면 복귀, 중공 및 월맹을 제외한 기타 공산국가와 비 전략 물자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무역거래법의 개정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무역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업의 허가, 수출무역의 관리, 수입 무역의 관리 및 무역 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수출·입업의 허가

가. 수출입업

우리나라에서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수출입업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무역거래법 시행령 제1조의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 규정된 자격을 구비하여야 된다. 상공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수출입업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무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외국인에게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자(오피상)의 허가를 해주었으나 외국인에 대한 수출입업의 허가는 아직까지 해주고 있지 않다. 자기 수요를 목적으로 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행정기관 또는 정부 투자기관이나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자도입에 관한 허가를 얻은 자는 상공부 장관의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나. 수출입 허가 신청자의 자격

수출입업 허가 신청자의 자격에는 무역거래법에 규정된 일반적 조건과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제한적 조건이 있는데 무역업계의 체질개선과 업체의 난립의 방지 및 대규모 종합 무역상사의 설립을 장려하기 위하여 실제로 제한적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수출입업의 허가를 해주고 있다.

(1) 일반적 요건

(가) 자기 명의로 된 미화 1만 불 상당액 이상의 취소 불능화환 수출신용장을 받았거나 무환수탁가공 무역 계약을 하였거나 허가 신청일 전 1년간의 군납 또는 금매각 실적 또는 용역이나 건설의 해외 진출에 의한 입금실적이 미화 1만불에 달하는 자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자는 미화 5천불의 실적만 되면 된다.

(나) 발행자본금 1,000만원 이상의 법인 또는 최근 1월간 매일 1,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를 가진 개인이어야 됨.

(다) 무역사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무역사 자격을 구비한 자.

(2) 제한적 요건

전술한 일반적 요건을 구비한 자라도 수출입업의 대규모화를 위해서 수출입업의 허가를 억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한적 조건을 구비한 자에게 수출입업의 허가를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

(가) 미화 80만불 상당액 이상의 수출신용장을 받은 자.

(나) 가득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인 무환수탁가공 무역계약을 한 자.

(다) 수출품 생산업체로서 수출입업 허가 신청일 전 1년간의 외환증서 발급확약서 및 내국신용장에 의한 입금실적 이 미화 15만불 상당액 이상인 자,

(라) 발행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체.

(마) 수산업법에 의하여 지정어업의 허가를 받고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상의 수출신용장을 받은 자.

(바) 수출산업 공업단지 개발조성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입주 기업체.

(사) 상공부장관이 수출입 기업 규모의 대단위화를 위하여 지정하는 종합 무역업체.

(아) 지방 특산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단일지정 하는 무역업체.

(자) 수출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조합.

(차)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 또는 사력의 채취허가를 받고 미화 20만 불 상당액 이 상의 수출신용장을 받은 자로서 건설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다. 수출입업체 허가의 취소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공부장관은 당해업체의 수출입업의 허가를 취소한다.

(1) 수출입업자가 상공부령에 규정된 무역사 자격의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수출입의 허가가 취소된다.

(2) 수출입업자의 1반기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함)의 수출, 군납, 금매각, 물품매도, 확약서의 발행 및 용역이나 건설의 해외 진출에 의한 입금실적이 미화 15만불 상당액에 미달된 때에는 그 수출입업의 허가가 취소된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수출조합, 공업단지, 개발공단, 제분업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나) 자가 생산품의 1반기의 수출실적이 미화 15만불 상당액 이상에 달한 중소기업.

3. 수출무역의 관리

가 수출무역 관리의 의의

수출무역은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국제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

거래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계획의 투자산업을 위한 외환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 및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보호 및 장려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정책적 지원을 해주고 있고 수출 신장율은 연간 40%란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 수출관리의 세 가지 기본법규는 무역거래법, 외환관리법 및 관세법이 다. 상공부장관은 무역거래법에 의거하여 수출입업의 허가, 수출의 허가, 수출입 기별공고, 수출물품 가격의 사정과 공고, 수출대금 회수, 수출의 특례, 수출의 장려, 대우수출, 수출의 사후 관리, 부정 수출의 금지 또는 제재 등을 규제하고 있다.

재무부장관은 외국환 관리법에 의거 하여 외국환에 관련된 모든 거래 및 대외 거래를 규제하고 있고 수출무역에 관하여는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수출대금 즉 대외 채권의 회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규정에 정상수출 결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무역이 갖고 있는 복잡한 성격에 대응해서 무역 관계 행정 조직도 극히 복잡다기하다. 무역행정의 주무관청은 상공부이지만 무역의 외교적 측면에서는 외무부가 통상협정의 체결/제의 공관의 영사 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재정, 금융, 외국환관리 국제수지, 외국환은행 및 세관 등의 면에서 재무부가 종합적 경제정책, 물자 수급계획의 면에서는 경제기획원이 물자의 유통 및 수출품의 허가 추천이라는 면에서는 농림부, 보건사회부 등이 각각 무역행정에 관계하고 있다.

외국환 관리법에 의거하여, 한국은행 및 외국환은행이 수출조합법에 의거하여 수출조합이 수출검사법에 의거하여 지정 검사기관이 또한 준 행정기관으로서 광의의 무역행정 사무에 관계하고 있다.

대한 무역 진흥공사 설치령에 의거하여 설치된 동공사는 해외 시장의 조사 및 개척, 수출 거래의 알선 및 수출산업의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무역법 시행령에 의거한 유자격 무역 상사로 구성된 한국 무역협회는 정부에 대한 무역정책의 건의, 수출입품의 거래알선 및 무역관계서식의 판매 등을 취급하고 있다.

대한 상공회의소는 수출입품의 거래 알선, 경제 및 무역정책에 대한 대정부 건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상사중재 등을 취급하고 있다.

이밖에 수출 진흥에 관한 종합적 계획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

과 이에 관련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참석 하에 열리는 수출확대회의가 있다.

상공부에는 수출입 기별공고와 그 변경 중요사항의 자문을 하는 무역위원회가 있다.

나. 수출입 기별공고(Negative list system)

수출입 기별공고란 상공부장관이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수출 자동 승인 품목, 수입 자동 승인 품목과 수출 제한승인 품목과, 수출금지 품목, 수입 금지 품목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물품의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의 한도,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책정하고 매년도 또는 2반기를 실시기간으로 하여 실시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무역 거래법 제9조). 상공부장관은 이미 공고한 기별공고를 실시 기간 중에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변경공고를 할 때에는 공고 즉시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미 신용장이 개선된 수출거래와 허가 또는 승인된 수출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수출입 기별공고는 2반기를 실시기간으로 하고 있다. 정부, 각원, 부, 처, 의장은 기별공고(수출입 기별공고의 약칭) 책정에 필요한 자료를 기별공고 실시. 60일 전에 상공부장관에게 통고하여야 된다. 상공부장관은 기별 공고 안을 그 실시 40일전에 무역위원회의 심의에 붙여야 된다. 그러나 부득이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다. 수출허가(승인) 및 그 절차

(1) 상공부의 수출허가

수출 제한 승인 품목 및 수출자동 승인 품목의 정상의 결제방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출 허가품목은 상공부장관이 이를 수출허가 한다(1967년도 하반기 수출입 기별공고 제4조 제 2항).

화환수출 신용장에 의한 수출, 추심결제 방식에 의한 수출 또는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중 기별 공고에 수출 제한승인 품목 및 수출 자동승인 품목으로 규정된 품목의 정상의 결제방법에 의한 수출 또는 수출 허가 품목으로 규정된 품목의 수출은 상공부장관의 허가(승인)를 받아야 한다.

(가) 수 위탁 판매무역(위탁 판매수출, 수탁 판매수입) (나) 구상무역 (다) 중계무역 (라) 특수무역에 의한 수출입 등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동법 시행령 제8조).

수출허가 된 사항의 일부변경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과 수출대금 회수기간 연장 및 수출대금 미회수도 부령에 따라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

(2) 외국환은행의 수출승인

수출 자동승인 품목 및 수출제한 승인품목의 정상 결제방법(정상 외 결제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별도 위임한 것도 포함)에 의한 수출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이를 수출 승인한다(1967년도 기별공고 제4조 제1항),

무역거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환수출 신용장에 의한 수출, 추심 결제방식에 의한 수출, 일반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수탁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무상수탁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2항 제1호 내지 제5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부 장관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되나(동법시행령 제8조), 상공부장관은 무역거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정상 결제 방법에 의한 수출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이를 수출 승인한다(동법 시행령 제32조).

(가) 화환수출 신용장에 의한 수출, 추심 결제방식에 의한 수출,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일반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무상수탁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무상 수탁가공 무역에 의한 수출입, 위탁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중 기별공고에 수출제한승인 품목 및 수출 자동승인 품목으로 규정된 품목을 정상 결제방법에 의하여 하는 수출 또는 수입의 승인에 관한 권한.

(나) 수출입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가)에 해당하는 권한 외의 것으로서 상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권한.

(다) 전2호 (가) 및 (나)의 권한에 의하여 승인한 사항의 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3) 주무부관서의 수출추천

수출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상공부장관이 하는데 수출입 기별공고에서 수출제한 승인품목으로 계기된 품목 중「주무관서의 장의 추천분에 한함 또는 추천분에 의한」으로 제한조치 된 품목은 주무관서의 장의 수출추천서를 첨부하여 외국환 은행장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컨대 소, 고추 등은 농림부장관의 수출추천분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 홍삼 등은 전매청의 추천분에 한하며, 연광 등은 상공부장관의 추천분에 한하며, 당귀 산약 등 한약재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추천분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다.

(4) 수출조합의 수출추천 수출조합법(법률 제7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

설립된 수출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하며, 수출업자간의 불공정한 거래 및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수출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한국 축산물 수출조합, 한국 오징어 수출조합 및 한국 통조림 수출조합 등이 설립되어 있다.

수출입 기별 공고에서 수출 제한 승인 품목으로 계기된 품목 중「당해 수출조합의 추천분에 한함」으로 제한 조치된 품목은 당해 수출조합의 수출추천서를 첨부하여 외국환 은행의 장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된다.

(5) 수출허가(승인)의 절차

(가) 화환수출 신용장에 의한 수출 : 취소불능 화환수출 신용장에 의하여 대금의 전액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거래를 말한다.

(나) 추심 결제방식에 의한 수출 : 취소 불능 화환수입 신용장이 없이 계약에 의하여 화물환 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수입을 말한다.

(다) 일반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 외화획득을 위하여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여 가공 후 수출하는 거래를 말한다.

(라) 수탁 가공 무역에 의한 수출입 : 가득액을 가득하기 위하여 대상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외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가공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를 말한다.

(마) 위탁 가공무역에 의한 수출입 : 외국에서 가공할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무환으로 수출하여 이를 가공 후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환으로 수입하는 거래를 말한다.

(바) 위탁판매 수출 : 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사) 구상무역에 의한 수출입 : 수출입물품의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아) 중계 무역에 의한 수출입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수출입을 말한다.

(마) 특수무역에 의한 수출입 : 전 각호에 규정된 수출 또는 수입 이외의 방법에 의한 수출입을 말한다.

4. 무역 거래법상의 수출 진흥

가. 독점 수출

상공부장관은 무역거래법 제16조 제3항(수출의 장려)의 규정에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

의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독점수출)에 따라 일정 지역에 대하여 일정기간 일정수출업자(수출조합, 단체 또는 민간사절단의 경우에는 그 수출조합, 단체 또는 민간사절단의 구성원인 각 수출업자)에 한하여 수출을 하게 하거나 상대방 수입자를 지정하여 수출하게 할 수 있다. 상공부장관은 특정한 디자인(Design)을 한 물품을 수출한 자에게 당해 디자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일정한 지역에 당해 수출업자에 한하여 수출하게 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22조).

(1) 독점 수출자의 자격 : 상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독점수출을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가)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상의 신규 수출상품을 수출한 자로서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상의 동 상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나)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상의 상품을 새로운 시장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서 미화 10만불 상당액 이상의 상품을 동 시장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

(다)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 결손액 등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자.

(라) 해외시장에 있어서의 수출 질서 또는 가격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수출한 자.

(마) 특정한 디자인을 한 물품을 수출한 자(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2) 독점수출의 기간 :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점수출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1년을 연장해 준다. 상공부장관은 독점수출을 하게 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한다.

나. 기타수출진흥의 조항

(1) 특정물품의 수출입 : 상공부장관은 특정물을 수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출 실적의 범위 안에서 특정한 물품을 수입하게 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23조).

이 조항은 수출업자의 출혈을 수입으로 보충시키는 수출입 링크제를 뜻한다.

(2) 특정지역과의 수출입 : 상공부장관은 특정지역과의 수출입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해 지역과의 수출입 범위 안에서 수출입을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24조). 동일 국가에 대한 동일상품의 급격한 수출증대는 단기적으로 분다면 수출 진흥을 이룩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분다면 수입국의 당해 생산업체에 커다란 위협을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수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출초현상으로 인한 일국의 무역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

불균형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출초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것을 이 조항에다 규정한 것이다.

(3) 수출실적별 우대조치: 상공부장관은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하거나 이 령에 의하여 수출 장려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수출입업의 수출이 행 상황, 수출 금융상환 실적 기타실적 등을 감안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동법시행령 제25조).

(4) 해외지사 및 출장소 설치의 인가: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출실적을 가진 자가 해외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민간 사절단의 구성 : 상공부장관은 무역거래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한 수출실적을 가진 자로 구성된 민간사절단에게 그 활동지역과 범위를 정하여 수출 증대를 위한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27조).

(6) 수출의 규칙 : 상공부장관은 물품 매도확약서의 발행을 기피하거나 수출입 가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물품 매도 확약서를 발행하여 수출입 시장을 현저하게 교란한 수출입 업자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자에 대하여는 무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역거래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수출입업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수출금융의 지원을 받은 자가 소정기일 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일정 기간 수출입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28조).

다. 외화획득용 원자재 수입

(1)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수입의 우선 허가 : 상공부장관은 수출 기타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시설, 기계 및 제품(원료기재)의 수입은 이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해주고 있다. 원료기재의 범위, 품목 및 수량은 상공부장관이 정한다(동법 제17조).

5. 수입무역관리

가. 수입무역관리의 의의

현행 수입방식은 무역거래법, 외국환관리법, 관세법, 수출입 기별공고, 상공부의 공고 또는 고시에 의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입자금인 외화는 수출, 군납(물품, 용역, 건설), 관광용역 및 건설의 해외진출 등에 의하여 획득하며 외환증서제도에 의거하여 은행에 예치된다. 이 외화의 수입 등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숫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외국환 수급계획이다. 외국환수급계획은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

성질과 목적에 따라 무역과 무역외로 대별된다. 그러나 수입의 구체적인 방식은 수출입 기별공고에 규정되어 있다.

GATT 가입을 계기로 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하여「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1967년 하반기 기별공고에서 채택하였다. 수출입 기별공고에 수입 금지 품목 또는 수입 제한 승인 품목으로 계기되지 아니한 품목은 수입 자동승인 품목으로 간주하여 수입을 개방하고 있다. 수입 제한 승인 품목은 동제한 조치에 따라 합당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것은 이를 수입할 수 없다. SITC 원전의 최종단위에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품목을 수입 허가 품목이라 하며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수입할 수 있다.

나. 수입허가(승인) 및 그 절차

(1) 상공부의 수입허가

수입 제한 승인 품목 및 수입 자동 승인 품목의 정상의 결제 방법에 의한 수입 또는 수입허가 품목은 상공부장관이 이를 수입 허가한다.

(2) 외국환은행의 수입 승인

외국환은행의 장의 수입 승인이란 무역거래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수출입 기별공고상의 수입 자동 승인 품목 및 수입 제한 승인 품목(정상 결제 방법에 의한 수입 및 정상의 결제 방법에 의한 것으로서 별도 위임한 것도 포함)에 대한 수입을 승인하는 소위 수입 승인서 발급사무를 말한다.

(3) 주무관서의 수입추천 및 기별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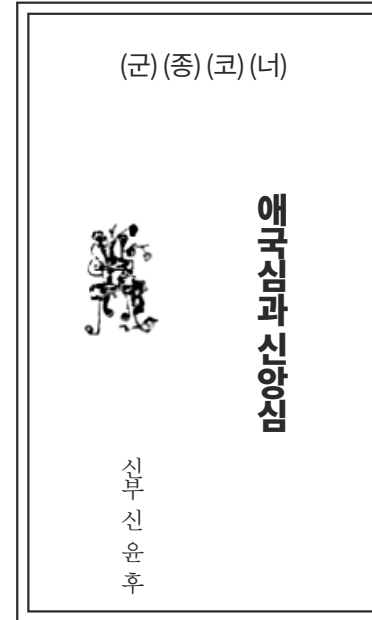
수출입 기별공고에서 수입 제한 승인 품목으로 제기된 품목 중「주무관서의 장의 수입 추천분에 한함」으로 제한 조치된 품목은 주무관서의 장의 수입추천서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품목을 수입 추천 품목이라 한다.

수출입 기별공고에서 수입 제한 승인 품목으로 제기된 품목 중「주무관서의 장의 별도 공고하는 요령에 의함」으로 제한 조치된 품목은 동 별도공고 요령에 합당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다. 이러한 품목을 별도공고 품목이라 한다.

(4) 재외공관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특정 물품을 특정지역에서 수입하거나 특정지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선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통관 신고시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애국심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숭고한 것이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아끼고 자기만을 스스로 사랑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이기적인 자기, 소아적인 자기에의 사랑을 벗어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대이적인 호연함이 있어 좋고, 자기를 뒷전에 두고 나라를 먼저 사랑하는, 자기를 버리는 희생과 남들을 위하는 사랑이 있어 또한 거룩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사랑은 소아의 희생을 수반하고, 본질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의 완성을 초래케 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애국자는 옛 부터 성자와 같은 존경을 받아 왔던 것이다.

다른 나라의 애국자도 그 나라 사람이 아닌 국민까지 그 사람이 참으로 애국자였고 참으로 훌륭했다면 존경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러할까? 얼핏 생각하면 이상한 것이다. 만약 적국의 한 용장이 참된 애국자였다고 하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그 장군은 그쪽에서 보면 확실히 훌륭하다고 해야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이쪽에서 보면 적의 나라에 충성을 한 적 중의 가장 적인, 존경은 커녕 가증할 장군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음을, 가르쳐 주고 우리의 심리도 그렇지 않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애국심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며「자기」라는 말을 여기서 명시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질서를 지어주는 순서로써 자기 나라를 먼저 사랑해야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길인 것이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고 자기 나라를 잘 사랑한 사람을 우러러보는 것이다. 자기 나라를 위하여 자기를 완전히 바치는 사랑이 있는 것이다. 자기를 완전히 바칠 만큼

사랑했다면 그것은 완전한 사랑으로 통하는 길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폐쇄된 자기에서 자폭하는 자학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희생을 이룰 수 있었다면, 더구나 대의를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명분 앞에서 자기를 바친 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현세의 차원을 능가하는 어떤 차원에까지 그 행동의 진원이 확대되어 가고 그러므로 그러한 애국심은 다른 차원의 사랑에 혹은 다만 사랑 자체에 연유되는 것인 것이다.

사랑은 시공을 확실히 초월하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으나 시간과 함께 사랑이 끝나고 공관과 함께 사랑이 흩어지는 것이 전연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다. 그 괴변적인 반증은 시간과 영원히 합하는 것 같은 사랑의 순간을 인간은 체험하는가 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길어지는 사랑이 우리에게는 있고 멀리 헤어져도 또 저 세상으로 떠나가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의 경험이 있고 또한 수목만리를 떨어져 가도 더욱 사랑이 짙어만 가는 사랑의 교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물질화하여 인간을 인간 이하로 보는 순수한 유물론자 이외에는 정신계에 잠입하는 인간의 정신이 순수한 정신, 신령계(神靈界)와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부인 못할 것이다. 이른바 신령계가 무엇인가, 또 어떤 상관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철학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말할 것이나 신학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연역하여 설명하고 이 신령계에 대한 인간의 긍정이 여러 형태의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애국심이 신앙심과 전연 관계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더 가질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애국심은 사랑이요, 사랑은 다른 차원에까지 상관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다른 차원에서 연유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 다른 차원의 세상—신령계—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사랑은 뜻을 달리 할 것이요, 애국심도 그 참다운 뜻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령 그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것은 빈(空)것이요, 아무것도 없다(無)고 한다면 애국심도 결국은 그 뜻이 허무한 것 밖에 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반대로 그 다른 차원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한 완성의 세계라면 사랑에도 애국심에도 또 다른 하나의 고귀한 뜻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세를 긍정하는 신앙심이 오히려 일반적으로 애국심과 상반되는 것으로 보일 때가 많은 것이다. 애국심은 이 지상에 있는 나라를 사랑하는 현세적인 것이고 혹은 따라서 세속적인 것이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 소아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것으로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지향하며 현세적인 것을 떠나 내세에 집착하는 소위 종교적인 신앙심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도록 한 종교의 불균형한 현세관도 문제가 되지만 종교라고 하면 내세에만 집착하고 현세를 이유 없이 경시하는 것으로 아는 식자들에게도 재고의 여지는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하여튼 건전한 신앙심, 건전한 애국심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확신인 것이다. 구약시대에 하느님에게 불충실할 때 벌을 받고 나라는 빼앗기고 민족은 흩어지고 노예가 되어 다시 수복하려 하는 조국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었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영원히 말하지 않는 하느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날 하느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신도는 하느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빌면서 자기 나라를 사랑하여 하느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도는 누구보다도 더 자기 나라가 정의와 사랑이 실현된 나라, 하느님의 질서가 이루어진 나라로 되는 것을 갈망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도는 누구보다도 더 자기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그들을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데 앞장서 나가야 하는 국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신도들은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국민이 되어야 하고 누구보다도 더 애국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국민 된 자격으로 감정 때문에 혹은 이해 때문에 혹은 나라가 올바른 충성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근거를 가지는 것이다.

하느님은 하느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으며 또한 이웃만을 사랑하라고도 하시지 않으신 것이다. 하느님이 만약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했다면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도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이 되었을 것이다. 사람만을 사랑하라고 했다 해도 마찬가지로인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었다. 이 두 마디 말이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은 깊은 뜻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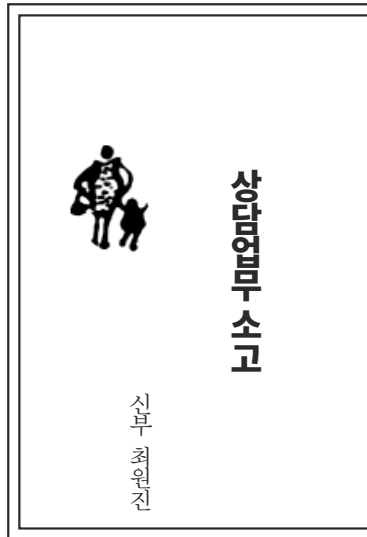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쉽게 말하여 사람은 사람끼리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또 사람을 제해 두고 하느님만으로도 통상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하느님만 믿고 내 혼자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은 보통 상식인에게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이상한 말인 것이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또 사랑을 받지도 않고 혼자 잘 살 수가 있느냐 말이다.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 봉사하여야 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해야 하되 참으로 바르게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웃이야 어떻게 나라야 어떻게 나는 모른다는 것이 올바른 인격인의 태도이겠으며, 나만 천당 가면 그만이라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이겠느냐. 아니면 막연한 인류애의 명목으로 사해 동포를 부르짖으며 실상은 자기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허황한 사람이 그래도 신앙 때문에 애국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신앙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도울 뿐인 것이다. 그리고 신앙은 나라를 사랑하되 참으로 바르게 사랑하도록 도우는 것이다. 신앙이 사악을 원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바르게 또 참되게 사랑하도록 함으로써 나라를 참되게 바르게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다. 진실로 사랑하면 나쁘게 그릇되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이나 바르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눈앞만 좋게 하는 것은 멀리보고 바르게 하는 것과 같지 못한 것이다. 신앙은 진정으로 사랑하도록 하여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는 참되고 바르게 사랑하기 때문에 곧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가끔 역사상 야욕을 채우기 위해 교묘한 방법으로 국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애국심을 신앙화하려한 제국주의 국가가 있었으나 애국심을 신앙심에 준하려는 노력은 교만한 인간의 기도에 불과했고 진리에 기반을 두지 않은 채 단결적 애국심의 위력은 모래 위의 누각 같아 역사의 심판을 받은 것뿐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에 흥미를 모으는 것은 신앙심과 애국심과의 상관을 충분히 인식하고 악용한 좋은 예인 것이다. 이와 같은 애국심의 신앙회의 경향은 야망 있는 정치가에서 가끔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일부 몰지각한 종교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날도 나라를 구한다는 사이비 종교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극의 목적이면 그것은 참다운 종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땅이 곧 복지가 된다는 것도 같은 유의 이야기인

것밖에 다른 것이 못 되는 것이다.

참다운 종교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아무도 가지지 않은 객관적인 진리—하느님의 말씀—를 잘 전해야 하며, 진리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도록 인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애국의 길이요, 애국하는 사람은 무엇이 올바른가를 판단하여 바르지 못한 것을 빨리 없애는 사상적인 정리를 먼저 단행해야 할 것이다. 빼뚫어진 사상에 바른 애국이 있을 수 없고 건전한 신앙 없이 바른 사상이 꽃 필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명확한 일인 것임을 우리는 다시 말해 두는 것이다.



군중업무 중 상담활동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대다수의 장병들이 잘 알고 있는 탓인지, 혹은 군중실 마다 개인상담실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 탓인지 하여튼 군중장교에게 상당 하러 오는 장병들이 끊이지 아니한다.

비록 그 통계숫자는 해마다 늘어난 현상이 못되지만 적어도 한 분기에 약 10,000명(연인원)의 장병들이 어려운 문제를 신고 군중장교에게 찾아와서 그 문제의 보따리들을 풀어놓곤 하는 것이다.

그 문제 속에는 눈물 어린 사연도 있고 골치 아픈 사건도 있으며 심지어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심각한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

이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열거해 본다면 이성문제, 가정문제, 경제문제, 군사문제, 종교문제 등을 말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요구에 대한 불만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다. 사람에게에는 사랑, 안전감, 자기가치, 존속감, 성취감, 자주적 등 기본적인 정서적 요구가 있는데 이것들은 마치 유기체의 본능으로 음식에 대한 요구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음식에 대한 최소한도의 만족이 없으면 영양부족으로 육체가 해를 당하는 것처럼 온갖 정서적 요구의 부족으로 인격을 상처받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상처 받은 결과는 불안과 고민으로 나타나며 여기에서 원한이나 적개심이나 죄악감 등의 다른 감정을 일으키는 수가 있으며 또는 자포자기의 정신 상태를 유발하는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들을 억제하기 위하여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할 때 비록 일시적으로는 그 감정이 폭발하지 아니할지 모르지만 그 눌린 감정은 탄력을 얻어서 더욱 큰 결과를 발생하곤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육체의 질환이 생기기도 하며 또는 반사회적 행동으로써 범죄와 비행이 나타나기도 하며 혹은 스스로 인생의 의미나 복무의욕을 상실케 하여 취생몽사의 삶을 영유하게 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자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상담을 통하여 장병들의 문제성을 알아보고 그 문제를 이해하여 문제해결의 길을 모색해 나간다는 것은 군내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며 완전무결을 지향하는 현명한 역사인 것이다.

필자가 경험한 실례를 들어 보겠다.

어떤 사병이 군중실을 찾아와서 상담을 자청했다. 그의 얼굴은 수심에 잠겨 있었으며 매우 초초한 모습이었다.

그의 말은 감정에 격한 어조로 떨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군목님 제가 휴가를 가지 않고는 못 배길 것 같습니다. 고향에 계시는 홀 어머니가 병환중이라는 편지가 왔는데 다만, 며칠간이라도 가없는 홀어머니의 병간호를 해드리고 싶은데 현재 근무처에서는 휴가를 보낼 수가 없다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휴가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탈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요새 며칠간은 병석에 홀로 누우신 어머니님 생각에 근무도 할 수 없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그에게 깊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열심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계속하여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다시피 하면서 한참 동안 그의 신상에 관한 것, 온갖 가족상황 등을 털어 놓으며 사정을 하는 것이었다. 그의 표정과 그의 말을 통하여 그의 문제는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것임을 읽을 수 있었으며 꾸며댄 연극이 아니라 진실된 긴박한 사정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군목의 입장에서 당장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원래 상담이라는 것은 즉석에서 해답을 제공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의 불안을 마음껏 털어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그가 품고 있는 불만을 마음껏 털어놓게 하는 것만

으로도 사실은 상담의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원래 상담에 진수는 직접 어떤 해답을 당장 던져주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민과 불만을 다 털어 놓는데 제1차적인 의미가 있고 다음에는 자신이 털어놓은 고민과 불만을 자신이 하나하나 헤아려 나가면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의타심에서 문제성을 찾도록 이끌지 않고 자립자조의 정신으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상담의 원리이기 때문에 될수록 지 도 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같이 그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고 걱정을 하여주고 협조를 아끼지 아니 한다는 입장에 머물러서 그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에게 용기를 일으켜 주어서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시사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졸렬하게 해결하려 하면 부작용이 날 우려가 있기에 먼저 조용히 직속상관을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솔직히 털어놓고 휴가를 요청해 보라고 권고한 후 만일 그래도 휴가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 다시 연락을 한다면 그때 군목 자신이 그의 직속상관과 상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하였다.

그러나 부연해서 말하기를 군대사회는 어디까지나 질서와 규율이 엄한 곳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덮어 놓고 개인의 욕망을 일일이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또 원시안적으로 바라볼 때 당장의 딱한 사정으로 휴가를 못가서 몸부림치는 것은 그렇게 현명한 처사가 아니므로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말고 여유 있는 심정으로 질서와 규율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권고했다. 이러한 결과 그 사병은 안도의 빛을 보이면서 돌아갔는데 그가 돌아가자 나는 그의 직속상관에게 통화하여 그 사병의 상담에 응해 주기를 원했고 가능한 한 많은 협조를 해주기를 부드럽게 부탁했다.

그 후 그 사병은 소원했던 휴가를 가게 되고 또 다소의 도움도 받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의 소원이 성취되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가 정상적인 계통을 밝히 직속상관과의 의사소통이 원만해졌고 또한 그의 휴가가 정정당한 것이기보다는 차라리 혜택으로 되어 졌다는 인식으로 배전의 의무에서 성실히 근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상담은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해주고 피차의 신뢰감을 굳게 해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담을 통하여 무관심했던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상담에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적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담은 인격향상을 위해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성을 토론하는 중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성을 토로하면서 서서히 해결책을 스스로 모색해보는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온갖 문제해결은 독불장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원만한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식하므로 협동정신의 인격적 소양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즉각적인 해결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 문제성을 가지고 고민도 해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사면팔방으로 노력도 해보는 중에 온갖 지식과 경험을 얻게 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용기도 생기며 인내심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결국 만사는 근시안적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원시안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아량도 생길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인격의 성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담업무라는 것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다반사로 생각해서는 오해다. 적어도 상담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다.

상담업무는 인격적 성장을 내용으로 한 온갖 문제해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근래 상담에 관한 서적이 여러 권 나왔지만 대개 어떻게 하면 문제성 지닌 자의 그 문제를 잘 듣느냐 하는 문제를 많이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상담업무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성을 우선 잘 듣는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듣는 일 자체보다도 듣는 태도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문제성을 털어놓는 사람은 우선 듣는 사람의 태도가 적극적인지 혹은 소극적인지를 살피게 되는 것이다. 만일 듣는 이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그 상담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적극적이며 용납하는 태도로 듣는다면 그 상담은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상담을 하는 도중 공문서에 결재를 간단히 한다든가 우편물을 정리 한다든가 신문을 펼쳐 틈틈이 본다든가 또는 손톱을 깎는다든가 하는 것 등은 그 듣는 태도가 벌써 무성의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성을 토론하는 도중 간간히 침묵을 발휘할 때는 말로 표현하기에 너무나도 큰 문제에 부딪쳐서 자기의 정황을 분명히 발표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음 속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침묵도중의 태도는 중요한 것이다. 이 침묵은 말하는 것보다 더 창조적인 구실을 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상담하러 온 사람이 수다스럽다고 해도 화를 내는 것은 상담업무에 있어서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수다스러운 사람은 자기의 진실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를 피하려고 하기 쉽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소극적인 태도나 화를 내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계속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상담에 있어서 난관은 항거와 변호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성을 토론하는 도중 무성의한 태도로 대한다면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은연중 반항심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문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도움을 청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도움을 받는 일에 의식적으로 고통을 느낀다고 볼 수가 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그것을 피하려는 생각이 자연 일어나게 된다.

그런고로 이런 어려운 경우를 당할 때에 항거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상담 도중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과정을 고려하여 고통이나 고민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즉 꾸중하는 일이나 비판하는 태도를 지양하여 용납과 이해와 감정의 반영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자신을 정직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며 반항과 변호를 냉철하게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상담의 기술면을 잠깐 고찰해 봤지만 사실 기술만으로는 넉넉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냉정하고 기계적인 방법에는 창조적이라기보다도 오히려 생생한 맛이 없는 감정이 반영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개인 대 개인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만 건설적 통찰력으로써 창조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고로 아무리 규율과 질서를 위해 엄격해야 될 군대 내에서도라도 상담과정에서는 부모나 형제나 혹은 친구의 심정으로 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담업무를 맡은 자 인격이다. 만일 비열한 성격과 천박한 인격의 소유자라면 아무리 상담업무의 기술을 가졌다 해도 성공적으로 상담업무를

다루어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사람에게는 상담하기를 어느 누구나 원치 아니 할 것이다.

그러기에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격적인 면에서 모범이 될 만한 생활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일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상담의 원만한 기술과 고상한 인격과 넓은 이해심과 깊은 동정심으로 임한다면 상담업무는 성공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설사 문제성을 가진 장병이 한 번의 상담으로 당장 해결함은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아마 아래와 같이 독백하게 될 것이다.

『내가 당면한 문제를 다 해결은 못했으나 나의 태도는 변했다. 이제는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생긴다.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이지 결코 피할 생각은 아니 난다. 또한 나는 내 행동이 어떻게 간에 내가 용납되고 있다고 느낀다. 이전에는 나 개인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일을 하는 방법이 나에게 달렸다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 자기가 있는 그만큼 나의 감정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 상담과정에 있어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보다 내가 받은 용납과 사랑으로써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유효한 것이었다.』

상담을 통하여 이러한 생각을 일으켜 줄 수 있다면 상담업무는 성공적이라고 낙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공적인 상담활동이 성취되기 위해서 군중장교뿐만 아니라 의무, 법무, 인사 각 분야의 장교들과 여러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본인의 줄렬한 소론이 타산지석이라도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1.

지난 정월에 일본을 다녀 온 소감이 다. 김포공항에서 환히 뚫어진 하늘의



길을 따라 나를 실은 비행기는 한 시간 이십 분 만에 동경 시내 요코다 비행장에 안착했다. 동경에 도착해서 느껴지는 감상은 사방 팔통으로 시원히 트여진 교통망과 잘 정비된 도로와 완벽할 정도로 포장된 길들이었다. 일천 이백만의 사람들이 들끓는 핏물 같은 대도시 동경이지만 이 도시의 생활이 질서 정연히 유통되는 힘의 저변에는 도로라는 완벽된 문명의 동맥이 알차게 발달하고 있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 과연 길은 그 나라 문화 수준의 척도이기도 하다.

2.

길이 있어야 사람들은 내왕을 할 수 있다. 이 길은 이웃과 이웃을 이어 주고 마을과 마을을 이어 주고 도시와 도시 사이를 다리 놓아주고 국가와 국가 간의 간격을 좁혀 주기도 한다. 길은 땅에도 뚫을 수 있고 물 위에도 뱃길이 있고 하늘에도 공로라는 길이 있다. 인간은 왜? 길을 필요로 하며 그것을 요구하는가? 인간사회에 길이 없다면 사람들은 생활의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거대한 문명의 씨앗이 길의 노퍽에서 움트고 그 화려한 꽃이 길의 복판에서 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길은 인간의 생활을 의미 있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의 광장을 마련해 준다. 한 문명의 성장도 도로의 노퍽을 따라 잔뼈가 굵어지고 힘줄이 억세어 지지 않았을까! 지금껏 쓸모없이 내던져진 불모의 땅이 자기 속을 파고 흐르는 고속도로를 안아 들일 때 그 땅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일어선다. 한 도시는 길을 따라 성장해 가고 길은 도시를 따라 노퍽이 넓어지며 윤택해지고 가꾸어 지기도 한다.

3.

그리스도는 자신을「같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스며 있다. 그리스도는「진리의 길」을 인간사회에 건설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길을 놓아주시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이 길을 닦으시고 민족과 민족 간에도 그 길을 예비하시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그는 가교를 하는 분이시다. 이 진리의 길이 놓여진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들은 넘치는 축복을 받았으며 한편 그 길은 부흥과 발전과 번영을 안아 들이는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이 진리의 길을 맞아들일 때에 버려진 목숨들이 고개를 들고 생명을 호흡했으며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는 창백한 중생 들이 발랄한 새 활기를 다시 찾기도 했다.

4.

그리스도는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만난다. 지금껏 진리에서 소외당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로소 진리와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 진리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인간에게서 떨어진 하느님 자신, 곧 우주의 제일 원인이기도 했다.

이 진리의 하느님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불러 그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기도 하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대화한다. 니고데모가 중생의 진리를 그리스도와 대화한 것과 같이 빌라도가 그리스도 앞에 진리를 물은 것과 같이 우리도 진리인 그리스도와 대화해야 한다. 이 대화에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관계를 맺는다. 그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국외자였다. 관계없는 소외자였다.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와 관계를 갖게 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5.

우리들은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자.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그리하여 참 생명을 소유하여 성실한 삶을 성취하자.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승리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비단 영적이 아닌 일반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치열한 생존의 마당에서 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기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그 방법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의 비결을 바로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그대로 우리 군대사회에 적용함으로써 군문에 발을 들여 놓은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어떤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신념이 강한 지도자, 군대용어로 하면 신념이 철저한



신권의 법

|| 출애굽기 17장 8 ~ 16절 ||

군목 백승진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나 지휘관은 그들의 지도와 지휘역량에 따라 백성들이나 부하들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기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모세가 가졌던 신념화된 지휘철학이 신앙처럼 확고하게 세워져 있어야만 쉽게 무너지기 쉬운 민중을 한데 묶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모세의 곁에서 모세의 칼을 받치고 있었던 아론과 훌과 같이 훌륭한 참모를 가질 수 있어야만 어떤 일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그 사람 밑에 그런 사람이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휘관이라 하더라도 그 지휘관을 양쪽에서 붙들어 줄 진실한 참모가 적어도 두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나 지휘관은 쉽게 피곤하게 마련입니다. 모세가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은 틀을 가져다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전형적인 참모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든 신념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지휘관이 든 승리의 팔이 피곤에 못이겨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들어 주는 사람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로는 최일선에서 직접 싸우는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이 반드시 있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휘관에 훌륭한 참모가 있다고 해도 여호수아와 같은 중간 지휘관들이 나가서 하지 않으면 도저히 승리를 가져올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중간 지휘관들의 수고를 통하여 결정적인 승리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훌륭한 인물일수록 중간 지휘관들을 잘 붙들 줄 알고 그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고 일하며 땀 흘린 그 고통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간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들이 어떤 일이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지휘관의 확고한 지휘철학과 시세와 그 정황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지휘관을 잘 받쳐 줄 수 있는 참모진, 그리고 직접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중간 지휘관들, 이 삼자가 일치 연합되어질 때 승리는 결정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의 행로에는 언제나 아말렉의 방해와 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주어진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싸움에는 일단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잡은 줄 알고 보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가운데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승리의 길을 보게 됩니다.

전쟁 속의 사상(詩想)

대위 유 성 준

차 례

1. 머리말
2. 전쟁과 시와 사랑
3. 키오스(Chaos)의 낭만성
4. 은둔(隱遁)의 심태(心態)
5. 애국심의 표상(表象)

1. 머리말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의 자취 이면에는 무한한 각고(刻苦)와 간난(艱難)이 깃들여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느 면으로 보아서는 편견이라 볼 수 있다. 필자가 지적하고픈 점은 바로 이 편견의 한계성(限界性)을 어떻게 고찰할 수 있을까 하는 관심이다.

옛 부터 인간의 사회가 형성된 곳엔 사려(思慮)의 이해관계가 작용하여 일종의 부작용(副作用)의 파생물인 싸움 즉, 전쟁(평의의 해석)이 필수적 부수물로 등장하여 왔다. 현세(現世)에도 지구상에 완전한 평화를 보지 못하고 있는 바니, 월남전이며 서아시아지역, 비아프라의 대기근 등 우선 직감되는 심각한 면면들서 이는 인류가 낳은 진퇴작용이다. 이 작용이 파괴와 건설의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이론을 도입시키어 흥망성쇠와 희비애락을 더욱 절감하게 만든 것이다.

이제 필자는 전쟁을 예방하고 만약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국가존망의 중책을 진 군인된 입장에서 전문적인 고찰보담 교양적인 취향에서 한 문학 특히 동양의 중국문학의 시를 단편적으로 밝혀 제시하여 집필이유에 대신하려 한다.

문학정신 변천은 자기의 사리와 과욕과 영웅심에 기인된 전쟁의 역사와 변천



과 상통한다면 중국의 역사와 문학의 상관성은 단적으로 표현해서「전쟁의 사상」이란 제목을 도출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시대와 일관성에 구애되지 않고 사상적 표현과 시의 특성에 주안점을 두어 본문을 전개하려 한다. 깊이에서 앞서 대중적인 교양미에 신경을 쓴 이상한 문학장르의 개념이 파악된다면 보람 있겠다.

2. 전쟁과 시와 사랑

일반적인 개념정립으로 보아 전쟁과 사랑이란 의미 자체가 이중적(二重的)인 그러면서도 대조적 뉴앙스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소용돌이 즉 전쟁이라는 무질서, 무법의 그리고 무정견(無定見)한 현실적인 의미는 확실히 사랑이라는 어휘와 내재적(內在的) 현상으로 봐서도 모순의 조화로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국가의 수호와 장래의 발전을 위한다는 그리고 사회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충심에서의 행위에서 애국 애족을 지칭하는「사랑」으로 해석하는 경우라면 타당성 있는 조화겠지만 전쟁 속에서 영국의 시인 바이론의 불후의 낭만애정적 시작(詩作)은 그리스 독립 전쟁 속의 혼란 속에 더욱 빛난 자극을 주었고 근자에 중국의 항일전쟁 속에 국방문학(國防文學)을 창설함은 항일사조에 근거한 것이니 이런 사례들은 전쟁을 통한 생(生)의 승화와 처절을 간파(看破)한데서 기인된 시니컬한 조화겠다. 상기 두 면의 조화 외에 본연적(本然的)인 인간의 내심을 극단적인 은일(隱逸)의 방법으로 부조화의 조화를 형성한 문학 속에서의 예(例)라면 특히 중국의 당나라의 태백(太白), 왕유(王維), 맹호연(孟浩然) 등 많으니, 이들은 생의 비참을 전쟁을 통해 절감하고 오히려 속세를 떠나 자연과 합치하는 애자연 불애속세(愛自然, 不愛俗世) 사상과, 드디어 전국시대의 노장사상을 배출한 때와 같이 이들에 부화하였으니 이 사조는 전쟁과 사랑이라는 이미지에 간접적인 그리고 오묘한 입장에서 관련시킬 수 있는 소재가 되겠다. 따라서 문학적 의미에서 보면 두 가지의 사회적, 낭만적 조화미와 모순적인 은일 자연미를 단편적으로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사랑」이라는 말은 고대의 상용어인 고로 췌언을 불필요로 하는 말이지만 진정한 본의는 개체의 상황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수반하는 지극히 규정기 어려운 말인가 보다. 요컨대 전쟁과 문학과 사랑은 혼용된 혼성체제로서 부각되어 진다는 개괄적 표현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키오스(Chaos)의 낭만성

한 무인이 조용히馬上에서 격렬한 전장의 처절을 잠시 잊고 깊은 명상에 젖어 있는 것을 본다. 삼국을 통일하여 천하에 군림한 전형적인 장군의 내심에는 항상 시적 표현의 여운을 남겨 주었으니, 그는 바로 조조(曹操)다.

그의 위치는 중국문학적인 면으로 봐서도 위진(魏晉)시대의 건안문학(建安文學)을 형성한 비중 큰 하나의 문학인이기도 하였다. 혼돈 속에 애뜻한 낭만을 감상적으로 인간본연의 심회를 시로서 표현한 운치는 매력의 심볼이라 할 것이다.

조조의 성향 및 능력에 대한 평을 보면, 위서(魏書)에「御軍三十餘年, 手不捨書. 晝則講武策, 夜則思經傳. 登高必賦, 及造新詩, 被之管弦, 皆成樂章.」

(군대 통솔하기 30여 년이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낮에는 병법을 강의하고 밤에는 경전에 몰두하였다. 높은데 올라서는 꼭 글을 짓고 새로운 시를 지으면 악기에 맞춰 모두 악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진서악지(晉書樂志)에,
「漢自東京大亂, 絕無金石之樂, 樂章亡絕, 不可復知, 及魏武平荊州, 獲漢雅樂郎河南杜夔, 能識舊法, 以爲軍謀祭酒, 使創定雅樂.」

(한은 동경대란 이후 금석악이 전무하고 악장이 없어서 다시 알 수 없었다. 위무가 형주를 평정한 후 한악장 하남의 두섭을 잡아 구법을 알아서 군대 회의의 주연에 써서 아악을 창정케 되었다.)라 하여 군중시작(軍中詩作)과 음악의 능사로 하였으며 특히 병법에 관한 저서도 많았으나 대부분이 일실되었다. 이제 조조의 폐부로부터 형성된 아름다 운 시정의 시를 감상하면서 현실과 내심의 이중표현을 음미해 보자.

먼저「호리행(蒿里行)」은 건안초년의 작품으로 함곡관에서 발해태수 원소(袁紹)가 AD. 190년에 기주자사(冀州刺史), 한복(韓馥), 예주자사(豫州刺史) 유대(劉岱), 동군태수(東郡太守) 교모 및 원술(袁術), 조조 등 10여인을 모아 의병을



일으켜 동탁(董卓)을 성토하려 했으나 각자가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합심하지 못하고 오히려 본래의 목적과는 어긋나서 서로 다투어 원소가 한복을 쫓아내고, 유대가 교모를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은 물론이고 원술은 회남(淮南)에서 옥새를 새겨서 건안 2년(A.D. 197)에 제(帝)를 칭하고 분리한 사태까지 발전하나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민심은 흉흉하여 폐망에 이르니 뜻있는 조조의 심회 헤아릴 길 없어 단장의「호리행」을 읊게 된 것이다.

「關東有義士, 興兵討群凶.
初期會盟津, 乃心在咸陽.
軍合力不齊, 躊躇而雁行.
勢利使人爭, 嗣還自相戕.
淮南弟稱號, 刻璽於北方.
鎧甲生蟻蝨, 萬姓以死亡.
白骨露於野, 千里無雞鳴.
生民百遺一, 念之斷人腸.」

(관동의 의사들, 의병을 일으켜 적당을 토벌하려 했다. 처음 맹진에서 모이기로 하고 마음은 함양에 있었네. 병력을 합했으나 마음이 어긋나 주저하며 전진을 못하였네. 전세 유리해도 서로 다투니 오래잖아 자멸하였도다. 회남의 아우 황제를 칭하니 북방에서 옥새를 새겼고, 갑옷은 이가 성하고 백성은 사경에 이르렀네. 백골이 들에 버려져있고 천리를 달려 닭 소리 끊겼네. 백명에 한 사람 살아남아 생각하면 창자를 에이도다).

다음의「관창해(觀滄海)」와「구수수(龜雖壽)」는 건안 12년(A.D. 207) 조조가 오환(烏丸)을 토벌하던 중 5월에 무종(無終)지방을 거쳐 7월에 평강(平岡)지방을 지나 8월에 백랑산(白狼山)에 오르려다 외적을 만나 대패시키고 혼쾌한 마음으로 갈석산(碣石山)에 올라 승리와 환희를 억제치 못하여 네 편의 기개 넘치는 시를 읊송하여 장부의 심적을 토로했다.

갈석산에서 넓은 바다를 내려 보며 한 때의 행복감을 거침없이 발설한 내용을 명찰케 될 것이다.

「관창해(觀滄海)」
「東臨碣石, 以觀滄海.
水何澹澹, 山島竦峙.
樹木叢生, 百草豐成.
秋風蕭瑟, 洪波湧起.
日月之行, 若出其中.
星漢燦爛, 若出其裏.



幸甚之哉, 歌以詠志。」

(동녘의 갈석산에 올라 널푸른 바다 바라보니, 물이 참 조용코 충만하며 산
솨는 섬이 더욱 우뚝하고 수목이 우거지고 온갖 풀이 무성하네. 갈바람 소슬
대니 큰 물결 일렁댄다. 일 월이 그 속에서 솨아 오르듯, 별들이 찬란히 그 속
에서 솨아 비치듯, 아 참으로 행복하도다. 노래지어 정회를 푸노라).

「구수수(龜雖壽)」

「神龜雖壽, 猶有竟時。
騰蛇乘霧, 終爲土灰。
老驥伏櫪, 志在千里。
烈士暮年, 壯心不已。
盈縮之期, 不但在天。
養怡之福, 可得永年。
幸甚至哉, 歌以詠志。」

(신령한 거북이 비록 오래 산다하나 죽을 때가 있었고 뱀을 타고 안개 속을
날아도 결국 흙으로 화하였네. 늙은 준마가 마구에 누워서도 마음만은 천리를
뵈 생각하도다. 이 열사가 비록 늙었어도 웅장한 의기는 결코 불변 하도다. 삶
의 수요장단은 단지 하늘에만 있지 않으니 양생을 잘하여 장수할 수 있도다.
참으로 행복하도다. 노래지어 정회를 푸노라).

끝으로 조조가 말년에 그의 운명을 관가름하는 유명한 적벽지전(赤壁之戰)에
입하여 인생의 허무함과 미래에 닥칠 생사의 문제를 추리하며, 천하를 휘하
에 둘 꿈을 꾸면서 지은「단가행(短歌行)」을 보겠다. 술잔을 기울이며 초로인생
의 과거의 일을 회상하니 우수만이 엄습하고 이 우수를 술로 풀려하니 더욱
맺혀질 뿐, 이미 조조의 종말을 예견하는 조심히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인간
적으로 유비(劉備)를 아껴서 애호하여 건안원년에 진동장군(鎮東將軍)으로 삼
아 의성정후(宜城亭候)에 봉하고 3년에 유비가 여포(呂布)에 패해매 오히려 환
대하여 예주목(豫州牧)을 맡게 하였고, 동년 9월 여포가 패성(沛城)을 치어 유
비 처자를 포로로 잡았는데 조조는 10월 여포를 사로잡아 그 처자를 살려 준
은 물론 그를 좌장군(左將軍)으로 벼슬을 주어 정중히 예의를 표했음에도 불
구하고 서주자사(徐州刺史) 차주(車胄)를 죽이고 조조에 반기를 들었다. 이 사
건으로 조조는 인정의 야속함과 비정을 절감하여 자기 은혜를 모르는 유비
를 애석히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건안 12년(A.D.208)에 역사적인



대 전투의 고배를 예감하여 읊은 뜻이 보이는「단가행」은 이를 잘 서술해 주
고 있다.

「對酒當歌, 人生幾何。 譬如朝露, 去日苦多。 慨當以慷, 憂思難忘。 何以解憂, 唯有杜康。 青青子矜, 悠悠我心。 但爲君故, 沈吟至今。 呦呦鹿鳴, 食野之苹。 我有嘉賓, 鼓瑟吹笙。	明明如月, 何時可掇。 憂從中來, 不可斷絕。 越陌度阡, 枉用相存。 契濶談讌, 心念奮恩。 月明星稀, 烏鵲南飛。 繞樹三匝, 何枝可依。 山不厭高, 海不厭深。 周公吐哺, 天下歸心。」
-----------------------------------------------------------------------------------------------------------------------	-----------------------------------------------------------------------------------------------------------------------

(술잔 잡고 노래하니 인생살이 그 얼마리? 이슬 같은 인간사, 지난날 괴로움
많기도 하다. 분발격려하나 근심된 생각 잊기 어려우니 무엇으로 근심을 풀
려노. 오직 술 뿐이라. 다 못배운 젊은이들아! 내 마음 어찌 알리 단지 그대들
때문에 지금 깊은 생각에 잠겼노라 그러나 좋은 벗들 무리져 모여 들어 먹고
마시며 온갖 악기로 노래하며 즐기네. 보름달 같이 찬란한 그대(유비를 칭함)
내 언제나 얻어가질까? 근심에 맺힌 이 내 마음 끊지 못하겠네. 황야를 뛰고
물 건너며 그를 위문하던 일이다. 헛된 일이런가? 고생한 일 회고하며 연회
의 얘 기 무르익으면 마음으로 옛 은혜 잊지 않겠지. 달 밝고 별 드문데 까마
귀 남으로 날아서 나무를 세 번 빙빙 맴돌아도 그 어느 가지에 의지하랴! 산
이 높고 바다는 깊기를 싫어 앓음 같이 내 주공처럼 현인을 맞아 천하의 마
음이 돌아오게 하겠노라).

이상의 작품들에서「호리행」은 만가의 풍조로 서민의 비애를 동정하는 입장
에서 다루었고「관창해」「구수수」는 조조의 적극 진취적인 인생관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단가행」은 그의 일종의 중요 정치 선전시의 성격을 띠고 있
다. 대체로 조조의 문학적인 특성으로 평하면 시품(詩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옛 것에 솔직하며 비애적인 구절을 많이 사용했다 할 것이다. 세상풍파의 맛
을 다 본 조조의 인간인 만큼 더욱 애수적인 특징이 뚜렷했으리라 생각된다.



전쟁의 혼란은 한 시인, 무사에게는 로맨티시즘의 내재적 요소가 잠재해 있었고 문학의 요직을 점한 동기가 된다. 그리고 시대상으로 보아 당조(唐朝)의 안사지란(安史之亂)의 여파가 먼먼한 가운데 유미문학(唯美文學)이 대두되면서 이하(李賀), 왕애(王涯) 등의 낭만주의에서 발전한 것인데 이는 전쟁의 터전에서 평화와 행복 그리고 미려(美麗)를 회구하는 결과를 초래한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전진(戰塵)의 오욕(汚辱)이 문학상으로 내적인「美」를 추구하는 동기가 된 것이니, 이는 비루한 추악의 부녀자의 능욕같은 잡상(雜想)과는 다른 경지다. 문학의 세계에는 현실의 육체적인「애욕」은 오히려 「미화(美化)」된 연정으로 승화되는 것이라고 필자는 주관적 견해를 갖고 있다.

이하와 왕애에서 이 전쟁이라는 「추(醜)」와「사랑」이라는「미(美)」를 조화시킨 체계로 유도한 경우를 고찰하자.

전후의 여성문학으로 예술의 예술화를 이룬 궁체문학(宮體文學)의 예인 것이다. 세칭 귀재(鬼才)인 이하는 27세의 약관으로 사거(死去)했지만 영국의 바이론과 더불어 비교되는 풍운아적인 음영(吟詠)시인이었다.

시에(詩例)를 들건대,
「美人梳頭歌」의「玉彩落處無聲賦」(옥 비녀 떨어진 곳에 소리 없이 살프시 하다)와

「天上謠」의
「呼靜耕煙種瑤草，銀浦流雲學水聲。」(용을 불러 밭 가는데, 아지랑이 아롱아롱 한데 옥초를 심고 옥포에 구름이 흐르는데 물소리 익힌다).

그리고 왕애는 재상의 직위를 지낸 경력이 있으니 삶의 미는 버릴 수 없어「甘露之變」의 로맨스를 지니고 죽은 시인이다. 그의 궁사(宮詞) 중,

「一叢高鬢綠雲光，宮樣輕柔淡淡黃。
爲看九天公主貴，外邊爭學內家裝。」

(한 응금 높은 머리카락 녹색 구름일 듯 빛나고, 궁전은 가벼운 삼옷처럼 아담하고 노랗다. 궁궐 공주 보니 귀하고, 밖에서는 다투어 집안 장식 배우려 하네). 속과 겉의 표리를 조화하려는 삶의 여정이 시속에 역력하다.

4. 은둔(隱遁)의 심태(心態)

이의 표현은 한 마디로 말해서 현실도



피의 자연사조(自然思潮)이다. 진대(晉代)의 도연명(陶淵明)이 속세의 전쟁을 싫어하여 자연의 귀거(歸去)라든가, 왕유(王維), 이태백(李太白)의 회회적인 사회 생활을 버리고 역시 망천루(輞川樓) 각에서 노년을 보낸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해도 논리적 입장에서 본다면, 전쟁은 인간의 자기 현실에 대한 소외 의식을 조장하고 퇴영적(退嬰的) 부분의 정신을 무시하려는 의식 때문이다. 이제 왕유와 태백의 작품을 고찰하여 비교해 생각하겠다.

이태백은 전쟁이란 관념을 거의 목살하다시피 자연과 합일하여 주선(酒仙)의 위인(爲人)을 드러내 보였다. 그러기에「협(俠)」의 근본 위에 의기의 호탕과 둘째 시사(詩思)의 표일(飄逸), 끝으로 사상의 퇴폐(頹廢)를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상기(上記) 중 첫번 것은 웅장하고 화려한 기상과 자극적인 체계를 사용하여 구속된 필치를 무시했다. 이하 작품은 산수자연이 주된 묘사다.「관산월(關山月)」을 보면,

「明月出天山，蒼茫雲海間。
長風一萬里，吹度玉門關。」

(밝은 달이 천산에 나와서, 망망히 구름 바다 사이에 있다. 긴 바람 일만리에 뻗혀, 획 불어 옥문관을 넘는다). 그리고 두 번째의 표일성은 뜬 구름같이 허공적이다. 불안정하다.「단가행(短歌行)」의 일부를 들면,

「白日何短短，百年苦易滿。
蒼穹浩茫茫，萬劫太極長。」

(대낮이 잠으로 짧구나, 백년은 고달과 온통 넘치네. 푸른 하늘 넓고 아득하고, 만겁은 지극히 길도다).

끝으로, 사상의 퇴폐는 유한(有限)의 평범성을 초월하여 무한한 초월적 발전을 추구한 것이다. 행복의 공허, 인류생명의 짧음에 민감했다. 또한 변화도 다양했으니 부동(浮動)적인 심 리현상 때문이다. 「산중여유인대작(山中與幽人對酌)」을 보면,

「一杯—杯又一杯，兩人對酌山花開。
我醉檢眼卿且去，明朝有意抱琴來。」

(한잔 한잔 또 한잔 양인 술 권하매 꽃이 피었네. 내 취해 잠들려 하니 자네도 가게. 내일 아침 뜻이 있걸랑 거문고 들고 오게나).

한편 왕유는 불도의「선(禪)」을 통해 자기의 사상을 드러낸 시인이다. 그래서 탈속(脫俗)의 생활은 다음 시구에서 뚜렷하다.



죽, 「반복부산승(飯覆釜山僧)」의,
「已悟寂爲樂, 比生間有餘.
思歸何心深, 身世猶空虛.」

(이미 오적(悟寂)을 낙으로 삼으니, 이 삶은 한가하고 여유있네. 돌아갈 일 생각하니 참으로 마음 깊어지는데 이 몸은 오히려 공허할 뿐이로다). 속세의 싫증을 삶의 심연(深淵)에 대한 「愛」를 공허와 고독, 곁해서 표현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자연과 「나」, 「부처」와 「나」의 합치와 고통을 느끼게 하여 시불(詩佛)의 도를 터득한 것이다. 더구나 왕유는 「富」를 통한 자연의 생명을 신비와 입체를 살라 서술하고 있으니, 「목란시(木蘭柴)」의

「秋山斂餘照, 飛鳥逐前侶.
彩翠時分明, 夕嵐無處所.」

(가을 산 저녁 햇빛 여운 남기고 나는 새 앞에 가는 벗을 쫓네. 문득 얼룩진 산기운 환히 밝더니, 곧 저녁 산기운 사라져 가네)는 단순한 경치 묘사이나 산정기의 신비성을 보여 「시중유화(詩中有畫)」의 묘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모두 당시 사회 혼란을 저주하고 자연에의 귀거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5. 애국심의 표상(表象)

송나라의 문학사를 더듬노라면 말기에 가장 많은 시를 쓰고 두보(杜甫)를 닮은 애국시인 육유(陸游)를 발견한다. 그는 시와 산문에 있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 외에 호탕한 기개를 가지고 풍운이 급박한 송말에 열렬하고 비장한 애국충렬의 심회(心懷)를 토로한 민족시인이다.

고로 소매(蘇梅)는 「중국제일상무애국시인(中國第一尙武愛國詩人)」이라 평가하였으며, 생애를 통한 애국심의 발로를 생각하여 보련다.

유년시부터 시문(詩文)이 출중하였으며 29세에 염안(鹽安)의 예부시(禮部試)에서 재상 진희(秦檜)의 아들과 자웅을 겨루다 당국의 미움을 사서 관운이 트이지 못하다가 고종 때 37세에 비로소 추밀원 편수관으로 임명되었다가, 이듬해에 효종(孝宗)이 즉위한 후 검토포관(檢討官)으로 승진되었는데 남침하던 금병(金兵)이 동년 11월 낙석기(樂石磯)에서 대패하여 이로 인해 금에 내란이 일어나 항자(杭州)를 회복하였다. 육유는 가족을 데리고 항주를 따라가게 되며 그 기쁜 마음을 읊었다.

「阿網書蚓滿幅, 阿繪學語鶯轉木.



截行作馬走不休, 小車駕羊聲陸續.
書窗洗壁誰忍嘖, 嘖呼也復可憐人.
却思胡馬飲江水, 敢道春風無戰塵.
傳聞賊棄兩京走, 列城爭爲朝廷守.
從今父子見太平, 花前飲水勿飲酒.」

(아강이 글 솜씨 지렁이 같고 아회 말소리 숲 속의 꼬꼬리라. 말 장난놀이 저리 심하고 양타기 놀이 소리 그지 없어라. 창벽에 낙서한다고 누가 차마 책하라? 아 이놈 울음이 가련치 않으리? 호마(胡馬) 물 마심 생각노니, 춘풍에 전쟁 없다고 누가 감히 말하라? 적이 양경 버렸단 말 들었으니 여러 백성 나라 위해 싸운 때문이리. 이제사 부자태평 보게 되니 꽃 피고 물 만하고 술일랑 마소). 아이들이 항주에 감을 기뻐한다는 이 제목 하에 당시의 전란 속에 친진스러운 아이들의 모습과 장난을 보며 가련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리고 항주가 회복되었다고 하나 적이 목적시고 기회를 노리니, 태평시대라고 음주로 소일(消日)하지 말고 항상 경계하자고 권유하여 전시사상(戰時思想)을 고취했다.

어느 시대 던 간신은 있는 법이어서 참소당한 육유는 이후 11년을 은거하며 동강(桐江)에서 낚시질하는 생활을 하였으나 구국이념을 잊지 못하고 취몽간(醉夢間)에도 국가를 위한 집념은 더 할 뿐이었다. 48세에 왕염(王炎)이 육유를 간관공사(幹辦公事)로 삼으니 그는 왕염에게 북벌을 촉구하여 많은 공로를 세우는 동기를 만들었다. 다음에 나오는 「歸到漢中境上」은 왕염을 따라 양주(梁州; 漢中) 일대를 순시하며 지은 작품이다.

「雲棧屏山閱月遊, 馬蹄初喜踏梁州.
地連秦雍川原壯, 水下荆楊日夜流.
遺虜孱孱寧遠略, 孤臣耿耿獨私憂.
良時恐作他年恨, 大散關頭又一秋.」

(구름다리 진 높은 산 속 달포를 헤매며, 이제야 말발굽이 양주에 들었구나. 응주에 이어 있어 산천이 웅장 코 한수의 흐름은 형주·양주에 있었어라. 남은 오랑캐 겁먹어 큰 계략 있을까마는 외로운 몸 답답히 홀로 근심하도다. 좋은 때 잃으면 후환이 두렵노니, 대관산기슭에서 또 한 해 흘렀구나. 양주를 되찾아서 몸소 찾아가 애국충신의 심정은 기쁘고 설레는 가슴 금할 수 없었으며 경치는 장엄하였다.

그러나 오랑캐의 재침을 생각하면 근심이 가득하니 한때의 향락을 잊고 최후의 승리까지 힘쓰자는 시의(詩意)를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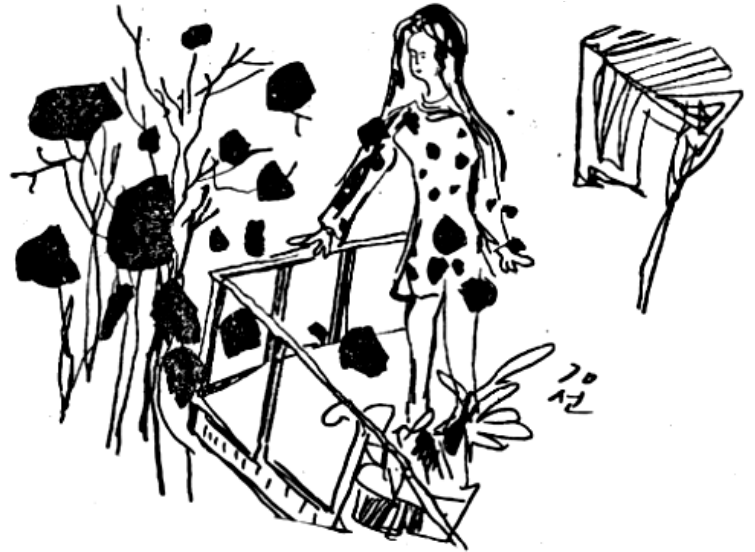
53세 이후 왕명(王命)을 받아 변경을 돌아보며 시를 지어 격려하면서 군사상, 정치상 많은 공적을 세웠다. 가태(嘉泰) 2년 78세의 노령으로 용역(用役)을 위한 위남백(渭南伯)을 제수받아 병사의 사기를 진락시켰으며 특히 개회원년(開禧元年)에 출정하여 금을 치게 되매 육유는 81세에도 불구하고 승전소식을 듣고 끓는 피를 전쟁에서 발산 못함을 못내 아쉬워 했다. 이러한 영웅적인 자세는 백성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86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생전에 중원(中原)을 회복 못함을 애타게 여나 많은 자손이 둘러보는 임종석(臨終席)에서도,

「死去原知萬事言, 但悲不見九州同.

王師北定中原日, 家祭無忘告乃翁。」

(죽으면 만사 헛된 줄 아나, 구주 통일 못 보아 슬프도다. 중원 회복되거든 제사 때 이 봄에 고하길 잊지 말라)라는 절필시(絶筆詩)와 유언을 잊지 않았으니, 그의 애국 애족정신과 빛나는 문학상의 결실은 즉 전쟁을 통한 한 문학인의 생애의 더불어 너무도 뚜렷한 가장 사실적인 예증이었다.



인간세련

김근호

박 대통령 문언록에서

- ◇ 한 민족, 한 나라가 그의 운명을 개척하고 전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국제정세와 세계조류에 적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 ◇ 자신은 희망인 것이다. 희망이 있는 곳에 민족의 힘이 생기는 것이다.
- ◇ 참다운 일꾼, 미더운 지도적 인간에게는 오직 인내와 자신과 건설적인 참여가 있을 뿐이다.

가을도 저물어가는 어느 날 저녁이었다. 「와인스버그」읍은 박람회를 구경하려고 몰려온 시골 남자들로 흥청거리고 있었다. 날씨는 낮에는 더없이 화창하더니 밤이 되자 훈훈하고 상쾌하였다. 읍을 지나 딸기밭 사이를 뚫고 나간 「트루니온」가도에는 마차가 지날 때 마다 뿌연 먼지가 구름처럼 일어나고 있었다. 밑짚이 흩어져 있는 마차 침대에는 어린애들이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는데 그들의 머리랑 손가락은 먼지로 뽀얗다 못해 끈적거렸다. 먼지는 별판 위로 휩쓸려 사라지고 막 넘어가는 해는 붉은 노을을 그리면서 빛나고 있었다.

한편 읍의 변화한 거리로 들어와 보면 상점과 보도는 짝 찢으며 밤이 깊어가자 말이 울고 점원들이 미친 듯이 상점 안을 왔다 갔다 했다. 어린애들은 길을 잃고 소리쳐 울어댔다.

이렇듯 미국의 한 읍은 자기 향락에 미칠 듯이 열중하고 있었다.

번화가의 혼잡을 뚫고 나온 젊은「조지월라드」는「리이휘」박사 사무실로 올라가는 층계에 몸을 감추고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불빛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열띤 눈으로 훑어보았다. 여러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으나 도대체 생각하기 싫었다. 나무층계를 쿵쿵 구르고는 사방을 돌아보았다. 『도대체 「헬렌」은 그 작자와 종일 같이 지내려는 젠가 이렇게 내가 기다리는 게 허사란 말인가?』 그는 중얼거렸다.

「오하이오」마을 소년인「조지월라드」는 꽤 성숙한 편이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날만 하더라도 박람회와 와글와글 몰려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는 오히려 외로움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와인스버그」를 떠나 도시에라도 가서 신문사에 일하고 싶었다. 그는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기분은 소년으로서 알 수 없는 어른의 감정이었다. 그는 좀 따분하다고 느꼈다. 옛날 일들이 떠올랐다. 성숙했다는 새로운 느낌은 비극의 주인공으로 자기를 만드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자기를 사로잡았던 삭막한 기분을 누가 좀 이해해 주었으면 싶었다.

소년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뒷골목을 처음으로 디디는 시기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어른으로 넘어가는 선을 건너는 순간일 것이다. 여기 한 소년이 있어 지금 자기마을 길을 걷고 있다. 그는 미래를 생각하여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낼 자기모습을 그려본다. 야망과 후회가 범벅이 되어 휘몰아친다. 갑자기 그는 나무아래 서서 마치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이 기다려 본다.

지난날들의 환상이 그의 마음에 파고든다. 자기 밖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생의 기반을 속삭인다. 자신과 미래에 대한 신념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어진다. 만일 상상력이 풍부한 소년이라면 문이 열려서 처음으로 세상을 내다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에서 세상에 나타나 생을 누리다가 다시 무로 사라진 이전의 많은 사람들 모습이 마치 자기 앞으로 행진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곧 그는 또 그 자신이 바람에 날려 마을 거리에 뒹구는 가랑잎처럼 느껴진다. 알 수 없이 살다가 가는 것 바람에 날리는 하나의 작은 물건 햇볕에 시들어 가는 옥수수 잎 같은 운명이라는 것을 안다.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온 열여덟 해는 질기고 긴 인간행렬 가운데 한순간 정말 눈 한번

깜박하는 순간처럼 느낀다. 그는 이미 죽음의 부름을 듣는 것이다. 온 마음을 기울여 그는 다른 어떤 사람과 가까이 저서 서로 손을 마주잡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사람이 여자이기를 바라는 것은 여자란 더욱 상냥할 것 같고 이해해 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이해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숙의 순간이「조지 월라드」에게 닥쳐올 때에는 그의 마음은「와인스버그」은행가의 딸인「헬렌 화이트」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그 소녀가 점점 여인으로 성숙해 가는 것을 늘 알아차렸다. 열여덟 살이던 어느 여름날 그 소녀와 함께 마을 거리를 걷은 일이 있었다. 그때 그는 그 소녀 앞에서 공연히 뽐내고 싶었고 그 눈앞에 자신을 크고 훌륭하게 보이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다른 목적으로 그 여자를 만나고 싶은 것이다. 그에게 나타난 새로운 충격은 그 여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성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전에는 그녀가 자기를 어른으로 대해 주기를 애썼지만, 이제는 그녀와 만나서 자기 성격에 일어났던 어떤 변화를 느끼게 하고 싶은 것이다. 「헬렌 화이트」로 말하면 그 역시 변화 시기를 거쳤었다. 「조지」가 느낀 것을 그녀는 처녀로서 또한 느꼈다. 그녀는 이미 소녀가 아니었다. 여인으로서의 우아한 모습을 갖추기를 열망하였다. 그녀는 박람회에서 하루를 보내려고「크리브랜드」에서 귀향한 참이었다. 「크리브랜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이다. 그녀 역시 추억을 지니기 시작했다. 박람회가 열리는 날 온종일을 그는 대학 강사인 한 청년과 특별 관람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 대학 강사는 어머니가 초청해서 온 손님인 것이다. 이 청년은 허풍기가 좀 있는 친구로서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녀는 곧 알아차렸다. 하지만 박람회에서 그녀는 이 청년의 옷차림이 미끈하고 이방인이라는 점에서 그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였다. 그가 마을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낮 동안 그녀는 행복했지만 밤이 다가오자 공연히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이 특별좌석에 함께 앉아서 학교 동창들의 시선을 끝자 그녀는 어찌나 이 청년에게 신경을 썼던지 그는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였다.

「학자는 돈이 있어야 돼 나는 돈 가진 여자와 결혼해야 될 거야」라고 이 청년은 속셈을 하고 있었다.

「조지 월라드」가「헬렌」을 그리면서 우울하게 군중을 헤치고 다니는 동안에도 그녀는「조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와 함께 거닐던 어느 여름밤을 그리면서 그녀는

다시 한 번 그와 함께 거닐고 싶었다. 도시에서 지낸 몇 달 극장예를 가고 가 로등이 휘황한 혼잡한 거리를 구경하고 한 몇 달 동안 자기가 굉장히 변화하 였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자기성격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를 그 에 게 느끼게 하고 싶었다. 이 두 젊은 남녀에게 찬란한 추억의 실마리를 남긴 지 난 어느 여름밤이란 것은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어리석게 보낸 것이었다. 그들 은 그 때 읍을 빠져 나와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옥수수 밭 근처의 울타리까지 가서「쥬오지」는 옷 저고리를 벗어서 팔에 걸쳤다.『자—그 동안「와인스버그」에 서 썩어왔는데 나도 이제는 썩단 말이야. 그동안 독서와 사색을 해왔으니 이 제 나도 세상에 뭣 좀 해야 될 것 아닌가?』

『아니 이게 본심 본 아니야 차라리 말을 말아야 되겠어』

이 소년은 당황해서 소녀의 팔에 손을 감았다. 그의 유성은 떨고 있었다. 둘 은 다시 읍을 향해 걷고 있었다.「쥬오지」는 이렇게 우쭐대었다.

『난 훌륭한 인물이 될 테야「와인스버그」에서 제일가는 인물이—너도 무엇 좀 했으면 좋겠어 뭔지는 모르지만 그건 아마 네가 관여할 바는 아니겠지 보 통 여자와는 좀 다르도록 애써줘 넌 내 요점을 알겠지 아름다운 여자가 되어 줘 내가 바라는 게 무언지 넌 알거야』

소년의 음성은 그치고 둘은 묵묵히 읍으로 돌아와「헬렌」의 집으로 가는 거리 로 접어들었다. 대문 앞에 이르러 그는 어떤 인상적인 말을 남기려 했다. 하고 싶은 말이 머리를 스쳤으나 그것은 정말 초점이 없어 보였다.

『난 생각해 왔지—네가「세쓰—리취몬드」와 결혼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

「헬렌」이 대문을 지나 현관문 앞으로 가는 동안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 뿐이었다.

× ×

훈훈한 가을밤, 층계에 서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자「쥬오지」는 옥 수수 밭 곁에서 한 자기의 말이 생각났다. 그리고 그동안 이루어 놓은 업적 을 더듬어 보니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우리 속에 간헐 젖소들 마냥 사람들 은 거리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였다. 달구지와 마차는 좁은 길을 거 의 메우어 버렸다. 악대소리가 어디서 울려 나오고 아이놈들은 어른들 다리 사이로 빠져 달음박질하고 있었다. 한잔 들어 불그스레한 젊은이들이 여자들 과 팔짱을 끼고 비틀거리며 지나갔다. 출판이 벌어진 가게집 뒷방에는 악사 들이 신이 나서 그들의

악기를 켜고 있었다. 쟁쟁은 소리는 악대들의 나팔소리와 어울려 창밖으로 퍼 져 나왔다. 이 탁음(濁音)은 젊은「윌라드」의 신경을 건드렸다. 어디를 가나 혼 잡하고 악동하는 생의 관념 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어디고 홀로 빠져나가 서 좀 생각을 해 보고 싶었다.『그녀가 그 작자와 있고 싶으면 있으라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는 이렇게 투덜거리며 큰 거리를 지나「헌」씨의 반찬가게를 돌아서 셋길로 들어섰다. 어쩔 수 없이 휘몰아치는 고독과 낙망으로「쥬오지」는 울고 싶었 으나 그는 궁지를 살려 팔을 휘저으며 걸었다. 그는「위슬리 모이어」씨의 마굿간 까지와 그늘에 숨어서서 사람들이 웅기 쯤기 모여 얘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 였다. 낮에 박람회에서 열린 경마에서「위슬리」의 종마인「토니」팀이 이긴 것에 대해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마굿간 앞에 모여 있었는데 그 앞으로 「위슬리」가 우쭐우쭐 거드럭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손에는 말채찍을 거머쥐 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노상 땅바닥을 치는 것이었다. 그럴 때 마다 등빛 아래 로 먼지가 뭉클뭉클 일어났다.

『이것 봐. 그만들 뒤. 난 조금도 겁나지 않았어. 난 늘 그놈들을 이겨 왔거든 조금도 겁나지가 않았어』

보통 때 같으면「쥬오지 윌라드」는「모이어」가 으스대는 것에 무척 흥미를 느 껴줄 것이겠지만 이번만은 화가 치밀었다. 그는 돌아서서 다시 거리로 나갔다.

『저 늙은 허풍선이! 왜 허풍만 떠는 거야? 잠시도 잠잠할 수가 없는 게지?』

「쥬오지」는 공터로 들어 가다가 어찌나 허겁지겁 하였는지 그만 쓰레기더미 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빈 통에 빠죽 나온 못 하나가 그의 바지를 찢었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욕지거리를 해댔다. 바늘을 꺼내어 찢어진 곳을 꿰매 고는 일어서서 다시 걸었다.

『헬렌의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할 일은 바로 그것이지』보고 싶어서 왔 다고 말해야지, 의젓하게 들어가서 앉아야 겠어 내가 할 일은 바로 그것이야. 그는 이렇게 다짐하면서 울타리를 넘어 달리기 시작했다.

× × ×

은행가「화이트」씨 맥「베란다」에서「헬렌」은 초조하고 산란하여 견딜 수 없었 다. 이제 그의 말에는 진저리가 나는 것이었다. 그도 역시「오하이오」읍 출신 이면서 서울내기인체 하는 것이었다.『우리학교 여학생의 대부분이 자라난 이 러한 고장의 배경을 연구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화이트」부인,

오늘 이렇게 박람회 초대에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헬렌」을 향하여 웃었다.

「헬렌」양은 아직도 이 마을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 흥미를 끝만 한 인물이라도 여기에 있어?』

소녀에게는 그의 말이 오만하고 불순하게만 들렸다.

「헬렌」은 벌떡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다. 뒷 뜰로 통하는 문에 서서 어머니가 하는 말을 들었다.

『여기에는 저 애 만한 인물에 상대가 될 만한 남자가 없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헬렌」은 집 뒤에 붙은 층계를 단숨에 뛰어내려 정원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 파묻혀 그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에게는 이 세상이란 것은 말만 늘어놓는 의미 없는 사람들의 소굴처럼 여겨졌다. 공연히 열에 들떠 그는 정원문을 지나 헛간통이를 돌아 조그만 옆길로 들어섰다. 『쥬오지! 지금 어디 있을까? 쥬오지!』 흥분된 마음으로 그는 소리쳤다. 그리고는 나무에 기대서서 한 번 히죽 웃었다. 그 때에 어두운 좁은 길을 따라 「쥬오지 윌라드」가 오고 있었다. 아직도 이렇게 뇌까리면서—.

『그녀의 집으로 으젓하게 들어가야지 곤장 들어가 앉아야겠어.』

그녀에게 다가오면서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그는 우뚝 멈추어 서서 어리둥절하여 바라보았다. 「이거봐!」 그는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고개를 떨어뜨린 채 그들은 길을 따라 나무 아래로 걸어 나갔다. 가랑잎이 발아래 밟혀 바스락 거렸다. 그녀를 막상 만나고 보니 「쥬오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와인스버그」장터 위쪽 끝에는 반 썩은 낡은 관람석이 있다. 「페인트」칠이라곤 통 한 일이 없어 판자는 뒤틀거려 있었다. 장터는 「와인 크리익」계곡에서 서서히 올라간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밤에 관람석에 앉으면 옥수수 밭 너머로 휘황찬란한 읍의 불빛이 하늘을 수놓는 것을 볼 수 있다.

「쥬오지」와 「헬렌」은 언덕을 올라 장터를 지나서 「위터웍스」연못을 지나는 길로 들어섰다. 혼잡한 거리에서 이 젊은이를 사로잡았던 고독과 고립감은 「헬렌」이 나타나자 명멸(明滅)하다고 느끼는 것은 또한 그녀에게로 전타되었다. 젊을 때에는 누구나 두 가지 힘이 내부에서 싸우는 법이다. 온순하고 생각 없는 동물의 기질이 반성과 추억의 기질과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나이를 먹어 갈수록 좀 더 세련된 어떤 것이 「쥬오지 윌라드」를 사로잡았다.

「헬렌」은 그의 감정을 알아차리면서 곁에 서서 걸었다. 관람석에 이르자 그들은 지붕 밑으로 기어 올라가 긴 「벤취」처럼 생긴 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매년 열리는 박람회가 끝난 날 밤에 이 장터에 들어 왔다는 것은 하나의 추억할 만한 무엇을 남겼다. 그 감정이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사방에는 영혼이 그것도 죽은 이들이 아니라 산 사람의 영혼이 둘러 있었다. 낮에는 사람들이 읍에서 시골에서 몰려들었다. 아내와 아이들을 거느린 농부들 토막집에서 나들이 나온 사람들이 이 판자 울타리 안에서 웅성거렸다. 젊은 처녀들은 킬킬 거리고 수염 난 어른들은 세상 얘기에 꽃을 피웠다. 장터는 삶으로 넘쳐 흘렀다. 그것은 삶으로 소용돌이치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밤이 되자 모든 삶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무서운 만큼의 침묵이 흘렀다. 무의미한 삶의 생각에 몸을 떨다가도 또 눈물이 쏟아질 만큼 열렬히 삶을 사랑하게도 된다.

감잡한 밤, 관람석 지붕 밑에 「쥬오지」와 「헬렌」은 나란히 앉아 있다. 그는 이 존재의 세계 가운데 차지하는 그의 미천함을 탄식했다. 이제 사람이 만 가지 일로 바쁘게 쏘다니며 초조해하는 읍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보니 후련해지기도 했다. 「헬렌」이라는 존재가 새삼 그의 힘을 돋구었다. 그녀의 여자로서 부드러운 손길이 마치 자기의 생활기계를 섬세하게 재조정 해주는 것 같았다. 그가 늘 경의의념을 가지고 살아온 마을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는 「헬렌」을 존경하였다. 그는 자랑하고 싶었고 또 그녀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 허나 그녀의 어른 티로 당황하고 싶지는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을 쥐었다. 그녀가 좀 더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바람이 일기 시작하고 그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온 힘을 다하여 그에게 들이닥치는 이 기분을 이해하고 간직하려고 했다. 여기 어둠속 언덕 위에는 피딱하리 만큼 민감한 두 인간 원자가 서로 꼭 부둥켜안고 기다려 보는 것이다. 서로의 마음에는 똑같은 생각이 흘렀다. (내가 이 외로운 곳에 와보니 여기 또 다른 이가 와 있구나)

와작거리던 날은 저물어 「와인스버그」에는 늦가을의 긴 밤이 깊어 가고 있었다. 지쳐버린 사람들을 실은 달구지는 시골길을 터벅터벅 지나갔다. 점원들은 길에 내 놓았던 상품들을 건어 들고 가게 문을 닫아걸기 시작했다. 「쇼」를 보려고 극장에는 관중들이 몰려들고 변화가로 더 내려가면 악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연상 악기를 켜서 젊은 이들의 흥을 돋우고 있었다.

「헬렌」과「조오지」는 관람석 어둠 속에서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들이 가끔 지키고 있던 침묵의 순간을 깨뜨리고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어슴푸레한 불빛에서 서로의 눈을 응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키스」했으나 그 감격적인 충동은 오래가지 않았다. 장터가 끝나는 윗 쪽에는 대 여섯의 남자들이 그날 오후 경마 대회에 나갔던 말들에 손질들을 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불을 지피고 주전자에 물을 데우고 있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다리만이 불빛에 비쳐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바람이 일자 불꽃은 미친 듯이 춤추기 시작하였다.

「조오지」와「헬렌」은 일어나서 어둠 속을 걸었다. 그들은 아직 걷어 들이지 않은 옥수수 밭을 지나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바람은 말라빠진 옥수수 잎 사이에서 속삭이었다. 「위터웁스」 언덕의 등성이에 이르자 그들은 나무 곁에 멈춰 섰다. 「조오지」는 다시 소녀의 어깨에 팔을 얹었다. 그녀는 그를 힘껏 껴안았다. 그리고 다시 그러한 감격의 충동에서 재빨리 물러나 버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키스」를 그치고 좀 물러섰다.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몽클 솟아났다. 그들은 어쩔 줄 모르게 어리둥절해 지기도 하고 또 청춘의 육욕으로 빠질 뻔 하다가 모면하기도 하였다. 한바탕 웃고는 서로 잡아끌기 시작했다. 그들이 빠져 버렸던 야릇한 기분으로 순화되어 남자와 여자로써가 아니고 또 소년과 소녀로서가 아닌 흥분된 작은 동물로 그들은 되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러하여 그들은 언덕을 내려왔다.

「헬렌」은 먼저 앞으로 달려가「조오지」를 넘어뜨리기로 했다. 그는 몸을 비비틀며 소리쳤다. 길길거리면서 그는 언덕 아래로 달려가고「헬렌」은 뒤를 따랐다. 한순간 그녀는 어둠 속에 멈춰 섰다. 여인으로서의 어떠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꿰뚫었는지 알 길이 없었으나 언덕 아래로 내려와 소년에게로 다가오자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의 걸을 걷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들은 이러한 침묵의 밤을 통하여 절실한 무엇을 얻은 것이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들은 현대사회의 성숙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것을 이처럼 일순간 획득해 보는 것이다.

의혹

박용구



『애, 누가 찾아왔다.』

미단이 밖에서 조심스럽게 전갈을 하는 어머니의 음성을 듣자 난주는 가볍게 숨을 몰아 쉬었다. 영조와 단둘이서 마주 앉아 있는 터에 누가 왔다는 것이 그리 반갑지 않았기에 서먹하도록 수줍던 터에 잠시 숨을 돌릴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시시 일어났다. 미단을 열기 전에 난주는 영조 쪽을 흘깃 돌아다보았고 영조는 빙긋이 웃어 보였다.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뜻밖에도 애라였다.

『어머! 어떤 일이냐?』

난주는 눈이 둥글 해졌으나 애라는 해쓱해진 얼굴에 새침한 웃음을 띠고 바라볼 따름이다.

『언제 올라왔니? 몸은 괜찮으냐?』애라가 산월이 되어서 친정으로 간다고 경부선을 탔던 일이 어제와 같아서 하는 말이었으나 애라는 역시 새침한 대답이었다.

『그게 벌써 언제냐…………』
 『그런가…………? 어쨌든 어서 들어와…………』
 성큼성큼 따라 들어온 애라는 방문 앞에 이르러 멈춰서었다.
 『누가 오셨구나…………』
 『괜찮아…………아는 분야』
 『그래?』
 영조는 난주와 애라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을 때 드나든 일이 있어서 서로 아는 터였다.
 『누구시라구…………오셨군요. 재미있게 이야기 하는데 방해할 뉘게 됐네요. ㅎㅎㅎㅎ』
 『애는…………』
 난주는 얼굴이 붉어졌으나 애라는 말과는 달리 서슴지 않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참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애라가 방안으로 들어오자 영조는 다시 인사를 차렸으나 애라는 역시 웃는 얼굴로 말을 던졌다.
 『언제 결혼하시죠?』
 『참 부군께서도 안녕 하십니까?』
 묻는 말에는 대답 않고 영조는 말머리를 돌렸더니 난주는 뜨끔하였다.
 『예.』
 짤막한 애라의 대답은 생기가 없었다.
 『참 아드님이었던가요?』
 『예.』
 『그것 반갑습니다. 첫 아드님을 보셨다니 축하합니다.』
 『…………』
 애라는 어쩐지 뜨악해지는 눈치더니 난주를 돌아보고 탄전을 부렸다.
 『언제 국수를 먹이려는 거냐?』
 『애는…………!』
 『그렇지 뭐나, 정해진 일을 너무 오래 끌지 않는 게 좋아…………』
 『몰라』
 얼굴을 화끈하게 하는 화제이긴 하였으나 애라의 일신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어서 다행 이라고 여겨졌다. 영조는 그저 애라가 시집가서 아이를 낳았다는 정도밖에는 모르는 터였다. 난주로서는 그 이상의 설명은 하지도 않았고 또 입에 올리기도 싫었던 것이다.
 애라가 사직하였을 때 사무실 안에는 애라가 누구의 첩이 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돌았던 것이다. 난주로서는 자기와 아무 관련도 없는 일이었으나 애라와 가까운 처지여서 공연히 수치스러움을 느껴야만 하였다. 그런지 얼마 후에 사무실에는 또 하나의 소문이 파다하게 떠돌았다. 즉, 애라의 집에 본부인이 와서 소동을 일으켰으나 결국 애라의 양탈과 성화에 못 이겨 본부인이 쫓겨 갔다는 것이었다.

그 후 사무실에서의 애라의 소문은 뜸해져 갔으나 애라는 드문드문 난주의 집을 찾았다. 난주는 애써 그 이야기는 피하면서도 무언지 석연치 않은 감을 금할 수 없었다. 더구나 애라가 새로 장만한 패물이나 의복을 자랑스럽게 보여줄 때는 흑시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앓았나 하는 의심이 들기까지 하였다.
 그러기에 애라에게서 해산하러 친정으로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상이 찌푸려졌었다. 이제는 첩 생활을 청산하기는 영영 글렀구나 하는 짐작이 갔기 때문이었다.
 공동되는 화제가 별로 없으면서도 셋은 제법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난주가 꺼내 놓은 트럼프라 좋은 구실을 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난 가봐야겠어…………』
 네 시가 넘자 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오래간만인데 더 놀다가 가지…………』
 『아냐 가봐야 해…………』
 『그럼 언제 또 올러구…………?』
 『서울에 왔으니 자주 올거야.』
 영조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듣다 팔목 시계를 보며 덩달아 일어났다.
 『나도 이제 나가봐야 겠군요.』
 『뭐 제가 간다고 같이 일어나실 것은 없지 않아요?』
 애라가 화사하게 웃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계시다가 난주하고 이야기나 하다가 가세요.』
 『아니 볼 일이 없습니다.』
 영조는 쭉스러워 졌는지 먼저 마루로 나갔다. 난주로서는 영조를 더 만류하고 싶었으나 애라 앞이라서 꼭 참았다.
 『그동안 변화가 많았어…………』
 뒤따라 마루로 나오면서 애라가 난주에게 귓속말을 하였다.
 『아기 난 것?』
 『아니. 그 외에도 말야………… 요 다음에 오거든 이야기하지…………』
 『응』
 아마도 애라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들렀다가 영조가 있어서 그냥 돌아가는 눈치였다.
 『그럼 또 와, 안녕히 가세요.』
 대문 밖까지 따라오는 난주는 두 사람에게 각각 인사를 하였다. 생각 같아서 전차정류장까지 나가고 싶었으나 역시 애라 앞이라서 참았다.
 『오늘은 방해만 놓고 가야…………』 애라는 핸드백을 흔들며 보이며 골목을 나갔고 좀 떨어져서 걷는 영조는 난주 쪽을 돌아보고 빙긋이 웃어 보였다. 난주는 대문을 닫고 들어오면서야 영조에게

요 다음은 언제 만날까 약속을 하지 않은 것이 서운해지고 애라의 탓으로 여겨져 미운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영조에게서 전화를 받고 자주 만나던 다방으로 나갔을 때였다. 커피잔을 각기의 앞에다 놓고 말없이 한동안 앉아 있다가 영조가 불쑥 뜻하지 않았던 말을 하였다.

『그 동안에 애라씨 놀러왔던가요…?』

『아아니요』

난주는 눈이 둥그래졌다.

『난주씨가 나보다 잘 아시겠지만……불쌍한 양반이더군요』

『누가요?』

『애라씨 말예요』

『예 ?』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난주는 벌어진 입이 닫아지지 않았다.

『그래 속아서 결혼을 하였다면서요? 감쪽같이 속아 본처가 있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런건 어떻게 아세요?』

『일전에 맥에서 나오는 길에 차를 한 잔 나누었는데 그때 그러더군요』

『……』

난주는 이맛살이 찌푸러지며 입맛이 써졌다. 애라와 영조가 전부터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으나 애라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고 느껴졌다. 뻔히 알면서 첩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속았다는 것은 무엇이며 또 영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은 무엇인가? 첩이라는데서 은근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영조의 말을 들으니 뻔뻔스럽게만 여겨졌다.

자기의 일신상의 문제를 수치로 여기지 않고 아무에게나 털어놓는 그 배짱이 놀랍다고 여겨졌다. 난주 자신은 벌써 영조와 몇 년째 사귀어 오나 아직껏 자질구레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언젠가는 결혼하게 되리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또는 구체 적인 앞날의 설계 같은 것은 논의한 적이 없었다. 그런 것을 말로 표현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조용하게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었던 것이다.

이제 한없이 애라가 천박하고 야비하게 보여지기만 하였고 그런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영조가 다시 쳐다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그런 난주의 마음을 모르는 영조는 영똥한 말을 계속하였다.

『그래 이번에 아주 그런 생활을 청산하기로 하였다나요……』

『……』

『언제고 깨닫는 것이나 결심은 늦었다는 법이 없으니 잘하였다고 격려하였지요』

『……』

이날 따라 난주는 커피가 쓰게만 느껴졌고

앉은 자리가 불편하였다. 영조와 같이서 영화관에 들어갔으나 얼른얼른하는 화면에 도무지 흥미가 가져지지 않았다. 애라는 속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택해서 그런 길로 간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었으나 난주는 헤어질 때까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것으로써 자기도 그런 식의 여인으로 보일 것이 싫었던 것이다.

이런 찌프드한 일이 있었기에 오늘 놀러가겠다는 전화가 애라에게서 왔을 때 난주는 그저 허공으로 대답하였을 따름이었다.

한 때는 자기가 출근하던 사무실에 오늘날 어떻게 전화를 걸 수 있었을까 하고 놀랍기만 하였다.

『나 그이 하고 헤어졌어……』

저녁에 집으로 온 애라의 첫 마디는 이런 말이었다.

『왜?』

영조에게서 들은 일이 있는지라 난주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내가 속았지 뭐냐. 이제는 글세 변변히 생활비도 대주지 않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글썸……?』

『……』

『더구나 아이는 데려다 기르겠다고 야단이지 않아……』

『그래서 다 귀찮아서 아이는 쥐버렸겠지……오히려 시원하게 됐어…… 거기다가 요새는 어떻게 인색해졌는지……이주 결말을 내버렸다니까……』

『……』

난주는 굳어진 얼굴로 바라보고 앉았기만 하였다. 애라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반자고 해주고 이제까지 가까이 지내왔다는 것이 후회스럽기만 하였다. 자기가 난 아이를 선뜻 줄 수 있다면 이번 일도 어떻다는 것은 짐작이 갈 것 같았다. 속은 것이 아니고 첩 생활이 계획적이었다면 이번에도 애라 쪽에 불만스러워 박찮음이 너무나 뻔한 노릇이었다. 남의 일같이 이렇게 태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도 짐작이 갔다.

그것보다도 난주의 가슴에 꺼림직한 것은 일전에 나가던 길에 영조와 더불어 다방에 들렀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어쩐지 그때 다방으로 먼저 들어가자고 먼저 권한 것은 애라 쪽이었으리라고 짐작되기만 하였다.

『참 너의 그이 있지……』

말 끝에 막상 애라의 입에서 영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난주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가슴이 내려앉았다.

『멋쟁이야……! 애, 어서 결혼해. 남자란 얼른 잡아 뒤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눈을 팔기 쉽거든……』

『……』

『호호호호』

애라는 간드러지게 웃는 것이었으나 난주는 외면이라도 하고 싶었다. 『프로포즈는 있었겠지? 어서 약혼이라도 해야지……누가 아나, 압전한 강아지 부뚜막에 먼저 올라 간다구 벌써 꿈꿨어 속은 다 차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못할 소리 없구나……』

난주는 참다 못해서 가로 막았다. 도저히 더 들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난주로서는 어서 애라가 돌아가 주기를 기다리는 마음뿐이었다.

애라는 얼마를 떠들더니 너무나 반응이 없어서 싱거워졌는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곧 돌아가는 전이 아니었고 거리에 나가서 저녁을 같이하자는 것이었다. 피곤해서 나갈 생각이 없다고 하였으나 막무가내였다.

저녁을 먹기 전 일출 뻗이 하는 터에 끝끝내 거절하기 어려워 내키지 않는 걸음을 따라 나섰다.

거리에 나와서 난주는 자기 자신에게 짜증이 났다. 이미 눈 밖에 난 애라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거절하지 못하고 뜻을 굽히어 따라 나왔는지 모를 노릇이었다.

『난 너무나 소극적이고 약한가 봐……』

이날 밤에 난주는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었다. 애라와의 대면에서 느낀 것이었으나 기실은 영조와의 관계가 문제였다. 가야 할 결론에 쉽게도 택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소극적이고 약하기 때문이라고 느껴졌고 애라의 말따나 느닷없는 일이 일어날까봐서 걱정이 되지 않는 바도 아니었다. 이러한 난주의 의심은 영조를 만날 때마다 짙어져 갔다. 영조는 자주 애라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다. 그리고 언제나 무척이나 동정하는 투의 말이었다. 난주로서는 불쾌하기만 하였으나 한 번은 용기를 내어서 쏘아 주었다.

『관심이 많으시군요』

『뭘. 관심이랄 것까지야 있나요』

영조는 쑥스럽게 웃으면서 얼버무리더니 금방 이렇게 덧붙였다.

『난주씨의 친구니까……아니 나보다는 난주씨가 관심이 있을 터인데 내가 지나쳤나요?』

난주는 못마땅하게 영조를 쳐다 보았다.

『언제 만나셨나요?』

넘겨짚고 하는 말이었다.

『한 나흘 되나요……? 지나가는 길이라면서 점심시간에 회사에 들렀더군요』

『……』

아무렇게나 넘겨짚고 한 말이었으나 난주는 성큼하였다.

『그동안 난주씨한테 들리지 않았던가요?』

『아아뇨』

물론 가지 말라는 법도 없겠으나 애라가 영조 회사를 찾아가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터였다. 난주는 한동안 뻗이 영조를 쳐다보았고 영조는 담배 연기를 뿜어내기만 하였다.

그런 후로는 난주 쪽에서 먼저 영조에게 전화를 걸지는 않았다. 도무지 마음이 내켜지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영조 쪽에서 전화가 걸려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었다.

영조 쪽에서 전화가 오기는 일주일쯤 후의 일이었고 막상 수화기를 드니 가늘게 손이 떨리었다.

『오늘 저녁에 틈이 있나요?』

『에 왜요?』

『오랜만에 영화구경이나 갈까 하구요』

『어느 극장인데요?』

난주의 입가에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번지었다.

『H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 우리 그 다방에서 만나기로 하지요』

언제나 만나는 다방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에』

『애라씨도 나오기로 했으니까요……셋이서 가지요』

『……』

난주는 귀에 대었던 수화기를 소스라쳐 떼고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애라라는 이름이 등골에 소름을 끼치게 하면서 급시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까지 하였다. 힘없이 손에 든 수화기에서는 연방「여보세요」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렸다. 잠시 수화기를 내려다보던 난주는 내동댕이치듯 수화기를 놓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동안에도 영조는 애라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 자기에 게 전화 걸기 전에 먼저 애라와 약속이 되어 있었다는 것, 이런 생각이 뒤범벅이 되어서 머리를 아프게 하였다.

『누가 거기를 가야』

난주는 입술을 꼭 깨물었고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퇴근하여 난주는 다방으로 가지는 않았다. 그쪽은 바라보지도 않고 무거운 걸음을 떼어 놓았다. 그러나 몇 발을 옮겨놓기 전에 우뚝 멈춰졌다.

『내가 가지 않으면 둘이서만 갈 것인가?』

도대체 영조와 애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의혹>

이렇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 올 때 다방으로 가서 애라와 영조가 마주 앉아 있는 꼴을 보고 싶기도 하였다. 아니 그것보다도 차라리 H 극장 앞에서 숨어 있다가 돌이 나란히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이 결국 무슨 효과가 있으며 무엇을 위한 행동일까? 거기까지 추궁해 봐야 하는 자기의 꼴이 가엾게 여겨져서 난주는 이를 악물고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도 뜨는 등 마는 등 일찍 자리에 누웠으나 잠이 올 리 없었다.

『고것은 꼭 남의 첩 노릇 하기에 알맞게 되어 먹었다니까……』

생각할수록 애라가 미웠고 영조에게 이제껏 속아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착각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었다고 소리 내어 자신에게 다짐하여 보기까지 하였다.

애라와 영조에 대한 의혹은 내내 난주를 잠들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영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쩐 어쩐 일예요?』

대답할 기운도 없이 난주는 그냥 물러앉았다.

『어디가 불편한가도 생각하여 보았으나 전화를 끊는 서슬로 보아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가드군요』

『……』

『오늘 전화를 걸까 하였으나 직접 만나는 것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난주는 시선을 떨어뜨린 채 깎아 세운 듯 움직이지 않았다.

『겨우 짐작이 가는 것은 나와 애라씨 사이를 오해하고 있는 듯한데 이것은 어디까지가 오해라는 것을 단언하지요. 어제는 난주씨의 행동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커서 다방으로 나가지도 않고 회사 자기 자리에 앉은 채 한동안 생각에 잠겼었지요. 곧 이리로 올까도 생각 되었지만 격해 있을 때이면 조리를 따져서 설명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온 거예요』

『……』

난주는 눈을 들어 영조를 바라보았다. 영조의 얼굴은 맑았고 엄숙하기까지 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난주는 그 얼굴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려는 듯 찬찬히 바라보았다. 자기가 오해를 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영조는 다방에 나가질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과연 영조는 애라와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그곳에 나가지 않았을까? 혹은 같이 H 극장까지 갔으면서도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혹>

『난주씨』

『……』

난주는 쳐다보던 시선을 다시 떨구었다.

의혹, 차라리 어제 다방으로 갔었다면 돌이켜 마주 앉았는지 애라가 혼자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H 극장 앞에서 숨어서 기다렸다면 돌이켜 나란히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늘의 영조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판가를 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애라와 영조의 사이를 꺼리던 의혹이 풀리기는커녕 새로운 의혹이 다시 하나 생긴 것이다. 영조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분간 못하는 의혹이……

『그렇게 오해할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애라씨와의 접촉을 안했을 것인데……그저 난주씨의 친구니까……그리고 난주씨에게 모두 속임없이 알려드렸는데 오해를 하다니……』

『……』

어처구니없다는 투의 말이었다. 난주는 그 말에 다소 의혹이 풀리기는 하였으나 개운하지는 않았다.

영조와 자기 사이에는 메우기 어려운 구멍이가 생긴 것이다. 그것이 메워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리라. 아니 영조와의 결혼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그 의혹은 내내 풀리지 않고 남을지도 모를 노릇이다.

언젠가 생각한 자기는 너무 소극적이고 약하다는 느낌이 다시 한 번 가슴에 가득 찼다. 그런 소극적인 것이 의혹을 의혹으로 남겨두게 된 것이다. 더욱이 오늘의 영조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은 영조에 대한 이제까지의 태도에까지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오해는 풀시다』

『예』

난주는 간신히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도무지 힘이 없었다. 의혹의 구름은 걷히지 않고 남아있는 대로의 대답이었다.

× × ×



밝혀진 등불

이종덕

물론 세상사에는 양면이 있는 것이다. 그 제 이면을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우리들은「숍걸」(Shop girl=여점원)이란 말을 가끔 듣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은 존 재하지를 않는다.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거기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제서 그들의 직장이 형용사로 나붙어야 하는나 말이다. 공평 하게 생각해 볼 일이다. 5번가의 주택지에 사는 여자들을「결혼녀」(Marriage-girl)라고 부르지는 않는 게 아니냐.

「루」와「낸시」는 학교 동창이었다. 고향에서 돈벌이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도 회지로 나와 직장을 구하는 판이었다.「낸시」는 열 아홉,「루」는 스무살로써 둘 모두 예쁘고 활발한 시골 처녀였으나 그렇다고 배우가 되고

<밝혀진 등불>

싶은 욕망은 조금도 없었다.

하느님이 도우셨는지 값싸고 그럴듯한 하숙집을 그녀들은 얻어들었다. 그리고 직장을 얻어서 월급쟁이가 되었다. 그로부터 여섯 달이 지난 오늘, 나는 독자 여러분을 그들에게 소개코자 하는 것이다. 자—독자 여러분 여기 제 여자 친구,「낸시」양과「루」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악수를 하는 동안 조심스레 그녀들의 옷맵시를 살펴보시기를 그녀들은 곡마단의 특별 지정석에 앉은 숙녀만 큼이나 자기네를 살펴보는 것에 화를 낼 것이다.

「루」는 세탁소의 다림질 꾀이다. 어울리지 않는 자줏빛 양복에다 모자 깃은 또 넷 꾀이나 길쭉하다. 하지만「아아민」가족 토시와 목도리만은 이십 오불짜 리다. 그녀의 뺨은 불그스레하고 푸른 눈은 빛난다. 만족감 비슷한 어떤 것이 그녀로부터 풍겨 나오는 것이다.

「낸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습관이 붙어 있으므로 그녀를「여점원」이라고 부를 것이다. 거기에는 틀(罎)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허나 괴팍한 현 세대는 자꾸 틀(罎)을 추구하려고 들므로 어차피 그것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녀는 뒷머리를 바짝 올려 부치고 앞머 리는 지나치게 일직선으로 다듬었다. 치 마는 값싼 모직물이지만 멋있게 퍼져있다. 아직 쌀쌀한 봄 날씨인데도 털목도 리 하나 들르지 않았지만 짙막하고 품 넓은「자켓」을 마치「페르사」산 양가죽 이나 되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걸치고 있는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나 눈동자에는 전형적인 여점원이 냉혹한「타입」추구적 기질이 어려 있다. 그것은 잔잔한 것 같지만 실은 무위의 여자 기질에 대한 오만한 항거인 것이며 또한 닥쳐올 복수의 서글픈 예언이기도 한 것이다. 그녀가 깔깔거리고 웃을 때에도 그 기 질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 그것은 남성을 뇌살 시켜야만 되는 그 러한 것이다. 그러나 남성은 그 앞에 저 능글맞게 웃고 또 거기에다 꽃다발까 지 바치는 법을 알아 왔다.

이제 독자 여러분께서「또 뭘겠어요」라는 쾌활한「루」의 인사를 받고 또 좀 섬 섬한 눈치를 보이면서 흰 나방이모양 펄쩍펄쩍 날뛰는「낸시」의 냉소적이면서 달콤한 미소를 보셨거들랑 모자를 드시고 자리를 뜨십시오.

<밝혀진 등불>

그 두녀는 길모퉁이에 서서「댄」을 기다리었다.「댄」은「루」의 착실한 남자 친구인 것이다.

『출지 않니,「낸시」?』「루」는 말했다.

『이봐, 일주일에 겨우 팔불 벌려고 그 낡아빠진 상점에서 일하고 있으니 그거 얼마나 바보짓이냐? 물론 다리미질이란 것이 계산서 뒤에 서서「레이스」를 파는 일만큼 멋진 것은 아니겠지. 하지만 그만한 댓가가 있거든 우리들 중에 십불도 못 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일이란 게 그렇게 천한 것두 아니구말야.』

『너는 그럴테지, 난 한 주일에 팔불짜리를 버틸테야. 값진 물건들과 대단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난 더 좋아. 그리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은 기회를 내가 얻었는가를 장갑과는 애의 하나는「피츠버그」의 철광업자와 결혼해서 백만장자가 되었던 말이야. 나도 언젠든 한번 땡을 잡을 꺼야. 난 지금 내 걸 치레를 허풍 떠는 게 아니야. 행운이 깃들 기회를 붙잡으려는 것이야. 너희들은 세탁소에서 무슨 뽀족한 수가 있다니?』

『왜 없니? 「댄」을 만난 곳도 거긴데』

「루」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는 일요일 사쓰와 칼라를 다리려고 들어와서 내가 일번 대(臺)에서 다리미질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말야. 우리들은 일번 대에서 일하려고 모두 애쓰고 있어.「엘라」가 그날은 아팠거든. 그래서 내가 대신 그 애 자리에 갔던 거지. 그이가 말하는데 자기는 얼마나 통통하고 흰 팔이나 하고 첫 눈에 내 광에 눈독을 들였다는 거야. 난 소매를 걷어 붙이고 있었지. 멋진 양반들도 가끔 세탁소에 들어오지. 옷을 옷상자에 넣으라는 둥 문을 광 잡아당기라는 둥 그들과 얘기할 수도 있어.』

『넌 어쩌면 이런 조끼를 입고 있니.「루」야? 이걸 아주 보기. 사나운데.』「낸시」는 두꺼운 눈가풀에 경멸의 빛을 띠고 조끼를 내려다보면서 말하였다.

『이 조끼 말이야?』

<밝혀진 등불>

「루」는 화가 치밀어 눈을 활짝 뜨면서 지껄었다.

『이거 십육불 주고 산 거다. 원은 이십 오불짜리지. 어느 부인이 세탁해 달라고 이걸 가져왔어. 헌데 찾아 가지를 앓았어. 그래 주인이 내게 팔았지. 이것은 온통 손으로 수(繡) 놓은 것이야. 네가 입고 있는 그 불품없고 천한 거나 얘기하는 게 더 나올꺼야.』

『이 불품없고 천한 옷은 말이야.』

이번에는「낸시」가 침착하게 대꾸하였다.

『그래봐두「반 알스타인 핏셔」부인이 입고 있는 옷 중에서 본뜬 거라구. 작년 그녀의 백화점 계산서는 일만 이천불이라고 하드군. 이 옷은 내가 손수만 들었지. 일불 오십 센트 들었어. 암만 바짝 닦아서 봐도 년 그녀의 것과 이것을 분간할 수가 없지.』

『아 그래………………』

이번에는「루」가 상냥하게 말하였다.

『만일 굶어 죽으면서도 허풍을 떨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난 내 일터와 샅돈을 취하겠어. 너는 이제 얼마 뒤에 내가 살 수 있는 멋진 물건이나 내 놓아라.』

바로 그때「댄」이 왔다. 그는 기성(既成)「넥타이」를 맨 좀 신중한 청년으로 도회지의 경박한 분위기를 초탈한 사나이였다. 전기 기술자로서 주(週)당 삼십불을 벌었다. 그는「로미오」와 같은 서글픈 눈으로「루」를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수가 놓인 그녀의 조끼를 파리들이 기꺼이 뛰어드는 거미줄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오웬스」씨「덴포드」양과 악수하세요.』

「루」가 말하였다.

『당신을 알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덴포드」양「루」에게서 당신 얘기 자주 들었습니다.』

「댄」이 말하였다.

『감사합니다.「루」가 당신 얘기하는 거 저도 많이 들었어요.』

<밝혀진 등불>

「넌시」는 차가운 손가락 끝으로 그의 손가락을 쥐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루」는 낄낄거렸다.

『너「반 알스타인 핏서」부인에게서 그런 악수 배웠니, 「넌시」야?』

그녀는 물었다.

『내가 만일 그랬다면 넌 그걸 모방하려고 할테지?』

『오 난 그런거 해보지 않았어. 그건 내게는 너무 낮은 것이야. 그런 고급 악수에는 보석 반지가 필요하지. 몇 개 살 때까지 기다려. 그때에 한 번 그런 악수 해보지.』

『먼저 배워둬. 그러면 반지도 더 쉽게 생길 테지.』

「넌시」가 빈틈없이 말하였다.

『자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까.』

라고「넌」은 협쾌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다.

『두 분을「타파니」의 연극에 모실 수는 없고……, 짝막한 희극에 가는 것 어떻습니까? 표도 있는데요. 진짜 보석 반지를 낀 손과 악수할 수 없는 처지이고 보니 무대 위에 번쩍 이는 보석들을 바라보는 건 어떠하신지?』

이 충실한 신사는 맨 가장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루」는 공작새마냥 뽐내면서 그 곁에 앉고, 참새마냥 검소하고 수수하게 차린「넌시」는 그 안쪽에 자리를 차지했다. 하지만 그녀는「반 알 스타인 핏서」부인의 걸음걸이를 잊지 않았다. 이리하여 그들은 검소한 오후의 유흥에 잠기는 것이었다.

대 백화점을 교육기관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고는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넌시」가 일하고 있는 백화점은 그녀에게 하나의 교육기관인 것이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에서는 아치(雅致)와 정련(精鍊)이 풍겨 나오고 있다. 당신이 만일 사치품(奢侈品) 속에서 살아간다면 당신이 돈을 내고 사든 다른 이가 사든 그것은 당신의 것이다.

그녀가 접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부녀자로서 그들의 의상이나 태도나 사회적 신분은 표준형으로 알려져 있다.「넌시」는 자기 의견에 따라

<밝혀진 등불>

가장 좋은 점을 그들 하나하나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느 여인으로부터는 행동이나「제스츄어」를, 또 다른 여인으로부터는 눈썹을 치키면서 하는 웅변술을 배우며, 또 어느 여인으로부터는 걸음걸이랑 지갑을 지니는 방법·미소 짓는 법·친구와 인사하는 법 또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과 이야기하는 법 등을 모방하는 것이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모델」인「반 알스타인 핏서」부인에게서는 부드럽고 낮으면서도 은(銀)처럼 명확한 음성과 완전한 발음을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상류사회의 세련과 예의범절에 젖어들므로 그녀가 그 영향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좋은 습성은 이론보다 더 낫다는 말과 같이 아마 좋은 태도나 행동 양식은 습성보다도 더욱 좋은 것이다. 부모가 가르친다 하더라도 순 교도의 양심은 당신 속에 살아 있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당신이 깨끗한 나무 의자에 앉아서「프리즈름과 필그림」이라는 말을 마흔 번만 외운다면 악마는 당신에게서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와 같이「넌시」「반 알스타인 핏서」의 음성으로 이야기할 때면 그녀는「귀족 신 분적 의무감」을 뻗속 깊이 느끼는 것이다.

이 거대한 백화점 학교에서는 또 다른 배움의 원천이 있었다. 셋 혹은 넷씩 떼를 지어 모여서 여점원들이 시시한 얘기에 맞추어 쇠장끼를 짤랑거리는 것을 보더라도 당신은 그들이 무슨 뒷머리 틀어 올리는 법을 쑥덕거리려고 모였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비록 그 회합이 남성에 대한 토론의 권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아담」으로 하여금 가정에 있어서의 그의 적당한 위치를 알아차리도록 하기 위해「이브」와 그 만딸이 머리를 맞대고 소곤소곤 하였던 그러한 중대한 사태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무대와 남성과 관중들로 이루어진 세상에 대한 공격과 반격에 대해 공동방위와 전략 이론을 교환하는 부인회」인 것이다. 하지만 사슴의 우아함을 지녔으면서 그 신속함을 갖지 못했으며, 새와 같은 아름다움을 지녔으며 그 날으는 힘을 갖지 못했고 또 꿀벌처럼 달콤한 것을 지녔으며……아, 이러한 직유는 집어 치우시다. 우리들 중에 누가 쓰였을지도

<밝혀진 등불>

모르니까. 여하튼 이렇듯 동물 가운데 제일 무력한 것이 여인.

이 전략 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그녀들은 무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또 각기 생활 전술에서 창안 형성한 책략을 교환하는 것이다.

갈색, 흑색, 황갈색, 붉은색, 황색등의 머리들이 모이고 그러면 문제는 해결된다. 공통의 적인 남성과의 전투에서 각자가 앞으로 이용할 기습에 대한 회피책이 마련되어지는 것이다.

이렇듯「넨시」는 방위술(防衛術)을 배운다. 물론 여인에게는 성공적인 방위가 승리를 뜻하는 것이다.

백화점의 강의 과목은 다방면에 걸쳐 왔다. 어떠한 대학이라도 행운의 결혼을 꿈꾸는 그녀의 야망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백화점에서의 그녀의 자리 또한 마음에 드는 곳이다.

음악 감상실이 가까이 있어서 유명한 작곡가의 작품을 늘 들으며 거기에 정통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몹시도 발붙이려고 애쓰고 있는 사교계에서도 그 진가(眞價)가 인정되는 것이다.

다른 소녀들은「넨시」의 야망을 곧 알아차렸다. 그럴듯한 남자가 그녀의「카운터」에 다가올 때마다 그들은 그녀를 부르는 것이었다. 『애,「넨시」야, 네 백만장자가 오신다.』부인들이 물건을 사는 동안 그들의 남자들은 보통 손수건부 근방을 어슬렁거리는 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 있다. 교양이 높은 체 꾸미는데다가 우아한 미를 지녔으니「넨시」가 인기를 끌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므로 못 남자들이 그녀의 앞에 와서 호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어떤 이는 정말 백만장자일 테지만 백만장자인체 기가 막히게 꾸미는 사람도 많았다. 「넨시」는 이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다. 손수건부「카운터」끝으로 창이 하나 있어서 길에 줄지어 있는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의 차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주인에 따라서 그 자동차도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알아차리게 되었던 것이다.

한번은 멋쟁이 신사 한 분이 네「타스」나 되는 손수건을 사더니「카운터」

<밝혀진 등불>

사이로 그녀에게 치근거리 왔다. 그 남자가 가버리자 한 소녀가 말하였다.

『아니, 그 양반한테 쌀쌀하다니,「넨시」야 너 웬일이냐? 내가 보기엔 멋있던데』
『그이가?』「넨시」는 냉소적이면서도 달콤한「반 알타스타인 핏셔」부인의 미소를 지으면서 대꾸했다.

『내 것은 못되. 그가 운전 하는걸 밖에서 본적이 있지. 자동차도 엉망인데다가 「아일랜드」태생의 운전자야! 더군다나 어떤 손수건을 사갔는지 너도 봤잖아? 명주 손수건! 권하려면 좀 똑똑한 걸 권하구, 그렇잖음 그만뒀 제발』

백화점 안에서 가장「세련된」여인으로서 문전안내인(門前案内人)과 출납계 여인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멋진 신사친구」가 몇몇 있어서 가끔 함께 식사를 나누곤 하였다. 한 번은「넨시」를 자기들 초대에 데리고 갔었다. 그것은 일류의 카페였는데 식탁은 벌써「신년축하 파티」를 위해 예약되어 있었다. 두「신사친구」중의 하나는 고등생활 덕택에 머리에 는 머리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친구였고 또 하나는 자기 재산과 됴됨이를 두 가지 그럴 듯 한 방법으로 들어내려는 젊은 친구였다. 즉 그는 술이란 술은 모두「콜크」마개를 하였다고 욕지거리를 하였으며 또 보석「카프스」단추를 달고 있었다. 이 젊은 친구가「넨시」에게 훌쩍 반해버렸다. 그는 원래 여점원에게 취미를 갖고 있었는데 여점원이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매력에다가 자기와 같은 상류사회의 음성과 태도를 갖들인「넨시」가 나타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다음날 이 신사는 백화점에 나타나서「아일랜드」산「린넨」손수건 상자 너머로 그녀에게 신중한 청혼(請婚)을 하였다. 「넨시」는 거절하였다. 갈색 트레머리 처녀 하나가 멀찍이서 이 광경을 보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신사가 거절당해서 가버리자 그 처녀는「넨시」그에게 일장의 혼시를 퍼부었다.

『이 매친 꼬마 바보야! 그 양반은 백만장자야! 「반 스키티스」노인의 친조카거든 그리고 아까는 정색으로 얘기하던데 너 미쳤니,「넨시」야?』

<밝혀진 등불>

『내가?』

「넌시」가 말하였다.

『난 응낙하지를 앓았던 거지— 그는 절대로 백만장자가 못돼. 집에서 그에게 쓰라고 주는 돈은 일년에 이만불 밖에 안 되거든. 그 대머리 양반이 그걸 가지고 며칠 전날 밤에 그에게 놀렸던 거야.』

갈색 트레머리 처녀는 한 발자국 더 다가오면서 눈살을 찌푸렸다.

『넌 도대체 뭘 바라는 거야? 그게 너에게 너덕지 못하다는 거야? 일부 다쳐 주의자가 되어서 「릭페러」와 「그랫든스론두위」 그리고 서반아의 왕과 결혼할 셈이냐? 일년에 이만불이 네게는 부족 한거야?』

「넌시」는 천박한 눈동자들의 주시를 보고 다소 얼굴을 붉혔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캐리」야』

그녀는 설명했다.

『언젠가 저녁식사를 나누면서 그는 지독한 거짓말을 한 탓으로 그이의 친구에게 다가세웠었지. 난 거짓말쟁이는 못 참어. 모든 면에서 난 그이를 좋아 안해. 그거지. 난 한 몫 보려고 노리고 있지만 그건 장난감 건반처럼 소리 내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일 수 있는 거야.』

이 콧대 높은 생각을 「넌시」는 주당(週當) 팔볼로써 키워나가는 것이었다. 말라빠진 빵을 먹으며 매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그녀는 「한몫」이라는 알 수 없는 행운을 그리면서 지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숙명적인 「남자 탐색가」다운 핏기 없으면서 늙름하고 또 달콤하고도 냉엄한 미소가 어리는 것이었다. 백화점은 그녀의 사냥터이어서 여러 번 그녀는 뿔이 크고 큼직한 듯한 사냥감에 총을 겨누는 것이었으나 여 사냥꾼의 아니 여자로서의 실수 안 하려는 본능 때문에 늘 그녀는 총을 못 쏘고 다시 수색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세탁소에서 일하는 「루」는 꽃이 피었다. 일주일에 십 팔볼 오십전 받는 것에서 하숙방 값으로 육불을 낸다. 그 나머지는 주로 옷 사는데 나간다. 취미나 몸가짐을 향상시키는 기회는 「넌시」에 비해 적었다. 김이 서린 세탁소에는

<밝혀진 등불>

일 밖에 없었다. 일과 저녁 때 즐길 생각뿐이었다. 값 나가고 그럴듯한 많은 천들이 그녀의 다리미 밑을 거쳤다. 옷에 대해 그녀가 취미를 더 해가는 것은 아마 이러한 덕택에서일 것이다.

하루 종일의 일이 끝나면 「덴」은 밖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가 어떠한 불빛에서든지 충실한 그녀의 그림자가 되었다.

그는 가끔 정직하고도 난처한 눈으로 요란한 「루」의 옷을 바라보는 것이었으나 이것이 불신(不信任)은 아닌 것이었다. 그는 길거리 위 사람들이 그녀에게 던지는 눈총을 피했으면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루」도 그에게 그만큼 성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소풍을 갈 때에는 언제나 「넌시」도 그들과 함께 가야 된다는 법칙을 세웠다. 「덴」은 그 커다란 경비를 기꺼이 부담하였다. 날씬하지만 기성복 기성 「넥타이」에 실수를 모르는 온화한 기지(機智)를 가진 이 호위병은 흥분하거나 충돌할 줄을 몰랐다. 그는 빠대가 없는 온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 앞에 있는 동안은 있는지 없는지 잊어버릴 정도고 그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야 분명하게 기억되는 그런 사람이었다.

고답적인 「넌시」의 기질로서는 이 꾸어온 듯한 쾌락이 가끔 괴로운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젊었다. 젊은이는 미식가가 될 수 없는 바에는 차라리 대식가가 되는 것이다.

『「덴」은 내가 자기와 곧 결혼해 주가를 늘 바라고 있어. 하지만 내가 왜 그래야만 되느냐 말야. 난 지금 독립해서 살아나갈 수 있지 내가 벌어서 돈을 쓸 수 있다면 결혼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는 결혼 후에 일하라고 내버려두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넌시」야, 넌 어찌자구 그 낡아빠진 백화점에 딱 붙어 있는거냐? 반은 굶고 옷도 제대로 못 입으면서 네가 오기만 한다면 난 세탁소에 네 일터 하나를 곧 얻을 수 있어. 돈 좀 벌어 보면 네 콧대도 좀 알아지리라고 나는 보는데.』

『네 콧대가 세다고 난 생각지 않아.』 _

「넌시」가 말하였다.

<밝혀진 등불>

『하지만 반 굶더라도 난 백화점에 그대로 있을 테야. 언제나「카운터」뒤에만 서 있으란 법은 없지. 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 늘 세련되고 돈 많은 사람과 상대하고 있는 거야. 내가 비록 그들 시중을 들고 있는 것뿐이긴 하지만. 난 내 결을 지나가는 어떠한 것도 놓치지 않고 있어』

『아직도 백만장자를 낚으려는 거야?』

하고「루」는 웃으면서 물었다.

『아직 하나도 고르지는 못했지만 대개 물색하고 있는 중이야』

「낸시」의 대답이었다.

『갑소사! 그들을 물색한다는 생각을 하다니! 물론 넌 농담하는 거겠지.

백만장자는 우리와 같은 직업여성만 생각지도 않아』

『그들이 생각지도 않는다면 정말 그들을 위해 좋은 일 일꺼야』

「낸시」가 말하였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돈 간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 거야』

『만일 백만장자가 내게다 그런 얘기를 건다면 난 까무러칠 꺼야』

하며「루」는 웃었다.

『그런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 탓이지. 멋쟁이와 보통 사람과의 차이는 단지 네가 멋쟁이를 좀 더 가까이서 보아야 한다는 것뿐이지. 그 붉은 속옷은 그 양복에는 너무 밝은 색이라고 생각 안 돼,「루」야』

그러자「루」는 친구의 천하고 어두운「오리버」씩「자켓」을 바라보았다.

『아—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해. 하지만 너야말로 이렇게 물 낚은 옷을 걸치고 있구나』

『이「자켓」은 지난번에「반 알스타인 핏셔」부인이 입고 있던 것과 똑같이 본뜬 거라구. 감 사는데 삼불 구십 팔전 먹혔어. 그 여자의 감은 백 달러도 넘을꺼야』라고「낸시」는 흐뭇해서 이야기했다.

『아 그래! 그런데 그건 아까 말한 백만장자 일만큼 놀라운 일은 아닌데

<밝혀진 등불>

너보다 내가 먼저 어떻게 하든 하나 잡아 팬다면 놀라운 일 일테지』

이 두 친구가 내세우고 있는 이론의 가치를 판정 하는데는 정말 철학자가 있어야 될 판이었다. 적나라한 생을 위해 일하는 처녀들로 들끓는 백화점에 담겨 있는 오만이나 괴팍스러운 것은 없다 하더라도「루」는 떠들썩하고 숨 답답한 세탁소 안에서 그녀의 다리미와 더불어 즐겁게 살아나가는 것이었다. 그녀의 수입은 안락의 지경에까지 그녀를 뒷받침해 주었다. 그녀는 가끔「댄」의 미끈하지만 풍채 없는 옷을 못마땅하게 결눈질로 보는 것이었다. 「댄」은 언제나 한결같고 변함없이 탈선을 몰랐다.

「낸시」로 말하면 이것은 생판 달랐다. 비단 보석「레이스」, 장식품, 향수, 음악 등 교양과 취미의 물건들은 여가를 위해서 있는 것으로 그녀의 몸에 골고루 배어 있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것들이 그녀 생활의 일부라면, 그리고 그녀가 또 원한다면 그녀를 그것들과 가까이 있게 내버려두자.

이러한 분위기에「낸시」는 과묵히 있었다. 그녀는 그 가운데서 성장하였다. 마음을 굳게 먹고 만족스럽게, 보잘것없는 식사를 하고 값싼 옷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미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동물과 다름없는 남성에게 해 연구하였다. 앞으로 언젠가 그녀는 자기가 원하는 사냥감을 쏘아 떨어뜨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가장 크고 좋은 것 조금도 적지 않은 것이기를 그녀는 다짐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 그녀의 등잔불 심지를 자르고 거기에 불을 켜는 것이었다.

그러나 또 다른 교훈을 그것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배웠다. 그녀의 가치기준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가끔「달러」표지가 그녀의 마음의 눈을 흐리게 하고「진리」나 「명예」나 또 가끔「친절」과 같은 글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비슷한 예를 들어 보자. 울창한 숲에서 큰 사슴을 사냥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는 이끼끼고 나무잎이 울창한 골짜기를 발견한다. 거기에는 작은 냇물이 졸졸 흐르면서 그에게 쉬어서 놀 것을 조잘거린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위대한 사냥꾼의 창날이 저절로 무디어져버린다.

<밝혀진 등불>

그래서「낸시」는 가끔「페르샤」의 양털이란 것도 그것을 입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세가 매겨지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것이었다.

어느 목요일 저녁「낸시」는 백화점을 나와 육번가를 돌아서 세탁소로 향하였다. 「루」와 「댄」과 함께 음악소극에 가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세탁소에 이르자 마침「군」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참이었다. 의아하고 긴장된 모습이 그의 얼굴에 어려 있었다.

『그녀에게서 무슨 말을 들었나 하고 이웃을 둘러보려고 하는데요』라고 그는 말하였다.

누구의 말을요...「루」가 거기 없어요?』

「낸시」가 물었다.

『당신은 알리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여기도 안 나오고 살던 집에도 없었대요. 그 집에서 짐을 몽땅 옮겼어요. 아마 구라파에 갈지 모르겠다고 세탁소의 한 처녀에게 말했었는데』

『아무도 그를 못 보았대요?』「낸시」가 물었다.

「댄」은 그의 턱을 무섭게 당기고 검은 눈에 광채를 내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탁소에서 말들을 하는데—』

그는 무뚝뚝하게 이야기했다.

『그녀가 어제 자동차를 타고 지나는 것을 보았다는 거요. 백만장자와 함께 당신과「루」는 머리를 언제나 바쁘게 써먹는단 말이요』

생전 처음으로「낸시」는 남자 앞에서 떨었다. 파르르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댄」의 소매에 얹었다.

『당신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권리가 없어요.「댄」마치 내가 거기에 관련이나 있는 것처럼 말이예요』

『아 그런 뜻에서 말한 게 아니죠』

「댄」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조끼 주머니를 더듬었다.

<밝혀진 등불>

『오늘밤의「쇼」표가 여기 있는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엽게소리 이야기했다.

『만일 당신이 원하신다면—』

「낸시」는 언제나 용감한 대담성 앞에서는 꼼짝없이 찬탄을 말하는 것이었다.

『함께 가겠어요,「댄」하고 그녀는 말하였다.

『이 꼬마 바보야!』

「루」가 크고 다정스럽게 소리쳤다.

『네가 아직도 그 백화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구나. 전과 똑같이 초라하게 소리. 아니, — 한뭉 보려던 것 어찌 되었누? 아직 안 걸려 들은 게로구나, 그렇지?』

그러나「루」는 황재보다 더 좋은 어떤 것이「낸시」에게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보석보다 더욱 빛나는 것이 그녀의 눈 속에 깃들고 장미꽃보다 더 붉은색이 그녀의 뺨에 어려있으며 또 그녀의 허끝에서 곧 튕겨나올 것 같은 어떤 것을「루」는 알아 차렸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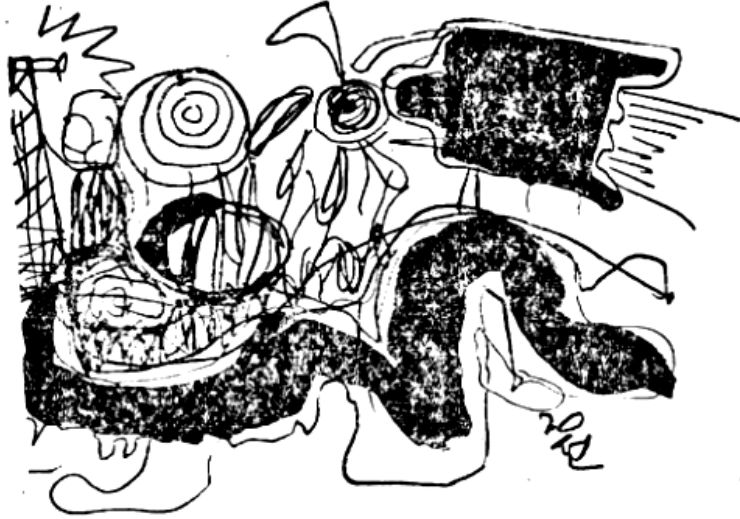
『그래, 난 아직 그 백화점에 있어』「낸시」의 말이다.

『하지만 내주일에는 그만 둘 거야. 난 한 뭉 본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뭉을「루」야 너는 이젠 상관 않겠지?「댄」과 결혼하게 되었어「댄」과 이젠 나의「댄」이야 어때「루」야?』

새로 나온 젊은 순경 하나가 공원 모퉁이를 돌아 거닐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털외투를 입고 손에는 보석 반지를 낀 한 부인이 쇠로 된 공원담에 웅크려 서서 서글피 흐느끼는데 수수하게 차린 직업여성이 그 옆에 가까이 서서 그녀를 달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못 본체하고 그대로 지나쳤다.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는 권한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아차렸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별에까지 소리가 들려라 하고 그의 밤단장으로 황황 보도를 두들기며 지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지구 최후의 날

김성환



어떠한 과학적 실험에도 불구하고 오류는 숨어 있는 법이지만 그 가장 무서운 오류의 가능성이 여기 완전히 설명되어 있다.

최초의「로켓」선을 건조한 사나이가 오직 단 한 가지 계산을 잘못된 탓으로 그 실수가 전 인류를 멸망시키고 말았다.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오늘날이 최초의「로켓」비행에서 일어난 큰 재난의 이야기가 큰 「쇼크」를 줄 만큼 절실감을 느끼게 하지만 그 반면에 인간의 본능이란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존속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가정도 역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 지구 최후의 날 ▶

「클레인」은 여기가 분명히 해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본능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다.

아니 본능 이라기보다는 지칠대로 지치고 극도로 흥분된 그의 두뇌에 겨우 조금 남아 있는 지식의 단편이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이다.

구름은 거의 틈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방에 간혹 틈이 생기면 그 사이로 별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그가 지나고 있는 나침반의 바늘은 여전히 바르르 떨면서 북쪽을 가리키고 있었다.「클레인」은 이처럼 이상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 대혼란 속에서도 지구가 여전히 자력을 유지하고 있다니……

어느덧 그는 해안을 지나가 버렸고 이미 바다는 없었다.

오직 전에 낭떠러지었던 희미한 선만이 길게 남북으로 끝없이 뻗어 있었다. 한 줄기의 회색 잿더미.

그의 뒤에 가로놓인 역시 같은 회색 잿더미.

그리고 그의 눈앞에 전개되어 있는 같은 회색 잿더미.

무릎까지 빠지는 좁다란 수렁은 그가 움직일 때마다 소용돌이치며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바람이 사납게 일면 시커먼 거대한 구름 속까지 재가 날아 올라간다.

때때로 내리는 비에 젖어 끈끈한 진흙 모양으로 되어 버린 재였다.

하늘은 먹을 폰 듯이 어두웠다.

시커먼 구름이 높이 떠 있고 지구 위를 지나가는 햇빛이 화살처럼 그것을 뚫었다.

재의 돌풍에 한 줄기의 햇빛이 비치면 작은 먼지가 눈부시게 돌풍 속에 춤추는 것이 보였다.

비가 쏟아지면 무지개의「아치」를 이루었다.

비가 오고 재의 돌풍이 불고 햇빛이 찌르듯이 비친다—— .

이러한 것들이 흑백의 둥근 틈을 굉장한 속도로 돌리듯 함께 또는 번갈아 또는 연속적으로 닥쳐왔다.

◀ 지구 최후의 날 ▶

이미 몇 달 동안이나 그러한 상태였다.
넓은 지구의 전역에 걸쳐 그러하였다. 「클레인」은 재가 되어버린 절벽의 변두리를 지나 일찍이 바다의 밑바닥이었던 언덕을 기어 내려갔다.
몹시 오랫동안 끊임없이 걸어왔기 때문에 그는 이미 모든 고통의 감각을 잃고 말았다.
그는 양 팔꿈치로 몸을 앞으로 끌고 갔다.
다음에는 한쪽 무릎을 굽혀 다시 양 팔꿈치로 앞으로 나간다.
양 팔꿈치에서 한쪽 무릎, 양쪽 팔꿈치, 한쪽 무릎—
걷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생명이란 놀라운 것이다.
그는 낮을 잃고 그렇게 생각하였다. 생명은 어떠한 곳에도 적응해 나간다.
그렇게 되면 양 팔꿈치와 무릎의 피부가 굳어지고 목과 어깨가 단단해진다.
콧구멍은 재를 들어 마시기 전에 그것을 날아 보내게 된다.
지칠대로 지친 다리는, 부어올라 아프고, 마침내는 마비되어 썩어 떨어지리라.
『뭐라구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클레인」은 이렇게 말하며 자기 앞에 서 있는 높은 사람의 그림자를 겨우 쳐다보았다.
그것은「홀마이어」였으며 얼룩진 작업복에 회색의 머리가 형클어져 있었다.
「홀마이어」는 잣더미 꼭대기에 사뿐 올라 서 있었다.
「클레인」은 왜「홀마이어」의 몸을 통해서 춤추고 있는 재의 구름이 보이는지 이상하게 생각했다.
『「스티븐」, 맛이 어때?』
「홀마이어」가 물었다.
「클레인」은 비참한 모습으로 머리를 흔들었다.

◀ 지구 최후의 날 ▶

『과히 좋지 않은 모양이군. 너의 주위를 살펴보라. 먼지뿐이다. 먼지와 재뿐이다. 기어라, 「스티븐」. 기어라, 아무리 기어와도 먼지와 재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는 어디서인지도 모르게 물이 든 컵을 꺼냈다.
컵은 먼지하나 묻지 않고 차가와 보였다.
그 둘레에 이슬이 맺혀 아름답게 흐려진 것을 본「클레인」은 별안간 입안이 바짝 마른 모래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홀마이어」』
그는 외쳤다. 그는 일어서서 물에 손을 뻗치려고 했으나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는 다시 주저앉았다.
「홀마이어」는 물을 훌쩍 들이키고는「클레인」의 얼굴에 탁하고 뺨았다.
물은 미적지근 했다.
『어서 기어라』
「홀마이어」는 흑독하게 말했다.
『지구의 표면을 기고 또 기고 기어 다녀라. 있는 것이라곤 먼지와 재뿐이다—』
그는「클레인」의 눈앞에서 컵을 비웠다.
『어서 기어라. 몇 마일 되느냐? 내가 계산해 보라. 원주율 곱하기 반경의 자승이다. 반경은 팔천마일이다—』
그는 작업복에 컵을 든 채 사라지곤 말았다.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깨달은「클레인」은 물이 고인 미적지근한 흙탕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입을 벌려 수분을 빨아들이려고 했다.
그러나 신음소리를 내고는 곧 기가 시작했다.
그를 재촉하는 본능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어느 곳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곳은 바다—바닷가—라고 그는 생각했다.
바닷가에서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 .

◀ 지구 최후의 날 ▶

그러니까 그는 바다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만약 아직도 바다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다면,
너우가「클레인」의 등을 무거운 판자처럼 내려쳤다.
그는 쉬어서 배낭을 옆구리로 가져와 한 손으로 그 속을 더듬었다.
속에는 분명히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었다. 권총과「초콜릿」한 개와 복숭아 통조림 한 개.
두 달분의 식량에서 이것만이 남아 있었다.「초콜릿」은 흐늘흐늘하게 녹아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
모조리 상하기 전에 먹어 버리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 통조림을 딸 힘도 없어지리라.
그는 복숭아 통조림을 꺼내어 마개를 돌렸다. 강통을 따는 동안에 비는 지나갔다.
과일을 깨물고 그 즙을 빨아 먹었을 때 그는 일찍이 바다의 밑바닥이었던 언덕 위를 구름이 달리고 벽처럼 비를 내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
격류가 진흙을 뚫고 세차게 흘러가고 있었다.
작은 수로가 이미 열려져 있었다. 그 수로는 오래지 않아 새 강이 되리라. 그러나 그의 일생동안에는 그 강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때까지는 생물이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빈 강통을 옆에 내동댕이치며 그는 생각하였다.
이 지구의 마지막 생물이 그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신진대사가 그 마지막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비가 온 다음에는 바람이 분다.
몇 주일 동안을 쉬지 않고 기어오는 동안에 그는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람은 몇 분 안에 내습해 와서 재의 구름이 그를 내려치는 것이다. 그는 몽롱한 눈으로 어디 숨을 곳을 없을까 하고 끝없이 평탄한 회색의 선상을 찾아 기어갔다.

◀ 지구 최후의 날 ▶

「에벨린」이 그의 어깨를 쳤다.
「클레인」은 돌아보지 않더라도 그것이 「에벨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서 있었다.
밝은 드레스를 입고 있고 신선하고도 쾌활해 보였으나 놀라움으로 그 아름다운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여보,「스티븐」, 서둘러야 해요.』
그녀가 외쳤다.
그러나 그는 그「에벨린」의 부드러운 다갈색 머리가 어깨 위에 나부끼는 것을 넋을 잃고 바라볼 뿐이었다.
『어머나, 여보! 다치셨군요!』
「에벨린」은 그의 다리와 등을 재빨리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클레인」은 신음소리를 냈다.
『착륙할 때「파라슈트」를 쓸 줄 몰라서 그만…….』
난 언제나「파라슈트」란 천천히 내려오는 것인 줄 알았어. 마치 침대 위에 사뿐 내리듯이, 그런데 회색의 대지가 주먹질을 하듯 느닷없이 내게 달려들었던 말이오. 그때「엠버」란 놈은 나의 품안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난 그놈을 내동댕이칠 수는 없었소. 여보. 그렇지 않소?』
『물론 그런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놈을 품안에 안고 두 다리를 밑으로 할 수 밖에 없었소. 그랬는데 별안간 두 다리와 옆구리를 뺏이 팡 하고.』
그는 말을 중단하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녀가 얼마나 알아줄 것인지 의심했다.
그녀를 놀라게 해주고 싶지 않았다.
『여보,「에벨린」』
이렇게 말하며 그는 팔을 쳐들어 그녀를 어루만지려 했다.

『안 돼요.「스티븐」』

그녀는 두려운 듯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어서 서둘지 않으면 안 돼요. 뒤를 조심해야 해요!』

『폭풍우 말이요?』

그는 상을 찌푸렸다.

『그것 같으면 벌써 지나왔소』

『폭풍우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예요. 아아「스티븐」』

이렇게 외치고「에벨린」은 사라지고 말았으나 그는 그녀가 진실을 말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빛이 뒤에 있었다.

오래 전부터 쫓아오고 있는 것이 있었다. 마음속 깊이 어떠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죽음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웬일인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이 지구상의 마지막 생물이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에게 위협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바람은 뒤에서 노한 듯이 사납게 불어와 다음 순간에는 재의 무거운 구름이 그를 휘덮고 그의 피부를 찌르듯이 내려 불었다.

몽롱한 눈으로 그는 바람이 진흙 위에 얽은 용단을 깔고 가는 것을 보았다. 「클레인」은 몸을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가리고는 배낭을 베개로 하여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준비를 했다. 폭풍은 비와 마찬가지로 곧 지나가리라. 폭풍이 그의 병들고 지칠 대로 지친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쳐 그는 어찌할 줄을 몰랐다. 어린애처럼 그는 기억의 한 가닥 한 가닥씩을 더듬어 그것을 맞추어 보려고 애썼다.

왜 「홀마이어」는 것처럼 무지한 짓을 했을까? 설마 그 때의 그 언쟁 때문은 아니겠지.

무슨 언쟁이었던가?

물론 이렇게 되기 전에 있었던 그 언쟁이다.

아아, 그것이다.

갑자기 기억의 단편이 거기에서 완전히 이어졌다.

「클레인」은 그의 매끈매끈한「로켓」선 옆에 서서 쳐다보면서 몹시 감탄하고 있었다.

격납고의 지붕은 제거되고 끝을 하늘로 솟구치고 있는 선체는 선가 위에 놓여져 있었다. 한 사람의 경비원이 조심스럽게「로켓」의 분사구 안을 번쩍 번쩍하게 닦고 있었다.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선내에서 가냘프게 들려오면서 짙까당 하고 큰 쇠소리가 났다.「클레인」은 급히 짧은 쇠 사다다리를 왼쪽 뱃전으로 기어 올라가 머리를 안으로 들이 밀었다.

그 몇 피트 밑에서 두 사나이가 철분이 섞인 용해액의 길쭉한 탱크를 매달고 있었다.

『천천히들 해. 아 배를 때려 부술 작정인가?』

한 사나이가 위로 그를 쳐다보고 빙그레 웃었다. 그 사나이가 빛을 생각하고 있는지「클레인」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로켓선이 공중분해로 산산조각이 되고 말리라는 것이다.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

「에텔린」을 빼놓고는— .

그녀는「클레인」의 생각이 옳은 것으로 믿고 있었다.「홀마이어」도 자기의 생각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의미에서「클레인」은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클레인」이 사다다리를 내려 왔을 때「홀마이어」가 작업복을 펼렁거리면서 격납고 안으로 들어섰다.

『뛰라고 욕을 하든 좋아!』

◀ 지구 최후의 날 ▶

하고「클레인」이 중얼거렸다.」

「홀마이어」는 그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을 꺼냈다.

『내 말을 좀 듣게—』

『이 이상 더 듣기 싫어』

「홀마이어」는 호주머니에서 한 다발의 서류뭉치를 꺼내 들고「클레인」의 눈 앞에 휘두르며,

『밤새껏 걸렸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걸세. 역시 내가 옳아, 절대로 옳아』

「클레인」은 맥맥하게 쓴 방정식을 보고 그 다음「홀마이어」의 빨강계 충혈된 눈을 쳐다보았다.

공포로 거의 미칠 것 같은 눈초리였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두겠네만』

하고「홀마이어」는 말을 이었다.

『자네는 쇠의 용해액에다가 자네가 발명한 새로운 촉매를 사용하고 있다. 좋아, 그것이 기적적인 발명이라는 것은 인정하네. 그것만은 신용하고 있어』

기적적이라는 말은 결코 적당한 말이 아니다.「클레인」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은 우연히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쇠의 원자분해를 유도하여 연료의 1그램에 대해서 10곱하기 10자승, 「피트·파운드」의 「에너지」를 주는 촉매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전혀 혼자 힘으로 발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있을 수 없다.

『성공한다고 생각지 않는단 말이지』

「클레인」이 물었다.

『달에 말인가? 달의 부근까지 말인가? 글썬, 어찌면 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은 반반이야』

「홀마이어」는 머리를 뒤로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그렇지만 말일세, 「스티븐」, 난 자네의 걱정 같은 건 조금도 하지 않고 있어.

◀ 지구 최후의 날 ▶

자네가 자살을 하고 싶으면 그건 자네의 자유야,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건 이 세계란 말야』 『바보 같은 소리 말아, 그런 소리를 하려거든 집에 가서 낮잠이나 자』

『이봐』

「홀마이어」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를 가리켰다.

『아무리 자네가 급송장치와 혼합장치를 잘 한다 할지라도 혼합과 사출에 백 퍼센트의 효과를 얻을 수는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성공의 가능성은 반 밖에 없단 말이군. 그밖에 또 걱정하는 건 뭐가?』

『촉매는 로켓통에서 새어 나올게 아닌가? 만약에 그 한 방울이라도 지상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지 자네는 알고 있겠지? 철회변의 연쇄반응을 일으켜 지구 전체를 완전히 에워싸고 만다.

쇠의 원자에 모조리 그것이 퍼질 것이다. 쇠는 어디든지 있다. 자네가 지구로 다시 돌아오려고 해도 그 때는 이미 지구는 없을 것이다—』

「클레인」은 진저리가 나는 듯이 대꾸했다.

『내 말을 듣게. 그런 문제는 이미 다 논의 한 문제가 아닌가』

그는「홀마이어」를 「로켓」선가 쪽으로 끌고 갔다.

발밑에는 깊이 이백 피트, 폭 오십피트의 구멍이 파어져 있었고 둘레에는 불에 견디어 내는 벽돌이 쌓여져 있었다.

『이것은 처음에 내뿜는 불꽃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야. 만약 촉매가 조금이라도 샌다면 이 구멍이 안으로 들어갈 것이고 부차반응으로 처리될 것이다. 어때 납득이 가나?』

『그렇지만 자네가 비행하는 동안에는』하고「홀마이어」는 고집했다.

『로켓의 한계 밖으로 날아가 버리지 않는 한 지구를 위태롭게 한다』

그 촉매 척 한 방울 한 방울이 결국은 땅속으로 스며들고 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클레인」은 사납게 말했다.

◀ 지구 최후의 날 ▶

『내가 말하는 건 이게 마지막이야.

로켓트로부터 사출되는 불꽃은 문제없이 처리한다. 아무리 새어 나오더라도 그 미분자까지도 불꽃이 써서 파괴해 버리는 것이다. 자, 밖으로 나가게. 나는 아직 일이 있어』

그가「홀마이어」를 문 쪽으로 떠밀었을 때「홀마이어」는 두 팔을 휘두르며 외쳤다.

『난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다!

너를 제지할 방도를 강구할 것이다.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다!』

「클레인」에게는 로켓트에 관한 일은 한없이 즐거운 것이었다.

로켓트선은 정성껏 모든 물건에 특유한 훌륭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잘 손질한 갑옷이나 결투용 칼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이였다.

마지막 손질을 끝마치고 손을 씻었을 때「클레인」의 심중에는 위험과 죽음에 대한 걱정은 조금도 없었다.

로켓트선은 공중으로 돌진할 준비를 갖추고 선가에 놓여져 있었다.

날씬한 오십 피트의 강철과 보석처럼 반짝이는 못, 그 삼십 피트가량은 촉매의 연료보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로켓트선의 맨끝은 단단한 천연 석영암 덩어리인데 그것이 마치 사이클롭스(희랍신화에 나오는 애꾸눈의 거인)의 눈처럼 하늘을 노려보고 있었다.

「클레인」은 생각했다.

이 로켓트선은 비행이 끝나면 부숴질 것이다. 아직 로켓트선의 안전착륙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비행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그 이상의 소원은 없다. 미지의 세계에의 비행——.

작업장의 문을 잠갔을 때「클레인」은「홀마이어」가 비행장 저쪽의 오두막집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 지구 최후의 날 ▶

희미한 땅거미 속에 「홀마이어」가 미친듯이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 마시고 오두막집으로 달려가면서 새삼스럽게 삶의 보람을 느꼈다.

『「에벨린」한테서 전화 왔네.』

하고「홀마이어」가 일러 주었다.

「클레인」은 그를 노려 보았다.

「홀마이어」는 기묘한 거동으로「클레인」의 눈초리를 피했다.

『웬일인가?「에벨린」은 내가 출발준비를 마칠 때까지는 전화를 걸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자네가 그에게 무슨 소리를 한계로군, 이런 식으로 나를 막으려 할 생각인가?』

『아니——』

이렇게 말하며「홀마이어」는 열심히 남빛 지평선을 쳐다보았다.

「클레인」은 그의 서재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고는 느닷없이 말했다.

『잘 들어요「에벨린」이제 새삼스럽게 경고를 하려 해도 무의미해요. 나는 모든 걸 매우 신중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소? 로켓트선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기 전에「파리슈트」로 기분 좋게 내려올 테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출발하는 수요일에 만나기로 하고—— 그 때까지 잘 있어요.』

『당신도 잘 계세요「스티븐」.』

「에벨린」의 아름다운 음성이 들려왔다.

『그 말을 하실려구 절 불러 내셨어요?』

『내가 당신을 불러 냈다구?』

다갈색의 큼직한 개가 노변에서 벌떡 일어섰다.

「멤버」라고 하는「클레인」이 귀여워하는 개였다.

「멤버」는 한쪽 귀를 콧꽃하게 세우고 으르렁거렸다.

『내가 당신을 불러냈단 말이오?』

◀ 지구 최후의 날 ▶

「클레인」은 되풀이서 소리쳤다.

그 순간「엠버」가 크게 짓으며「클레인」에게로 뛰어와 그의 얼굴을 쳐다보는 다시 으르렁거렸다.

『시끄러워?』

「클레인」은 한쪽 발로 개를 억눌렀다.

『「엠버」를 차버리세요.』

하고「에벨린」이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요,「스티븐」. 누가 날 불러내더니 당신이 하실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 음—. 알았어요, 「에벨린」. 나중에 또 전화하겠어』

「클레인」은 전화를 끊었다.

그는 의심스러운 듯이 일어서서「엠버」의 심상치 않은 거동을 노려보았다. 창문에 석양의 마지막 빛이 희미한「오렌지」빛 광선을 던지고 있었다.「엠버」는 그 광선을 쳐다보면서 다시 짓었다. 별안간 무엇을 생각하였는지「클레인」은 급히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광장 저쪽에 불꽃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꽃 속에 작업장의 벽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검은 그림자 여섯이 쏜살같이 달아나고 있었다.

『큰일났다』

「클레인」은 밖으로 뛰어나가 필사적으로 그의 뒤를 쫓는「엠버」와 함께 작업장으로 달려갔다.

달리는 동안 불 한복판에 우주선의 아름다운 침단이 보였다.

아직 차디차고 불에 닿지 않은 것 같았다.

불이 로켓선에 불기 전에 그곳에 닿아야 할 텐데.

직공들이 가쁜 숨결로 달려왔다.

「클레인」은 분노와 당황의 착잡한 감정으로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홀마이어」』

그는 외쳤다.

◀ 지구 최후의 날 ▶

『「홀마이어」』

「홀마이어」가 사람들을 헤치고 앞으로 나왔다. 그의 눈동자는 미친 듯이 승리에 빛나고 있었다.

『이거 큰일났네. 안 됐어, 「스티븐」.』

『이자식』

「클레인」이 격분해서 소리쳤다.

『귀중한 우주선을 태워 버릴러구!』

그는「홀마이어」의 멱살을 움켜쥐고 한번 흔들고는 곧 손을 놓고 작업장으로 뛰어갔다. 「홀마이어」는 뭐라고 외치고 다음 순간「클레인」에게 몸을 부딪쳐 그를 땅 위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주먹을 휘두르며「클레인」이 발밑으로 비틀거려왔다.

「엠버」는 그 옆에서 으르렁거렸다.

「클레인」은「홀마이어」의 얼굴을 후려갈기고 비틀거리는 순간 날쌔게 무릎을 걸어쳤다.

「홀마이어」는 땅 위에 쓰러졌다.

「클레인」은 머리를 숙이고 쏜살같이 작업장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처음에는 불에 탄 곳을 지나가도 뜨겁지 않았으나 사다다리까지 와서 왼쪽 뱃전을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화상 때문에 심한 고통을 느껴 그는 소리를 질렀다.

「엠버」는 사다다리 밑에서 짓어 댔다.

「클레인」은 개가 로켓의 분사로부터 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내려와 「엠버」를 로켓선 안으로 데려갔다.

왼쪽 뱃전의 문을 잠그고 났을 때「클레인」은 현기증을 느꼈다.

「스프링」을 장치한「함목크」로 갈 때까지 그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그리고 본능의 힘 만으로 두 손을 조종장치에 뻗었다.

본능과 그의 아름다운 로켓선을 불태워서는 안 되겠다는 필사적인 결의

◀ 지구 최후의 날 ▶

뿐이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감히 해볼 수 밖에 없다.
그의 손가락이 스위치를 눌렀다. 로켓선은 진동하고 요란한 소리를 냈다.
암흑이 그를 뒤덮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는가? 전혀 알 수 없었다.
「클레인」은 얼굴과 온몸에 차디찬 압박을 느끼고 눈을 뜨고 개가 공포에 떨며 쫓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멤버」가「함목크」에 걸쳐 있었고 처음 느낀 충동은 개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웃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현실이 되살아 왔다. 그는 위로「함목크」를 쳐다보았다. 그는 석영암으로 된 맨 앞의 구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로켓선은 이미 높이 상승해 있었다.
아마 지구의 인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조종사 없이 날고 있던 로켓선은 이미 비행을 멈추고 뺑 돌아서 지구를 향해 떨어져 가고 있었다.
「클레인」은「크리스탈」로 된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밑에는 공처럼 생긴 지구가 보였다. 달의 크기의 세 배 정도였다.
그것은 이제 그가 있던 때의 지구는 아니었다.
시커먼 구름으로 얼룩진 불덩어리였다.
북극에 흰 점이 보였으나 그것도 순식간에 희미한 붉은 빛으로 덮여갔다.
「홀마이어」의 말이 옳았던 것이다.
「로켓」선이 떨어져 가는 몇 시간 동안 그는 공포에 떨면서 지구를 에워싼 화염이 점점 흐려지고 마침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시커먼 두터운 담요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공포에 온몸이 마비되었다. 알 수 없는 일이다.
수십억의 인류가 불에 타 죽고 푸른 아름다운 지구가 잿더미로 화해 버렸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 지구 최후의 날 ▶

그의 가족, 가정, 친구, 그리고 일찍이 그와 친했던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말았다.
그는「에벨린」을 생각할 수가 없었다.
밖을 소용돌이 치고 지나가는 대기가 그의 어떤 본능을 깨우쳐 주었다.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이성이 로켓선과 최후를 같이 하고 모든 것을 잊고 요란한 소리와 파괴 속에 몸을 맡기도록 가르쳤다.
그러나 생명에의 집착이 그의 두 발을 일어서게 하였다.
그는 장비실로 올라가 착륙준비를 시작했다.「파라슈트」, 소형산소 흡입탱크, 그리고 식량의 배낭, 거의 무의식중에 그는 강하할 준비를 갖추고「파라슈트」를 단단히 몸에 달고는 왼쪽 배전의 문을 열었다.
「멤버」가 가깝게 깡깡대었기 때문에 그는 품 안에 그 큼직한 개를 안고 공중으로 뛰어 내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간이 이처럼 뛰어내리기 힘든 줄 몰랐다. 호흡이 곤란했다. 그러나 그것은 공기가 희박했기 때문이다—지금처럼 건조한 모래가 장애가 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그는 숨을 쉴 때마다 유리가루와 재를 폐에 가득히 들이켰다.
그리고 기억의 하나하나가 흩어져 갔다. 갑자기 그는 다시 현실로 되돌아 왔다. 그는 숨을 들이키려고 몸부림쳤다. 미칠 것만 같은 공포와 싸우고는 다시 몸을 쉬었다.
오래 전부터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그의 기억이 산산이 흩어져 잿더미 속으로 깊숙이 묻힌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며칠—몇 주일—또는 몇 달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클레인」은 두 손으로 기었다.
바람이 그의 위에 쌓인 잿더미를 뚫고 앞으로 움직여 갔다. 그는 다시 빛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바람은 잔잔했다.
다시 한번 바다 있는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할 때다.

◀ 지구 최후의 날 ▶

앞에 전개되는 무서운 광경을 보니 기억은 다시 산산조각으로 깨어졌다.

「클레인」은 상을 찡그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과거를 회상하려 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범한 큰 사건이 조금은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단순한 일장의 악몽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거나 않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없다.

자기 하나 뿐이다.

자기가 지구의 마지막 기억을 간직하는 것이다. 자기는 최후의 생명이다.

그는 기었다. 양 팔꿈치, 한쪽 무릎, 또 팔꿈치, 무릎——.

그때「홀마이어」도 그의 옆에서 기고 있었다.

「홀마이어」는 즐거운 듯이 웃어 댔다.

「클레인」이 말했다.

『그러나 왜 우리는 바다로 가야 한단 말인가?』

「홀마이어」는 재의 거품을 내뿜으며 말했다.

『그건「에벨린」에게 물어보라.』

그리고 손으로 가리켰다.

「에벨린」이 그곳에 있었다.

그녀도 기고 있었다.

『왜냐구요? 그건 바다가 우리의 집이니까 그렇지요,「스티븐」.』

「에벨린」이 말했다. .

『생각나시지요. 우리의 집. 낭떠러지 위에 있는 집 말이예요. 우리는 그곳에 영원히 살기로 되어 있었지요.

「오존」을 들어 마시고, 아침의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난 당신이 날아갔을 때 거기 있었어요.

지금 당신은 해변의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비행도 끝났고 해서 당신은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예요. 함께 살아요. 마치 「아담」과「이브」처럼 단 둘이서——.』

◀ 지구 최후의 날 ▶

『그것 참 좋군.』

하고「클레인」이 말했다.

그 때「에벨린」이 뒤를 돌아보고는 날카로운 소리로 외쳤다.

『여보,「스티븐」! 조심해요!』

「클레인」은 다시 그에게 다가오고 있는 위협을 느꼈다.

그는 기어가면서 광막한 재의 별판을 뒤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선명한 검은 자기의 그림자밖에 볼 수 없었다. 그 다음 쏘는 듯한 햇빛도 지나가니 그 그림자도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공포만은 여전히 가지지 않았다.「에벨린」은 두 번이나 그에게 경고했고 그녀는 언제나 옳았다.

「클레인」은 멈추어 뒤를 살피기로 했다. 만약 자기가 정말 쫓기고 있다면 자기가 지나온 자리를 따라 오는 것이 반드시 보일 것이다.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그 고통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의 극도로 흥분된 마음을 찢었다.

나는 발광하는 것이다.

그는 생각했다.

다리의 썩은 것이 머리까지 올라온 것이다.「에벨린」도「홀마이어」도 그리고 위협도 아무것도 이제 없다.

이 지상에는 나밖에 생명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유령이나 지하의 악령마저 지구를 에워싼 지옥 때문에 없어지고 말았음이 분명하다.

그렇다——. 나와 이 고통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모든 것이 죽는 것이다. 오직 생명 없는 잿더미만이 계속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었다. 다시 본능이 가르쳐 주었다.「클레인」은 머리를 숙이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그리고 가늘게 눈을 뜨고 닦쳐오는 죽음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하고 있는

◀ 지구 최후의 날 ▶

것이나 아닌지 의심하면서 잿더미의 별판을 쳐다보았다.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눈앞이 보이지 않기 전에 확인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역시 있었다.

멀리 뒤에서 회갈색의 물건이 잿더미 위를 가볍게 달려오고 있었다.

「클레인」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재가 밟히는 바삭바삭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재가 튀어 오르는 것을 보았다.

마음이 비로소 그 이유를 깨닫고 공포 때문에 긴장해지자, 그는 살그머니 배낭에 든 권총을 꺼냈다. 그 모습이 가까이 왔다. 불안간 그는 옆 눈으로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파리슈트」보「엠버」와 함께 지구의 잿더미 위에 착륙했을 때「엠버」가 공포에 몸부림치며 자기의 품에서 빠져 나갔던 일이 생각났다.

『난 또 뭐라구.「엠버」아냐』

그는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개는 멈추었다.

『「엠버」! 여기야 여기!』

그는 반가운 듯이 목썬 소리로 불렀다.

『여기야』

그는 한없이 기뻐다. 공허 속에 홀로 남은 무섭고도 비참한 고독감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유일한 생명은 아니다.

또 하나의 생명이 있었던 것이다.

사랑과 친구를 가질 수 있는 친한 생명이었다. 희망이 다시 솟아올랐다.

『이리와』

잠시 후 개는 그의 손을 깨물려다가 말고 송곳니를 드러내고 헛바닥을 축 늘어뜨리고는 뒤로 물러섰다.

몸은 가죽과 뼈만 남았고 눈은 먼지로 별절고 흉하게 빛나고 있었다.

◀ 지구 최후의 날 ▶

「클레인」이 다시 한 번 부르자 개는 기계적으로 으르렁거렸다.

배가 고프는 모양이라고「클레인」은 생각했다. 그가 배낭에 손을 뻗치자 그 거동을 보고 개는 또 으르렁거렸다.

「클레인」은「초콜릿」을 꺼내어 겨우 은총이를 벗겨 힘없이 그것을「엠버」에게 던져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앞에 떨어지고 말았다. 잠시 반신반의로 쳐다보고 있던 사나운 개는 서서히 앞으로 다가오더니 큰 입을 벌려「초콜릿」을 꿀꺽 삼켜버렸다. 개는 입맛을 다시며「클레인」을 향해 다가왔다. 공포가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마음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친구가 아니다. 개는 너에 대해서 애정도 우정도 없다. 그러한 것은 생명과 더불어 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만 것이다. 지금은 굶주림 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아니다.』하고「클레인」은 중얼거렸다.『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지구의 최후의 생물이다. 우리가 서로 물고 뜯고 잡아먹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엠버」는 살그머니 다가왔다. 개의 송곳니가 날카롭고 새하얗게 번쩍었다.「클레인」이 말없이 노려보고 있는데 개가 으르렁거리며 외곽 달려들었다.「클레인」은 개의 코 밑으로 팔을 넣어 들어 올리려고 했으나 도저히 그럴 힘이 없었다. 부러져 부어오른 다리 위에 개가 올라 앉았기 때문에 그는 고통에 못 이겨 비명을 울렸다.

왼쪽 팔을 개가 물어뜯은 것도 거의 느끼지 못하고 그는 자유로운 오른쪽 손으로 몇 번이고 힘없이 개를 때렸다. 그때 쇠붙이가 몸에 깔려 있는 것을 느끼고 자기가 떨어뜨린 권총 위에 누워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권총을 손으로 더듬으며 재로 막히지 않았기를 빌었다.「엠버」가 그의 팔에서 떨어져서 이번에는 목을 할퀴기 시작했을 때「클레인」은 권총을 들어 총구를 개에 대고는 마구 방아쇠를 잡아 당겼다.

마침내 총소리가 그치고 찰각하는 소리만 들렸다.「엠버」는 눈앞의 잿더미 위에 쓰러져 있었다. 새빨간 피가 재를 물들이고 있었다.「에벨린」과「홀마이어」는 슬픈 표정으로 죽은 개를 내려다보았다.「에벨린」은 울고 있었다.

◀ 지구 최후의 날 ▶

「홀마이어」는 버릇처럼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뒤로 쓰다듬으면서
『이것으로 마지막이다.「스티븐」』

하고 말했다.

너는 너의 일부분을 죽인 것이다.

물론 너는 계속해서 살아가겠지만 너의 전부가 사는 것은 아니다.「스티븐」.
저 시체를 묻는 게 좋을 것이다. 그것은 너의 영혼의 시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지. 바람이 재를 날려 버리고 말테니』

『그럼 불태워 버려라』

그들은「클레인」이 죽은 개를 배낭에 넣고 옷을 벗어 그 밑에 쑤셔 넣는 일
을 도와주었다.

이제 생물은 없다. 그 혼자만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는「아담」이 된다
할지라도「이브」가 없었다.「에벨린」이 바닷가에서 그를 향해 명량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흰 집 옆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드레스가 찰싹
몸에 달라붙고 날씬한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가 앞으로 기어
가는 것을 보고 그녀는 옆으로 뛰어와 그를 부축해 주었다. 그녀는 아무 말
도 하지 않았다.

다만 두 손을 그의 겨드랑 밑으로 돌려 무거운 몸을 끌어당겨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바닷가에 도달했다. 바다만은 현실이었다. 그는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에벨린」과 흰집의 환영은 사라졌으나 얼굴에 차디찬 바닷물이
철렁거리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여기 바다가 있다.「클레인」은 생각했다. 그리고 여기 자기가 있다고.

그러나「아담」뿐이고「이브」는 없다.

이것으로는 절망이다.

그는 바닷물 속으로 약간 굴러 들어갔다. 그는 똑바로 누워 높은 하늘을 우
러러 보았다. 마음이 한없이 외로웠다.

『이럴리가 없다』

그는 외쳤다.

◀ 지구 최후의 날 ▶

『지구상의 모든 것이 소멸해 버리다니 그럴 리가 없다. 생명은 단 한 사람의
미친짓 때문에 소멸해 버리기에는 너무도 아름답다』

고요히 바닷물은 그를 씻어 주었다. 바다는 부드럽게 그를 흔들어 주고 심장
까지 치밀어 오르는 고통마저 부드러운 손으로 어루만져 주는 듯했다. 별안간
구름이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이 몇 달 동안에 처음 보는 일이었다.「클레인」
은 처음으로 맑은 하늘의 별을 보았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자기가 생명의 끝
은 아니다. 생명에는 끝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그의 육체 속에 고요히 바
닷물 속에 흔들리고 있는 부패한 조직 속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명이 숨어
있는 것이다. 세포——조직——세균——「엔도아메바」—— 생명의 헤아릴 수
없는 무한대, 그것이 바다 속에 새로 뿌리박고 그가 죽은 뒤에도 오래오래 살
아갈 것이다. 그러한 작은 생명은 그 부패한 시체를 먹고 살아갈 것이다. 그
리고 서로 잡아먹으면서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고 이 새 바다 속에
흘러와 가라앉은 물건이나 광물질을 먹고 살아갈 것이다.

성장해서 썩어 트고 진화할 것이다. 생명은 다시 육지의 생활로 뻗어갈 것이
다. 그리고 태고부터 근대까지의 꼭 같은 순환을 시작할 것이다. 근원은 아마
도 우주여행의 사고에서 오직 단 한 사람 살아남은 이 육체, 썩어가는 이 육
체에서 시작될 것이다. 미래의 시대에도 이와 같은 것이 몇 번이고 되풀이되
어 갈 것이다. 그때 그는 무엇이 그를 바다로 인도해 왔는지를 깨달았다. 그
곳에서는「아담」도「이브」도 필요치 않다. 오직 바다만 위대한 생명의 어머니만
이 필요했다. 언제고 생명이 다시 한번 출현할지도 모를 그 바다의 깊이로 바
다가 그를 불렀던 것이다.

그는 만족했다. 고요히 바닷물은 그를 흔들었다. 생명의 어머니는 낡은 생
명 순환의 마지막 생명을 흔들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생명 순환의 새로운
탄생이 되리라. 「스티븐-클레인」은 빛나는 눈동자로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미
소를 지었다. 별은 하늘에 가득히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도 눈익은 성
좌를 형성하지도 않았고 또 앞으로 십억 세기 동안은 형성하지 않을 것이다.

미사일의 역사 <1>

문정식

☆ 선구자들의 노력

로켓 기술은 15세기에 들어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이것을 응용한 미사일도 많이 나왔다.

대포나 그밖에 소화구가 많이 발달되어 전쟁에 쓰여 졌기 때문에 원시적 로켓 무기를 능가하여 무기로서의 주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이 때문에 로켓 무기는 점차로 구식화 되고 그 후 거의 3세기 동안을 구라파에서는 전쟁에 등장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차분한 연구로 말미암아 현대 미사일 과학의 기본이 되는 여러 가지 귀중한 사실을 남기고 있다.

하나의 예로서 1500년경 중국의「옹후」라는 한 관리가 로켓 추진비행을 시도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16세기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기록으로 1550년에「라인할트·폰·솔트스」백작이 고안한「파라슈트」로 회수하는「로켓 미사일」의 발표이다. 이 로켓 회수의 실험은 결국 해보지 못한 모양이나 그 착상의 의의를 오늘날에 와서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17세기에 들어서서 뉴턴이 근대역학의 기본이 되는 운동의 3대 법칙을 발표하여 이것을 적용한 반동추진기관이 여러 가지로 발표되기 시작했다.

군사적 가치의 저하로 16세기 17세기를 통해서 자취를 감추었던「로켓·미사일」은 겨우 18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새로운 모습으로 재등장하게 되었다.

즉 1789년부터 시작된 영국과 마이솔 왕국과의 싸움에서 마이솔군이 편성한 세계 최초의 미사일부대가 크게 전과를 올렸는데 여기에 자극을 받아 영국의 유명한 콩구리브 군용「로켓·미사일」이 출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근대 미사일사의 출발점이 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엽에는 또한 인류가 항공의 역사를 마련한 때이기도 하다. 즉 1783년 10월 15일 프랑스의「몽골펠」형제가 열 공기를 이용한 기구를 가지고 처음으로 파리 상공을 비행하였으며 다음 해에는 같은 프랑스인 「아베·미오랑」이

◀ 미사일의 역사 ▶

기구의 열 공기를 이용하여 로켓 분사식으로 기구를 조종하고 추진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이 미사일과 항공기라는 두 개의 혁명아가 때를 같이하여 본격적 출발을 한 18세기말은 근대과학사상 빛나는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 사상초유의 미사일부대

마이솔 당국에서 세계 최초로 미사일부대가 편성되었음은 전술하였거니와 이 계획을 세운 사람은 황태자인「하이델·아리」공으로서 1780년까지 그 대원수가 1,200명 장비한 로켓탄은 무게가 27 내지 50킬로쯤 되는 것인데 길이가 약 20센티미터, 직경이 약 3.8센티미터되는데 고체화약을 꼭 차게 집어넣은 것으로서 이것을 긴 대나무에 붙들어 매어 비행중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사정거리는 최대 2.4킬로미터 정도였다고 한다.

☆ 나폴레옹군을 공격

근대미사일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콩구리브씨가 처음으로 로켓 병기의 테스트를 개시한 1801년에 그는 아직 29세의 청년이었다.

콩구리브의 로켓 연구는 그야말로 ABC부터 시작하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그는 우선 화학상을 통해서 입수할 수 있는 불화살 따위를 사서 그 구조를 조사하고 또한 실제로 시사(試射)도 해 보았다.

그런데 이 기성 로켓은 기껏해야 450-550미터 밖에 날지 못하는 빈약한 것이었다.

그러나 콩구리브는 다음 해 즉 1802년에 손수 만든「로켓·미사일」을 1,800미터까지는 확실히 날 수 있게 개량하는데 성공하였다.

1805년에 콩구리브는 당시 정부고관이나 장군들 앞에서 공개실험을 행하였는데 이 실험에서 대성공을 거두어 전란 중에 있던 영국으로서는 이 비밀무기를 즉시 실전에 써 먹기도 하였다.

1805년 10월, 콩구리브「로켓·미사일」을 장비한 영국 해군은 부로뉴에 집결하고 있는 프랑스함대에 최초의 공격을 가하였다.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이 공격에서의 상세한 상황이나 전과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영국해군은 수쌍의 조그마한 배에 로켓탄 발사 장비를 갖추어「부로뉴」만을 습격하였던 것이다.

☆「콩구리브·로켓」란?

이와 같이 근대 미사일사의 첫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한「콩구리브·로켓」란

대체 어떠한 것이었는가.

「콩구리브·로켓트」의 구조는 종전의 로켓트와 그다지 큰 상이점은 없는 것이었다. 개량되었다는 점은 주로 효율을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그 조작이나 설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이 없었던 모양이다.

사실 초기의「콩구리브·로켓트」는 실용성이 그다지 없었으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 것은 1806년 봄부터였다. 즉 이때부터 콩구리브는 탄체를 지제(紙製)에서 철제(鐵製)로 바꾸고 8폰드, 12폰드, 32폰드, 42폰드 이렇게 각종 형을 생산하였는데 폭탄처럼 뇌관(雷管)을 달은 것, 산탄(散彈)을 집어넣은 것 등 실로 다종다양하였다고 한다.

32폰드 형의 구조를 예로 든다면 탄두는 원추형의 철제이고 탄체는 쇠로 뒀고 로켓트 전체의 길이는 약 1.07미터, 직경은 약 10센티미터로서 그 사정거리는 약 2,700미터쯤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로켓트탄체 후미에 비행 중 안전을 잡기 위하여 긴 봉(棒)을 달도록 한 것은 콩구리브씨의 착상이었다고 한다.

이 안전봉의 길이가 처음에는 7.6미터나 되었으나 그 후 실험결과에 의해서 이 길이를 줄여 취급하는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로켓트의 추진제는 특수한 화약이었으며 단체후부는 다섯 개의 분출구가 뚫린 철관으로 막고 이 중심부에 안전봉을 끼게 되어 있는 것이다.

로켓트의 발사대는 동제(銅製)의 3각대를 썼으며 발사각은 55도에서 60도 각으로 최대사정을 얻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간단한 발사대에서 중량이 큰 로켓트탄을 발사할 수 있는데서 콩구리브는 해군의 함상무기로서의 로켓트탄의 가치를 강조하고 적은 배를 가지고도 거함(巨艦)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제2차 대전 중에 실현을 보게 된 것이다.

☆ 평화적 용도를 모색

콩구리브형의 로켓트병기는 그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제작되어 사용하였다.

예컨대 화란군은「세레베스」도 전투에서 로켓트탄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또 러시아군은 1823년 토이기와의 전쟁에서 썼다고 한다.

그러나 이 로켓트병기가 전쟁에서 사용된 것은 1840년대까지인데 그 후 약 백 년간은 전장에서 그 자취를 감추었다.

그 이유는 분말화약을 쓴 로켓트로서는 콩구리브형 이상의 발달이 없었기 때문이다.

19세기의 개막과 더불어 출발된 근대 미사일은 그 서막에 있어서는 피비린내

나는 불길한 것이었으나 그 그늘에는 평화적인 용도도 연구되었음을 말할 것도 없다.

1806년에는 불란서의「크로드·류쥘」이라는 사람이 파라슈우트가 달린「로켓트·미사일」에 작은 동물을 실어 발사하였다. 이 의의에 있어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현대인에게는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는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러나「류쥘」씨의 의도가 인류의 로켓트 비행의 가능성을 시도한 것만은 확실한 것이다.

1819년에는 덴마크의 한 선장인「슈마하」씨가 신흥용 로켓트를 제작했다. 비상시에 신흥용으로 소형 로켓트를 사용하려는 연구노력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후 1841년에는 영국의「고라이트리」씨가 영국최초의 로켓트추진식 항공기에 관한 특허를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많은 특허와 같이 이론 이상의 것이 못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점철되는 가운데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여기에 하나의 중요한 발명이 나타났다.

그것은 1847년 처음으로 니트로구리세린이 합성되어 종래 효율이 얇은 분말 화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로켓트의 성능이 이것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게 된 것이다.

☆ 「해일·로켓트」의 탄생

「콩구리브·로켓트」가 지닌 특징의 하나는 위에도 말한 바와 같이 후부의 긴 안전봉으로 비행중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거추장스러운 방법으로서 어떻게 이 번거로운 안전봉을 없애버리고 미사일 자체가 안정을 유지한다면 성능은 월등하게 향상되리라는 관점에서 많은 과학자들이 머리를 짜던 끝에 드디어 1846년 미국의「윌리엄·헤일」씨에 의해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헤일」이 제작한「로켓트·미사일」에는「콩구리브·로켓트」에 달렸던 긴 끈지가 전연 없다.

그대신「헤일」은 대포의 탄환처럼 비행 중 회전을 시킴으로써 안정을 유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총이나 포는 그 총신 안에 흠을 파서 이것에 의해서 탄환에 회전력을 주면서 발산되는 것인데「헤일」은 이 원리를 인용해서 로켓트에 있는 3개의 분출구 뒤에 꾸부러진 판을 대고 여기에 배기가스를 닿게 만들어 흡사, 터빈이 도는 것 같이 미사일 전체가 회전하도록 한 것이다.

「헤일」이 만든「로켓트·미사일」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적은 것은 무게가

◀ 미사일의 역사 ▶

2.72킬로그램, 직경이 5.71센티이고, 큰 것은 총량이 7.26킬로에다 직경이 8.26센티이고, 최대 사정거리는 2,000미터였다고 한다.

군용으로는 콩구리브의 로켓탄과 같이 여러 가지 탄두를 달 수 있도록 되었다.

「헤일」의「로켓·미사일」은 군에서도 주목을 받던 끝에 공식 테스트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올려 육군에 채용되었다.

1846년 12월 28일 미국의 병기창 명령으로 최초로 로켓탄을 장비한 포병중대가「휘트·몬로」에서 편성되었다.

1847년 6월에 이르기까지 약 2,000발의「레일·로켓탄」이 워싱턴 공창에서 생산되었다고 하는데 실험결과는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1847년 10월 26일 멕시코와의 전쟁시 베라쿠르스 부근에 상륙작전을 감행하였을 때 로켓탄을 사용했다고 전해지며 또한 멕시코시티 부근 싸움에서 로켓 포병대가 손해를 입었다는 기록도 있으나 실제로 로켓탄이 얼마나 전과를 올렸는가는 거의 알 길이 없음이 유감이다.

그리고 1848년에 멕시코와의 전쟁이 끝났을 때 이 로켓 포병대는 해산된 것으로 보아 그다지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우주비행에의 꿈

1848년을 최후로 군용 미사일은 약 백 년간 휴식으로 들어간다.

이 동안 1860년에는 미국 해군과 영국 해군이 로켓 추진 어뢰의 시작을 계획한 적도 있으나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하나의 흥미 있는 구상으로서 미 해군대령「복사」씨가 특히 개발한 구명용「로켓·미사일」이 있다.

이 미사일은「헤일」이 만든 것과 같이 안전봉을 갖지 않은 형식인데 3단식 로켓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제1단 로켓이 최고도 및 최대속도에 달한 후 제2단 로켓이 점화되어 다시 비행을 계속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단식「로켓·미사일」의 고안은 필연적으로 미사일의 스케일을 크게 만들었다.

즉 연구자들은「로켓·미사일」을 하찮은 전쟁 도구 영역에서 탈피한 우주에의 인류의 희망으로서 보게 된 것이다.

1891년 독일의「텔만·간스빈트」씨는 처음으로 로켓 추진 미사일에 의한 지구 중력권 탈출의 가능성을 논했으며 뒤이어 1895년에 같은 독일사람「쿠르드·라스비스」는 그의 저서「두 개의 유성」가운데서 우주 스테이션의 의의와 가능성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 미사일의 역사 ▶

이리하여 미사일의 역사는 드디어 20세기의 개화기로 접어드는 것이다.

☆ 제1차 대전까지

20세기의 미사일은 그 중반기에서 인류를 빛나는 우주시대에 돌입시킨 선봉이 된 것인데 1904년에는 카메라를 장비한「로켓·미사일」이 독일에서 처음으로 발사되었다.

그런데 그 성과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도달 고도는 3백미터에 불과하였다 하니 비록 모든 것이 잘 작동되었다 하더라도 거의 아무 데이터도 얻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얼마 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미사일은 다시 전쟁 무기로써 쓰이게 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까지 전장에서 사용된 미사일이 모두 지대지미사일(SSM)이었던 것을 이번에는 항공기라는 새로운 무기와 결부되어 공대공(AAM), 지대공(SAM), 이렇게 두 개의 미사일이 나타났으며 또한 무인기(無人機)도 테스트에 성공하였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 아닐수 없다.

항공기 특히 비행선의 군사적 가치가 주목을 끌게 되자 비행선끼리의 공중전의 무기로서 해전에서와 같이「공중어뢰」를 생각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이미 대전중인 1909년에 독일에서는 비행선에 장비하기 위한 공대공「로켓·미사일」에 관한 특허를「웅게」남작이 받아 어느 회사가 이것을 사들였다고 한다.

☆ SAM, AAM의 출현

대전발효와 함께 첫번째 쓰여진 미사일은 야간 지상전에서 적을 비추기 위한 조명탄「로켓·미사일」이며 이것은 대전을 통해서 양군이 다 널리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말하자면 불꽃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아무래도 미사일다운 최초의 것으로는 1916년에 프랑스군이「셋셋펠린」비행선 공격용으로 지상에서 발사한「로켓·미사일」이라 할 것이다.

이 지대공 미사일은 타버리기 쉬운「셋펠린」비행선에 점화, 폭발시키고자 쓰여졌던 것인데 이것으로 적어도 한 척의 비행선이 파괴되었다고 하니 이것이 세계 최초의 지대공 미사일이었다 할 것이다.

1916년에는 역시 같은 프랑스군에 의해서 최초의 공대공미사일이 성공하였다. 이「로켓·미사일」은 발명자인 Y. G. 루푸를 해군 대위의 이름을 따서「루푸를·로켓」라고 불리었다.

루푸를 로켓탄은 1년도 채 사용되지

◀ 미사일의 역사 ▶

못하고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는데 대전 중에 실용된 공대공(AAM)미사일은 이것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여러 가지로 각국에서 시험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 미국에서는 날개 밑에 있는 원통에서 발사하는 직경 4인치의 로켓탄이 계획되어 있었다 한다.

이 밖에 대전 중 각국에서 연구된 무인기를 간과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에서는 스페리 항공회사의 자체계획 및 해군의 발주로 카티스 N9를 개조한 무인기를 비롯하여 몇 개의「공중어뢰」가 개발되었다.

이것들은 모두가 프로펠식이기에는 하였지만 후일의 지대지 미사일의 조상으로 주목 할만하다.

또한 영국에서는「셋펠린」공격용의 지대공무인기 (당시는「에어리알타게트」라고 불렀다)를 드헤비랜드의 선계로 공군 군수창에서 시작하였다.

☆ 월세계 여행의 가능성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항공기가 민간용으로서 독자적으로 발달하는 한편 미사일도 미사일 독자의 커다란 목표를 향해서 연구되어 갔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아득한 우주공간에의 길이다.

그리고 그것의 대표가 된 위대한 인물인 미국의「고다드」와 독일의「오베르트」를 우리는 잊을 수 없다.

「로마르히친스고다드」는 1882년 10월「메사츄세츠」주「워세스타」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로켓 연구에 뜻을 품고 1908년에 이 학사 학위를 얻은 후부터는 오직 로켓추진의 물리적, 수학적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 후 차차 그의 연구성과가 인정을 받아 1917년에는 해군의 초청으로 신호용 로켓 등의 개량에 종사하였다.

그런데「고다드」의 명성을 높인 첫째 업적은 1920년에「스미소니안」협회에서 발행된 「초고도에 도달하는 한 방법」이라는 저서였다.

수표나 등식으로 꼭 찬 이 책 가운데서「고다드」교수는 로켓 추진미사일도 달을 향하여 발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와 같은 대담한 제안은 일반적으로 꿈같은 이야기로 무시되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행히 카네기재단의 자금원조로 1935년에는「고다드」가 제작한 로켓은 2,250미터의 고도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후「고다드」교수의 연구는 다시 자금부족으로 중지상태에 빠져 있을 때 제2차대전이 발발하였다. 여기서「고다드」는 다시 해군에 들어가

◀ 미사일의 역사 ▶

이륙 보조로켓(RATO)의 개발 연구를 하다가 불행히도 수술한 것이 악화되어 그의 이론이 개화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1945년 세상을 떠났다.

☆ 우주여행의 아버지

근대 미사일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로서 누구나 말하고 있는「헤루만·오베르트」는「고다드」보다 12년 후인 1894년 6월 25일 헝가리의 독일어 지역인 「트렌실비아」의「샤스무르그」라는 곳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런데「오베르트」는 소년 시절부터 의학보다도 수학을 좋아하여 제1차 대전 중 벌써 로켓추진 이론연구에 독자적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고다드」의 로켓이 주로 고체화약연료를 대상으로 한데 대해서「오베르트」는 액체연료 로켓을 생각하고 있었다. 다만식 [로켓·미사일]을 사용한다는 구상은「고다드」나 「오베르트」나 생각이 같았지만「고다드」는 계기가 달린 「로켓·미사일」을 고고도 대기관측용으로 발사할 것을 생각하였는데「오베르트」는 처음부터 로켓 추진은 인류의 우주여행 수단을 최후의 목표로 할 것을 확실히 머리에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오베르트」는 1923년 그가 발표한 논문 가운데서 대형 로켓을 지구 주변의 궤도에 쏘아올려 승무원이 소형「착륙용 로켓」로 타고 이탈하여 귀환하는 것을 쓰고 있다.

이와 같은 구상은「오베르트」가 처음이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나「윌리·레이」씨의 말을 빌리면

『유인(有人) 인공위성에 대한 것이 인쇄물에 나타난 것은「E.E. 헤일」의 과학 소설「부리 크문」이 처음이다. 그러나「오베르트」는 이 소설을 읽지 못하였다. 그는 영어로 된 책을 읽는 것이 질색이었으며 무엇보다도 나는 지금까지 그가 어느 나라 말이든 간에 소설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다』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고다드」의 저서는 어쨌든 얼마간의 재정적 원조를 얻는데 성공하였지만「오베르트」의 논문은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를 물심양면으로 도울만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베르트」가 발표한 논문의 효과는 오히려 독일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먼저 나타났다.

즉 소련에서는 1924년 우주 로켓 연구단체를 만들어 고고도 연구를 개시하였으며, 프랑스에서도 1927년에「로텔·에스놀·페루테리」비행헌터 제 4호 보지자인 베테런 파일로트)같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우주비행관계의 기관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1927년에는 독일

에도 공식으로 우주비행협회가 설립되어「로켓」이라는 기관지를 발간하였다. 이렇게 하여 로켓 우주비행에의 준비는 착착 진보되어 갔다.

☆ 인류 최초의 로켓 비행

여기서 1930년대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눈을 우주에서 지상으로 돌려 독일에 서 행해진 인류 최초의 로켓 비행에 관해서 고찰코자 한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미사일사」의 밖의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누구도 이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독일의 유명한「후리스 폰 오펔」이 등장한다.

1929년에「오펔」은「마크스 화리엘」과 더불어 우선 로켓 추진의 자동차를 만들어 시속 280킬로를 내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계속해서 로켓을 그라이다에 달아 비행을 시험하였다.

1928년 6월 11일, 서독의「렌」산에서「슈타마」가 탄「오펔 로켓 그라이다」는 발진 후 공중에서 2기의 로켓에 점화하였다. 로켓은 순조롭게 연소하여「슈타마」는 먼저 약 200미터의 직선 비행을 끝내고 이어서 빠른 쪽으로 선회하여 약 300미터를 비행한 후 착륙하였다.

이 사이가 약 70초쯤 되었다.

계속해서 두번째로 시험비행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로켓이 점화 직후에 폭발하여 그라이다는 화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슈타마의 냉정한 처치로 기체는 무사히 착륙하였다.

다음 해인 1929년 9월 30일, 이번에는「오펔」자신의 조종으로 고무줄을 쓰지 않고 처음부터 로켓 추진만으로 이륙하려는 시험을 하였다.

이 테스트에서는 기체가 멋있게 공중에 떠서 비행을 계속하였는데 비행이 거의 끝날 무렵 또 다시 기체에 불이 붙어「오펔」은 착륙하여 무사히 탈출하였으나 이 기념할만한「로켓 그라이다」는 산산이 부서져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1929년은 저물고 미사일의 역사는 드디어 제2차 대전의 전야인 1930년으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1929년으로 말하면「오베르트」의 주저(主著)라고 할 수 있는「우주 비행에의 길」이 독일에서 출판되었으며「고다드」도 세계 최초로 계기를 실은 관측용 로켓을 발사한 사실은 반드시 기록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북해의 폭음

1930년 미국에서도 뒤늦었지만 미국유성협회 (American Interplanetary Soci-

ety)가 설립되었다.

이것은「아메리카 로켓」협회의 전신이다. 또한 독일에서 백림근교에 로켓 발사시험장이 설치되었다.

「고다드」의 로켓은, 고도 6백미터에 달하였으며「오베르트」는 최고 액체 로켓 발동기를 90초 동안 운전하였다.

1931년의 가장 주목 할만한 사실은 오스트리아의 구라쓰라는 곳에서「프리드리히 슈미도루」가 세계 최초의 우편수송「로켓·미사일」을 발사하여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것이다.

또한 독일에서는 고체 연료 로켓이 고도 1,850미터 이상에 달하였으며, 구라파 최초의 액체 연료 로켓도 5월 21일 발사에 성공하여 고도 180미터에 달하였다.

1932년에 이르자 독일은 본격적으로 군용「로켓·미사일」연구에 힘을 써서 그의 책임지도자로서「윌타도룬벨가」라든가「헬나 폰 브라운」같은 사람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백림 남부 쿤멜스도 루프에 육군 로켓 연구소가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1933년 1월, 히틀러가 정권을 잡자「쿤멜스도루프」연구소 진객들은 유명한 A형, 로켓 연구를 개시할 것이다.

A형이란=Aggregat(結集)의 두문자(頭文字)를 딴 것이라고 하며 시험용 A-1에 이어서 1934년 12월 A-2가 북해의「보루쿰」도에서 발사되어 고도 2,200미터에 달하였는데 후일 A-4에의 기초 A-4라고 해서 모르는 사람도 V-2호라고 하면 적어도 미사일에 흥미를 가진 사람으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영국, 미국 등에서도 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지만 그러나 귀재 브라운 이하 비상한 지능을 결집(結集)한 나치스 독일의 육군 로켓 연구소에서는 비밀리에 세계 로켓 기술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성과로써 착착 그 열매를 거두어 가고 있었다.

1937년부터 발트해에 있는 무인도 한 구석의 황량한 해안 폐네문데에 설치된 시사장에서는 1938년 가을부터 전장(全長) 6.5미터의 거대한 미사일이 차례로 불을 뿜으며 발사시험이 개시되었다.

이것은 다음에 나타나는 가공할 A-4의 연구용으로서의 A-5「테스트·미사일」이었던 것이다.

제2차대전 발발을 1년 앞두고「폐네문데」해안의 무시무시한 폭음을 북해 파도 소리와 어울려 울려 퍼져 나가고 있었다. <차호 계속>

핵확산방지조약 후의 세계

-핵방조약체제가 던지는 장래의 문제점-



김 현 철

1. 핵의 현상유지

“핵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은 작년 말 서독이, 금년 2월에는 일본이 조인하고, 마.영.소 등 핵병기 보유국을 포함한 43개국 이상이 비준서의 기탁을 마치고 지난 3월 정식으로 그 효력을 발생하였던 것이다.

중공과 불란서가 이 조약에 가맹치 않으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상되어 왔던 것이지만, 가장 유력한 잠재 핵병기국인 일본과 서독이 핵방체제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이번 조약의 실질적인 성립이 가능케 되었다.

핵방조약에 관해 가장 많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점은 이 조약 자체가 “불평등”조약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첫째 핵방조약은 정치적인 현상유지 조약인 때문이다.

핵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본 조약은 다만, 정신규정으로서 군축 교섭을 성 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비핵국가에 대하여는 그 제조, 보유, 취득,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금지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키 위한 국제 사찰권을 갖고 있다.

핵병기의 보유가 국제관계를 규정하는 강력한 정치적 수단이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핵전력의 상대관계를 현 상태로 고정시켜 놓는다는 점에서 본 조약은 현상유지 조약인 것이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현상유지 조약을 비판, 평가하기에 앞서,

이 조약을 받아들임으로써 얻어지는 이해득실과,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생기는 그것과를 냉정히 비교하여 총체적으로 본 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가의 여부를 정확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이 불평등조약을 수락하는데 대한 보상은 무엇이 될 것이며, 장래의 체제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간과해서

◀ 핵 확산 방지조약 후의 세계 ▶

는 안 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된다.

그렇다고 이 조약의 불평등성을 지적 비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실을 외면한 단순한 감정론에 지나지 않는 결과를 낳기 쉬우며, 현실의 국제정치를 규정하는 본뜻을 그르치기 쉽다.

2. 핵방조약의 본질

1957년「쥬네브」18개국 군축위원회에 핵 확산방지에 관한 미.소의 공동초안이 제출된 이래, 1968년 봄 UN총회에 이어 동년 가을「쥬네브」에서 개최된「비핵국가회의」등 일련의 국제회의를 통하여 이에 대한 중요한 문제점들이 검토, 제기되었다.

핵병기 취득권을 포기한 나라들에 대한, 안전보장책, 핵병기 보유국 상호간에 있어서의 군축교섭 추진문제, 원자력의 평화이용 기술문제 및 조약의 유효기간과 5년마다의 조약 재심리조항들로서 본 조약이 포함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대별할 수 있다.

본 조약은 세계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조약 가입으로 인해서 연역 파생되는 이해득실을 정확히 가려내야 할 것이며, 이 조약이 국제정치의 과거 및 미래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원자력의 국제관리가 정치문제로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46년 UN 원자력 위원회에서의 일이었다.

당시로서는 원자력이라는 것은 소수의 원자폭탄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이의 기술 또한 미국 한 국가에만 그 개발이 가능하였었다.

원자력 국제관리에 있어서 핵의 독점을 유지시키려는 미국과 이에 반대하고 나선 소련과의 사이에서 비롯된 냉전의 발단이 바로 이것이다.

그 후 1949년 소련이 원자폭탄을 보유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영국.프랑스 등이 핵보유국으로 속속 등장하게 되었으나 핵병기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냉전의 극한은, 핵보유국이 다원적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초에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

미.소는 군축문제에 핵문제를 연관시켜 그 해결에 노력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서로 군비확충 경쟁을 벌인 결과가 된 셈이다.

당초는 20킬로톤의 원자폭탄이 크게는 수십 메가톤의 수폭으로부터, 작게는 야전용 소형전술핵병기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으로 개발, 실용되기에 이르렀고, 현재 미.소 두 나라만이 보유하고 있는 총 핵 파괴력을 생각만 해도 가공스러운 지경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이 핵폭탄을 적지까지

운반하는 무기체제도 당초에는 마음속 폭격기였던 것이 차차 초음속 폭격기로 발전해 갔을 뿐만 아니라, 탄도 병기 자체가 잠수함에 탑재되어 수시로 적지 목표를 폭파시킬 수 있는 IRBM에 이르기까지 고도로 발달해 발달을 거듭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전자기술과 정찰위성과 궤도유도의 우주기술이 복합되어 오늘날의 핵전력은 2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실로 어마어마한 것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처럼 핵전력에 확충단계에 있어서 미·소간의 핵정책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볼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3. 정보화 사회와 기술시대

전후 25년간 급격히 변화된 국제 정세하에서 핵병기 기술의 눈부신 진보를 가져온 가운데, 오늘날 미·소는 1945년의 원자력 국제관리사상에 입각한 논리적 귀결로써 핵병기 보유국의 수적 증가 방지에 부심하고 있다.

핵방조약에 조인하는 것이 하나의 현상유지의 인식으로 본다면, 다음 문제는 핵방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이며, 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핵방조약이 규정하는 세계는 장래 얼마만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문제로 될 것이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핵전략에 관한 의미의 변화다.

오늘날 미·소가 현실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핵 전력의 규모를 고찰할 때, 여타의 나라가 원폭제작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그 전략적 의미는 극히 한정된 것에 불과하다.

「아랍」과「이스라엘」의 분쟁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국제적 효과를 가질런지는 모르나, 그래도 핵병기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극히 의문시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중간급 핵전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는 다만 정치적 선전효과를 갖는데 불과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만약 중공이 장차 미·소에 필적할만한 강력한 핵전력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 사상적으로 상이한 이질적인 입장에서 현재의 미·소의 핵지배체제를 충분히 뒤엎을 수가 있을 것이다.

금후 10년 혹은 20년 후에 있어서의 핵병기가 가지는 바의 군사적, 정치적 의미는 적어도 과거 25년간의 경우와는 대단히 다를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핵병기가“사용 안 되는 병기”로 되면 될수록 이의 전략적 효과는“시스템” 분석의 대상으로서만 평가되기 쉽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핵기술에 관한 것이다.

원자력 초기 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에 있어서 핵의 기술은 핵병기 개발기술을 떠나서 기술 그 자체의 본연한 자세로 돌아가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변혁을 일으켜 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테마는“군사기술의 응용”이라는 형태로 1950년 대부터 나타나 핵군축이란 난제를 던져주었지만, 기술개발 자체에 군사적 이용이라든가 평화적 이용을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구별이 확연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원자력은 병기 개발과 별도로 새로운 산업기술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화학변화인 연소에 의하지 않고 분열이라는 물리적 현상을 동력원으로 하여, 원자력은 우주와 해저에서의 전원과 원자 로켓 등에 있어서의 강력한 동력원으로 개발, 등장되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우라늄은 석탄과 석유에 비하여 수천 배의「에너지」를 갖고 있어 핵연자원으로, 중앙발전소 방식에 의한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 다량소비시대를 맞게 할 것이며, 1985년 경에는 미·일 등지에서 전현용 발전시설의 1/3 또는 1/4이 원자력 발전시설로 대체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원자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전자계층에서부터 시작된 실로 광범위한 현재 과학의 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함은 재론을 요치 않는 바로서, 미래사회는 정보화시대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즉 기술이 바로 정보의 일종이며 가까운 장래에 사회는 기술진보 여하에 따라서 그 성격이 정해질 것이다.

원자력 기술이 핵병기라는 범위를 벗어나 인류의 미래를 개척해 주는 산업 기술로서 그 실력을 발휘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곧 새 세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우주개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주개발과 그에 따른 전자계통 초소형「컴퓨터」, 새로운 재료 등은 군사적 의미를 떠나서, 새로운 기술시대를 상징해 주고 있다.

1980년대에 계획되어 있는 화성의 유인비행과 태양계의 제유성을 비행하여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을 방문하는 대 비행계획 등이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의의를 띄우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기술진보가 군사적인 의의와 관련, 정비례하여 한정되었던 전후의 일시기와는 달리, 기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어, 급기야 기술은 국가사회에서 정보화하였고, 과학 산업의 수준 여하가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핵방조약이 전후의 핵관리 교섭의 총결산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조약이 실제로 운영되는 것은 이러한 국제사회가 정보화 사회, 기술사회인 때 문이다.

4. 비핵국가의 안전 보장

조약 조인 전에 가장 논점이 되었던 것은

“만일 핵병기 보유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면 핵병기 국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는다는가 또는 핵 공격을 가하겠다고 하는 협박 공갈을 받을 경우의 안전 보장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하는 점이었다.

이런 경우 문제는 핵병기를 보유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평등하게 가지는 방 위권의 일부이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안전보장면에서 어떠한 보상을 치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환언하면 핵 방조약이 미·소 양 강대국에 의한 세계의 핵지배 체제를 인정하 는 것을 의 미한다고 한다면, 이 양대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 어떠한 방위 상의 보장을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미·소 양국은 각각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성명을 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 으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강력한 바람직한 것은 못되었다.

“핵우산”이라는 것이 생명 나무라기로 해결될 수가 없는 때문이다.

“핵우산”으로의 가입 및 탈퇴는 각각 그 나라의 자유선택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또 상호 대치하고 또는 상황하에서 제3국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 는 것이 상대국에 의한 핵보복을 유발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는 군사적, 정치 적, 심리적인 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다.

미·소의 공동이해와는 아무 관련없는 제3의 핵병기국이 나타나서 양핵지배체 제에 도전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핵방체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력한 잠재핵보유국인 서독·일본 등지 의 참여가 불가피한 것은 이 때문이며, 처음부터 핵방체제의 밖에 머물러 있 던 중공의 정치적 동향이 금후의 세계행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 도 이 때문인 것이다.

안전보장에 관한 한 핵방조약이 뜻하는 미·소 공존에 의한 세계지배가 금 후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관한 판단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서, 전략 병기 제한에 관한 교환(SALT)이 미·소 양국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이 때 문인 것이다.

미·소간의 상대적 핵전력의 균형에 관하여 일격이 있었던 소위「미사일 캡」세 대와 같은 오해가 아직도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분명치 않으나, 여하간 양국

간 핵전력의 수준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리만큼 방대하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현재 SALT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미사일 요격병기(ABM)와 다중독립핵탄두 (MIRV)인 것이다. 이 두 가지 병기는 전략핵의 능력을 급증시켜 소위「제1격 능 력」을 갖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만일, 미국의「미닛맨」소련의 SS9이 각기 MIRV를 장전하게 되면, ICBM의 목 표 정도의 향상과 함께 기존 핵전력의 파괴력은 3배에서 5배로 뛰게 되어 상 대방에 핵보복의 여력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제1격 능력으로 될 것이 다.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서는 강력한 ABM 방위가 필요하며 특히 MIRV를 달 고 있는 ICBM중 일부는 종래의 ICBM 수발에 필적하는 것이므로 여하히 하여 서라도 방위력을 강화하여 제2격의 보복 능력을 보유하여 상대방의 제1격 능 력을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MIRV와 ABM 외의 핵전력의 상 호「에스컬레이션」을 방지하는 문제와 종래 방식의 핵군축과 핵의 국제관리를 논하는 것은 상당히 차원이 다른 성격의 것이다.

그리고 미·소 이외의 다른 나라들 간에 있어서의 핵전력의 질적 상위가 줄 어들지 않는 범위에서는 미·소간의 SALT는 양국에 있어서 잠정적으로 유리 할 것이다.

핵군축을 논함에 있어서 도덕적인 측면이 있음은 당연한 일이지만 왕왕 이 도덕적인 측면과 정치상의 타협으로서의 핵방이 포괄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논쟁으로도 명백했듯이 핵병기를 금지한다는 도덕적 요청과 쓰 지 못하는 병기로서의 핵의 국제정치상의 의의와는 차이가 있다. 핵방조약 제 6조에 의하여 핵병기 보유국은 핵군축의 교섭을 성실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현실의 SALT의 동기로 되어 있는 것은 미·소 의 핵공존 지배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그 내용 또한 군축이라는 것과 먼 거리에 있는 것이다.

핵방조약이 정의와 동의어일 수는 없는 것이지만, 미·소 지배체제가 존속하 는 한 이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타의 각 국이 소규모나마 핵무장을 못한다는 것 은 여러 나라들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유리한 것이다. 국제정치의 전반적인 흐 름과는 관계없이, 일발의「폴루토늄」폭탄을 가진 미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에 대항할 유효한 수단을 어떻게 강구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여하한 극형 을 규정해 두더라도 이에 따른 처벌만을 가지고 유아유괴사건과 같은 공포 따 위를 완전 씻어버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미·소 체제 그것이 어느 한도까지 변모될 가능성이 :있느냐에 관해서는 의문이다.

5. 원자력 평화이용기술

핵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규모의 핵전쟁이 일어난 후에는 원폭사용 원흉을 탓하고 대들 어떠한 수단도 소용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은 어디까지나 쓰지 못하는 병기로서 취급되고 있으며, 또 그러한 야 할 것이다.

미·소의 핵지배 체제가 붕괴된다고 하면 그 과정에는 세 가지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하나는 예컨대 중공처럼 사상적으로 전혀 이질적인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 둘째로, 세계 대다수 나라가 핵전력을 보유하게 되어 미·소의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는 교란 상태가 온다는 것, 셋째로 핵병기가 국제정치 무대에서 가장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케 하는 요소적 성격을 지양하고 여타의 나라에도 동등한 발언권을 확보케 하는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미·소가 핵을 배경으로 하여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정치적 지배력을 점차로 상실케 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빨리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이 시점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중공이 핵탄두라든가 동운반체제 등에 있어서 미·소와 대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 아직껏 중공문제 전문가 사이에 있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 기술, 산업 분야에서 생각한다면 미·소에 훨씬 뒤진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으나 미·소 양국을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의 핵전력은 어느 정도 개발한 것 같다.

한편 세계 대다수 나라가 핵병기를 저마다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핵방체계의 유효성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란 불가능한 일로써, 이 문제는 차원을 달리하여 기술적인 면에서 살려야 할 것이다.

핵병기의 제조 및 보유의 금지가 새로운 산업기술분야에 있어서 그 진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핵방조약 제4조는 특히, 원자력 평화이용과 그것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하여 각국의 고유한 권리를 저해치 말 것을 명기하고 있다.

원자력 평화이용의“테마”를 세계적으로 부르짖기 시작한 1953년경부터 근 10여년에 이르는 동안 미·소 양 핵강대국은 각기 세력권 외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원자로 기지의 설비를 제공하고 기술자를 훈련하는 등의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 왔다. 오늘날 원자로 기술이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 전파되어 급기야는 핵병기 확산의 우려가 짙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미·소의 경쟁과 노력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핵의 평화적 이용기술이 강조되어 세계적으로 개발되어가고 있는 이 면에는 산업과 정치상의 이해판단이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정보확산의 형태로서는 소위 기술 도입계약에 의한 것, 국제간의 공동연구개발에 의한 것, 기술원조의 형태를 통한 것 등이며 그 어느 것이나 금후 사태에서의 역할은 중대 일로를 치달릴 것으로 본다. 특히 기술원조는 강대국에 의한 세계지배의 전망의 의미를 포함하여 소위 남북문제라는 정치적 문제의 하나로서 더욱 중요성을 띄우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세계 각국에 있어서 핵병기를 보유하기 위해 잠재적 기술 능력을 서서히 개발 증가시켜 나간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 같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다만 그러한 기술능력을 획득한 나라가 그것을 어떠한 목적에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결국 핵전력은 쓰지 못하는 병기로서 군사적 의의를 갖기보다는 국제정치무대에서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6. 핵방조약과 기술격차

금후 세계에 있어서 원자력기술의 발전을 운위하는 것 자체가 핵병기의 보유 그것만으로도 중대한 의의와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는 논지를 명백히 세워두고, 이 입장에서 핵방조약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핵방조약과 원자력기술과의 관계에서 볼 때 원자력 산업계라고 하는 특정업계의 이해가 중심인 것 같은 언급이 많고 또 그러한 그릇된 입장을 주고 있는 감이 있으므로 이 점을 명백히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핵방조약은 국가간에 있어서의 핵전쟁의 상대관계를 고정시켜 주기 위한 하나의 정치상 현상유지조약인 것으로 본다.

핵기술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개별규정을 두어, 이것이 도리어 국가 간의 기술격차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없지 않으나 기술이라도 성질상 일단 고정된 기술격차는 이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힘이 움직이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확대되는 습이다.

그리하여 최후에는 핵병기국과 비핵병기국간에 넘을 수 없는 기술격차를 낳게

되어 세계를 기술의 1등국과 2등국으로 나뉘게 할 것이다.

핵방조약이 핵병기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목적을 이룩케 하며 자국 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부단한 감시 감독을 게을리 말아야 하며 조약운영 기구 중에 그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핵방조약은 비핵병기국이“핵병기 또는 기타의 핵폭발 장치를 제조 보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근대의 기술개발로 미루어 볼 때 제조 보유의 금지도 연구개발 자체의 금지와 같다.

그러나 원자력 평화이용의 기술로서 오늘날 많이 알려져 있는 분야는, 핵병기국이 병기개발의 과정으로서 이룩한 것이 많으며, 따라서 핵병기국과 비핵병기국 사이에 큰 기술격차를 낳게 한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금지규정이 원자력 기술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는 중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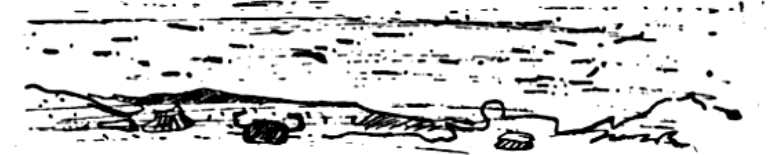
이렇게 볼 때 기술격차의 확대를 방지하는 유효한 수단은 원자력 기술정보의 교류를 상호 자유화하여, 핵보유국이 핵병기와 핵폭발장치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한 평화이용기술을 자유로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기구를 정비하고 공동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도록 본 조약상의 제약을 될수록 배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기술이 중시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핵방조약의 체제가 장래에 대하여 어떤 성질의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 줄 것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명제일 것이다.

박대통령 문언록에서

◇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은 신의 섭리요, 인간의 본래적인 의지인 것이며, 엄연한 역사의 교시이다.

◇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행하면서 동시에 배우지 않으면 그 천품은 결코 낡고 뒤떨어지고 만다.



바닷가 소묘

백영수

은싸라기 금싸라기 위로 까만 례가 마치 산책이라도 하는 것처럼 제각기 멧을 부리고 있다.

고급 동물처럼 경치를 찾아서 무언가 속삭이는 가슴엔 정열 같은 거품을 품는다.

아마도 열렬한 사랑을 고백함이 틀림없다.

이런 풍경은 여기저기 놓여 있는 조개, 소라, 고동껍질들의 역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랜 전설을 말하고 있다.



바다의 역사는 백사장인 바닷가에서 볼 수 있다.

조개나 소라, 고동들이 바닷가 파도에 씻기어 모래알이 되기까지엔 수 백 년을 걸릴 것이고, 진주처럼 윤이 나기까지엔 헤아릴 수 없는 파도에 씻기어 바다의 역사가 되고 있다.

바닷속 깊이 잠겨 있던 전설도 파도에 밀려 모래사장에 달는다.

여인이 인어가 된 이야기도 바닷가에 밀리어 마침내 백사장에 나타나고 있다. 거기엔 그녀의 머리빛이니 가락지 같은 것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열쇠도 파도에 밀려 금싸라기 은싸라기 위에 놓여 있다.

낙하산 구조사의 길

김 종 익 <역>

낙하산 구조사 (Pararescue man) 를 열망하는「로이·W·테일러」공군 일등병이 지난 2월 세번째로「플로리다」주에 있는「에글린」공군기지에 나타났을 때 그를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곳「낙하산구조 및 회수요원 양성학교」에 있는 모든 장병들은 이 키 크고 훌쩍하며 말없는 젊은 사병이 이곳에 또 온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몸이 다 나왔나?」

이 학교의 선임 하사관인「리노트 비게어」선임상사의 질문에「테일러」일병은 자신 있는 어조로 대답했다.

「전보다 배나 몸이 좋아졌습니다. 이번엔 꼭 해내겠습니다。」

「비게어」선임상사는 속으로 그의 행운을 빌고 있었다.

뜻밖의 불운이 닥쳐오지 않는 한 당년 20세의「테일러」일병은 4월이면 하나의「PJ」(Pararescue Jumper=낙하산 구조사의 별명으로 미 공군에서 사병들의 스타로서 인기가 높다)가 되는 꿈이 실현될 것이다.

그는 전에「텍사스」주 소재「다이스」공군기지의「텔레타이프」기술병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낙하산 구조사를 동경한 나머지 특기를 바꿀 생각이 났던 것이다.

그는「PJ」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고, 이것을 상부에 제출, 허락을 얻는데 6개월을 소비했다.

다음「에글린」기지에 있는 학교당국으로부터 점프「스쿠바(잠수)」, 생환훈련 등을 받기 위한 예비단계로서 신체적성 훈련에 참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 후 수개월에 걸쳐 그는 점프, 수영, 스쿠바, 생환훈련에다가 의무요원 교육까지 마쳤다. 그는 다시「에글린」기지로 되돌아와서 12주 코스의 최종 훈련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이 교육을 무사히 끝내면 하나의「PJ」로서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테일러」일병의 부푼 꿈이 깨져 버렸던 것이다.

「나는 여기서 4회의 점프를 무사히 끝냈는데 그만 졸업을 3주 남겨 놓고 수목 위에 낙하하는 훈련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테일러」일병은 당시를 회상해서 말한다.

그가 비행기에서 점프했을 때 낙하산을 펴는 고리가 뒤틀려 있었고 헬멧트의 「바이저」에 김이 서려 시야가 흐려 보였기 때문에 목표물을 잃어버리고 뒤죽박죽으로 진흙구덩이에 처박혀 버려, 골반에 두 군데 금이 가고 그 밖의 여러 곳에 부상을 입었던 것이다. 그는 즉시 기지 병원에 운반되어 5주일을 보낸 다음 요양 차 30일간 집에 가 있게 되었다.

그는 조심스럽고 완전하게 자기의 컨디션을 회복시켜서 4개월 후 두번째로 「에글린」기지의 학교를 찾아왔다.

훈련은 먼저 때와 마찬가지로였지만 그에게는 더 힘들어 보였다. 나중에 그는 「나는 내 몸이 완전히 견딜 것 같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다」고 솔직히 털어 놓았다.

「테일러」일병의 두번째 불운은 육군 「레인지」학교에서의 마지막 코스를 밟는 중에 일어났다.

「나는 30피트의 절벽을 올라가는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만 다시 부상하고 말았습니다.」

「테일러」일병은 정말 침통한 얼굴이 되어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먼저 번 보다 더 긴 자택요양을 한 후 이번에는 「다이스」기지 근무 명령을 받고 6개월 동안 「텔레타이프」를 만지며 마음을 달랬다. 그 동안에도 「테일러」일병은 걷고 달리고 헤엄치고 불평을 늘어놓으면서도 신체를 단련시키는 데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세 번째로 「PJ」로의 길에 도전할 전략을 짜고 있었다.

결국 그는 일년 후 그다지도 갈망했던 「PJ」가 되었지만 이런 완강한 정신력은 대부분의 낙하산 구조사가 가지고 있으며 또 갖도록 키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다니는 이 학교에서는 보통 이상의 왕성한 원기와 함께 포기에 대학 완강한 저항을 요구하는 것이다.

만약에 낙하산 구조사를 원하는 사병들이 모든 예비단계 과정을 통과해서 낙하산 구조사의 훈련을 받을만한 적격자로 인정이 되면 그들의 명단이 「에글린」기지로 통보된다.

그곳에서 그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훈련을 받게 되는데 아직도 풋내기인 그들에게는 10주내지 12주 코스의 이러한 훈련을 견디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즉 그들이 진정으로 「PJ」가 되고 싶어 한다는 신념을 스스로 갖게 되기까지는 대부분의 지망자들이 이 훈련에서 탈락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훈련 기간 동안에 그들은 낙하산 구조사라는 것은 결코 훈련을 중지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설새 없이 한 과정에서 또 다음 과정으로

훈련을 계속하며 모든 학과와 씨름을 하게 된다.

이렇게 수많은 교육과 훈련을 거치는 사이에 그들은 하나의 특기를 가진 완전한 낙하산 구조사가 되는 것인데 그간 그들이 이수해야 되는 정규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낙하 훈련 과정 (「조지아」주의 「포트 베닝」에서의 3주)
- ② 「스쿠바」과정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에 있는 미 해군 잠수학교에서의 4주)
- ③ 의료과정 (「텍사스」주 「세퍼트」공군 기지에 있는 의무학교에서의 4주)
- ④ 생활과정 (「위싱턴」주 「페어 차일드」공군 기지에 있는 생활학교에서의 3주)
- ⑤ 낙하산 구조과정 (「에글린」공군기지에 있는 낙하산구조 및 회수학교에서의 마지막 12주 코스. 이 과정에는 「조지아」주 「달로네가」에 있는 미육군 등산학교에서의 10일간 코스도 포함된다.)

낙하훈련에서는 최소한의 장비를 몸에 지닌 4회의 점프가 포함되며 완전 장비와 총기를 갖춘 점프가 「포트베닝」에서 1회 추가된다.

그다음 「에글린」에 있는 학교에서 12회의 점프가 실시되는데 들판과 수목 위, 해상 점프 등을 말하는 것이다.

피 교육자들은 통상 「포트베닝」을 떠날 때쯤 해서는 낙하산 흉장을 달게 되지만 여러 가지 타입의 점프를 총 17회 이수해야만 작전 수행능력이 있는 하나의 완전한 낙하산 구조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거의 일년이나 늘어 보이지만 결국 최종 코스를 이수하여 수료증을 받는 동시에 적갈색 베레모와 낙하산 구조사의 배지를 달게 되며 교관으로부터 마지막으로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악수를 받게 된다.

이때 그들은 최후로 점프화 속으로 낙하산 구조사의 유니폼 바지 끝을 잡아 넣고 구두끈을 조이는 의식을 갖게 되는데, 교관은 「자-, 이제부터 자네들에게 고생문이 열렸네.」하고 농담을 던진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도 옛날의 풋내기 피교육자는 아닌 것이다. 자신만만하고 도도한 눈초리로 「고생은 우리들의 상징이며 영예입니다.」라고 교관의 농을 받아 넘기는 것이다.

미 공군에서 낙하산 구조사는 사병 2,550명중 한 명이 되는 셈이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약 300명의 낙하산 구조사 가운데 약 125명이 동남아시아에서 구조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외의 낙하산 구조사 들은 「캘리포니아」, 「뉴 햄프사」, 「플로리다」, 「하와이」

주 등과 유럽, 태평양, 동남아시아 지구에 분산되어 있는데 모두「항공우주 구조 및 회수부대」에 속해 있다.

그들의 임무는 무척 다양하고 활동지역도 무척 넓다.

그들은「케이프 케네디」에서 쏘아 올리는 유인 또는 무인 우주선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장소에 대기하는 임무에서부터 북극지방 또는 월남지역에서의 공중구조 임무, 또는 눈덮인 아리조나 인디언부락에서부터 이태리의 알프스지방, 일본의 어촌에서부터 필리핀의 화산 폭발지역에 이르기까지 긴급한 항공후송 작전을 수행한다.

이렇게 다양하고도 벽찬 임무를 수행하는 그들은 물론 혼자 비행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경우라도 그들은 한「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조종사와 부조종사, 항법사, 정비사 등의 항공기 승무원들과 같이 한「멤버」를 이루고 있으며 어떤 때는 다른 낙하산 구조사가 동행하기도 한다. 극적인 구조작전에서의 이들 각「멤버」는 각기 훌륭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비게어」선임상사는 낙하산 구조사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조난한 생명을 구하는 하나의 손이지만 그 손은 팔(승무원)의 일부 분으로서 팔과 손은 똑같이 신체에 붙어 있는 것으로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신체란 바로 항공우주구조 및 회수 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낙하산 구조사는 능력 면으로 봐서 30년간을 이 임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이 기간동안 실제 구조작업에는 한 번도 참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구조 작업에 필요한 하나의 기계적 부분임에는 틀림없는 것입니다.

「구조」라는 것이 낙하산 구조사들에게는 수많은 시간과 난관을 극복하고 교육받은 기본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막대한 투자에 대한 보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조에 나서서 성공적으로 생명을 구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들은 자기에게「슬로트머신」에서의「잭팟」이 터졌다고 말합니다. 즉 행운의 수뢰바퀴가 자기에게 굴러와서 자기를 승리자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밀튼C-월리엄」상사가 인명 구조의 드릴에 대해 설명한다.

항공우주 구조 및 회수본부의 훈련 담당 선임하사관인「월리엄」상사는 월남에서 있던 3회의 독립작전에서 9명을 구조해 낸「팀」의 일원이었다.

그 구조「팀」은 첫 번째 출동에서 5명,

두번째는 1명, 세번째 출동에서 3명을 구해냈던 것이다.

월남에서 총 128회를 출동한 가운데「월리엄」상사는 3회의「잭팟」을 터뜨렸는데 나머지 125회의 출동은 아무 성과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낙하산 구조사 경력 16년의「베테랑」이며 영예의 비행십자훈장, 비행메달을 받은 바 있는「월리엄」상사는「모두들 매 회 출동시마다 성과를 바라지만 단 한 명만 구해내도 그간 구조사로서 겪었던 고생과 희생의 기억이 말끔히 사라져 버린다」고 말한다.

다음에 운 좋게도 아주 일찍「잭팟」을 터뜨린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1963년 당시만 해도 보급하사관으로 있었던「엘드리지M·닐」중사(26세)는 2년 전 월남 「다낭」공군기지에 잠시 파견되었던 중에, 피격된 항공기에서 탈출하여「통킹」만에 떨어진 미공군 조종사 2명을 구해내는 작전에 운 좋게도 참여했던 것이다.

「닐」중사는 당시를 회상에서「우리가 타고 왔던 HU-16 구조기가 바다에 떨어진 한 조종사로부터 약 100야드 떨어진 곳에 착수했을 때 나는 즉시 물에 뛰어들어 그에게 로프를 매고 구명보트를 가라앉힌 다음 돌이서는 비행기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다음 약 200야드 떨어져 있던 다른 조종사에게 활주해 가서 그마저 건져냈는데 이때 육지에 있던 적의 박격포 공격을 해왔습니다만 우리가 착륙해서 두 사람을 구조하여 이륙하기까지는 불과 몇 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는 월남에서 117회의 출동을 했고 드디어 영광스런「수훈비행십자훈장」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일은 참으로 환상적이기도 합니다. 절대로 실증도 안 나구요.」

「닐」중사는 얘기를 계속한다.

『여기에는 항상 새로운 임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장비가 채택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비행 승무원들과 같이 일을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그의 근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는「제미니 8호」우주선의 회수 작전에도 참가했었다.

1966년 우주인「암소트통」과「스코트」가 태평양상에 착수했을 때 제일 먼저 날아간 3명의 구조사 가운데서「닐」중사가 최초로 우주선의 문을 열고 우주인과 대화를 나누었으며 우주선이 떠 있도록 구명대를 달았다.

이때의 임무가 그로서는 인생 중 가장 기념할 만한 일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 제2의 무공 훈장급에 속하는「공군십자훈장」(Air Force Cross)을 수여 받은 2명의 용맹한 낙하산 구조사의 얘기를 들어 보자.

그 한 사람은 미공군 사병 중 최초로 이 훈장을 받은「윌리엄H.핏센버거」일 등병인데 이것은 그의 사후에 추서된 것이다,

이 젊은「PJ」는 포위망 속에 갇힌 일단의 육군 소대원들을 구출하기 위해 헬리콥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가다가 적의 총탄의 맞았던 것이다.

또 한 사람「듀안-하크니」하사는「공군십자훈장」을 받은 최초의 생존한 미 공군 사병이 되었다.

당년 20제인「하크니」하사는 적지에 추락된 전투기 조종사를 구해내는 임무를 띠고 로프를 타고 내려가서 부상한 조종사를 찾아내는데 성공하여 둘이는 HH3E 헬리콥터에 끌려 올 려 졌다.

그러나 그 순간 적의 37밀리 대공포에 헬리콥터가 명중되어 기체에 불이 붙자 재빨리「하크니」하사는 구해낸 조종사에게 자기의 낙하산을 입혀주고 자기는 다른 낙하산을 꺼냈다.

바로 이때 그가 탄 낙하산을 완전히 입기도 전에 또 한 발의 고사포탄이 헬리콥터에 명 중하여「하크니」하사는 심한 충격에 문밖으로 떨어졌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어 정글 위 불과 200피드 높이에서 겨우 낙하산을 폈으나 높은 나무위에 걸리고 말았다. 그 순간 헬리콥터는 지상에 추락하여 폭발해 버리고,「하크니」하사는 왼팔과 잔등에 심한 찰과상으로 출혈이 심한데도 사력을 다해 낙하산을 벗고 땅으로 떨어져 의식을 잃고 말았다.

30분 후 다른 구조사에게 구출되어 태국에 있는「나콘-페놈」기지에 후송되었을 때까지도「하크니」하사는 의식을 차리지 못했는데 시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가 산 것을 알고 황급히 의사를 부르는 소리에 기적적으로 깨어났던 것이다.

갈색의 머리털을 뺏뺏 밀어버린 이 병사는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극복했는데 동남아시아에서만도 200회의 출동기록을 갖고 있다.

이중 몇 번은 자원해서 헬리콥터에서 뛰어 내려 실종된 조종사를 구해내기 위해 정글을 뒤진 일도 있다.

너무 어려서 투표권이 없는 이 병사는 이와 같은 용감한 활약은 은성훈장, 수훈비행십자훈장, 공군 메달 등 많은 훈장을 받았으며 1968년도「미 공군 공수 사령부의 용사」로 선발되기까지 했다.

항공우주 구조 및 회수부대가 이룩한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는 인명을 구조하는데 있는 것으로 1964년과 1965년 사이에 410명, 1966년에는 616명, 1967년에는 945명, 1968년에는 1,027명을 구해냈다.

이 숫자는 동남아시아에서만 십수개

비행단을 구성하는 조종사를 구출해냈다는 얘기가 된다(1개 비행대대가 통상 25명의 조종사로 구성되며 3개 대대가 1개 비행단이 된다.)

반면에 항공우주 구조 및 회수부대 소속 낙하산 구조사도 조종사 매 32명마다 1명씩 희생된 셈이다.

이 구조팀은 저마다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현재 동남아시아에 전개된 전투조종사들로부터 굉장한 신뢰와 찬사를 받고 있다.

물론 낙하산 구조사 들이 남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존경을 받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아니지만「핏센버거」나「제크니」같은 영웅적 행동은 구조사 들의 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공헌한 것은 사실이다.

70년대의 낙하산 구조사들은 40년대, 50년대의 구조사들이 이룩해 놓은 전통을 서서히 고생을 해가며 물려받은 것이다.

최고 고참인「니콜라스-크리미스」특무상사는 이 전통에 대하여 이렇게 설정한다.

급년 45세로 강인한 인상을 풍기는 그는 아주 부드럽고 사색적인 어조로「2차 대전 직후 낙하산 구조사 들은 모두 해외 근무 경험이 있었고 그들은 공군 구조 분야에 확고한 위치와 명성을 구축했습니다. 그 당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독특한 낙하산 구조사의 이미지를 풍기고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신병이 어떻게 그 전통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인가를 항상 염려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배들도 역시 멋진 놈들입니다. 그 애들은 우리들이 세워 놓은 전통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할 줄 알 뿐만 아니라 그 전통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4,50년대의 선배들이 해놓은 빛나는 활동에 어긋나게 하는 법이 없으며 오늘날 그들이 월남전에서 이룩한 쟁쟁한 업적은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1948년에 낙하산 구조사의 길을 들어서서 이제까지 550회의 점프기록을 갖고 있는「크리미스」상사는 또「노병들 역시 구조사로서의 일선 임무에서 물러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사령부에서 지상 근무로 돌리려고 하지만 한 번 일선 임무에 발을 들여 놓으면 결코 후방근무로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고 덧붙인다.

동남아시아에 배치되어 있는 낙하산 구조사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낙하산 강하나 잠수 활동을 할 기회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구조작업은 헬리콥터나 다른 구조용 항공기에 의해 추락지점 근처에 착륙하거나 공중을 선회하면서 수행되고 있다.

때문에 낙하산 구조사들은 일년 내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거나 잠수 활동을 할 기회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근무가 아닐 때면 모든 낙하산 구조사들은 다음의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것이다.

- ① 500야드와 1,500야드의 잠수를 겸한 수영.
- ② 70피드와 130피드의 잠수 훈련
- ③ 4시간 이상을 지탱하는 전술해양 훈련.
- ④ 72시간 이상을 지탱하는 전술 야영 훈련.
- ⑤ 6회의 들판, 수목 위, 해상의 점프훈련 (낮과 밤에 각각 1회씩)
- ⑥ 12시간 특수 의료훈련
- ⑦ 3시간의 해저 잠항훈련
- ⑧ 통신, 독도법, 등산훈련
- ⑨ 지상 및 공중 항법훈련
- ⑩ 나무 오르기 훈련
- ⑪ 추락지점에 접근하는 방법
- ⑫ 낙하산 접는 법
- ⑬ 계속적인 신체단련 훈련

사실 동남아시아에서 항공기를 타고 공중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낙하산 구조사들에게는 이 모든 훈련을 다 해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앞선 근무에서 비전투부대로 돌아오게 되면 그가 세계의 어느 곳으로 가게 되더라도 그에게는 곧 이상과 같은 훈련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들의 실력을 잘 유지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다.

한 개의 구조팀을 구성하려면 평균 400명의 지원자가 쇄도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신체 적성검사에서 떨어지고 실제 낙하산 구조사 훈련이 시작될 때면 20~25명밖에 남지 않는다.

이들이야말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표준 수준에 합격한 사람들로 볼 수 있다.

이들 중 몇몇은 의과대학 중퇴자도 있고 병원계통에 있던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고난에 빠진 사람을 돕겠다는 사명감이 강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구조 정신이 더욱 강하게 일어난다.

낙하산 구조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숙련된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의료기술인 것이다.

대부분의 구조사들은 이 의료기술을 익히기 위해 한 번씩은 후송병원이나 지병원에서 의과 조수나 의료기술자로서 일을 배운다.

또 다른 기술로는 낙하산 점프, 잠수, 등반, 생환기술 등 수없이 많지만 이것

이 다 한 가지 목적, 즉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배워지는 것이다.

만일 그들이 사막이나 바다에 추락된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 낙하산을 타고 내려야 할 경우 또는 산에서 부상한 스키 선수를 구조해야 할 경우라면 그 조건에 맞는 장비와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이며, 그 자신이 헬리콥터에서 줄을 타고 정글로 내려갔다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될 때라도 그는 다른 구조사가 와서 구출해 줄 때까지 혼자 고생을 견디는 법을 이미 익혀두고 있는 것이다.

낙하산 구조사 들은 확실히 영예와 흥분과 모험과 드릴에 찬 일을 하고 있다. 낙하산 구조사 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위기라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래에 닥쳐올지 모르는 아주 불가능할 것 같은 도전에도 대응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가능성 없는 일에도 선뜻 나설 용기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낙하산 구조사가 가야 할 길인 것이다.

편집 후기

○……11대 참모총장에 김두만 대장, 참모차장에 육만호 소장이 취임하셨다. 두 분께선 모두 우리 한국전사를 길이 빛낼 혁혁한 공을 세우신 전투 조종사이며, 명 항공지휘관으로서 존경을 받는 분들이다.

우리 공군장병들은, 백전백승의 강한 정신력을 지난 정병장군으로서 성스러운 사명감을 재인식하고 더욱더 영공수호에 전력을 다해야겠다.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민족 중흥기에 선 우리의 좌표」를 꾸며 보았다.

바야흐로 민족중흥을 위한 전환점에 처한 우리들이 차츰, 자립, 자주적, 생활태도 확립을 위해, 인식하고 실천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김팔봉, 유홍렬, 김재준, 송기철, 임명방 씨 등의 집필진들이 제시해 주었다. 일독을 권하고 싶다.

○……유난히 높은 불쾌지수를 동반하던 장마가 겨우 견뎠다.

이젠 또 섭씨 34도의 습기뿐 삼복 더위와 싸워야 한다.

폭양 속에서 주먹같은 땀을 흘리며, 그래도 환한 표정으로「공군」을 받아 불 장병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더위를 잊는다.

○……정훈 간행물 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던 김예목 문관님이 정년으로 공군을 떠나게 되었다.

떠나는 분의 행복과 건투를 비는 마음 간절하다.………〈회〉

참모차장에 옥만호 장군 취임

공군참모차장 옥만호 소장의 취임식이 8월 3일 공본 강당에서 김두만 참모총장을 비롯한 본부참모 및 전장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정 병 강 군-

-임전태세확립-





인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